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8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남원읍 수망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2. 제보자 일생	21
3. 발일	41	4. 들일	72
6. 의생활	85	7. 식생활	113
8. 주생활	144	9. 신앙	173
10. 세시풍속	175	11. 놀이	199
12. 통과의례	219	13. 민간요법	255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275		

제2절 어휘

1. 인체	280	2. 육아	287
3. 친족	293	4. 의복	297
5. 음식	302	6. 가옥	311
7. 생업	316	8. 수와 단위	328
9. 민속	331	10. 신앙	334
11. 자연	334	12. 동물	341
13. 식물	351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남원읍 수망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김상옥 (남, 1937년생)
김두천 (남, 1934년생)
현금옥 (여, 1934년생)
김승남 (남, 1940년생)
오경수 (여, 1940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김상옥	01:05:53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1)	김상옥		○
	구술 2. 제보자 일생(2)	김두천 현금옥	00:22:42	○
3. 밭일	구술 3. 밭일	김두천 현금옥	01:06:56	○
4. 들일	구술 4. 들일	김두천 현금옥	00:30:31	○

5. 바다일	×	×	×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김두천 현금옥	00:59:51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김두천 현금옥	01:02:33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김상옥	01:20:10	○
9. 신앙	구술 9. 신앙	김두천 현금옥	00:04:47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김두천 현금옥	00:57:29	○
11. 놀이	구술 11. 놀이(1)	김두천 현금옥	00:07:10	○
	구술 11. 놀이(2)	김승남 고신화	00:43:51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김두천 현금옥	01:18:33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김두천 현금옥	00:46:50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김두천 현금옥	00:10:20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1)	김두천 현금옥	00:51:25	○
	어휘 1. 인체(2)	김두천 현금옥	01:16:46	○
	어휘 1. 인체(3)		00:30:11	
	어휘 1. 인체(4)		00:35:49	
2. 육아	어휘 2. 육아(1)	김두천 현금옥	00:20:22	○
	어휘 2. 육아(2)		01:00:14	
	어휘 2. 육아(3)		00:52:00	
3. 친족	어휘 3. 친족	김두천 현금옥	01:08:38	○
4. 의복	어휘 4. 의복(1)	김두천 현금옥	01:16:11	○
	어휘 4. 의복(2)		00:34:41	
5. 음식	어휘 5. 음식(1)	김두천 현금옥	00:18:54	○
	어휘 5. 음식(2)		00:30:48	
	어휘 5. 음식(3)		00:27:14	
	어휘 5. 음식(4)		01:19:15	
6. 가옥	어휘 6. 가옥(1)	김두천 현금옥	00:25:41	○
	어휘 6. 가옥(2)		01:22:19	
	어휘 6. 가옥(3)		00:23:50	

7. 생업	어휘 7. 생업(1)	김두천 현금옥	02:55:11	O
	어휘 7. 생업(2)		00:47:54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김두천 현금옥	00:42:52	O
9. 민속	어휘 9. 민속	김두천 현금옥	00:50:16	O
10. 신앙	어휘 10. 신앙	김두천 현금옥	0:14:50	O
11. 자연	어휘 11. 자연	김두천 현금옥		O
12. 동물	어휘 12. 동물(1)	김상옥	00:36:32	O
	어휘 12. 동물(2)		01:18:04	
	어휘 12. 동물(3)		00:07:51	
13. 식물	어휘 13. 식물(1)	김상옥	00:47:23	O
	어휘 13. 식물(2)	현금옥	01:40:07	
	어휘 13. 식물(3)		02:30:58	
	어휘 13. 식물(4)		00:36:48	
	어휘 13. 식물(5)		00:12:19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최연미, #1: 현금옥, #2: 김두천), (8. 주생활 #1: 김상옥)

1. 조사 마을

101001 @ 어……, 아까 저 말씀 드렸지예? 그……, 조사 마을을 제가 지금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뭐. 여긴 수망리고예.

101001 #1 예.

101001 @ 수망리에서 이 수망리 마을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삼촌이 아는 대로 고라줍서.

101001 #1 에…… 지금 제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80을 바라보는데 그 마을 유례에 대해서 예, 제가 옛날 조상님들한테 들은 거 또 제가 아는 거 그걸 중심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001 @ 예.

101001 #1 이 수망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에 요즘 시대에는 신세대, 이 수도가 이거 물이 좋아가지고 아무데서나 사람을 거즌해서 물을 먹었었는데 옛날에는 물이 어려워가지고 옛날 거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도 강 농사짓고 저기도 강 농사짓고, 허다보니까 이게 그때 수망리라는 것은 아니고 이디 보니까 이 영아리 앞에 실리레 다니다보니까 좀 농사도 지을 만허고 보니까 특히 물이 좋더라 이겁니다. 이 물은 이 저 하천, 하천이영 물이 보니까 물이 한 서너근뉘 물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 그럼 여기 에 사람이 살만하다 해가지고, 그때 소식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락을 이뤘다 그래요. 이게.

101001 @ 저 제주도 말로 고라줍서예.

101001 #1 예. 물이 그렇게 즈니까, 아 이거 여기서 우리가 여름에 농사짓다그네게 저녁 때 이제 몸 김구저 허면 아 가까운디 강 목욕도 허고, 뭐 집에서 몸도 김앗서서 그자 내창에 물 가까운디 가그네 모욕하고 몸 김기가 가깝고 여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게 동네 일름을 지어야 할건디, 그때는 동네 일름을 에, 맨 처음에는 수망리라 안하고 물아, 물, 물이 이따해고, 물아, 무라, 또 어떤 사름은 물 우라, 이렇게 이름 불러 오다가, 에 일제 말 후에 아 일제시대 부터 아마 그때는 아마 그 글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물 이건 물을 중심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해시니깐 물 수자를 해가지고 마을 이름을 짓자 이가지고, 게 물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네다. 게 경해가지고 수망리라 이렇게 아마 그 물 수자 하고 바랄 망자하고 마을 리자 해가지고 수망리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계게 그러 후에도 이 한 메칠 가뭄이 계속 되면은 이 인근 마을에서 물이 없어가 지고 그때 허벅으로 물을 저다 먹을 땀디 허벅을 저가지고 수망리 내창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고, 또 목욕 허레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이 신흥리 요 내 사름덜은 수망리 내창에 완 목욕하고 허영 가는 걸 우리가 보고 헛는데, 그때도 저희가 여기 살 때고, 그 물이 여기 바로 문지수라는 물이 잇는데, 물이 아주 컷어요. 컷는데 거기 오라그넝에 모욕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나고, 또 그 옆에 먹는 물이 잇는데 그 물 길에 에 여자분들은 와가지고 그 옆에 모욕하고 갈 때는 허벅에 물 질영 가고 하는 걸 우리가 봐수다. 이게 그게 이저 그게 수망리 유례가 된거 같고, 그렇게 그럭저럭 허다보니게 계산헤버는게 수망리 역사가 한 육백년 이상 됐다고 허는 겁니다. 게 그거 기록에 의하면은 수망리에 맨 처음 에 설천헛 성씨가 경주김씨로 되어잇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수망리 사람이엔 살긴 살았는데, 어느 조상이고 어느 성씨가 와서 므너 정착헛느냐 한건 살기 시작헤난 거를 증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하다하다 보니까 경주 김씨, 제주도에서 제주서 입도 세 번째 아들이 수망리에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잇어가지고 걸로 수망리 설촌을 지금도 작 잇는거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씨가 가진 분이 바라보니까 경주 김씨우다. 저도 경주 김씨 자손입니다만은.

101001 @ 아 기구나 예.

101001 #1 에 그렇게 헤가지고 그 수망리를 지금까지 이루어가지고 에 지금에 와서는 수망리란 부락을 이뤄 현재는 이거 남조로 들도 뚫고 하니깐 수망리란게 어떤 부락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 수망리는 참 촌부락, 촌부락인데 아주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수다.

101001 @ 예.

101001 #1 많이 이서가지고 보니깐 뭐 이 웨지에 사람들이게 혼 번 와가지고 여기 감탄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뿔 사름이 와가지고 여기 저 그 대지를 구입 헤가지고 집을 지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가지고 지금 수망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101001 @ 예.

101001 #1 예.

101002 @ 이거에 그문 다음엔 어 이 수망리는 주로 어떤 성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헤서 들어오게 되엇습니까?

101002 #1 에 지금 수망리 성씨가진 사람들이 에 성씨가 경주 김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연주 현씨, 그거시 아마 대중으로 아마 살고 잇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니깐 그 성씨에 각 성씨에 대한 거 조상들은 어디서 어떻게 와서 수망리를 들어왔는지는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건 뭐 그 자손들이랑 이게 가서 물어보면은 어디 살다가 수망리 맨 처음 들어왔다는 것이 헛 거시다, 지금 기록이 잇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101003 @ 어 그러면 이 수망리 사람들은 주로 그 옛날에는 어떤 일 하명 살고

이서나수가?

102003 #1 에, 일이라는게 농사일이주. 일이라는게 농사일인데, 에 뭐 봄에는 아 봄에는 농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 쉼로 해영 쟁기로 행 밧 갈고, 또 한 음력 한 에, 5월? 5월 6월 달엔 보며는 농사를 짓기 쉬운데 무슨 농사를 지으느냐면 조농사. 조, 조금있다가 음력으로 한 7월달 되면은 모뎀. 이걸 오늘 말로하면 메밀이주만은. 뭐 또 여기 가까운디 밧이 없는 사람은 저디서 한 멍 산에 나가가지고 거 풀밭 개 간해가지고 거기다 뭐 피, 이런 뭐 저 산디, 산디라고 하면 요즘 말로도 거 저 벼 일종인데 케난 뭐 밧, 지금은 거 표준말로 밧벼라고 하는데, 산디, 그렇게 농사하고 농사 또 그 가을에는 거 거뒀들인 다음에는 또 보리농사, 보리농사하고 그 어간에 이시멘은 겨울에는 무신 걸 허민 집에서 거 멍석. 지금 멍석이렌 하든 지금 시대들은 거 뭇지 몰르지만은 지금도 멍석, 가끔 잇긴 잇는데 멍석. 멍, 방석, 그걸 뭇로 허냐면 거 산디쪽으로, 산디 쪽으로 해가지고 거 깨끗이 다듬어가지고 걸로 해가지고 다 여끄는 것이 멍석, 메, 방석 깔고 앉는 방석, 그런 거 겨울에 주로 만들고, 경허다그네 게 좀 날씨가 따뜻해정 해가든 또 다음 농사 준비허곡. 농사 준비는 뭐 냐든 밧디 나가서 밧담들 씨러진거 영 고쳐놓고, 뭐 풀도 뽑아주고, 이런 거 또 겨울에 또 소도 뎡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예 살아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뭇.

102003 @ 케민예, 그 다음엔 여기 수망리는 또 다른데하고 비교해가지고 특별하게 오름이라든가 케, 뭇 이런 것들이 잘도 많고 잘도 아름다운 곳들이 잇더라고 예?

102003 #1 예.

101004 @ 여기 수망리능 다른데 하고 비교해가지고 특별나게 오름들이라던가 내, 뭇 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잇더라고예? 여기는 오름이라든가 내창, 아니면 그 바위나 케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이신지 좀 고라줍서. 근데 굴명 예, 그냥 예 저 저한테 그냥 이야기 해주듯이 제주도 말로 ㄹ라줍서. 우리 제주어로 예.

101004 #1 에, 에, 수망리 수망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하듯이 내창이 좋으니깐, 내창에 굴 잇는 것도 내창 옆이 잇게 된거우다. 그것이 그 내창 옆이 보민 돌 이렇게 언덕진딘 보민은 거 잘 모른디 들어가보면은 뭇 굴, 에, 자그마한 것 ㄹ량은 굴, 좀 큰 건 보면 케, 또 케영도 곳고 고야 영도 하곡, 게 그런 것이 수망리 내창에 하 우다. 헌데 여기 우선 제일 큰 케는 그 영아리 물영아리 서넉편 내창에 그 황칠낭도고야, 황칠낭도 그 고야가 제일 크고 그 밑에 느려오민 거 또 아니민진 케야라고 잇는데, 그 케야도 크고, 그 밑에 내려가민 그야 존 것덜, 기자, 사람 기자 아잠시든 혼 대요섯 사람씩 게아니든 일곱, 헌 열 사람씩 그렇게 하는 고야. 그런 그렇게 고야 하수다. 그리고 굴 곶은 건, 뭇 건 조사험시든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건 뭇 굴 저 굴이엔 헌건 저 그자 돌 영 옆어저가지고, 뭇 영 사람 기여들영 앓을 수 잇는 덴 다 굴이엔 고르니까. 옛날 말로. 게 이젠 그 메칠 전에 제가 한번 그 누구영 곶 이 가그넝 뎡겨 보젠 헤그넝에 뎡겨 봤는디, 이 막 풀이 막 지금은 무성, 나무영 무

성혜부난 굴은 거러 그 가려전 잘 확인은 못허고, 궤는 옛날 그대로 이십디다. 뭇 큰 궤는 보난 이서가지고 관 보니깐 뭇 저 박쥐들도 많이 잇고, 살고, 거기 머이가 그 안네 이름모를 돌에 이끼도 많이 꺾고 그건 우리는 모르는다 그거 지금은 많이 나이수다 지금.

101005 @ 그리고, 지금 이 수망리는 그 기관 그 뭇 서귀포시에서 오는 기관이라든가 도 기관, 어떤 기관은 어수가?

101005 #1 기관이렌?

101005 @ 예를 든다면 무신 경찰서라든가, 뭇 그런 뭇 무슨 뭇 태풍센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어수과?

101005 #1 아 지금은 그 그전에는 그거 지금은 뭇 그 기관 무시거.

101005 @ 지금 잇는 거 마썸.

101005 #1 지금 잇는 거는 저기 어수다, 어서. 지금 잇는디는 없고, 거 요 위에 태풍센터인가 그는 지형으로 한남리 지형이고, 수망리 구역 안에는 뭇 무슨건 좀 뭇 유명한 저건 기관 들어선 건 지금 없고.

101005 @ 없고예?

101005 #1 나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이수다.

101006 @ 어 그 다음엔 그 이 마을엔 이 수망리에는 그 전에 지금 뭇 수리계는 잇잖아예?

101006#1 예.

101006 @ 이 수리계 말고 그 전에 뭇 돌고랑 계라든가 해서 어떤 계들 어신가 예?

101006 #1 그전에는 저 일반 단체는 저 영 보민 거 부인들 뭇 거 무슨 여기에는 계라고 안하고 여기는 여기 뭇여, 첨 제주도 사투리 방어론 접이영 협주, 접.

101006 @ 아, 접.

101006 #1 딱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뭇 무시거 하게 무시거 허게 하든 그 걸 보고 접이라고 허여.

101006 @ 예.

101006 #1 아 우린 그 여자들 몇 사람이 아 우린 심심하니까 접하게 접하게. 무슨 접이파 하민 뭇 그자 뭇, 어멍 아방네 돌아가메 서로 기자 저 일 돌봐주는 그런 접.

101006 @ 예.

101006 #1 게야민 어디 ㄴ찌 가그녕 행 ㄴ미 일 헤그네게 돈 벌어당에 곳지 거 돈 모아가지고 예금하는 접.

101006 @ 그걸 예금하는 접은 뭇렌 고라수가?

101006 #1 어, 여기서 그냥 그냥 접이엔 헛주, 접. 기자, 무슨 접, 무슨 접.

101006 @ 접.

101006 #1 예, 여기 뭇 그 전엔 접이엔 헛게 뭇, 예, 4.3사건 후에만 헤도 예를

들어 어, 상엿집.

101006 @ 아, 그런 것도 이서나수가?

101006 #1 어, 상엿집, 장막집. 그건 뭐냐 하면은 상여를 흔 뗏 사람이 그거 짜 가지고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 저번 안네서 부모네가 돌아갈 땐 그냥 무료로 갔다 사용하고, 저번에 가입한 사람은 그 한번 사용하면은 얼마 임대료 얼마 받고, 다 그렇게 해수다. 게 장막도 마찬가지로. 장막도 그렇게 헨 접이영 해난게 이서났고.

101006 @ 예.

101006 #1 게, 또 그 옛날엔 뭐 거 접이엔 헨게 종류가 이상한 접들이 하낫는데 저 무슨 벌통접이엔 헨 것도 있고

도 무신 검질집, 무슨 뭐 무슨 뭐 아까 나만 상여집, 장막집, 이렇게 해나네, 지금은 그것이 다 어서져불고.

101006 @ 예.

101006 #1 내 거기서 운영하면 운영자금은 그 아메 돈이 이서야 돼기 때문에 접원들이 뭐 어디강 공동으로 남으 일을 헨 벌든가, 그렇지 않으믄 수금을 하든가, 경해가지고 공금을 만들어가지고 비용 쓰꼭. 그렇게.

101006 @ 음.

101006 #1 게, 접해다가 라고 해가지고 1년 연말 되민 음력으로 연말 되민 딱 회의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그때에는 요즘은 먹을 것이 흔해가지고 허면 그 당시에 수망리 접이라고 하영 할 때는 게 허면은 그자 그대로 헤어질 수 업시니까 그자 대게 보면은 국수 사당 그자 딸여가지고 흔그릇에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켜테 지금 현재는 그런거시 아주 옛날 되가지고 요새 아의들은 접이영 허민 무슨 말도 모르고. 옛날 그.

101006 @ 그 지금도 수리계는 계속 운영되고 잇지예?

101006 #1 게 수리계는 그 지금도 그건 법정에서 그건 인정해 준거니깐.

101006 @ 계난 수리계는 몇 개쯤 이수가? 수망리 안에.

101006 #1 사람?

101006 @ 아니 수리계. 계가.

101006 #1 하나, 하나.

101006 @ 하나 이수가?

101006 #1 어, 하난디,

101006 @ 그 수리계 이름은 뭐우짜?

101006 #1 그냥 농사계랑 농사계랑 수리계.

101007 @ 아, 농사계랑, 수망농사계랑수리계, 이거고 예? 그 다음은 이 마을에는 예 어 수망리만 갖고 잇는 뭔가 독특한 풍습 같은 건 어수가? 다른 마을과 비교 해가지고.

101007 #1 풍속은 잇었는데,

101007 @ 이서난거, 옛날 이서난거 곱아줍서.

101007 #1 어, 게 옛날에 풍속은 저 포제엔 헤그넵에,

101007 @ 아 이젠 포제 안헤마씨?

101007 #1 응, 거 중간에 폐지 되그넵에. 포제도 이서나고, 또, 예, 풍속은,

101007 @ 풍습. 예.

101007 #1 저 뭐야, 그 요즘 그 부인들 남저덜토 베란보건데 저 일내장이라고 헤가지고 어, 그거 1년에 두 번 유월 초일렛날 허고 가을 뜰민 음력으로 11월 초 일렛날은 부녀자들이 거기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 강 그 무당 심방, 심방을 읍센 헤그넵에 그 간 자기 가정집에 안녕을 비는거라 마썸.

101007 @ 건 지금도 잇수과?

101007 #1 예. 지금도 이서, 게가지고 우리 집이 좀 자손들이영 우리 집이 뭐 아프지 말고 자손들도 아프지 말고 농사도 잘 되게시리 허곡 그자 집이 모든 걸 그 자 편안하게 헤줍서 행 심방 빌어그넵에 그.....

101007 @ 비는거예?

101007 #1 예 비는데, 옛날에는 아주 작은 곳, 이 일년에 두 번.

101007 @ 그 심방은 어디 강 모셔와 마씨?

101007 #1 어 심방은 타부락에 강, 응, 수망리는 없고.

101007 @ 아 예.

101007 #1 옛날에는 심방도 대게 혼 부락에 혼 두세 사람씩은 다 이섯는데 그것도 이젠 시대가 이영 되니까 심방도 어서져부니까, 타부락에 어디 남원읍에 어디 저디 하나 잇는데, 그분 초청해다가 그 하는 거 답수다. 예 거기 지금 그, 그것이 이제 민속 뭐로 헤가지고 이제 그 행정당국에서 것도 거기 걸 보존하라고 헤가지고 그 신청하니까 거기 좀 집도 지어주고, 지금 헤가지고 이제 집 지어주니깐 또 그디 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욕심이라는데 아주 밤에 보통 아침 새벽에들 갑니다게. 새벽에, 새벽에 한 다섯 시 만 되민 가는데 가보민 전깃불이 없어가지고 기냥 촛불 켜서 헛엇는데 이젠 전기를 대달라 헤그넵 또 말이 잇는 거 같은데, 건 앞으로 거 뭐 부락에 이장도 잇고 하니깐 건 알아서 하는 거, 거 뭐 일내장이란 게 보존웨 이수다.

101008 @ 어 저 수망리의 특산물로는 뭘 얘기할 수 이수가?

101008 #1 지금 현재 감귤.

101008 @ 감귤예.

101008 #1 어, 감귤.

101008 @ 감귤밖에 없고예?

101008 #1 응, 감귤밖에 없고.

101009 @ 그 다음에 아 수망리 하면 정말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할 수 잇는 어떤 자랑스러운 건 뭐 이수가?

101009 #1 자랑스러운 건 뭐 특히 무신 뭐 어 외지엿사람들 왕 보면서 첫 다 공기 좋다, 뭐 그거 자연, 자연이지만은 공기 좋다, 그거 뿐이주 뭐, 다른 건 없고,

101009 @ 예.

101009 #1 그냥 공기 좋다, 사람 살기 좋다. 예 또 촌부락 중예선 교통이 조금 어느 정도 편리하다.

101009 @ 예, 교통이 편리한 거예.

101009 #1 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잇는 겁니다.

101009 @ 뭔가 마을 사람들끼리 어떤 뭐 화목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 생각했수과?

101009 #1 마을 사람들은 뭐, 막 동네가 죽아 노니깐 별로 무신 여긴 동네사람 들이 영 보니깐 뭐 춤 우스운 말로 짹는 사람들도 없고, 몇 년 전에 또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추천 되가지고, 또 경찰 서장 상도 받아나고 해간 동네 우다. 그난 뭐 무신 뭐 그렇게 동네가 작아노니까 양.

101009 @ 예.

101009 #1 그 막 그렇게 시끄러운 동네는 아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101009 @ 기구나예. 아니 마을지 지금 가본 읽다 보니까 보난 배랑 이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예?

101009 @ 예.

101009 @ 이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마을이 계속 좋아그네 살고 잇다, 라는 말도 되기도 하잖아예? 보니까 두 가지로 평가하긴 혜선게 마는 예? 저는 좀 그런 걸 좀 느껴져 가지고 예? 여기 보니까 다 아늑아늑 하잖아예? 음, 그런 부분들 특히 수망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서가지고 참 마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잇는 거, 공기 말고 거 말고 다른 건 어수과?

101009 #1 수망리는 지금 이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는 지금 건, 나 경우도 지금 나나 우리 영 들이 죽어 불면은 우리 아들들이 지금 시에 살고 서울에 사는 디, 수망리에 살런지 말런지 그건 장담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젊은 사람만 지금 아들된 사람들만 다 저 어디 외지에 나간 사람만 많지 그 외로는 나이든 사람은 지금 수망리에 떠난 사람들이 어수다. 그자 그 자기 에 옛날 하르방 할망들 물려준 재산이 마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 지금 알기에는 대부분 다 지금 여길 지키는 계난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나이든 분 인디 그분들 돌아 가면 몰릅주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켈는지. 그건 뭐 거는 저 나 생각엔 그분들 대게 돌아가면은 아마 수망리는 앞으로 한 10년? 10년 후에는 호수가 많이 적어지지 않을런가? 거나 지금 예척히는 거 지금. 게 그 지금 후대들이 아들들이나 예 저 타부락에 살다 그닝에 게 여기 수망리 들어오기는 아주 뭐, 더러 들어오는 사람도 이싯긴 이실 거 우다. 아 이게 조금 뭐 백프로 다 들어온다는 건 난 장담을 못헙주.

101009 @ 게 삼춘네 아이들은 안 들어오켄 마씨?

101009 #1 그난 지금 들어온다 만다는 나 아직은 들어보지도 아니허고. 게니까 그 뭐 건 몰릅주. 우리 큰아들쫘은 우리가 또 죽으면 이디 오라그닝에 살는지는 몰를 거, 죽은 아들은 당추 안 올 꺼. 허허.

101010 @ 그럼 이제는 예 이 수망리 마을에 대해가지고 저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들도 잊을거주마씨? 아 이건 수망리에는 꼭 이건 얘기하고 싶어, 해서 말할 거 이시든 고라줍서.

101010 #1 예, 수망리는 이거 뭐 제가 자랑이라 하면은 자랑일수도 있고 뭐헌데, 수망리가 인구가 죽고 부락이 죽아도 조금 사소한 인재들이 많이 이수다. 예를 들어 무슨 뭐 큰 인물은 못 되지만은 허다 못헨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수망리가 지금 타 부락에서도 말합니다. 아, 수망린 부락이 작아도 사람들이 인재가 좀 많이 나는 부락이다.

101010 @ 인재가 많이 예? 고맙습니다.

101010 #1 예를들면 뭐 읍, 밑으로 가선 면장, 응 옛날부터 면장 해난 분, 읍장 해난 분 뭐 또 중간에 와가서는 그 전에 군행위 때 군수해난 사람도 수망리 출신이고, 대학 교수도 수망리서 댓 사람이 보고, 지금 판사 하는 사람도 또 아시지만 그 현승도 판사가 수망리 사람이우다. 지금 제주시에서 변호사 거 해는데, 기타 그 외 공무원들 뭐 거도 직책이 얇은 공무원이 아니라 보통 보며는 제주 도청에 가도 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 한 사람도 여라 사람이나 해나수다.

2. 제보자 일생(1)

102001 @ 공부를 잘 해놨구나예? 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이거는 그 개인적인 질문이라예? 여기서는 두 번째 제보자 일생인데, 어 삼촌이 여기 원래 수망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셧잖아예?

102002 #1 예.

러면 그 낱고 자란 그 이야기들을 저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뭐. 삼촌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해수가?

102002 #1 농사. 옛날엔 농사.

102002 @ 무신, 농사도 어떤 농사?

102002 #1 농사, 겨울엔 보리농사, 여름에는 조, 메밀, 산디, 산디렌 헤영 밭벼 그거.

102002 @ 예, 그거예.

102002 #1 고구마, 감저.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여수가?

102003 #1 예, 우리 어머니 고향은 저 옥기, 의귀리.

102004 @ 아 옥기예. 동네에서 시집왔구나예. 어, 그 삼촌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라나수가?

102004 #1 우리 두런 댐 자치기. 예 동네에 나가민 자치기 헤그넵에 자치기도 그 종류가 두 가지라가지고.

102004 @ 그때 그건 자치기에 대해서 저가 다시 물어볼 기회가 이실거우다 뭐. 어떤 놀이들을 했는지 고라줍서.

102004 #1 자치기.

102004 @ 예 자치기.

102004 #1 자치기, 방치기, 어 그런 정도.

102004 @ 그런 정도예, 여자들은마썸. 여자들

102004 #1 여자들은 대게 보민 고무줄, 방치기 여자도 방치기.

102004 @ 벳뜰락 같은거예?

102004 #1 예.

102004 @ 것도 나중에 자치기 방치기도 다시 자세히 물어볼 때 그때 또 자세히 고라줍서예. 그 다음엔 어.

102004 #1 어 그 남자들은 방치기하고 그 저 고망치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땅에다가 구멍을 파던가 요만큼 해가지 거기다 동전 던져가지고.

102004 @ 아.

102004 #1 동전 던지는 걸로, 동전 어시민은 거 돌이나, 돌아니면은 그 저 옛날엔 그 사그막 쭈제기엔 해가지고 그 그릇 깨진 거. 그릇 깨진 거 똥글라케 만든거예, 사망치기엔 헤그닝에.

102004 @사그막쭈제기예.

102004 #1 어, 기자 예, 길이는 자기네끼리 정해가지고 막 보면 보통 헌 삼메다. 삼102004 메다 거리해가지고 그런 거기 넣는거, 그런 놀이.

102005 @ 그 삼춘이 아까 삼십, 삼십 칠년 생이엇덴 해수과?

102005 #1 예.

102005 @ 삼십 칠년 생이면 해방이 45년 이니까 해방 그때가 몇나 여수과?

102005 #1 예, 열, 7만이지라, 4.3사건 때가 열두 살 이니까, 48년도니까 세살? 일곱, 아이? 아홉 살인가?

102005 @ 기지예, 아홉 살 쯤. 그문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아홉 살 때까지 흑시 기억나는 거 이시문 고라줍서.

102005 #1 가물가물 허우다.

102005 @ 그때 그.

102005 #1 그때, 그때는 예 일제시대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일제시대 반장을 텅겨수다.

102005 @ 음.

102005 #1 반장을 텅겨가지고 그때 일본 사름들이영 와가지고 그때 그 보리공출.

102005 @ 예.

102005 #1 보리공출을 내노라, 보리공출을. 계난 보리공출을 혼 밭 수망리면 수망리 오면은 수망리 그뎨 구장인디 반 별로 배당을 하는거라 마썸. 어느 반에 뻗

말, 어느 반에 뭇 말 헤그넵에 헨 계난, 그 반장이 거두와그넵에 보리를 내노라. 기연 우리 아버지가 반장일 때, 한번은 그 여름에 여름에는 침 농사지으민 밧디 검질 메수다, 조 밧이강, 아장. 검질 양. 골팡이로 검질을 메는디, 검질 멘 집에 돌아온 보니 마당에 살림들이 문딱 꺼내놔어. 이진 뭐냐면 우리 반에 보리공출을 그 거 할 당량을 내놓지 못헤니깐 그 주재소. 그때는 그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주재소에서 와가지고 우리집이 곡식을 문 털어 가분거라 마썰.

102005 @ 아.

102005 #1 겐 저녁거레가 없어가지고 요 뒷집에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완 보난 저 주재소에서 오란 먹을 꺼 문 털어 가부난 저녁 먹을 거 어수다. 저녁 먹을 거 좀 꺾십셴 헨 꾸어네 그날 저녁은 먹고, 기엔 다음날은 먹어뉘야 뉘 거 아이파? 계난 우리 어머니가 옥께 친정엘 가는 거라 마썰. 친정에 가가지고 빌어온 거 보니까 보리 머 그때 보리 그냥 엔, 지금은 뭐 차로 실른다, 허당 뉘스 경헤도 그때는 지영 뉘길 때난, 보리 거 뭇 말 산디, 아마 나가 보기엔 대충 헨 다숫말 아니믄 서말 썸 뉘건가? 거 보릴 지어 빌언 오라네 빌어서, 오면 빌영 온겍주. 그뉘 뉘 친정이 가시니깐. 그거 먹어네 이젠 그 씨앗을 어떻게 구헤, 씨앗 씨 험 거 꺾지 문딱 거 털어가부니깐. 경헤가지고 겨울에 농사진 거 전 다음에는 그거 기억이 확실히 나고.

또 한 번은 그 아마 일본놈들이 망헤 갈 뉘고라 일본놈들 제주도에 와가지고 뉘, 전쟁 뉘인데 뉘 먹을 걸 또 반으로, 우리 아버지가 반장뉘기뉘 고초를 많이 꺾어수다. 매도 많이 맞앗셴 허고, 그 말 잘 안 들으고 할당량 못 채우며는, 게 보리북매, 보리북매 험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엔 험주.

102005 @ 예.

102005 #1 보리공출 할 때 안 내놔불민 지서에 심어당 뉘 그자 막 두드리곡, 대표로 너네반에 반장 그거 할당 못 채워시니까 뉘 받으렌 반장 막 두드리고 헤낫셴 험니다. 겐 우리 아버지가 아마 고초를 많이 꺾엇셴 험주.

겐디 험번인가 그 뉘 먹을 걸 헤노라, 겐 여름에니까 뉘 먹을 걸 뉘 하나믄, 꺾셴, 자굴, 멀리썸 그것을 반에서 할당헤가지고 얼마만큼 헤오라 험, 겐, 우리 아버지가 반장이니까 반원을 전부 동원험 그때 우리 영, 여기 살 때니까, 저 올레에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게 우리 반에서 그때 뉘 허고 마차허는 사람이 험나 이서나수다. 거 뉘 상당히 좋아마썰. 그 성은 강씨인데, 당신 이거 시꺼그넵에 남원이 주재소에 갖다주렌 헤가지고, 예 그 사람은 그 멀리꿀이영 꺾셴이영 자굴이영 헤논 거 시 켄 남원 시경 가난 그 주재소에 일본사람들이 뉘 한번 타보셴 험 뉘 탄 가부난 걸로 끝. 뉘도 일러불곡 그 사람은. 헤영 그 사람은 4.3사건 때 죽어수다.

또, 그 스십팔년도에. 게 경헌 일본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좀 고초를 꺾어난 거 알아집니다. 그때 게아시믄 우리 평민들은 몰라실건디 우리 그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반장을 어떻게 경헤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많이 꺾어난 건, 겐 확실히 지금도 기억이납니다. 대게는, 45년도엔 게 그러디 그때 모뉘 깔레 가는 디 모뉘깔안

집이오란 듯한 해방됐져, 헨 소문이 나가지고, 저 해방된 줄 알고. 계난 거 그 두 후에 우리가 거 모물을 가는데 모물 어느때쯤 갈양 좋고마씀 허민, 거 들을꺼 어따, 양력 거 해방되는 해에 모물 잘 되나가는 양력 8월 15일 중심이른 모물 깔민 된다, 된다 헤그넝에 그런 속담도 나나수다. 게거, 그게 우리가 모물갈레 간 오랑보난 해 방뻬젠 그때, 알고. 기 그뒤에 3년 이딴 4.3사건 뭐 생겨불고 허난, 뭐 기어 그럭저럭 기자. 게 지금 우리 세대가 고생을 하영 헤수다. 영 생각행 보면은. 이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무엇이 기억되고, 4.3사건 기억하고 4.3사건 그 위에 살면서 거 흥년 들어가지고 먹지 못헤가지고 그냥 막 고생헤난 생각하면은 뭐, 참, 한이 없는데 뭐 흥년 들 때도 그렇게 먹지 못헤가지고, 경 사람이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어시 살앗고.

102006 @ 4.3사건 때, 어 여기는 중산간 마을이니까 막 소개도 하고. 헛잖아예?

102006 #1 예 여기 중산간 부락이니까, 막 부락이 아주 막 전소뵈나수다.

102006 @ 4.3사건 때 겪엇거나, 봤거나 그니까 들은 거 말고 예, 겪엇거나 그 봤던 얘기들을 좀 헤줍서.

102006 #1 아이고 그건 허젠허민 내가 밤새도 다 못헐건데?

102006 @ 밤새도 게도 ㄹ라봅서.

102006 #1 그 4.3사건이, 그거 뭐 우리는 그때 나가 열 두 설이니까. 열두 설, 지금 초등학교 뭐여. 5학년 뵈 건가?

102006 @ 4, 5학년마씨.

102006 #1 게 요즘 아이들은 내가 생각헤보민 요즘 열두 설 난 애들 옛날 그 4.3사건 당시추록 허면은 그렇게 좀 버터나갈 수 잇엇을까. 난 요렇게 생각남수다. 하, 근데 4.3사건 그때 나니까, 고생이야. 그거 신발도 시까 초신 삼아그넝에 헤영 심그민 그거 몇일이나 신어집니까?

거 뭐 그때 확실허 해방된지 거 얼마 안 되니까 뭐 정신들 찰리지 못헨 4.3사건 터져부니깐 그냥 이 소나이 것든 건 촌엔, 이 사람들이 수망리는 중산간 부락이니까 무조건 빨갱이 부락이다, 무조건 다 그자 소탕시키라, 경 올라 와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보이는 대로 그자 사람을 게 죽일려고 하니까. 우선 아 우리가 속단 말로 하면은 뭐 깡빙아리라도 여기 험시른 우리가 잡젠허민 풀 속으로 기어들지 안헙니까. 그런식이라.

게 여기서 순경들이 심으레 잡젠허민 우선 급아야 되니까. 뭐 여런 낭 아래라든가, 내창에라든가. 그때는 이 낭이 별로 옛날에는 어서수다게. 이추록 지금 낭이 하는다 옛날에는 이 가름만한 낭이 어서수다게 별로. 이 곡삭 안덴덴하명 밧앰에 낭을 심그지 았아나수다. 게른 드르레 내창들에 드르나, 저 우녝 훗설가면 저 소낭밭에 강 곱앗다그넝에 순경들이나 군인들영 내려가불든 또 집 오랑 살당,

그젠 겨울 그때 한 십일월 달, 시작은 뭐 가을 초가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고 십일월부턴 이젠 본격 소탕된, 아주 기냥 중산간부락 아주기냥 완전 소탕시키렌 헨 그 명령 내려부니까 이젠 기냥 오란 그자 초가집들 다 불질러불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보는 대로 그냥 막 현장에서 사살 시켜붙고 헤가지고, 이게 흐루 살려면은 저 산드레 돌아야. 곱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눈에 안 썩이면 총을 안 맞으니까. 눈에 보이면 총 맞아 죽으니까. 총 안맞을라면 우선 풀속으로 강 곱아야 되여. 돌, 굴 이든가. 게 수망리 굴이, 조금전에 저가 말혜수다만은 수망리 케하고 굴 많으니까 그 스굽에 난 사는거라마썸. 그 살다그녕에 그놈들한테 발각되면 건 전멸되는거우다. 건.

102006 @ 계난 삼춘이 그때 어뎡 혜수가, 삼춘이.

102006 #1 흐흐 그, 나는 그때 4.3사건인지도 몰르고, 그때 봄엔데 하루 아침에는 보니까 알로 뭐 무슨 그냥 막 만세소리인지 뭔지 몰르고, 뭐 무슨 썩과리, 뭐 북치고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그렌 호기심에 어린김에 바로 여기 우리 살 때니까, 요래 나가보니까, 빨간 현수막에 하얀 글로다가 뭐 인민공화국 뭐 어찌구 써가지고 양쪽에 사가지고 머리에 띠 둘루고, 그건 보니까 바로, 4.3사건 그 바로 주도자들이여. 기냥, 게 수망리 스무실에 악기가 줌 이서나수다. 옛날 제일교포가 수망리 악기를 기증혜가지고 그 악기를 가져가지고 수망리 해방되는 혜에 기쁘다고 혜가지고, 지금은 바로 농악인데 걸궁을 혜나수다게. 집 이신 마당 탱기명, 그 악기를 그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그냥 두드리면서 그냥,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스월 삼일 날이라마썸. 스월 삼일날 우트레 올라가는데 막 뭐 무슨 그냥 무슨 노래를 막 불러 우린 그때 무슨 노랜줄도 몰르고. 그때 나도 열두 살이난 조금 글은 조금 아니까 보니까 빨간 바탕에 인민공화국 뭐여 어찌구 머리에 띠둘루고 헨 막 기자 북치고 썩과리 치고 허명 우트레 올라가니까. 뭐 어디서 올라가는지는 모르고, 쟁헨게 아 저녁뎡 보니까, 조용한 밤인디 봄이니까 봄 저녁이엔 날이 워낙 브르 블르니까, 각 오름 꼭대기마다, 그때 수망리 카르멘 낭이 어시난 영 우리 올렌동산에 강 영사민 오름들 다 바레집니다게. 영아리오름, 저 뭐 거문오름, 민오름, 저 녀시오름, 새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그녕에 보니까 썩불을 썩그녕 영 흔드는거라. 걸 본까 이름이 걸로 봉홱불이라고 합디다. 걸 혜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맞찾는지, 어느 한 곳에서 만세 소리가 나민 그 봉우리에서 썩불을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는데, 세상이 떠들썩 허게.

그게 스월 그 시초라. 그축혜가지고 대충 그루죽들 중산간 부락이엔 이거 빨갱이편이엔 무조건, 우리 집도 불타버리고. 우린 뭐 그때는 총소리만 들리면은 총소리 반대쪽으로 무조건 드라나는거마썸. 살아나쟁. 우리가 그때 곱으러 어딜 가왔냐면은, 저 성관악까지 곱으러 가와나수다. 성관악에서 곱으러 갓당, 저 제주시 쪽으로 총소리 나민 또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하고. 쟈 죽으리 4.3사건 때에 우리가 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 그때 죽을 고비 많이 넘긴 거 보니까. 우리가 참 저 뭐 속된 말로 어디서 도왔는가. 우리 쟈디 4.3사건 때 우리집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어수다. 쟈해도. 그렇게 고생을 혜여도. 뭐 4.3사건 후에 우리 아버지영 어머니영 다 점병으로 돌아가섯주만은 4.3사건 때 우리 죽은 사람은 어수다. 어, 쟈디 4.3사건 그나는 혜 가을에 우리 고모가, 고모부. 고모부가 우리 집에 오랑 죽어수다. 계난 남

원리 사람인디, 저녁 때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고모부가 게 우리 할머니가 계신 때난, 어떻 헨 완딘 허난 아 그 저 물 메연 나뉘뉘뉘나네 물 그만 줄레 끊언 나가버런 물 일러비언 물 좇으레 와수다 허멍, 게민 돈 어둑원디 이디오 민 물 찾가지느냐 허난, 어수다게 저녁에랑 여기 잣당 널랑 물 찾앙 느려가쿠다. 물 틀림없이 우트레 올라와수다 허멍.

거 어떻헨 알아지크니 허난, 줄레 끄선 나간거, 줄레 그 뭐, 옛날은 그 땅바닥이 흑바닥이난, 물이 고삐를 끊으면 그 잘 보면은 그 걸 보니까 틀림없이 우트레 올라 완 어디 수망리, 그때, 그때도 수망리엔 안 ㄴ란, 물아. 물우라. 물앗트레 올라온 거 닻수다 헤영. 겐 아멩이라도 허라. 아 듯날 아침엔 새벽엔 총소리가 나는 거 아니 짜? 뽕뽕. 게네 우리 아버지진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진 저 겁이 많아 마썸. 뭐 무신, 거 활딱 일어나그넨 우리 아버지가 동생뻘 되난, 우리 고모가 아버지 보단 우 이나네. 형님 읍써 저 처선이 듯게, 듯게. 겐 우리 고모부는 죽젠사 헤신디,

야야 거정말라. 기추룩 돌아뎡이당 그놈들한테 쥼히멘 폭도엔 허멍 죽여분다. 이 디 ㄴ만히 아자시몬 아몽토 아년다 허멍.

아 경허난 우리 아바진 네비돈 그냥 저기 서르레 내빼니까 기냥 어디 간줄도 모 르고. 할아버지도 ㄴ찌 내빼불고. 우린 그자 어리고 그자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동 생들이 여기 앉혀두고. 아 우리 고모분, 우리 어머니영 아 저 어떻 총소리 막 가깝 게 들림신게 피협서 피협서 헛자. 앗다, 아멩토아녀. ㄴ만히 아자사사 거 죄없는 사 람이엔 헿 살린다. 하멍, 에 추우나네 부섭. 부섭이엔헿거 알아집니까? 부섭.

102006 @ 예.

102006 #1 예, 마당에 강 낭 앗당 부섭이에 불이나 살랑 추켜 허멍. 좀 아침이 난 추워수다게. 가을이난. 아 불사르젠 허른 올레도 거 칼빈 총 들은 놈이 서너명 한. 너 이놈이새끼덜 다 나와. 아 겐 우리 어머니진 조반 허당 나가가난 아 이것들 게 도 생각을 험신가, 거 불 꺼동 나오렌 ㄴ라. 게연 우리 고모분 마리에 아자시난, 마 리레 들쓰랑게 기냥 발로 차면서 너 이놈새끼 잘 됐다. 나와, 나와하멍. 전부 나오 렌 우리 ㄴ랑. 게 요 저 조금 요 현 오십 메다 썸 넘어 강, 가만히 이시니까. 거기 서 한 삼십 분 썸은 기다렸는가, 우리 기자 우리 여기서 죽여불젠 험구나. 삼십 분 썸 이시니깐 이 우로 툴럭툴럭, 한 두놈이 내령 완 하나는 권총 찬 사람이라양. 게 그것이 높은 사람 곱아. 그 사람이 딱 오더니만은 우리 ㄴ랑 탁탁 어깨치멍, 너네들 랑 가, 가 허여. 우리 어머니 보고도 할머니 보고도 다 집에 가렌. 게 우리 고모부 는 딱 떼여 놓는 거 아니라 마썸. 경 우리 이디썸 오니까 총소리가 나난. 보니까 그 때 기냥 현장에서 우리 고모부를 썸 죽여부니까. 에 간부터 간 보니깐 죽질 안헤십 디다게. 이 가슴을 총을 맞았는디. 막 피 흘리고 헤가지고.

게 우리 할머니게, 이거 무신 이거 이런 놈의 세상도 어딴냐고. 어디 이렇게 불쌍 한 사람을 죽이는 세상, 이거 나라가 망해도, 게 우리 할머니가 조금 그 보면은 조 금 말도 허곡, 조금 말하는 게 조금 유식해나수다.

이놈의 나라가 망할 짓이주.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건 절대 나라가 아니된다. 겐

집이 어떻게든 어깨 부축해 오란 집이 오란 그냥 걸로 끝입니다.

게 그거 보니까 야 이거 그땐 생각한게 이거 무조건 돌아나야 살로구나. 응? 돌아나야 살지. 이추록 고만히 아자따그넝 죄 없는 사람도 죽여부는다. 왜 우리 그때 열두 살이주만은 이추록한 세상도 어신거 어디 죽일 바에는 제라한 사람을 죽여야지 저 불쌍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어디서.

아이 근데 그렇게 한 걸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거 우리 또 굵으레 다니다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그찌 그때는 우리 가족 방침이, 밤에 잠잘 때는 같이 자고 낮에는 각각 떼어져서 다니자, 혼밭에 잇다는 다 죽어볼면 우리 뭐 볼게잇냐, 겐 아버지는 아버지 따루, 나는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그 밑에 우리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또 따르민,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게 다니다가 거 참 재수 없으그넝에 당하면 죽어지면 헐 수 없는거고. 살면은 저녁때는 어딜로 모이자.

그렇게 헤가지고 할아버지고 나하고 다니단 ,아 거 저 영아리 바로 물영아리 뒤엔디, 아침 뭐, 뭐 먹읍니까? 그때는 주식이 어떠니 고구마. 4.3사건 때 그 고구마는, 고구마는 많으니까 감자 앓땅 저 찌가지고 그 이 혼 뗏 개씩 호주머니에 낀 땡기당 먹고 기자. 것도 절약해 가지고, 점 굵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침엔 가단계 그 동쪽으로 군인들이 탁 거 재수 없게 닥치니까, 할아버진 할아버지대로 뛰고 나는 나대로 뛰고, 거 그놈들이 뒤에서 총을 혼 뗏 번 쏘도, 거 뭐 위협적으로 쫓는지, 우릴 향해서 쏘신지, 그찌우찌 건 살았으니까. 게난 할아버지는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날 잡혀가지고 기냥 첩혀가버리고. 나는 그거 살자고 하니까 거 뛰다보니까 거 참 수망리 이 즐기 내창이 한 이 즐기가 내창이 참 밀리꼬지 버더강 내창이, 내창에 들어간 디 잇다보니까 거 뭐 뭐 세상도 몰르고. 겐 거니까 살아져서.

살아져가지고 그거 돌 밑에 굴 닳은 디 영 엮터져가지고 자단보난 어둑어가지고, 거 뭐 배고프니까 깨난거주게 난. 어딜로 오라한 찾을 수가 이십니까. 열두살난거 뭐 밤에 어딜 찾읍니까. 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걸 찾아가지고. 겐 간 보니간 우리 어머니영 거기 다 잇고,

거난, 할아버지 어디간?

할아버지는 같이 뛰었는디 몰르쿠다. 첩혀사 가신지 죽어산지 몰르쿠다. 거난 우리 아버지 혀는 말은 경허민 할아버지는 죽엇져. 내중엔 알고보니까 돌아간게 아니고 그놈들 그때, 그때 계엄령 전이니까 기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원이 간 거 살다가 석방 되긴 헛는데. 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겪어수다.

게난 4.3사건 그것이 에 저가 생각허는 거는 그땐 이 사름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구분을 헤영 죽일건디 계엄령을 딱 선포되니깐 양 이건 부녀자고 어린이고 그자 닥치는 대로 그자 죽여볼라. 죽여도 총으로 쏘지 말라. 총으로 쏘면 인근에 잇던 놈들이 또 판드레 도망가볼민 으레 좇지못헌다. 총으로 쏘지 마랑 다른 방법으로 죽이라. 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민 대검으로 찢르든가. 그냥 그렇지 았으른 돌맹이로 치던가.

게, 그 계엄령이 11월 혼 6일 날 발표됐는가? 그 송유찬 장군이 와가지고 계엄사
현드레 장군으로 와가지고 발표해부니깐 그때 근데 우리 계엄 발표한 후제 그때
11월 달인디,

우리가 여럿이 그때는 사림 한디 다녀도 위험합디다게. 사림한디 다니면은 이 사
름들이 눈에 띄기가 쉬워.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조금 그 머리를 써가지고,
야, 우리 우리 따루만 다니게. 이 사람들은 같이 벗헤그네게 곱으러 땡기당 다 죽
나. 우리 가족끼리만 땡기당 죽으나 사나 하젠 헤연,

우리 가족을 어디 가느냐 에 저 성판악 밑에 잇다가 요, 물영아리 앞히에 보니까
그 굴이 하나 이수다. 그 굴에간 여기서 살게. 계난 살다가 따루 그 11월달 계엄령
허젠 하나까 따뜻한 날씨에 잇다보니깐 굴 바깥디 좀 나와 거 좀 햇빛에라도 쪼일
라고, 나가서 보니깐, 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무신 소리 남겨 허멍. 영 고개 내밀언
엽드레 베리니깐 철모 쓴 사람들이 혼 몇사람 보이는 거라. 계난 우리 아버진 우리
보고 굴 소꿍드리 다 밀쳐놓고, 이젠 홀수 었다. 우리 명대로 살게. 느네 대랑 죽으
나 사나. 이젠 우리 이걸로 끝이여. 허멍 아버지는 기자 튀어불고. 우린 굴 속에 처
놔도비언. 하, 이제 이걸로 죽는구나. 이 그 사람들이 그냥 걸로 그냥 우리 거기 잇
는 줄 몰르고 넘어 가버린거라 마썸. 겐 저녁 때 어두우니깐 아버지가 돌아완 야
니네들 살았구나. 우린 난 죽은 줄 알았져.

겐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 영아리 뒤에 그 앞이 트물이엔 한디가 수망리 모 사람
이 죽엇다더라. 그 사람이 바로 여 수망리 동쪽에 사는 사람인디. 죽은 사람은 그때
나이로 혼 육십세 된 노인하고 아들이 혼나 이서수다게. 아들이 나보다 혼나 밑에
라. 그때 열흔술. 긴데 혼 그때가 혼 열한시쯤 된 땡데, 시간적으로, 그 아들이 열흔
술 난 것이 어머니 배고프니까 어머니 보고 졸른거라마썸. 배고파 살지 못하쿠다.
배고파 살지 못하쿠다 허난, 그나마 가정 땡기던 감저나 숲아주젠 불을 떼는디 연
기 안 나게시리 땡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솟앗던 모양이라 양. 계난 우리
옆으로 지나간 군인들이 그 연기를 보고 쫓아강 보니까 그 모녀가, 어머니영 아들
이영 이신거라. 겐 간 보니까 그냥 돌로 때령 죽어빈 거라 돌로. 겐 저번에도 그 어
디 모 어찌됐건 4.3사건에 대한 그 하는 사람 오켄헤난 그 말 ㄹ르니까, 그 사람도
야, 그렇게 헛구나. 그렇게 헛 것 보단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계엄령 시대고 한
상태지만 아 그 사람들 그 모녀가 뭘 안다고 그 죽 그렇게 죽인거냐. 아 죽일라면
곱게 죽이던가. 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제주도 안에 부지기수다.

계난 우리 수망리 작은 부락이주만은 4.3사건 때 죽은 사람이 한 오십 땡 명 땡
거우다 아마. 여, 혼 네 대략 짐작허민.

게 우리 처갓집이가 우리 저 사람 할망 이 어멍 아방 오라방이 4.3사건 때 다 죽
어수다. 건 어떠냐면 아까 나가 저 퀘 말한 디 거 퀘에 잇다네 집단 아주 사살 땡
분거라마썸. 이놈들이, 발각땡가지고 것도 따로따로 살아시민 살던 지 모를건디, 그
퀘에 그자 사람들 차 한잔하젠 갓당 아침에 이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완 그자 급습
헤가지고 거 안에 이신사람, 거 안에 이신 사람들은 전부 그자 막 사살시켜부니까.

뭐뭐 그때 혼 삼십, 혼 이십명? 한 십오명 죽었는가?

102006 @ 그때 퀘 이름은 뭐여숫짜?

102006 #1 아니몬직은퀘야. 아니몬진퀘야.

102006 @ 아니몬진퀘야 안에서 그렇게 그렇구나예.

102006 #1 어 거기 잇다가 그렇게 사름들이.

102006 @ 그럼 여자삼춘 혼자 살아남은 거마썸?

102006 #1 어, 혼자.

102006 @ 아, 세상에.

102006 #1 혼자만.

102006 @ 그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신고예?

102006 #1 그그그, 어떻게 텅기단 보니까 그 혼자, 살아가지고 거 그때 어린 때 난 저 사람이 나보단 실제 나이는 한 살 위우다게. 위니깐 그 스춘들이 지금 서귀포 살아수다게. 게 4.3사건 때 겨우 견더가지고 1948년도 4.3사건 끝나니까 1949년도에는 전부 그거 좀 내려오면 내려오는 사람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하니깐, 저 사람은 그 저 서귀포에 가면은 거 뭐 친척이주 거기 가서 살아서. 저 나신디 왔는디. 지금은 우리 집이 저 할망도 고생 하영 한 사람이우다게. 4.3사건 때에 그 우에 오빠죽고 어멍아방죽고. 아방은 이녁 집 마당에서 그냥 초가집 불 붙이는 날에 기냥 그 마당에서 그자 죽여버리고, 어멍은 점 아까 말한디 아니몬직은퀘야에서 기냥 같이 이시니까 그자 죽여버리고. 예, 혼 집안 안에 전 식구가 아주 멸적헌디가 한 두 군데 이수다 우리 수망리는, 그자 전부.

102007 @ 아, 그 4.3사건 이후에 결혼은 언제 해수과?

102007 #1 나?

102007 @ 예.

102007 #1 예, 59년도.

102007 @ 그때가 몇 살,

102007 #1 스물, 세 살인가? 59년도.

102007 @ 결혼은 그믐 중매결혼 헨 마썸 아니면 연애 결혼 해수과?

102007 #1 중매, 중매. 다 동네우다.

102007 @ 아 동네서 그냥 다 보멍 컷구나예.

102007 #1 예예.

102008 @ 근데 그 결혼 할 땐 사주는 봐수과?

102008 #1 스주게. 스주 그자 봐, 스주는 그때 우리 하르버지가 살아계신 때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하난 스주보켄 헨 어디 간 들어보난, 뭐 혼어서 좋든 아이도 쓸만하덴 헤라. 아, 스주 보나마나 어떻 무신 뭐 동네, 같은 동네고 헌디 우리 서로 다 양쪽에서도 실증 안헨디고 어떻게 뭐 할 수 잇냐고, 계난 59년도 59년도 봄에 결혼, 어 봄에 결혼 해가지고 그 해 여름에 내가 또 군대가고, 그 해 에 유월 달에 여름에 내가 군대갈 때.

102009 @ 근데 그 결혼할 때, 어, 무신 예물을 주고 받거나 혼수품을 받거나 그런 거 이서난마씨?

102009 #1 혼수품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결혼할 때 요즘은 혼수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흥세라고 해서 흥세. 흥세함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함에다가 저 뭐 무명, 그때는 미녕. 게난 저 멩지나 혼 필, 혼필이 그 뭐 자로 열다섯 잔가 그거 농곡, 예장 써놓곡 해그네 그거 허영 가정, 그 처갓집이 가정 가면은 처갓집에서 게 또 내중엔 보관헛다가 다시 되돌려 준덴합니다. 그렇게 허고, 거 뭐, 그거 허고 뭐 예물이엔 헌건,

102009 @ 뭐 이불이라도 혼 채 안헛수과?

102009 #1 아 ,이불 이불이야 건 신붓집에서 건 당연히 건.

102009 @ 이불 뗏 채 헛 와수과?

102009 #1 두 개.

102009 @ 두 개.

102009 #1 것두 힘들주 옛날엔.

102010 @ 게난 예. 그럼 그 때 결혼식 할 때 어디서 헛수과?

102010 #1 수망리서. 여기 여기가 4.3사건 후에 수망리 재건이라 해가지고 오십, 오십년도 수망리 저 밑에 성담 쌓고 제간니 거기서 살 때 게도 우리가 여기, 거기 살다가 내중에 완전히 평원되니깐 우리 옛날 살던 디 가자 해가지고.

102010 @ 그때 결혼할 때 결혼 사진은 찍언마씨?

102010 #1 어수다. 사진 생각이랑 말앙. 그땐 사진사도 별로 어섯고,

102010 @ 그 후제라도 안 찍어수과?

102010 #1 예, 안찍어수다.

102011 @ 그른 그때 당시에 결혼 행 신혼살림은 어디서 헛수과?

102011 #1 그 저 밑에 초가집에서. 초가집 이렇게 해가지고. 초가집 뭐 헌 다섯 평 쯤 되나? 해가지고 초가집이엔 말하젠 문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웁 케다가 그냥 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람만 막이로만 해그넹 그렇게 해난, 살면서 결혼도 허고 잔치도 허고.

102012 @ 아이들은 몇 낳아수과?

102012 #1 지금 현재 오남매.

102012 @ 오남매. 아들 둘 딸 셋마썸?

102012 #1 예. 아들 둘 딸 셋.

102012 @ 수망리 ㄴ찌 사는 자식은 없고마씨?

102012 #1 예?

102012 @ 수망리 마을 안에 사는 자식은 없고마씨?

102012 #1 아 자식들?

102012 @ 그니까 아들 한 분은 서울 산덴 헛잖아예.

102012 #1 어.

102012 @ 한 분은 제주시 살고예.
102012 #1 제주시.
102012 @ 딸들은 다 어디 살았수과?
102012 #1 다 육지, 서울.
102012 @ 아 기구나예.
102012 #1 여기 하나 있고,
102012 @ 아 여기 수망리에마씨?
102012 #1 아니아니, 저기 표선이.
102014 @ 아 기구나예. 그 저기 다섯 자식들은 다 결혼혜수과?
102014 #1 지금 죽은 아들은 결혼 안 혜수다.
102014 @ 아 결혼 안 한 아들도 잇구나예?
102014 #1 거 아니사, 아니사 허젠 험신지.
102015 @ 그 며느리들은 마음에 들어 마씨?
102015 #1 마음에 들고 안들고 뭐 요즘 세상에 자기네끼리만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뭐. 뭐 우려내지 뭐 손주도 세 개 낳고 하난 뭐 무신 뭐.
102015 @ 응, 게서 어디, 어디 육지, 서울 분이파? 메뉴리가?
102015 #1 부산.
102015 @ 부산마씨? 응, 사위는 어떻습니까?
102015 #1 예?
102015 @ 사위들은?
102015 #1 사위들은 뭐 기자 뭐 자기네 기자 먹을 정도로만 살고.
102015 @ 살고예.
102015 #1 사람들 뭐 보통 무신, 평범한 사람들.
102016 @ 평범한 사람들. 그, 삼촌이, 지금 삼촌이 말씀혜주신 낳고 자라고 일 제 강점기 지나고 4.3 거치고 이제 아이들 낳고 키우고 하면서예. 특별하게시리 수 망리 살면서 그 기억나는 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거. 아니면 어렵게 결혼혜가지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큰 집도 지었잖아예? 특별하게 기억나 가지고 그 기억 나는 거 말할 거 이시믄 ㄹ라줍서.
102016 #1 예, 어려웠죠. 참 어려워수다. 4.3사건이엔, 이디 집을 내가 두 군데 짓으면서 저 밑에 수망리 처음 재건혜가지고 지을 때는 하르버지가 산 때난 그때는 할으버지 중심으로 혜가지고 살다가 나가 군대간 제대헤 와가지고, 와도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수다. 삶이. 그 육십년 대니까 뭐 자꾸 우리가 저 칠십년 대까지는 항쟁 이 칠십년대 후반부터는 쪼끔 사람이 어 느정도 저 생활이 좋아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워수다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여기 왕 집을 짓젠 허니 낭이 이서야 집 지슬겨 아니파? 옛날엔 낭이 상당히 귀혜수다게. 지금은 밧마다 가며는 뭐 저거 뭐 지금은 오히려 집 지으젠 하면은 저런 낭은 다 꿇영 우리 집이 윈 누게 오랑 꿇어가비시믄 좋겠는디? 낭이 어서가지고 낭을 요 어디 강 낭을 혜당 집을 지

을거나. 그전에 참 그말은 아니지만 냥을 도둑질해야 집을 지을 거 아니냐? 도둑질이 어디냐? 저 밀림에 강 냥을 비어오는 거라 마썰. 계난 나라엿 거 도둑질 하는 썸 되는 거라마썰 냥을. 어디 가느냐 저 밀림 속에 가든 저 냥들이 이서수다. 할 수가 어서, 살젠하든. 그걸 가그넝에 하나씩 하나씩 어깨에 매당 이 집을 짓젠 허민 거 냥 한번 지오라나민 혼 사흘을 못 전딩 곳딱못합니다. 거 냥이 냥이 짤라그넝에 돌릴 때는 좀 그뻬는데 양, 저 썸대냥 보통 썸대냥으로 집을 옛날엔 지엇는디, 그것 봄에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놀냥 헤노민 냥 하나가 그렇게 무거웁니다게. 거 뒤 거벼운 건 집 짓지 못하니까 작은 건. 그거 저나민 여 어깨 거 베로 헤그네 지어나민 요 어깨가 문 벗겨져그넝 저 여긴발로 북몰어. 그렇게 고생하명 집을 짓는, 그것이 혼 두 번만 그거 강 오랑 집이 됩니까? 집 혼거리, 옛날 초가집 집 혼거리 지으려문 그 냥이, 냥 숫자로보면 몇 개 든뎡 허더라? 그 숫자는 참 세젠 허며는 뭐 거 이름이 이거 집을 짓젠 허며는 옛날 초가집은 거 냥 이름이 이서양? 뭐 상모 루엔 현다, 뭐 포연 현다 무신 귀클이엔 현다 뭐 무신 요건, 요건 머 서리 깃슴이여 요건 지둥 깃슴이여, 요건 뭐 뭐 마리 깃슴이여 뭐 귀클 깃슴이여 뭐, 그걸 다 내영에 그걸 다 짐으로 혼나썸 저다그네게 집을 짓젠 헤봅서. 그거 요즘 사람들은 들으론 거 날고라 거짓말이엔 고릅니께.

102016 @ 계난 예. 그 직접 그 초 집을 지을 때 직접 나무랑 다 준비해가지고 하셔났구나예? 초집 지을 때.

102016 #1 예.

102016 @ 음, 그럼 저가 나중에 그 집 지을 때 그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때는 삼춘한테 질문 하쿠다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예.

102016 #1 그거 뭐 도움이 잘 됐는지 말았는지.

2. 제보자 일생(2)

102001 @ 삼춘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짜?

102001 #2 신흥 2리 고수동이엔 현디서 태어난 사람인디.

102002 @ 신흥 2리 고수동에서예, 계문 삼춘네 부모님네는 무슨 일 하명 살아나수가?

102002 #2 일하고 살아서.

102002 @ 그냥 농사 지으명 마씨예.

102002 #1 예.

102003 @ 예, 경헛구나예. 어 아까 여기 잠깐 녹화 안돼나부난, 마찬가지로 다 농사 지으명 살았지예? 경헛구나예. 그문 저기예? 삼춘네는 어머니 고향이 어디짜?

102003 #1 태흥리.

102003 @ 아 태흥리짜?

102003 #2 계난 어제 들어보지 않아수가?

102004 @ 예, 맞수다 맞수다. 그믐예 그 다음에 두 분이서 어릴 때 혹시 어떤 놀이 했었던 거 기억 남수가? 예를 든다면 남자어른들은 자치기라든가 여자 어른들은 공깃돌 놀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ㄹ라줍서.

102004 #1 할아방 ㄹ릅서. 나 ㄹ저.

102004 #2 거 사실은 자치기렌 한 거시 우리는 별로 못헤그녕 하는 이유가 이서.

102004 @ 아니 그난 어떤 놀이 하멍 살아수가, 어떤 놀이를. 자치기 안 헤도 좋으난, 어떤 놀이 하면서 살아수과?

102004 #2 놀이 거 게 자치기하고, 구녁치기엔 한게 있주? 구녁치기 알아?

102004 @ 그런 건 나중에 구녁치기 설명할 또 다르게 이시난예, 어떤 놀이 헤수과? 구녁치기하고 자치기 하고, 또 어떤 거 이수과?

102004 #2 예예, 거저 남자들은 별로 놀일 어서.

102004 @ 어서수과? 뭐 예를 든다면, 뭐 막 그 생이, 아니 모여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그런 놀이는 안 헤판 마씨?

102004 #2 아니 켜디, 자세하게 뒤편에 말하젠 하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남원이를 걸영 다니젠 하믐 그런 걸 헐 시간이 어서,

102004 @ 아 경헛구나예.

102004 #2 계난 학교 풀믐 벗들하고 그자 오멍 이 우린 점심이엔 한 걸 못 먹어본 사람이라 학교다닐 때.

102004 @ 아, 경헛구나예.

102004 #2 점심 쌍 가젠 하믐 먹을 거 그 없거든.

102004 @ 예, 게믐 우리 여자 삼춘네는 어떤 놀이 하멍 지내수가?

102004 #1 나는 공기하고, 오제미엔 한거 알아져?

102004 @ 예.

102004 #1 오제미 하고 줄넘기 하고, 그런 거 헛주.

102004 @ 예 맞수다 맞수다. 그런 거 헛구나예. 나중에 그런 그 놀이는 또 구체적으로 그 놀이는 어떤 거과 헤그녕 질문할 거라예.

102005 @ 그 다음엔 일제시대에 공출 같은 거 막 헤낫잖아예? 그거 기억나는 대로 ㄹ라줍서.

102005 #2 공출은 우리는 직접 안 헤낫으니까, 그니까 부모네는 하는데.

102005 @ 계난 부모님들이 어뗐던 거.

102005 #1 아 공출 곱은 거는 무시거 곡석 얼마나 바찌라 하고, 왜정 때 거 무시거 옛날 제기, 낫그릇 그런 거 다 바찌나고. 낫그릇 옛날 거 막 좋은 제기기들 문 딱 그 그시차례 뒤인고 허민 우리 알기로는 비영기에 그 췌를 헤다가네 비영기를 만든덴 허멍 문 받아 가나서.

102005 @ 예.

102005 #2 그 놋그릇 내놓젠 하믄 곱정 안 내놓믄, 막 집 들어왕 막 뒤여놔주.

102005 @ 아. 그 뒤지는 건 누게가 왕 뒤져수과?

102005 #2 아 이디 돌민 이대 동네 구장하믄,

102005 #1 책임진 사람.

102005 #2 구장이 자기한테 곤장을 다 때렸다니까? 말 안들으믄,

102005 #1 이장이 구장이랏주 그 시절에는, 책임 혼 사람드레.

102005 #2 그 구장인데, 아이고 그때 계난에 네중엔 그 사람들이 미움도 바닷주
만은 왕, 왕, 왕.

102005 #1 왕이주게 멘날,

102005 @ 일본 사람들이 왕 직접 혼게 아니고예,

102005 #2 아니아니, 이끄진 일본 사람들이 못해, 할당을 메기거든, 그 만이 하
믄, 그 채우젠허민 어떻헐꺼라? 거 채우젠 허믄 머.

102005 #1 곡석도 경헨 다 네놔야곡, 경헨.

102005 #2 쉐공출 밀 공출 다 해놔는디.

102005 @ 그럼 그런 것들을 구장한테 시키믄 구장들은 마을 사람한테 안 냄텐
하면서 막 때리기도 허고마썸?

102005 #1 아 나 딱림꺄장은 안 헛주 마는. 저 누게니

102005 #2 자 상옥이고라, 상옥인 지네 아방 반장인디 그렇게 구장한테 뚜드려
맞아가지고, 반장이 졸바로 안 험뎨 뚜드려 맞은 거라. 경헨 지금도 꺄라 아방 뚜드
려 맞아난 거.

102006 @ 음, 알아수다. 그 다음엔 예, 4.3때도 여기 다 사섯엇잖아예? 4.3때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봤거나, 그런 것들을 꺄라줍서.

102006 #1 4.3때는, 무시거 이디가 무신 저 제기 어디 노려부난.

102006 #2 여기는 태흥리 외가에 살아부난 몰라, 몰라.

102006 #1 내령 옷드레 수망리가 더 무시거 헛는디, 저래 내려볼고 그 시절에가
우리가 여레숫?

102006 #2 열 여숫.

102006 #1 여레숫아니?

102006 #2 응

102006 #1 계난에 어떻허는 거 몰라. 스람들 어떻허는 거 난 모르곡.

102006 @ 계난 삼춘넌, 어떻헤수과?

102006 #2 삼춘, 나는 이집 불 칼 때 혼마 죽을 뻔 헤나서.

102006 @ 겐 그 때 그때 봤던 장면들을 꺄라줍서, 그때 어떤 어떤 일이 이서나
신지.

102006 #2 그 내중에 내가 들은 이야긴데,

102006 @ 아니 들은 얘기 말고 예, 그때 삼춘이 봤던 거마썸.

102006 #1 말곤 거 말고.

102006 #2 그 뒤에 나 그거 본걸 궂젠 하난에 어떤 일 때문에 경헌건지. 그 내 중에 들은 말인데, 토벌대가 여 산으로 왔는데, 어디서 보초사단에 그 사람들이 도망간 모양이여. 아침 현 그때 가을 그때 시월달이니깐. 흔데, 밝안 얼마 어실땐디 총 소리가 형편없이 나드라고, 나가지고 아 어떤헨 우리영 막 무서워서 아까 내 이 읍에도 궂치 봉답이 여기 불살라부는디 거 막 궂다져네 막 불불불불 떨어지. 거 떨어노넨 하니까, 주인있소 하는 소리가 나드라고, 주인있소 하는 소리가나서, 내가 그디서 내가 가장 쥔, 게도 우리 동생들보단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쥔 앞에 나갔어. 나가니까, 주인 어디갔소 흐는거야, 실 췌 말이. 주인 어디 갔소? 솔직히 그땐 모물 시끄레 가니까 모물 시끄레 가수다 허난, 이 폭도 별쟁이 집이엔, 당장 안오멘 빨리 집 다, 나보고 성냥 가져와. 여기 이 저 이제 여기 사투리론 화각 화각 하는데, 성냥. 성냥 가져와 허기에,

102006 @ 그때 당시엔 성냥 가져와, 험디가? 화각 가져와, 험디가?

102006 #2 그때 저 지끄 저 이북 출신이여 화각, 거 성냥이엔 헤실거라.

102006 @ 아 그 사람이 그 서북청년단이어 낫구나예?

102006 #2 예에,

102006 @ 아, 경헨마썸.

102006 #2 아니, 그때 이디 온건 바로 이북사람 아니고 저 바로 현역, 현역.

102006 @ 아 현역, 군인이예?

102006 #2 어 군인, 우리. 게네 가져 와네. 가져와니까 그, 저 여기 줄단이 막 늘어졌는디, 불지지렌 하드라고. 난 첫 번에 가져 올 때 담배 피울 줄 알았거든. 담배 피울 줄 알았는디 게 불 지드렌 하니까, 벌벌벌벌벌벌 떨어면서 불을 네니 그제 제대로 되난 말야. 불이 꺼빋단 말이여. 꺼브니까 또 넷서, 또 불이 켜어. 두 번을 끄니까 총을 가슴에 팍 대는거 아니야? 이 새끼 일부러 꺾다고. 아 게네 성냥을 빼드라고, 빼네.

102006 #1 열여섯 살에, 열여섯 살에.

102006 #2 빼, 빼가지고 자기가 성냥알을 한 몇 개, 몇 개 가져가지고는 불네네, 불 붙여가지고 여 이집, 바로 여기 흐고 이디영 저디 이디 우리 이디 저쪽에 우리 형님집 이섯는데, 세 곤대를 불 부치젠 던져분 거 아니 지붕위에. 옛날 초가집이니까, 던져네 다 불 붙으는거 봐가지고,

“걸라.” 헤네 그러는거야. 어디 가는고 허니 바로 저기 저 원 우리 옛날 올레, 저기 이레난, 저기 앉으렌 허난, 게난 앉앗단 말이야. 거고 흐나가 딱 거기 지켜 서고, 나머지는 이 밑에 밧 바로 지금 이 알력집 거기도 그 날, 그전에도 그집 살아난, 그 집에 가네 그 성냥으로 불 붙였지. 또 요 서쪽에 집이 이섯서. 거기가네 또 그걸 불 붙였지. 붙여그네 그 사람들이 나 나오니까, 요디 요 카보에 있는디 거기 나오니까, 이 사름이 쫓아가면서, 쫓아 가불드라고. 아무 말도 아니고, 우리 궂라 어떻허렌 말도 안허고 그대로 쫓아 가불드라고.

게네 그 일에서, 올케 그추룩 현지 혹 가분 저 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안에 걸

전부 네였젠. 우로 불붙이니까 이 밋드로 빨리 안내려오니까. 겨네 이제 요디 이 뒤엔 영~ 헨 들담으로 막아놨는디. 개네 그 앞엔. 게네 그걸 게도 먹영 살고, 여기 저산디엔 한 것이, 우리는 목산 헤가지고. 목산헨, 목산 모르지?

102006 @ 예.

102006 #2 목산이엔 헨 갈산디렌 헤가지고 산디가 거무롱하니 갈산디가 잇서. 거 저 새알 까다그그벙에, 그 일 년베끼 안 갈아. 그 다음은 그그제 따른거 하고. 그거 헛는디, 그거 누러졌는데. 아 거기 불타넨 거 우리 네중에 그거 전부 장만헨 먹었으니까. 불태와분 걸. 게난 념세는 거 슝에 연기가 막 들어가나니까, 막 슝 못 연기네가 그렇게 나멍헤도 걸 먹어사주.

102006 #1 아무것도 어시난 뒤. 게, 그 시절에 막 굶언.

102006 #2 그때 죽지 안헤난 산 것이.

102006 #1 굶언, 저디 곳든디 상옥이넨 혼디도 그 부모들 굶언 죽어서.

102006 #2 상옥씨네 부모님네는 굶어죽다시피도 헤수다.

102006 #1 양 허듯 살아나는 그 시절에.

102006 #2 아 그자 우리는 그때 게도 내중에 저 신흥리에 고종 사촌 이시니까 거기 내려 강 살고. 이디는 끝끝내 산에랑 숨어 돌아다니니까, 죽장 식구는 상에만 헛지. 근디 그난 상옥이 부모넨 다 죽다 헛다고. 굶어죽다시피 허고, 할아버지는 그때 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저거 결혼시켜 줘서. 허허.

102006 @ 그럼 그때 당시에 혹시 가족 중에 혹시 누구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어서수가?

102006 #2 우리 아버지 4.3사건때 돌아가셨지.

102006 @ 게난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셔수가?

102006 #2 우리 아버진 총살당헤서.

102006 @ 그 총살된 과정을 좀 그라줍서.

102006 #2 건 아니 우리 안봐부니까.

102006 @ 무사, 무사 지나가단마썸.

102006 #2 아니, 우리허고 같이 어서, 어섯는데 저기 그.

102006 @ 예, 모물 시끄러 간 거.

102006 #2 아니 그 날이 아니고, 저 우에 거든. 거의 그루 후에 혼 두 달 후에 죽은 건. 우린 시월달이고 동짓달 다 구물언 죽었으니까. 건 뭐 그때 거 본 사람들 말하는 거 헌데.

102006 #1 그때 하영 여라이 죽여벧주게.

102006 #2 거난, 거 우리 아버지 죽는 날, 여섯 사람을 죽여 버렸는데. 한 사람은 게도 네중에 살아났어.

102006 #1 누게가?

102006 #2 경추.

102006 #1 그때 흐루파?

102006 #2 어. 거나네 그때 이 붓 불른디 현디, 바로 영 안 맞으니까, 총으로 썩네 거시기도 죽지 안헤가지고. 내중엔 고생을, 생뎡히, 거고 막 창으로 찢러부니까 내중에 여기 입을 뒹 음식 먹젠하믄, 그대로 입을 놀리질 못하니까. 손으로 받아서 먹엇덴 헤여.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사름은, 죽지 안헤니까.

102006 @ 지금도 살아계셔마씨?

102006 #2 아니아니 죽어벗주. 여녕이 그때 우리보다 나이 우인디, 여녕이 지금 살면 얼마이 되라고.

102006 #1 우리 그때 열여섯일띠.

102006 @ 어디서 어떻게 잡혀갓덴 소리는 게민 그분헌티 들ersi쿠다예?

102006 #2 아니 그때 가지, 근데 그대 젊은 여자덜, 여자덜이영 어린아이들이 그저 븐 아이들 어떻게 헤영 된 거 다 알주 우리도.

102006 @ 게난 그때 어떻헨 아버지가, 아버지랑 그 여섯 명 잡혀간 중에서 한 분 살아남앗덴 헛잖아예?

102006 #2 어.

102006 @ 게, 그 분이,

102006 #2 아 건 그 사람들은 다 현장에들, 우리 아버지영 현장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니깐,

102006 @ 게난 어떻헤그넝 그 살아나, 살아나부난 그때 거를 저기 전해주긴 헤실 거 아니파예? 이야기를 예? 게 어떻헛덴 헛딛까?

102006 #1 말 궂게 정 헤나시카?

102006 #2 아니 경허난 그루후제 저 내려네 수망리 안살아나그넝 다른 디 강 살아부니까, 자세하게 그 사름안된 못 듣고, 그때 같이 잡히그넝 간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지금 시니까, 그때 이야기들은 얼마 우리 내용들은 다 알주.

102006 @ 게난 그 내용을 흐끔 고라쥬봅서.

102006 #2 내용은 나원 궂고프도 안헤여. 거 부모네 좋은 일이믄 하겿는데, 이 좋은 일이믄 하겿는데. 여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거 가 발표헨 뒹하냐. 거 후손들토 잇고, 모르는 게 잇는데. 상대방도 후손이다 이 관계가.

102006 @ 그난 그거랑 누게랑 궂지 말고, 이게 궂지 말고 영 얘기헤 줄수 어서 마썸?

102006 #1 아니, 그 난 ㄱ를 말이 어서.

102007 @ 알아수다, 알아수다 게믄 예 넘어가게예. 어 게, 두 분은 결혼을 중매 결혼 헤수과, 연애결혼 헤수과?

102007 #1 중매

102007 #2 우리 연애할 줄 몰라.

102008 @ 예, 경헛구나예. 게 사주는 받마씨?

102008 #1 사주 봤주게. 그때 사주팔자 뵙 헛주게.

102008 @ 거난 사주팔자가 좋덴 헛디가?

102008 #1 좋텐 혜신고라 ㄹ치 ㄹ자 살앗잖아.

102009 @ 아 맞수다예, 진짜예, 으음. 그때 결혼할 때 혼수론 뭐 가져와수과?

102009 #1 혼수는 흥세.

102009 @ 예, 흥세하고.

102009 #1 흥세 막 놓는 거,

102009 @ 아 이불이라든가 안 가져 와수과?

102009 #1 아하, 그때 나 이불 하영혜연. 이불 세 채. 하영허민 헛주.

102009 @ 계난 하영 혜수다예.

102009 #1 으, 두 채가 기자 훗살 낮게 하민 두채, 계민 혼채 경헛팬디, 나 세 채 허난 이불은 하엔.

102009 @ 어뎡헛 세 채를 혜집디가?

102009 #1 아 어뎡 허난사 혜신디, 시집을 재기 안가난 게.

102009 @ 직접 슝 틀언 헛지예?

102009 #1 응, 슝 틀언 허고. 저 무시거 이불 ㄹ풀 같은 것도 거 이디 아이들인 뎡 멩지 질른 걸로 다 허고.

102009 @ 멩지로예, 아유 좋 은걸로 혜수다예.

102009 #2 계난, 우리 집안은 허는데. 여기는, 놈들이 다 경해도 세상 모르게 큰 집안이주게.

102009 @ 아이고 경헛구나예, 친정 덕 봤져예?

102009 #1 덕은 무슨 덕. 옛날에, 우리 친정 왕와헛는디, 이젠 멩씩. 친정들 못 살아.

102009 @ 그때 계믄, 이불 세 채도 헛 와신디, 이제 남자삼춘은 계믄 무시거 혜 줘수과?

102009 #2 아무것도 안 혜줘서 하하.

102009 #1 혜준게 뭐 시서.

102009 @ 기파?

102009 #2 우리 사진도 못 찍엇네게.

102009 #1 그 시절에 사진도 안 찍고.

102010 @ 그 이후에도 안 찍어수과?

102010 #1 어?

102010 @ 그 이후에도? 막 살명 나중엔 사진이라도 찍어사켄 안 혜수과?

102010 #1 아니, 지냥 무시거 헛건 허는디. 사진을 찍젠하믄 애기들 난거 가족 사진도 못쳐서. 뭐 카논 사라부난. 메울 수가 어서. 직장 다 뜨나불고. 혼디 만날 수가 어서게.

102010 @ 멩질 뎡 오지 않읍니까?

102010 #1 멩질 뎡 오란 멩질 새 그거 불러당 어뎡 헛 수 이서? 겨난 가족사진도 못 찍언 살암서.

102010 #2 계난 지금 딸도.

102010 #1 놈들은 어떻헌데 헤도.

102010 #2 딸도 육지강 사는 딸도 있고, 아들도 육지 간 사는데 이게 모이지질 못헤여.

102010 #1 모이지질 못헤여. 혼디 모이지질 못헤나네 가족사진도 못썸 살아.

102011 @ 아 기구나. 게문 신희, 결혼헿 신희살림은 어디서 헤수가?

102011 #1 어디서 헤여서, 저, 영~ 헿 살면은, 혼걸 안팓거리믄 혼 거리는 시어머니네 살고, 혼그리는 우리 살고 쟁헤서.

102011 @ 아, 안팓거리 집이 이서낫구나예.

102011 #1 예, 경헿 살앗주.

102011 #2 그 안파끄레 집이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인데, 어떻게 뿔냐믄, 나 밑에 직접 밑에 세 살밑에 동생이 이섯는데, 그 우리 그전에는 4.3사건 때 성산 저디 살 앓주게? 쟈네 나 군인 가분때 그새 나와네 가이가 집을 지어서. 가이가 집을 지엇는데, 나는 제대를 하곡 가인 군인 갔거든. 거나넨 가이 집을 우리가 살앗주. 거기서

102011 #1 쟈 그디 죽어비언.

102011 #2 쟈 근디 그 군대 간 사고로 죽어벧주게.

102011 @ 아, 기파.

102011 #2 사고도 춤 이상한 사고로 죽어서.

102011 @ 아,

102011 #2 아니 제대 말렷 뿔는데, 완전 고참 허니까 그때는 침, 저 군대도 무시거 없어가지고, 거, 기자 산예강 나무헤단 난로 땡 뿔 헿주게. 계난 부하들 데령 가네, 저 육지서는 오름이엔 안허는데, 오름새끼 쯤그마한 거 오름새끼 낭 헿는데, 우에서는 낭허고 밑에가네 자빠젓거든. 고참이난 헿디, 낭을 거기로 쓰러질리 엿주게

102011 #1 자빠져서 지시시키다네, 계난 게 낭이 사람 우트로 자빠져비언.

102011 #2 아니 계난 근디 질식시켄, 거기 바러시믄 나왕 도망이라도 갈건디, 그대로 자빠젓 고만이 이시니까, 낭이 드러누워부니까 이 바로 이디 머리 마자네,

102011 @ 게문 그거 계속 그 뿔 받으면 마씨?

102011 #2 쟈디 거도 부모네 깃지 밖에 못 받주게. 아 어머니 산 때 어머니 받 앓주.

102011 @ 아, 기파.

102011 #2 게네 우린 동기간이, 동기간이 베랑 없서. 어머니 산때깃지. 계난 부모네는 받았지. 아 어머니는 받고, 우린.

102012 @ 아, 경헿구나예. 어, 그므는 이제 두 분이서 아이들은 몇 명 나아수과?

102012 #1 다섯, 아들 둘 딸 셋.

102013 @ 아들 둘, 딸 셋. 아 경헛구나예. 어, 그 시집살이 안팓꺼레 살젠허난. 시부모님이 잘 해줍디가? 혹시 막 설룬 일은 어서수과?

102013 #1 아니 우린, 응 그런 건 어시 살고, 겨난 나도 경허난 그 애기들 곳게 안헤지고 살아지고. 메뉴리 헛난 육지헤비고 헛난 이디 살고 헤도, 그런 것은 편안 하게 걱정어시 살아.

102013 #2 게난 여기가, 지금 메뉴리지만은 집안엔 부모나 다름어서, 밑에 동생 들 전부 결혼을 행 이사름이 시켓스니까. 부모나 다름업주게 허허.

102013 @ 아, 큰아들한테 시집와부난예.

102013 #2 큰아들은 아니주마는.

102013 @ 아, 다른 성에.

102013 #2 게난 우리 큰형님도 육이오 때 군인 가네 그디 아파네 일찍 죽어 불 고.

102013 #1 게난 이 아래, 저 시아즈방덜 다 결혼시키고.

102013 @ 뻐이어수가, 시아즈방은?

102013 #2 밑에 시아즈방은 둘인데.

102013 #1 둘이 결혼시키고, 위 헛나 살단도 죽어빋주마는, 그 사름도 츠레루 우리보단 알앙 다 흘때라도 못하난 우리가 경정헛 살고. 우린 시어머니도 있고, 또 큰아바지에 어머니도 이섯주게. 경헌 어른도 기자 헛 미져 올래 모성 살고 경헤도 그런것에는 헛어시 무시거 안헤그네 살안.

102014 @ 아이고 삼춘이 게른 완전 고생헤시켜예. 그 다음에 지금 다섯 오누이 는 다 시집장게 보내수과?

102014 #1 시집장게 다 간.

102015 @ 그 메뉴리는 막 착헛니까?

102015 #1 메뉴리 막 착하는디. 불만, 애기 헛나뻐이 안나안.

102015 @ 다 요즘 헛나뻐에 안납니다게. 저도 헛나뻐에 안나수다.

102015 #1 헛나만 나부난 것에 용심난. 이제.

102015 #2 현디 우리 큰아덜은 두 개 아들 두 개 나고, 죽은 아덜 죽은 아덜.

102015 #1 응, 죽은 아덜. 죽은 아덜 딸만 헛나 난 마난, 나는 무시거세 구진궁 허민, 나도 곳지아년디 그 손져 헛나만, 이루제 어떻하난 어떻 아방 엇곡 허민 지네 만 불싸 , 지만 불쌍헤진 생각, 헛나만 벳 붓찌시민 좋을거를. 경헛난. 나는 다섯 개 나도 나난거 담도 안헤곡, 애기들 저두르지 아니고 허난, 난 원 하영냥고 조경냥고 존디. 헛나만 냥도 거기 손주 헛나 기자 아이 울리젠만. 어떻 아방 죽어불민 그거 어드레 붓떠. 겨난 그거 생각만 헛주.

102015 #2 어떻아방 죽을 때 까지 살안지크라?

102015 #1 아니 그거게. 그거. 손지 무시거 불쌍헌 생각허주 나는 아멩헤도 이 보단 더 무시거 이제 만일 죽어베도 좋을건디. 죽지 못하는 것베끼 난 원 어서. 원 이 어서.

102015 @ 경헛구나예.

102015 #1 어~, 경헛디 자꾸 아프는 거. 이젠. 아프는 거 때문에, 확 죽어지는 것만 원이주. 이제만이 죽어도 을큰도 안히고. 못한거 있구나 헛 생각도 안히고. 난 만족허다 이만허든 만족하다, 헛 살아.

102015 @ 경헛구나예.

102015 #2 계난에 이디 우리 처남이, 누님ㄱ란 뭐엔 ㄱ냐면, 우리 누님은 세상 모른덴 ㄱ주게.

102015 #1 세상을 몰르게 살암덴허난, 난 원 시상을 몰라.

102016 @ 경헛구나예,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은 다 끝나서예. 혹시나 수망리에 나고 자라면서 뭔가 특별하게시리 얘기하고 싶은 거 어수과? 뭐 아이들 이야기라든가, 뭐.

102016 #2 아니,

102016 #1 어서.

102016 @ 어서마씨? 예 알앗수다예, 그러면.

3. 밧일

103001 @ 어, 지금부터는 밧일에 대해서 저기 물어보쿠다. 우선, 밧일에는 어떤 일들이 이서나신지 하나씩 하나씩 여쭙볼게예. 보리농사부터 먼저 시작하쿠다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우짜?

103002 #1 돗궘름.

103002 @ 예, 돗궘름 해야돼고.

103002 #1 하간 궘름 헤그넝 통시레 담양 옛날에 도새기 질루민, 그 도새기 오 줍싸고 블라블고 한거영, 쉼 질르며는 쉼똥에다가 그레 터놉그넝이 궘르곡, 쟁헛 궘름 멘들양 돗궘름을 허젠허민 그거 든 네영 쉼헤영 씨뿌리멍 블러놉.

103002 @ 쟁디 그거를 차곡차곡 저가 질문할거라예? 먼저 그러면은 예, 어 보리밧에 궘름 은 어떻게 저기 장만헤수과?

103002 #2 궘로, 아까 말한건데.

103002 @ 계난 이제부터 궘 ㄱ라줍서.

103002 #1 돗궘름을 네어그넝에 허면.

103002 #2 아, 거 뭐냐 돗궘름 보단도 뭐냐 먼저 쉼궘름이 먼저지. 쉼궘름을 돗 통시에 앗당 담양 그궘 돗궘름 만드는거난, 쉼궘름부터 먼저. 쉼궘름아야 저 소똥.

103002 @ 예, 쉼똥. 예.

103002 #2 어, 그 쉼궘름이주게. 쉼에자넝, 그궘 궘당 또 돗통시에 그 담은단말 이야, 궘? 담양 그것이 도새기가 막 다니고 똥을 밟고 허영 그것이 내중에 단 또 그궘 궘내그넝 예.

103002 #1 그계 듯걸름.

103003 #2 그거시 완전 씨 뿌리멍 걸 완전 불리는거주 새로.

103003 #1 새로 불렛당 이제 그 듯걸름 쯤쨌헌 거 멩텅이에 담으멍 싯거당 밧디 지만석, 지지만석.

103003 #2 나 인칙이 저거 식당에서 듯걸름 저기엔 ㄱ랏지? 지금 곳잖아.

103004 @ 예. 경헛구나예. 거난 거름을 마련해난 다음에 네 보리는 예 언제 갈아수과?

103004 #1 구월들.

103004 @ 구월달에예, 게난 양력 구월이파 음력 구월이파?

103004 #1 하르방 그때 구워, 구월 겨난 처가 철이 일르곤 헐땨디. 어느 때 뉘민 듯걸름 시작해숫과? 하르방 그때 군인 갈 때 , 저 구월 수무일렛날 가느디 듯걸름밧 다 헤돈 가서.

103004 #2 근데,

103004 #1 음력이멍 양력이멍 몰라.

103004 #2 그때는, 그때는 어뎃냐믄, 이 거의 여기 사람들은 음력을 썼지 양력을 안103004 써. 경 켜데,

103004 @ 음력으로 그믄 구월,

103004 #2 게니까 지금 ㄱ는 것이, 음력으로 구월 이십칠일날 내가 군인 갔는데. 게네 우리 제사니까 잊어불질 안허는데. 그때 저 양력으로 십일월이라.

103004 @ 아, 양력으로 십일월이구나예.

103004 #2 예,

103004 #1 그 듯걸름밧은 제기 안허민 막 손 추운 때라 케여.

103004 @ 맞수다.

103004 #2 게난 십일월이렌 헤, 십일월 달 빨르믄 눈 올 때가 다 뉘겨주게.

103004 #1 게난 그때 다 못간 간 거. 듯걸름 밧들은 다 모칸 군인 간 거. 나도 그거 계산은 지금 알아져.

103004 #2 게난 내가 십일월 십일일 날 군번을 받았느디,

103004 @ 아 경헛구나예.

103004 #2 십일월 초.

103005 @ 십일월 초 예, 켜 그며는 걸름 준비하면, 보리씨는 게민 어떻 뿌립니까?

103005 #2 아니 건 아까 곳잖아, 보리씨 걸름을 영 이디 영 마당에 헤가네 영 넓게 헤가지고 쉼로 불르면서 그 걸름에 막 뿌린단 말이여 거.

103005 #1 영 막 걸름물 들게.

103005 #2 경 걸름물 들게 경허민 딱 헤그넵에 쟁영, 영.

그니까 그 걸름을 이거 보리씨 몇 말 지기 영 허겿다 딱 계획을 하면, 그니까 그 놉을 그전에는 쉼로도 시끄공, 내중에는 마차로도 시끄공 시꺼다그네 그 밧디

씨 계산하고 그 걸름 헤그넵게 그 게 씨 그밭디 시꺼당 그 간격 벌여그네 거 다,
 103005 #1 그걸로 우리 그밭디 다 놔야 씨가 맞는 거.
 103005 #2 거난 그기 헤가지고 간격 버려가지고 그걸 전부 퍼 논단 말이여. 거
 나넨 그거 그대로 막 보수명, 보수명 막 뿌리는거라.
 103005 @ 걸름이랑 곳지예, 그 안에 들어져이시난예.
 103005 #2 어.
 103006 @아, 경헛구나예. 그러면예, 그 보리엔 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
 103006 #1 찰오리, 걸보리, 떡보리, 두줄보리, 줄보리 그라 두줄보리엔.
 103007 @ 아, 경헛구나예. 그며는 이제 보리는 햅끔 이제 싹 나기 시작헤가지고
 얼마 안 돼면 보리를 밟아야 하잖아예? 보리 밟기는 누가 어떻 언제쯤 밟아수과?
 103007 #1 이딘, 육지서는 볏갓구나 마는 이디서는 베랑 안볶아.
 103007 #2 우리 흑교 대닐 때, 흑교에서 학생덜토 불르레 땡겨서.
 103007 #1 경헛서.
 103007 #2 계난 우리 흑교에 가니까.
 103007 #1 밀도 이서났고, 밀. 밀이엔 현 것도 같아났고.
 103007 #2 그 일본놈덜이, 그 공출 그기 내중에 허젠, 막 헤그넵 아 학생들 구
 지 걸름 학생 저 튀비 걸름도 막 가정 다녔다니까 일본놈덜, 뭐 보통 원.
 103007 @ 예, 그른 삼춘네가 간 보리는 안 볏아 봐수과?
 103007 #1 우린 안 볏아봐.
 103007 @ 안 볏아도 그냥 잘 자라췌구나예.
 103007 #2 그, 불르는 이유가 잇주게.
 103007 #1 땅 구경.
 103007 #2 웃자란다고 헤가지고,
 103007 @ 예.
 103007 #2 어제 거고 여기는 땅이 뜬 땅이라, 아니 저기 대정하고 여기 완전히
 뜨리주게. 대정은 지금 이 대정 수기목 이만이 크다 어실거라. 나무 큰거보민 알아.
 여긴 키만 크주게. 계난 보리도 여 뭐 헤그넵 웃자라게 행 내불른 그게 어디 내중
 엔 피문 자빠져부러.
 103007 @ 예, 여긴 웃자라지 았앙 잘 자라주지 안헤수과? 밟지 안허게.
 103007 #2 여긴 웃자라분다는 거주게.
 103007 @ 웃자라불지 안허게 볏으는 거 아니마췌?
 103007 #2 것도 볏고, 볏는건데, 거 땅이 끄니까 땅이 물씩, 탕탕허질 못허기 때
 문에,
 103007 @ 물씩물씩 헤부난예.
 103007 #2 계난 물씩헤불민 그게 자빠져분다는 거주게. 자빠지른 뿌리가 메어져
 불 수도 잇고 허니까, 볏는건데.
 103007 #1 안 볏아봐 이딘, 수망리는 안 밟아봐서.

103007 @ 겐 경헛구나예.

103007 #2 웨야, 수망리 우리도 뽏아나서.

103007 @ 어틸 땐 예?

103007 #1 하유 난 안 헤여난 거 ㄱ튼디.

103008 @ 보리밧디 검질은 몇 번 메수과?

103008 #1 아이고 검질 메는 거사 이녁 허구정 현냥 허주. 이 밧디 이 알력밧디 이거 우릿거카부덴 늬이 험시카부덴 세주만은 저 검질 봐. 검질 메. 는 거사 무신 혼이서?

103008 #2 검질사 거 혼자 허는 거지. 검질 잘 나는 밧디허고 안 나는 밧디 차이나난.

103008 #1 야 알력밧디 풀보민 우리집 ㄱ리침시카부덴 나 걱정헤져, 이거 늬의 건디 풀이 이만이, 줄로 오는디도 경허문.

103009 @ 음 거문 그 보리밧엔 어떤 검질 나나수과? 검질에 이름들 생각나는데 로 그냥 ㄱ라뽏서.

103009 #1 대우리도 나곡, 저 쉼미에겐 현 거, 쉼미에겐 현 것도 잇주게?

103009 @ 예.

103009 #1 쉼미에겐 현 건, 붉은 건 고작 퍼그넝 막 여름 여는 거. 대우리, 쉼미 에께 그런 거 이서.

103009 @ 다른 건 어서수과?

103009 #1 보리밧디 검질은 그거.

103009 @ 무신 저기 뽏파. 그거. 비듬이라든가.

103009 #1 비네, 그건 여름. 비네 저수지서 뽏서.

103009 @ 아 게 보리는 십일월 달에 가라부난, 데우리나 쉼미에께. 이 정도엿구 나예?

103009 #1 어.

103009 @ 그렇구나예. 검 보리밧에는 그문 검질을 막 여러 번 메지는 안 헤도 될 뽏 헛저예?

103009 #1 여라번 아니 메여도 웨는디, 씨아 신디는 빌 때 웨민 또 이서. 멘 디 도. 경허연 허주마는.

103009 @ 게문 빌 때 될 때 나는 검질은 뽏여수가?

103009 #1 빌 때 뽏 나는 거 씨메께.

103009 #2 검질 이름은 잘 알암져, 나는 검질 메러 안가부난 잘 몰라.

103009 #1 내뽏서.

103010 @ 보리수확. 보리를 그 수확할 때, 거뽏들일 때, 그 거뽏들일 때는 처음 에는 뽏 베고 어뽏허고 어뽏허고 헤그네 그 보리 털 때까지 이야기를 죽 ㄱ라쭏서.

103010 #1 어, 침 보릴 익으면은 그걸 비엿. 죽 하게 비어그넝에 묶어. 시꺼다그 넝 시꺼다니고 아무게고 모야뽏 거 테작 허는 거. 무시거엔 꺾나만은, 거 보라. 것

도 이저분걸. 저, 보리장만하는 거.

103010 #2 브리는 거.

103010 #1 아니 장만하는 거 무시거 기계,

103010 #2 홀트지 홀타.

103010 @ 아 홀타수과?

103010 #1 기계 저 틀로 홀타는디.

103010 @ 기계 어실 땀 마씨?

103010 #1 게메 기계 어실 때, 거 봉투ㄴ라 뭘엔 꺾나만은, 이좌불언.

103010 #2 게 홀트는 게 그게, 어이고.

103010 #1 거 잇아빚져 영 무시거 원래 돛는 거 열레기쌀 님은 걸로 영영 썰멍
훅아.

103010 #2 거 우리 집이 어디 그기 실거라.

103010 #1 어디 잘 나두지 았으면.

103010 #2 거기 요 천장 우에 이실거여.

103010 #1 것구라 뭘란 꺾나면은 잇어비영, 보리 영 보리 클로 홀트주게. 것꾸
라 무시거엔 꺾는것도 이제야 잇아비언 모르큰게. 경혜언 홀탕 도께로 두드려.

103010 #2 그 일름 잇어부러져.

103010 @ 혹시 이시냐 나중에 찾아봅서. 이시믄 찾아그네 사진 좀 찍어놓게예.

103010 #1 어이코 나뒤질 거, 무시거.

103011 @ 계난 보리 그 담엔, 보리 타작할 때 홀터 놓잖아예, 홀터논 그다음에
는 어떻게수과?

103011 #2 그게 그 다음이 타작이주.

103011 #1 예예예, 도께.

103011 #2 게게 그게 타작 허는 거주게, 두두리는 게.

103011 @ 도께질 허는 게,

103011 #1 으응, 도께질 헨.

103011 #2 그게 타작이주게.

103011 @ 그, 여기도 도께렌 헨 고라수과?

103011 #1 응, 도께.

103011 @ 도께질예. 그 다음엔, 도께질 한 걸로는 밥을 못헤 먹잖아 예? 그 다
음엔 어떻게수과?

103011 #1 도께 혜영 두드려당, 브름에 불령 널엇당, 이제 물ㄴ레에 강 ㄴ는거
라.

103011 @ 물ㄴ레. 계난 여긴 물ㄴ레가 이서수가?

103011 #1 응, 못 이셨주게.

103011 #2 물ㄴ레 여기.

103011 #1 수망리도 댓빚디 서.

103011 #2 물그레가 상당히 많았주.

103011 @ 계난 물그레, 물그레 옛날엔 물그레 계를 만들엉 뭐 헤냏잖아예?

103011 #1,2 응.

103011 @ 그 물그레 계 헛던거 기억남수가? 뗏 집에 그 물그레를 그찌 써수가?

103011 #1 뗏 집이서 그 동네만씩 영 쓰난, 그 물그레 몇 개 사난 건 알주만은, 계 103011 대난 건 잊어불주게.

103011 #2 아니 계난,

103011 #1 동네 만씩, 브든 디 만씩 가신디.

103011 #2 그 것도 이녁이 지금 물그레가 바로 여기 이섯고, 저기 이섯는데, 우린 여기꺼에 갈바엔 저기꺼에 가켄 헛주게?

103011 #1 밧디서 가입허곡.

103011 #2 경헨, 영 헤그넝 영 몇 사람이 영 가보, 몇이서 팀을 구성허믄, 알에 도 안한 사름은 판디장 붙엉 허고, 거 다 계난.

103011 #1 우리 물그레 오닐쫘, 널쫘 그걸 굴젠 허면, 비차락이나 솔박이나 앓 땅 그디 아땅 옆으는 거라. 그 물그레 굴켄 한 표시.

103011 @ 표시로.

103011 #1 응, 경헨 츠레츠레 경 헤게 뒤엔 경헨 굴곡 경헤냏주.

103011 @ 게믄 그 같은 계원들은, 그 특별하게시리 시기 안 놓쳐가지고 다 그 라져 마썰?

103011 #1 응, 경헨 그람주게. 여러 밧디난 지만씩이나 경허난 이디 그라나민 저디 103011 굴고 켄 현 표시 앓다 나시믄 갓당도 안헤여.

103011 #2 아니 계난 여러사람이 아니주게. 여기도 저기 이섯고 조기 이섯고 요기 이섯고 물그랑이 바로 무신 거 저.

103011 #1 경헨 그라당,

103011 #2 그렇게 이섯는디뒤.

103011 #1 그 그라다그넝에 그 보리를 널어, 널엇따그넝에 막 물리왕 사사하게 물리민 그거 해당 정글헤난 거. 뗏돌 영 허는 거.

103011 @ 예, 예 정그레, 예.

103011 #1 응, 막 이어이어 허는거. 그 굴멍 그 노래불멍 텔레비에도 나완게 그 거 이에. 그거세 그라그넝에 채로 므 갈라그네 흘근쫘 줌진쫘 가랑 밥헨 먹인.

103011 @ 거. 갈 때 불렀던 노래 기억 남수가?

103011 #1 응.

103011 @ 흐끔 불러봅서.

103011 #1 그라지크라? 이어 이어 이어 이어도 흐라 다슴 어멍 그랑 나가 츠레 를 모르켜. 당, 저, 아니 무시거옴 굴안, 아휴, 잊어비언. 그랑쫘썰 여시 먹엉 다슴 어멍 말 어시 살라. 또 무시거 또 잊져만은, 가리 오리 세어보난 나도 입이랑 그를 말 잇나.

103011 #2 다슴어멍안티 오죽 압박 받아사 저 소리가 나와?

103011 #1 ㄹ랑줍쓸이란 조가 잇주게. 거난 그게 니 어시 허민 경 어려웠던 고라. ㄹ랑줍쓸 니 어시 먹엉 다슴어멍 말 어시 살라.

103011 @ 음,

103011 #2 다슴어멍이언 계모.

103011 @ 계난 무시거엔 ㄹ르카보덴. 다슴어멍.

103011 #2 에,

103011 #1 ㄹ랑줍쓸 니 어시 먹어 가민, 다슴어멍 말 어시 허게 잘 헤진단 이말이라. 겨고 말 어시 살라. 아이고, 또 무시기엔 곳젠 하단 말아져니. 가리 오리 세언 돈 세어도 나두 입이라 ㄹ를 말 잇나. 아이고 또 무시거 곳젠 헌데 이저비언.

103011 #2 짤 나보다 백 곱 나스크라.

103011 #1 헤이고, 새 논이 크덴헤도 니 논이 크다. 아이고, 산덴 허나 못 산덴 허나. 나 얼굴에 지미나 보라, 얼굴에 지미나 보라. 산덴 허나 못산덴 허나 얼굴 보민 알아진다. 옛날에 그추룩이엔 고라나서.

103011 @ 그든 그거는 시어멍 입장에서 굳는 소리꽈?

103011 #1 그겔꺼주게. 시집살젠 허난 시집사는 거, 시집사는거세 갖는 거주게. 산덴 허나 못 산덴 허나 붉은 양지에 지미나 보라.

103011 @ 음.

103011 #1 딸이 옛날엔 딸이 시집이 갖당 오며는, 자꾸 오도 안헐 살다그네 흥 쓸 오면, 시집이 오며는, 저 친정이 오며는, 딸이 시집강 살다그넝 친정에 오며는, 딸 얼굴 보미는 흰하기 알아. 딸 얼굴 보며는 잘 살고 못 산거 보민 얼굴에도 알아진다게. 가난 붉은 양지에 짐이나 보라.

이거 이추룩 곳ㄹ, ㄹ랑줍쓸 니 어시 먹언, 다슴어멍 말 어시 살라. 가단 질도 가당치지안허건 걸음을 말고. 말라헤도 대답을 말라. 경허멍 그런 춤양 옛날에 살아서. 입 막음 뗏 년, 귀 막안 뗏 년, 눈 어두경 뗏 년,

103011 #2 계난 시집살이엔 하는 것이 지금허고 옛날이랑 뜯린 것이,

103011 #1 기주만 이젠 경 안헤주게. 시어멍들이 막 배우기 때문에 절대 아니 곳지안헤여.

103011 #2 옛날, 옛날 사람들은, 딸은 경허고 시집갈 생각을 안헐거든. 거난 부모네 가렐허든 거기 저 죽을 걸 각오헐 허는 때문에, 요새민 영 비위에 안 맞으면 툭 차불면 될건디, 옛날엔 그걸 못헐주.

103011 #1 우린 당추게. 그자 가렐허든 가야고, 죽으나 사나 간딘 살아야 사람 노릇허주, 덩경 요새 애기들은 울곡 서방 내비둥 돌아다니곡 허는 건 사름으로 생각을 안헤져. 옛날엔 경 안헐주.

103013 @ 맞수다, 계민에 그다음엔 보릿

살로는 어, 뭘 헤수과? 보리밥도 헤 먹엇주만은 또 다른 거.

103013 #1 보리밥게.

103013 @ 보리밥 말고.

103013 #1 보리밥 말고 보리쌀로 거 무시거 보리밥 말앙 하는 게 이서?

103013 @ 뭐 계역도 헤먹고,

103013 #1 어, 계역도 허주. 계역도 헤영 먹곡 보리쌀 티왕 웬장도 멘들고 기추
록 했주.

103013 @ 보리쌀 케와그넝 마씨?

103013 #1 티왕, 티왕.

103013 @ 아 티왕.

103013 #1 밥 헤영 티왕.

103013 @ 티와그네.

103013 #1 으~, 웬장도 만들고 계역도 헤영 먹고

103014 @ 그 담에, 그 다음엔 예 보리를 다 그 뭐헤나 수확헤 놔버리면, 보리
그 채나 그 다음엔 보리 짝이나, 그 다음엔 그 보리 ㄱ굴이에서 가시 팍팍 찌르는
거 잇잖아예.

103014 #1 ㄱ스락.

103014 @ 예 ㄱ시락, ㄱ스락. 이런 것들은,

103014 #1 ㄱ스락.

103014 @ 어 ㄱ스락은 뒤에 사용헤수과? 우선 그 보리 채는 뒤에 사용헤수과?

103014 #1 보리채는 갈아나른 거풀은 도새기 쥬 질르고, ㄱ스락은 불지더그넝
불치로 헝 쓰고 경헛주, 밧디도 기자 뿌리봄도 허곡, 저 불치 멘들영.

103014 @ 뿌리기도 하고예, 보리 짝은 마씨?

103014 #1 보리 짝은 밧디 굵도 허곡, 통세에 담앙 걸름도 허곡, 슬아불진 안헛
주 그거.

103014 #2 불치가 돛통시에 들어갓주

103014 #1 담앙. 걸름헤주게.

103015 @ 경헛구나예. 보리 농사를 하면서 막 특별히 막 기억났던 어떤 추억이
나 그런 거 어수과?

103015 #1 무시거 그런 건 엇고.

103015 @ 예 저기 삼춘, 군대 가불면 우리 여자삼춘 혼자서 그거 이제 막,

103015 #2 나 군인갈 땐 이디 시집 오도 안헛주게.

103015 #1 군인 강 온 때, 군인 저 스즘이 셋단 군인 간 오난 결혼헛.

103015 @ 아 경헛구나예.

103015 #1 견 저들 필요도 없고,

103015 #2 그, 그때, 그,

103015 #1 혼디 살아도 우린 연애도 안허고 한 번도 안사겨반.

103015 #2 그때는 계난 결혼 막 늦게 한거라 스물 요섯에 결혼헛시난.

103015 #1 나 스물 요섯에. 응,

103015 @ 아 스물여섯에, 예. 아우 세상에.

103015 #1 스물요섯에. 당추 군인 같 때도 이 사람신디 시집와지카부텐 안허고. 강 감신가 완 허고. 우리집이도 군인가노렌 동네난, 가공이 부처산 군인간덴 헨 ㄱ란, 당추 몰라서.

103015 @ 경헛구나예.

103015 #1 겐 가분 후제 집이 온 소진 모사네, 연예도 원 흘레레 안허고, 겨고 나는 연애 흘레게도 안허고, 완전 연애하는 건, 그 시절에 연애 아무나 안허어.

103015 @ 맞수다예.

103015 #1 어~, 당추 이녁이 몸정 무시거 명예 슬리멍 경 할 필요 없다는 거, 난 경허멍 산 사람이여.

조농사

103016 @ 다음엔 조농사에 대해가지고 저기 물어볼게예. 아까 보리농사 할 때 어떤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물어봐낫잖아예, 조농사 할 때는 게문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나수과?

103016 #1 조농사 헐 땐, 기냥 그 시절엔 조씨만 뿌령, 물 해당 막 불런.

103016 #2 그니깐 여기는 아까도 ㄱ랏주만은 땅이 뜨는 때문에, 불려서 불려서.

103016 #1 막 불란. ㄱ시 막 하영 그 어리 어리 어리 허멍 막 텔레비에도 나오는 게.

103016 #2 그 영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도 막 물 많이 헤그네 예 그 그네 테우리 렌 해주게? 물테우리. 그축헨 밧 불리레 많이 다녀낫는데.

103016 #1 경헌 불렛주.

103016 #2 게난 웨냐, 여기 땅이 뜨기 때문에 막 볏아줘야 헤어.

103017 @ 그른은 그 조밧 거름은 그른 어서나수가?

103017 #1 안헤연.

103017 #2 조팏 걸름은, 조팏은 여 저 열매 하는디 거이 그딘 걸름 어시.

103017 #1 걸름 어신냥,

103017 @ 그난 조를 씨를 뿌려난 다음에 저 마, 말, 물로 볏아수가, 뿌리기 전에 볏양 뿌려수과?

103017 #1 체암 영~ 핫슬 볏아냥. 설화놔그네 그 우트레 또 뿌리는 거라, 씨를. 체암 핫슬 슬름이엔 헨거 핫슬 영 헤냥, 두루뉘게 핫슬 불려냥, 초벌 벌려냥 다시 씨 뿌려.

103017 #2 글세 어떻게 됐냐른, 이거 밧을 갈아노민 막 판이 지지 안헤? 그걸 핫슬 불령 췌췌허게 허고. 게아니문 그 저 고랑에 썸은 막 짚이 묻어질거니까 핫슬 영 밧을 불려그네 영 췌췌허게 헤놔그네 씨를 뿌리주게.

103017 #1 씨를 뿌려그네 풀젠헌디, 그 테우리 몽뎡이가 잇는거난 그 몽뎡이로 영영 헤보멍 췌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불리는 거라. 경헌디 그런 날은 테우리 밧

이라고 만약 잘 출려그넵 해당 먹고.

103017 #2 그때는 그 잘 출리미엔 헌거주.

103018 @ 음. 게른 이제 그 조는 게난 언제 갈아수가?

103018 #2 보릿비민.

103018 #1 아, 하지 넘으면은 산디끌 불림 시작허영 츄츄, 좋은 맛은 낭중, 구진 맛은 이제 츄츄 해가는다, 하지 주, 저 하지여, 무신 유월절이여 부록 절기를 따져왕 하는 거.

103018 @ 게난 하지 지난 험수과?

103018 #1 응,

103018 #2 응, 하지 지나그넵에 저 유월절, 유월절 넘으면 그 전엔 마 겐지, 마 겐젠 허주게. 마 거뒤가민 이제 유월절 앞뒤에 하주 대게.

103018 #1 유월절 안전 끝나기 전이 용시 끝.

103019 @ 게, 저 조, 줍씨 뿌릴 땐 게메 어떻 뿌려수가? 그냥 막 영영 막 뿌려수가?

103019 #1 어, 그냥 영영영영 해도 잘 뿌려, 옛날씩이난 경헌디, 씨 뿌리는거는 우리 하르방 날만이 못 뿌려, 나가 잘 하주.

103020 @ 조팍 밍을 땐 아까 그 물로 끓으고예. 아까 저기 물로 끓으는다 잘 끓어져신지 안 끓어져신지 아까 뿔로 확인한덴 해수과?

103020 #1 낭으로 영 접앙.

103020 #2 접앙이엔 그거시 거 저,

103020 #1 툃툃~, 툃툃허민 끝난 거.

103020 #2 뿔테우리렌 허는다, 뿔테우리가 그 막땡이 아정다니명, 그 즈루메 거 뿔 뿔앙 대니는 사람 잇주게? 그 막땡이로 영~허라, 영~ 그리치민 그레 뿔곡, 영~ 그리치민 그레 뿔곡, 이거 대장이라, 앞에서. 테우린 대장이고, 뿔에 사람은 그 그 사람 막대기로, 게난 영 슬피명 요기 강 끓으겠다 하면은, 그레 영~ 허든 그레 뿔 물어주고, 그렇게 헛다고.

103020 @ 그 말대, 그게 혹시 말대렌 고라수과?

103020 #2 말대?

103020 #1 테우리 뿔땡이.

103020 #2 게난 말대영도 할 수 잇주게. 말대영도 헐 수 이서.

103020 @ 테우리 뿔땡이.

103020 #2 말대영도 헐 수 이서.

103020 @ 겐 남테는 뿔우짜? 남테.

103020 #1 남테는 뿔대신 사람이 메영 허는 거.

103020 #2 거 남테는 뿔 대신 허는 거.

103020 @ 뿔 대신 하는 거?

103020 #1 뿔 대신 그 바위 하영 난 우에 돛정 박은 거,

103020 #2 그난 그 큰 낭게 발을 막 듯정, 꼬성 텡기멍 불르는 거.

103020 #1 그 문화제 구경 가보난 큰 거 막 돌아진거 선게, 시따비,

103020 #2 그거 봐 나실 걸 남테.

103020 #1 아니, 난 대충 구경가나시믄 봐낫주게. 남테 막 발 막, 낭 영~ 째은 거 하영 박앙 저 물에 메왕 꼬성텡기멍 허는 거 이서.

103020 #2 거 물대신 허는 거.

103020 @ 아, 그게 남테, 그럼 돌테는 뭐파? 돌테.

103020 #1 돌테도 서?

103020 @ 끈게는 뭐파, 끈게.

103020 #2 여기, 여기는 그런 게 없었는데.

103020 @ 아 그렇구나예. 남테는 이서낫고예.

103020 #1 응, 남테는 막 잇주.

103020 #2 요텐 물 어신 사름들이 그러는 거.

103021 @ 그 다음엔 조팃디 검질은 어 1년에 한 몇 번쯤 메수과?

103021 #1 아, 조팃디 검질은 세 번 메연. 원칙.

103021 #2 초벌 두벌 세벌 영 허주게.

103021 #1 검질은 어느 때 끝나는고 허민 8월 15일. 모물뵓 할 시작이주. 그때 깝장 메민 완공. 8월 15일 양력. 이제 널 모리 돌아오는 거. 그 초팃띠 검질 끝나는 거. 세 번 메는 거 그 조팃디. 확실히 세 번.

103021 @ 세 번 메는거예, 확실히 세 번 예.

103022 @ 어, 조팃예는 예 검질들은 또 뭐가 이서수과?

103002 #1 아이고, 조팃디는 하주겐, 제완지도 잇고, 그 저 ㄱ싸 고라 맞다. 빈 네영 무신 비눔이여, 여름곰질에는 곱릴 수 어시 하.

103002 @ 생각나는 대로 함 고라취뵓서.

103002 #2 쉼터럭이엔 헤그넵에 하하하하,

103002 #1 쉼터럭이멍.

103002 #2 쉼터럭이엔 알아져?

103002 @ 쉼터럭예, 또 뭐 이서수가?

103002 #1 무시거 씨어멍감낭이엔 허는 거 그런 무시거 허곡, 아이고.

103002 @ 씨어멍감낭 마씨?

103002 #1 씨어멍감낭이엔 허는 거 무신 감낭이여 무시거 그여 거 조팃디 검질은 막 하난 요라가지.

103002 @ 여러 가지. 제완지, 빈네, 비눔, 새터럭, 씨어멍감낭, 또 한번 생각나는 데로 ㄱ라뵓서. 왜냐면 이거는,

103002 #1 제완지도.

103002 @ 예 제완지 췌고 예.

103002 #1 저, 비눗.
103002 @ 비눗도 써수다.
103002 #1 새터럭도 썬?
103002 @ 예.
103002 #1 음, 저 무시거. 해바레기 풀.
103002 @ 예.
103002 #1 그 무시거 영~ 헤가민 저물아지는 거, 안, 고사 시 뭐 무시거 같고
뜰감낭. 그런것도 막 이서.
103002 #2 뜰감낭?
103002 @ 뜰감낭예.
103002 #2 낭이엔 하믄 나문데?
103002 #1 아녀 아녀.
103002 @ 또 뭐 이서수가?
103002 #1 저, 거시기 여름 요사 하주. 췌비름도 써신가?
103002 @ 예.
103002 #2 이젠 뭐 문딱이 이저부런 뭐.
103002 #1 이자비연 한 거, 제완지. 조팃디 막 여러 가지라.
103002 #2 몰라, 풀이름.
103002 #1 씨메, 씨메께는 즈슬 검질이라서 그건, 또 조 비여가민 고래조. 조 건
비여가사 그레조. 조팃던 그런 거 이서.
103023 @ 어, 경헛구나예. 그 다음엔 어, 조, 아까 보리수확 하듯이 조 수확은
처음에 어떻게, 베는 걸로부터 시작행 그라줍서.
103023 #1 비영 시꺼당 꼬구리 트듬이엔 현 거 그 요물만 꼬구리 이만 영 물질
러 놔그네 겐 도께로 두드리는 게주게.
103023 #2 조코구리는 저, 여기선 거의 손으로 뜯아서.
103023 @ 손으로, 아, 아예 베기 전에?
103023 #1,2 아니 아니 아니.
103023 #2 비어당. 집에서.
103023 #1 비언 온거 시경 집에 앓당 영영 툃아그넹 영~허곡.
103023 @ 그 시끝 때 뭐 이케 뭐 단이나 그런걸로 묶으지 앓아마썸?
103023 #2 무끄주, 무꺼.
103023 #1 아, 무꺼. 무꺼야.
103023 @ 겐 비, 비어난 다음엔 무꺼그네, 집에 가져왕.
103023 #2 게네 췌에도 시경 텅기고, 마차에도 시끄고.
103023 @ 무경 왕,
103023 #2 그 전에 그 전에는 마차가 하질 안허니까, 췌에 싯경 텅기고 하지.
우리 췌들 시난, 췌로.

103024 @ 계난 웨로 싯경 왓잖아예, 그 다음부터 ㄹ라줍서예. 타작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코구리를 손으로 뜯아수과?

103024 #1 응.

103024 @ 코구리를? 그 다음 어떻게수과?

103024 #2 이쪽엔 챗번아니라? 놀엉.

103024 @ 예 놀엉.

103024 #2 누러그넵에, 거 조를 종일 하루에 하영 못하니까, 거 자꾸 그 트멍나는 대로 그자 툷앗지.

103024 #1 손으로 툷앙,

103024 @ 강 툷앙, 그담.

103024 #1 도께로 두드려.

103024 @ 예, 도께로 두드령.

103024 #1 부리여그넵에 또 널영 거 곶아당 먹을게주. 몬 기계에다 허는디 강.

103024 @ 그.

103024 #1 그 옛날엔 몰ㄹ레 곶앙, 그 것도 몰고렌디 허는디서 ㄹ라고, 몰ㄹ레, 조도. 조도 보리도, 몰ㄹ레에서 다 ㄹ라.

103024 @ 그, 덩드령마께가 잇잖아예, 그 득게 말고 마께로 안 두드려나수과?

103024 #2 덩드령 마께는건, 그건 이 저 무시거 이 뭐 이 옛날엔 노 꼬아놨주게. 그거 몬 그거 페 모사그넵에 그 저 덩드령이엔 현게 돌이주게, 돌에 두영게 두드리는 거주게.

103024 #1 거난, 먼저 옛날에, 저 싯작 헐 때 짝 두드리는 거.

103024 #2 거난, 옛날에 초신 삼월 때 경헤그넵 게 거 짝 두드리는 거지. 거 덩 두릉이지. 덩두릉돌.

103024 #1 아니, 조코구리도 ㅁ슴니다.

103024 #2 조코구리.

103024 #1 도께로 안헤연 그냥 ㅁ산.

103024 #2 아니 더 조코구리 같은 건 지금 어찌면 저 다람시엔 현게 조 씨를 저 조 도망 못갈 거에 놔그넵 뒤에 명석엘 낡 두드리나 하지 덩드령돌에 낡 두드리진 안헛주게.

103024 #1 덩드령엔 안 허는디 덩드령들로 두드림은 허는디,

103024 #2 아 그걸 한가운데 앓다놔,

103024 #1 그거 덩드령은 돌로웁 멧돌이라. 멧돌에 동도롱이엔 헤연 짝글은 거 하간거 두두령 신도 삼고 노도 꼬고.

103024 #2 덩드령령마께연 현건 완전 나무로 웁 마께주게.

103024 @ 아 경헛구나예. 그른 이제 일단 거 타작 헤그네 고구리 다 툷아그넵 도리게질 하잖아예? 그 다음엔 강 저 그 돌ㄹ랑엔 강 갈앙 왕. 경헛 줍쌀 그 밥헤 먹을 때까지 쌀이 튀기까지는 그 다음엔 또 어떻게수과?

103024 #1 그디 물ㄱ리에서 문 경허고.

103024 @ 물ㄱ레에서 곶앙 오면 아예 좁쌀이 다 웨어 이서 마썸?

103024 #1 응.

103025 @ 게른 바로 밥 헤먹을 수 잇게?

103025 #1 그디서 곶앙, 그디서 복삭허게 허민 무시거 영~ 푸는체. 푸는체로 평. 경허여그네 두불 곶앙, 너 너어샤.

103025 @ 두불 ㄱ는 것도 그냥 물ㄱ랑에서 곶안마씨?

103025 #1 어, 물ㄱ랑에서 씨어시 ㄱ는 거. 게난 끈적어시 ㄱ는거. ㄱ랑 오면은 그 쌀을 불린, 판찍하게 불렁 밥헝 먹엇주게.

103026 @ 아 경헛구나예, 그 좁쌀로는 어, 어떤 어떤 거 헤먹어수과? 밥 말고.

103026 #1 밥 말앙 죽도 헤영 먹주게?

103026 @ 예,또.

103026 #1 좃죽도 헝 먹어.

103026 @ 예, 조죽.

103026 #1 걸루 떡도 헝 먹고.

103026 @ 예, 떡도 헝 먹고. 또 다른 건 어서수가?

103026 #1 다른 거 그걸로, 무시거. 오메기 만들영 술도 만들어.

103026 @ 술도 만들어 나수과?

103026 #1 응, 응 술두 만들앙 먹고, 나는 아니 만들엇주만 경헝 먹는 건 다 보고, 초상들 하는 거 보고, 술은 난 안 만들어반.

103026 @ 감주 같은 거는.

103026 #1 감주는 허주게, 감주는 허는 거. 골게, 그 밀로 골냥, 물리왔다그네 그 저 블루면은 나오민 게 팍삭하게 덩어리지게 물 흐머는 그거 다 풀영 싹~하게 물리왕, 그거 저 영~ ㄱ는 것에 거 비왕. 좁쌀은 거 단지 만드는 건 튀인궁 허민, 허린좁쌀로. 그 밥을 후딱허게 멘들앙, 그 골은 섞영 나두면은 보그락 하게 퀘여. 보그락 하게 퀘이면은 걸러그네 딸리면 감지가 웨어 옛이 웨고.

103026 @ 이젠 요즘은 안 헝수과?

103026 #1 안 허주게. 어디 허는디사신디 그런거 헤나그넨 때가 언제라. 게난 그거 두룻 딸리민 감주웨고. 싹~ 허게 오래 장 딸리민 옛이웨어. 게난 그거 옛 만드는거는 허린 좁쌀로.

103026 @ 아 흐린좁쌀로예, 아 경헛구나예.

103027 @그 다음엔 그 조찍으로는 뭐?

103027 #1 소 주언.

103027 @ 아 쉐떡이로예. 아 그냥 그 어,

103027 #1 소 비료.

103027 @ 물려낫당 마씨? 겨울에?

103027 #1 조젠, 무시거 몰라서 노나 어뎡허나 헤연 묶을 때 웨민은,

103027 #2 그, 그난 저, 저번 빈 때 해난 몰라야 뭉주게, 몰라야 무꺼.
 103027 #1 몰라야 무꺼.
 103027 @ 아아, 아 비어났을 때 그냥 뭉영 오는게 아니라 그냥 비영 완
 103027 #1 핫살 몰른 다음에
 103027 @ 몰른 다음에 뭉영 왕 집에강 고구리 땃구나예?, 아 경헛구나.
 103027 #2 게 저 누렁 놔두면 기대로 썩어불겔?
 103027 #1 이제는 허주마는 누렛당도 허주, 미쳐 못하먼. 이디 핫주영 헨.
 103027 @ 게난 그런 거 다음 농사에 대해서는 그거 그라줍서예.
 103027 #1 몰낱, 저 몰낱 쓸잔인만이 하면은 대게 피영 조영 구진 밧 하는 사람
 은 영 섞영, 반반이라. 피영 조영 거 구진거, 구진 것도 섞으고 고랑조도 한건 구진
 밧 하는 사람들. 허여노민 싹 몰려왕 혜영 누렁 놔똥, 건 어느 때 장만허는곡 허민
 봄 나가야. 그울은 든디 이거허저 저거허저 바똥 장만 못하난, 쟁헛당 봄나민 밧살
 밥이여 하간거 경 맛 좋게 행 먹곡 경헤낫주.
 103027 #2 지금 우리 세상에 조냥헛주, 옛날엔 그 세장에 조금만 틈나민 먹을거
 준비가 그러케 그거.
 103027 #1 옛날에사 오죽 바빠서?
 103027 #2 아니 거 먹을 거 준비.
 103028 @ 조농사 지으멍 뭔가 특별하게시리 그때 아이고 그런 일 이섯젠 한 할
 얘기 어수과?
 103028 #1 그런 건 무시거.
 103028 @ 막 힘들엇덴 허는 거라든가.
 103028 #1 우린 그런 것.
 103028 @ 갈아신디 막 흥년 들어내 뭐 농사 망친 거라든가?
 103028 #1 아이고 게 보리송년사 들언 원 어섯주. 보리송년. 보리송년사 이제
 보리송년 철이엔 하민 다 알암주. 보리갈 때에 보리 몬 싹어비언 그 핫살헌거 비언
 다 무이 앗앙 놔똥똥, 확 그때 비 오라불곡 비 오라불곡. 우리 그 후에, 번쩍 어선,
 물체도 안 먹으멍, 어렵게 살안, 막 굶언.
 103028 #2 그건 4.3사건 후에. 어, 언제냐면 그때는 43사건 후엔디, 그게 59년
 돈가? 언제냐민 마가 저가지고, 여기 그니까 보리 빌철이 그거 마 철이주게? 보리
 벤 몰리질 못헤노니.
 103028 #1 그 시절에 돈을 들러도 쓸을 못사.
 103028 #2 아니 여기엔 허난 보릴 완전히 버렸주 농사 1년 농사를.
 103028 @ 그건 4.3 잇엇던 다음 헤 마씨, 아니민 한참 잇당 한국전쟁
 103028 #2 59년돈가 하나네. 한 10년 이상똥서.
 103028 #1 게난 그 어디서 밀체엔 헌거 밀 어디서 가까놔 체하난 그런 거.
 103028 #2 아 59년 전이다. 웨냐민 난 그거 군대에 이서부난 몰라시니까.
 103028 #1 아니우다게. 모물체인디 보리송년일 땡 하르방 온 때라.

103028 #2 나 온 땀가?

103028 #1 예, 온 때. 나 그거 못먹켄 허난, 그거 죽으면 죽어도 나 이런 건 못 먹켄 허난 하르방 그 이거 먹어야 살거우다, 허렌 꼬장 ㄱ른 일 이서.

103028 #2 게믄 58년도 59년도 60년도 쫘 뉘겿네?

콩농사

103029 @ 예, 알앗수다. 그 다음엔 콩농사에 대한 여쭙볼게예. 콩 농사는 조 농사 보리농사에 비교해가지고 어떤 걸 준비해야 돼수과?

103029 #1 아, 그것엔 아무것도 안헨 간단이라. 그건 씨만 뿌려 낫당 빌 때 뉘민 그자 비어당 두드리며는 거 그냥 뉘난.

103029 @ 아 게믄예,

103029 #1 다른거추록 경 힘들영 안헤여. 검질 메는 거연 ㄱ뚜주만은,

103029 #2 여기 콩농사는,

103029 #1 조팠디 조팠디는 세 벌 매도, 콩밭디는 혼 벌 매면 뉘고.

103030 @ 게믄 한번 이제부터 차곡차곡 물어볼게예. 콩은 언제 갈아수과?

103030 #1 언~ 춤, 콩은 어느 때 가는공 허민 유월절보단 혼, 훗술 일를 건가, 스무날 앞당겨.

103030 @ 아 스무날 예.

103030 #2 건 너무 빠르지 아년가?

103030 #1 제기 갈아, 다 요센 경 갈아.

103030 #1 유월 달 이 저 절기를, 요세는 아무것도 절기로 하주

103030 #2 아, 요센 그 절기인데, 지금 나가 알기로는, 그 콩을 일찍 갈믄, 그 남뎡이가 커가지고. 요세는 콩넙 먹젠 일찍 갈지. 늦게 갈아야 콩은 열지, 그게 덜 열어.

103030 #1 아니, 아니. 아니라, 이제는 비료를 허기 때문에 남미나고, 그때는 비료어실 시철이라부난 먼저 갈아야 하는 거고. 유월절보다 스무날 앞디연.

103030 #2 게난 나 빨리 가는 건 남뎡이 네우젠 허난 빨리 가는 거주, 늦게 갈믄 그 남뎡이가 크질 못허주게.

103030 #1 열기는 늦어야 여는 디, 남뎡이가 즐라.

103030 #2 늦어사 어시 잘 열믄 혀, 근데 남뎡이가 크질 못허지,

103030 #1 남뎡이가 크진 못한디, 짜끈짜끈 열믄 허주. 경허는디, 풀 쓴거보다 더 늦게 갈고. 콩을 제기 갈아야 앞뎡긴게 어느 뎡궁 허민 그보다 늦어도 뉘는 디 대게 유월절 앞, 스무날만 뉘민 감시작 허민 유월 혼 열흘 안에, 유월절 열흘 안에 갈아야 콩이 뉘고. 저 조도.

103030 #2 아메도 하지 녘영 갈주.

103030 #1 무시거?

103030 #2 하지 녘어사 갈아.

103030 #1 조?
103030 #2 아니 콩.
103030 @ 콩, 콩.
103030 #1 저 조팍이, 산티 끄르 하지 돼가민 폴린덴 헤시난, 유월절이 끝난, 저, 유월절이 앞당고 가민 끝나가는 거 다. 옛날에,
103030 #2 하지가 유월절 보름 전이난에,
103030 #1 옛날에 목은짓밧이 최고난, 목은짓밧이 어딘고 허민 우리 친정밧이 라. 하느님도 못 막앗젠 헤자 밧이 좋아. 아이고 경헤나서. 날쎄 때문에 아, 그날 저 날 넘어가명 날쎄는 날쎄구져네 전혀 못허난 좋은 밧이난 늦어 허젠 헨 허단, 낭 너미 나카보덴, 좋은 밧디. 경허난 늦언 유월절 넘어네 풀려도 하느님도 못 막앗젠 헤여. 쟁헤도 좋아. 좋아나서. 경허 밧 이젠 다 풀아비언 아무소용도 없고나 마는.
103031 @ 음, 예 그럼, 이제 콩밧에 거름은 어 떤거 헤수과?
103031 #1 이제는 비루 헛주만, 안헛주게.
103031 @ 그때는 아예 안헤수과?
103031 #2 콩, 콩 허민 여기서 콩가는 거 거의 장이나, 장이나 허젠 콩갈주, 많이 갈아나질 안헛주게.
103032 @ 그때도 예?. 그뎨 예. 게문 콩 씨는, 콩 씨 뿌릴 때는 어떻 뿌려수과? 조 뿌리듯이?
103032 #2 어 어 어.
103032 @ 거문 우리는 영 헤보면 저 생이들 왕 다 먹어불잖아예? 그뎨 어떻 헤수과?
103032 #1 그뎨 그런 거 엇주게. 이젠 문 먹영 난리주게. 저런 거 어디 경 서? 으이고.
103033 @ 아까, 콩밧에 검질은, 아까.
103033 #1 한번만 메도 돼여.
103034 @ 콩밧에 검질은 뭐 나나수과?
103034 #2 거의, 검질은 뭐, 조팍시나 콩밧이나. 거 그추룩,
103034 #1 아이고라것저, 소력, 속, 비늬.
103034 @ 소? 아, 쉘비늬? 쉘비늬?
103034 #1 아니. 아니 저 속.
103034 #2 속.
103034 @ 속, 속. 아예 속. 속하고 비늬예. 또 뭐 이서나수과?
103034 #1 아니 속허고 저 무시거게. 딸감낭인디. 무시거게.
103034 #2 딸감낭이엔 아까 곶아서.
103034 #1 아니 콩밧디.
103034 #2 게난 콩밧이나 조팍이나 그 철에에게.
103034 @ 여름철꺼난,

- 103034 #2 철이나네 검질은 비등한 검질이주 무신.
- 103034 #1 게, 여라불 안메어나난.
- 103034 #2 무신, 건디 검질 디 어떠냐믄, 콩은 이파리가 탁 덮어져부난 흐쓸 그
늘치니깐 좀 덜 나오카몰루주.
- 103034 #1 조팍디가 요라번 메주.
- 103035 @ 그 다음엔 콩, 그 수확하는 거. 처음에 비는 것부터 ㄹ라줍서.
- 103035 #1 비어당에네게 콩 잘 몰르민 무꺼당 두드리국.
- 103035 #2 아 게난,
- 103035 @ 물령예. 무꺼당.
- 103035 #1 밧디서 잘 몰랑.
- 103035 #2 거난 콩은 직접 그대로, 저, 직접 두드리니까.
- 103035 @ 두드리고 막 몰ㄹ랑 갈 필요가 없엇잖아예.
- 103035 #2 어 그런 거 어섯주게.
- 103035 #1 아니, 잘 몰랑 과상하게 헤다그네 물러그네 그자 두드려 풀앗든가 먹
엇든가.
- 103035 #2 그 자리에서 이게 그 타작해부런.
- 103036 @ 게 콩으론 주로, 그저 메주 똥장할 메주 말고 뭐혜수과? 그 다음엔?
- 103036 #1 콩죽도 써 떡국, 콩국도 행 떡국, 무시거 조령도 먹고게 품도 허고.
풀아, 하영 풀아.
- 103036 @ 아, 콩나물은 안헤먹어수과?
- 103036 #1 콩늬물도 행 먹고.
- 103036 @ 콩가루 갈아당 이제 죽, 아 국 끓여 먹고예.
- 103036 #1 응, 콩국도 행 먹고.
- 103036 @ 콩가루 갈 때에는 그냥 집에서 맷돌로 갈아수과 아니면 ㄹ레에 강 굴
아나수과? 아까 몰ㄹ랑 간?
- 103036 #1 아니 옛날엔 맷돌로 굴앗는디, 기,
- 103036 @ 몰ㄹ랑 안간마씨?
- 103036 #1 어, 기 몰ㄹ랑 아이간. 맷돌로.
- 103036 #2 어, 거, 몰ㄹ랑 가게 경 많이 굴질 안헤서게.
- 103037 @ 경헛구나예. 콩 짝으론 뭐혜수과? 콩 짝이렌 혜수과 콩 낭이렌 혜수
과?
- 103037 #1 콩 짝이엔도허곡, 콩낭이엔도 허곡 흐는디, 거 무시거니게 밧디 걸름
헛주.
- 103037 @ 밧디 걸름으로 예. 그냥 저 저 그대로 이신 체로예? 막 찻르지 않아
그네예.
- 103037 #1 안헤영, 그냥 헛주.
- 103038 @ 그 다음, 콩 농사지을 때, 혹시 뭔가 특별하게시리 기억나는 거 어수

과?

103038 #1 그런 건 엇고. 거, 걸, 무시거 비류들은 핫슬씩 험실거라. 이젠 막 뿌림주만은, 옛날엔 것도 어시 헛주.

103038 #2 옛날에 비료가 어디서?

103038 #1 비료도 아녀곡 아무것도 안여난 밧디 아몽치도 아녀도 뵤고, 이젠 그 거허곡 저거허곡 허난 스뭇 밧, 예휴.

밧벼 농사

103039 @ 이제, 예 알아수다, 게든 이젠 아까 산디예. 산디예 대해가지고 물어볼게예. 그 산디 농사를 하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해수과?

103039 #1 산디도 어, 씨뿌려그넝에 콩 허듯 해엿주. 산디왔도 흐쉴 불러신가? 흐쉴 불린거 닙다 조팍보다는 이? 흐쉴 불린디, 산디도 기자 몰르민 홀타당 경해당 ㄱ란 먹은 거 닙아.

103040 @ 게 산딘 언제 해수과? 언제 어떻게 갈아수과?

103040 #1 스월 난 해신가?

103040 #2 산딘 좀 일찍 갈지.

103040 #1 스월 나민 헨디. 거 베랑 안해난, 거 웨우지 못헌 디, 거 꺼꼭빠꼭 헤가민 산디 갈 때 뵤젠 헤여. 빠꼭새 나민.

103040 @ 아 기구나, 빠꼭새. 저가예, 빠꼭새가 언제 우는지를 예 계속 그거 8년 동안 살명 이렇게 해봤는데예. 4월 24일날 뵤난 빠꾸기가 옵디다.

103040 #1 그거 헤가민 뵤어.

103040 @ 근데 깜짝놀란예. 다음 해에도 이렇게 일기 쓴 거보난.

103040 #1 알아, 알아.

103040 @ 4월 23일. 경헨 저가 8년 동안.

103040 #1 그거 소리나가든 뵤젠 경헛주.

103041 @ 아 경헛구나예. 그러면 그 다음엔 산디에는 거름은 어떻 해수과?

103041 #1 걸름사게 말젠 뒤로 나난 뒤루 뿌리주만은, 걸름이 이신말이라.

103041 @ 산디도 걸름 안헨 그냥.

103041 #2 걸름 험게 엿주게.

103041 #1 밧이~. 그 시절엔 걸름 안해도 게구체나 그냥 호민 하간 디난.

103041 #2 게헨 그 그 산디 남의엔 여름농사 할 때는 쉼도 다 목장에 가불고 허민 걸름 험게 엿주게. 뵤로 걸름헤.

103042 @ 거민 산디는 뿌릴 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조 뿌리듯이 콩 뿌리듯이 막 경 헛구나예?

103042 #2 겐데.

103042 #1 옛날엔, 그 걸름이 어려우면 쉼들 막 메왕 여름에 밧디 도 마강 ㄱ광 밧, 낮이 ㄱ광 그 출아지텔 경오랑 그 밧, 도 막아진디 뵤그넝 들이플앙 파른 그 밧

되서 재와서.

103042 @ 아.

103042 #1 그 밧디서 쉼을 재우면.

103042 #2 그 바령이엔 한 거 알아? 바령.

103042 #1 바령허민 바령, 그디에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헌 메틀 경 그 밧디 바리영 들이면은 그 바시 걸영 농사가 잘 돼고, 경헨 살안.

103042 @ 게 그게 그믐은 밧벼, 게난 산디 씨를 간 다음에 쉼을 드물려수가, 쉼 드물린 다음에?

103042 #2 아니, 거 산디 갈젠허난 그 전에 걸음으로 헤가지고 그렇게.

103042 @ 아 그렇게 헛구나예.

103042 #2 예, 미릇헤가지고. 거, 그나네 그 바령들인다는 것이. 그 막 사이 막 사이마다.

103042 #1 밧 글르는거.

103042 #2 쉼 똥오줌.

103042 #1 그 바령허는 거는 어떻허는 거카보덴, 보리 가는 거, 산디허는 디가 아니고.

103042 @ 아니 산디하는 거.

103042 #1 산디하는 건 기자.

103042 #2 산디하는 건 걸로 아녀.

103043 @ 아 경헛구나예. 그다음에 산디밧에는 검질 몇 번 메수가?

103043 #1 건 조팍보다 더 메살거라. 진작에. 일찍 헤부난.

103043 @ 거믐 세 번보다 더?

103043 #1 거, 경헨도 조팍만이 힘들진 아널거라. 조팍은 슈으는거 때문에 더 힘 드는디, 산디왔은 검질메는 검질만 땀겨난 쉽고, 산디왔디 씨 뿌리는 건 방수부령 빠기 때문에 쉽고. 조팍디는 하영 뿌령 나뉘야 사는 거주. 못나는 거 헤부난. 경헨 그건 슈아줘야.

103043 #2 겐데, 우리는 우리는 산디를 많이 갈았는데. 검질 별로 안나. 왜 검질 안나, 그 목, 저 목산이엔 한 것이. 새왓 출왓 갈아그녕이 당 그거 현디. 미릿 탄 풀 씨가 거긴 없거든.

103043 @ 아, 그 쉼 맥일 풀 갈아난 데 마씨?

103043 #2 아니 출왓, 옛날 출왓 때, 출왓 출왓 허자녀게. 겐데 그걸 헤그녕에 저 쉼 저리메와 저리메와그녕 쉼 두 개 앞뒤 메왕. 경헨 나 갈앗주게?

103043 #1 저리 모영 몬 쉼 두개. 힘 ㄱ찌 나가여네 힘이엔 헌 거.

103043 #2 에 게난 경헨연 땃 쉼 역, 땃 쉼역이엔 헌 것이 땃 일 간거나, 땃 시에 갈앗냐 하는가. 게난 땃일 간거나. 그니까 우리 셋이 역 땃이 역 가니까 사흘 나흘 가는 거지게.

103043 @ 쉼 두 마리로 마씨?

103043 #2 어, 경혜네 그것에.

103043 #1 두 마리민 혼줄에 혼디 동개질 허고, 혼디 힘내렌 두 개 메와진 거.

103043 @ 아.

103043 #2 아 케네 지금 저리메완 밧가는 거는 해변에서 본 적이 어실 거라. 우리 아버지는 매년 했주.

103043 #1 옛날에 세왓간 살아베서.

103043 #2 세왓간.

103044 @ 산디밧에 검질은 뭐뭐 나와나수과?

103044 #2 계난에 검질이 별로 날 게 나질 못헨다니까, 씨가, 씨가 없어서.

103044 @ 아 씨가 없어서예. 일찍 갈아불고 출 갈아난 디 헤부난.

103044 #2 응.

103044 @ 으음, 켌디 보리밧 이게 경해도 4월 달에 갈아버리는 때문에 어, 검질이 흥끔 일찍 난 검질이, 보리밧이나, 아나아니 콩이나 조밧 말고 또 다른 검질이 날 만도 헨디예?

103044 #2 게 지금 우리 검질 일름을, 검질 일름을 몰라가지고 못뜬영, 못뜬영 햅주게.

103044 #1 저디영, 검질 멜 때는 다 알아젧는다, 이제는 이저비언.

103044 #2 문 잊어부런.

103044 @ 예. 혹시 막 그 저가 이제 요번 3월 4월에 검질들 이렇게 조사해보면 거 무시거봐 그거 저기 어, 그 민들레라든가?

103044 #1 민들레는 전엔 아지도 못헨는다 이젠 막 꽃이 경 막 이제야 잇는 거라.

103044 @ 아, 맞수다. 그 수웨 혹시.

103044 #1 수웨는 하주게. 아이 그 밧디 검질 멜 때 수웨 곶은 건 안나고.

103044 @ 수웨, 밧에, 수웨 같은 건 없고?

103044 #1 어. 췌비늴이여 기자 춤비늴이여.

103044 #2 췌어 이제 뭐 똥수염이여 뭐연 ㄱ르민

103044 #1 어, 이젠 허주만은.

103044 @ 아까 무신 똥수염 마썰?

103044 #2 똥수웨여 무시게여 거.

103044 @ 아 똥수웨, 똥수웨는 뭐우파?

103044 #1 똥수예는 거 뭐 인구 허민 저 거시기 무시거 토끼 잘 먹언 헤다 주는 풀이라.

103044 #2 계난 그 똥수염이연 헨게, 키가 커네 막 옷자란 거렌 똥수염이연 헨 거.

103044 @ 게 똥수웨 같은 경우에는 산디밧에 나나수과?

103044 #1 아니.

103044 #2 그런 거는 별로.
103044 #1 산디왔던 속, 제완지, 고니, 고니풀이나. 고니풀, 그런 거나.
103044 #2 거난 그런 거
103044 @ 공이풀마씨?
103044 #1 공이풀 산디왔디 나신가? 콩밭디. 콩밭디 거 나서. 고 즈지 안 나는 거. 고니풀.
103044 @ 아, 저 좋수다, 그 다음엔.
103044 #2 고니풀 저 죽을 줄 모르는 풀 서.
103044 @ 고니풀 마씨?
103044 #2 고니풀 이제 앓당 배아드렌 하민 나 요디 어디 실거라.
103044 @ 아, 기구나. 나중에 같이 보게예.
103044 #1 그건 즈지 안나난 뉘수다게. 그건 하영 안 나난,
103045 @ 어, 그 다음엔 산디 수확할 때, 그 베는 걸로부터 시작한 그라봄서. 어떻게신지.
103045 #1 무신거 현거?
103045 @ 산디, 산디 수확할 때. 수확할 때. 거들 때, 벨 때.
103045 #1 거들 때 게. 비어놔다그네, 저 몰라사 묶엄주.
103045 @ 예 몰랑 묶은 그 묶은 걸 뉘렌 그라나수과?
103045 #1 산디 묶은 거 산디 짝, 산디.
103045 @ 계난 그걸.
103045 #2 단.
103045 #1 단, 응.
103045 @ 단. 예. 단으로 묶언 그 다음 마씨?
103045 #1 단으로 묶엄 시꺼당게 집이 그.
103045 #2 집이 늘럿당 그 트명나는 데로.
103045 #1 보리 틀로 흘탕, 대구쟁이도 좁양 영~ 흘타동, 보리 클로 영~ 흘타 그네.
103045 #2 근디 산되는 흘트게 잘 안헤 그대로 막 두드러봄도 허주.
103045 #1 남창?
103045 #2 어, 남창. 우리 우린 경헨 남창 두드러베서.
103045 @ 그 흘트기가 힘들엄 마씨?
103045 #2 어.
103045 @ 음, 남창 두드리는 거,
103045 #1 좁지릉 영~ 남 낭그는 흘투기 좋고 복삭헌 건 흘트기기 구진 건 두 드렘시메.
103045 @ 갱.
103045 #1 모물도 경하고,

103045 @ 어, 두드려난 다음,
103045 #2 어이 우리 우린 산디나 모물엔 진짜 두드려부러.
103045 @ 그 다음 두드려난 쟁 하면, 또 이것도 이제 그냥 밥해먹지 못하니까, 또
물그레 강 또 갈아와수과?
103045 #1 응. 응. 물그레 곶아, 쌀 놓고 그라.
103045 #2 겐디 그난 산디는 막 열어 벌 그라야주게.
103045 @ 아, 기짜? 몇 번쯤 곶아수과?
103045 #2 계난 우리 또 아까 그랏는디 아침 가그넝에 물 두 개 아땅 메그네
하루 종일 곶아낫젠 허니까?
103045 #1 거난 그거 그랑 초불그랑 푸는채로 채 피동 또 낱 곶곡 또 낱 곶곡
허는 거.
103045 @ 잘도 힘들어시켜예?
103045 #2 계난, 계니까 하루종일 강 경헌거지.
103045 #1 계난 기계가 나노난 놀미시작한 게 놀암주덜게.
103046 @ 게 산디론 밥 해먹는 거 말곤 또 뭐 해나수과?
103046 #1 밥도 행 먹고 떡도 행 먹고 죽도 썬 먹고, 산디가 공동엔 경 아무나
경 먹어져?
103046 #2 겐디, 산디는 아무나 밥 못행 먹어.
103046 @ 저기 귀해부난예?
103046 #2 어, 거 올케 그거 헤그넝에 옛날 제삿때나 그런 때나 사용헷지, 밥
산디밥 별로 못해 멧엇주.
103046 @ 산디 갈아신디도 그걸로 밥 안 해 먹어수과?
103046 #1 갈아도 아이고 다른 거 하영 가랏주. 거 얼마나 헤산디.
103046 #2 거난에,
103046 @ 무사 하영 안 갈아신고예?
103046 #1 조갈고 콩갈곡 게, 헤난 흥쓸씩 헤단보난 밧은 어디 서 경?
103046 @ 허젠해볼면, 응, 기구나예.
103046 #2 경헤도 잡곡 농사를 다 허젠 허민게,
103046 @ 맛수다예.
103046 #1 흥쓸씩 흥쓸씩 다 허젠허민.
103047 @ 어, 그면은 이제 산디찍은 아주 여러 용도로 사용헤실건디예, 산디찍
으론 무시, 어떤 데 사용헤나수과?
103047 #1 응, 저 묽영 낫다그네 어디 그랑도 앓고.
103047 #2 두드령 초신도 삼곡.
103047 #1 신도 그 하난 남땡이로 그 신도 삼곡, 경헷주게. 남땡이 뒤뜨레 난
거사 무시겨 뜨곡 게.
103047 #2 나도, 나도 초신이영.

103047 @ 초집 지붕 같은 건 그걸로 안헤수과?

103047 #1 그런 걸로 안헤여.

103047 #2 여기는, 초집, 육지는 전부 나루찍이영 허는디, 제주도는

103047 #1 거 산디찍 헤여그녕 고양이영 헨 헨거 영~ 스들갱이 꼭 기차그녕에 그걸
젓물에 솥양, 고양이 그 물 누리록 하게 들이면 깝 보비여그네 신 괴영 삼는 거. 집신
삼아. 산디찍.

103047 #2 겐디 난 산디찍 저 그거 겐 베슬이지, 저 영~ 피우는 거. 그걸, 그걸
헤그네 그걸로 저.

103047 #1 봉우지 꺾어 낱, 산디 돌아져난 봉우지 꺾어낱. 젓물이영 하믄 노리
룽 허주. 경헌거 영~ 딱 보병 이 신에 허는 거.

103047 #2 초신깍이엔, 초신깍이엔 헤그녕에 그거.

103047 #1 헛주.

103047 #2 건 우리 다 헤나서.

103047 #1 나도 건 우리 하르버니네 이신 고향 사부난. 곱닥하게 사부난, 헤낫
주게.

103048 @ 산디 농사 지고 난 다음엔 뭐 초신 삼으멍 뭐 기억 같은 거 혹시 뭐
어수과?

103048 #1 그런 사모멍 무시거엔 곤거만 생각했주만은, 그 산디찍으로 저 멍석
도 절고, 멍탱이도 절고, 신도 삼고 그추록 헤낫주.

103048 @ 근데 거 삼으멍 뭐 이제 막 여러 사람 앉아가지고 삼을거나 이러면서
뭔가 얘기 나누거나 헛던 기억 어수과?

103048 #1 그런 건 엇고. 또 우리보다 웃대엔, 또 그 무시거라 저 그 삼두 삼아.
우린 그건 몰르고, 웃대에 어썩한 거 우리 두린 때 봤주. 영 동무릅에 내난 삼 삼은
거영. 영~ 풀러당 허멍 헤연 삼 간 거 깝장은 나 알아져. 삼 ㄱ랑 그런 것도 헤나
고, 또 우리 대엔.

103048 #2 삼 지금 육진 지금도 갈잖아.

103048 #1 응, 우리 대엔 또 누에 질르고.

103048 @ 계난 누에 질르는 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예.

103048 #1 응.

103048 @ 자 이제는, 계믄,

103048 #2 지금 배, 배가 저 삼으로 만든 거주게?

103048 #1 응.

고구마농사

103049 @ 맛수다 맛수다. 예 산디 농사는 이제 끝나난 저 감저농사 여쭙볼게예.
감저 예?

103049 #1 감저는 그 체암 저 감저 모종 영 낫당, 이젠 비누루라도 햅주만은 안

헤그넵에 거 아래 쉼걸름 끝아그넵에 영 판이 지성, 걸름 논드레 폭 덕경 감저 낱, 그 감저 꿀을 순 낱, 크면은 그 꿀 기차당, 감저 밧디 감저 노민, 감저 들민, 파당, 저 썰영, 절간헤그넵에 풀곡, 경헛주기.

103050 @ 그 감저농사 지으젠 하면 먼저 뉘뉘가 준비가 필요혜수과?

103050 #1 거 무시거, 기둥 무시거 그자 썰럿주.

103050 @ 게도 게 쉼 허당 판이도 만들고, 게난 그런 거 마라줍서.

103050 #1 판이 쉼 해당 팟주게.

103050 #2 아니 게난 저 그 쉼번 감저 묘종 늻의연 헛게 잇주게. 묘종 늻의연 허면, 묘종도 두 가지로 낱.

103050 @ 아 예~.

103050 #2 그대로 뉘엔 허 올케 저 그대로 딱 헤가지고, 이젠 묘종을, 그 묘종을 낱가지고 완전히 그 우에 뉘 덮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디허른 거시기 비닐을, 하우스 허듯이 그디 물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그디 온실을 만들영 뜨겁게 헤가지고 쟁 게니까 그기 빨리 나주게? 게른 메칠, 딱 헤그네 매칠뉘든 딱 그거 치와불든 그대로 나시든 그대로 키우고.

103050 #1 기자도 노꼭게,

103050 #2 기자도, 기자 논건 줌 오래고.

103050 @ 오래고 예. 그 고 이 감저는 언제 심어수과? 계절적으로,

103050 #2 유월절 앞두고,

103051 @ 유월절 앞두고예. 감저밧인 거름 안 혜수과?

103051 #2 거름은 들정.

103051 @ 감저밧에도 거름 안헛 예?

103051 #2 아 게난 묘종 놀 뉘 거름 헤그네,

103051 @ 그 묘종 놀 때, 그 묘종 만들 때 예?

103051 #2 어.

103052 @ 어 경헛구나예. 그리고 그 감저 심을 때 저 아까 판이를 만들엇잖아 예? 감저는 그럼 어떻 심어수과?

103052 #2 감저라면 꿀을 요정도로 헛 막 썰르주게, 썰라그넵에 게, 그자, 요영.

103052 #1 썰른 건 두둑, 걸어야 석둑. 경헛 이디 싹 다 썰럿는디, 우린 영~ 헛 질령 영~ 디 꺾꺾꺾꺾 질르는디, 이제 심그는 건 영~ 헤십디다? 저 아뜰네 심그는 건.

103052 #2 썰라부난.

103052 @ 그냥 그 저 그 우리가 그 시장에서 보면 감자 꿀 팔잖아예? 그 꿀 이 령게 한가, 이파, 이파리 하나만 잇는거는 심으른 감자 안나마씨? 감자 안나마씨? 이파리 하나만 이렇게 가제기 딱 잘랑.

103052 #1 헛나만 성은 안뉘주게.

103052 @ 아니 게, 아니 건 뿌리 안 내립니까 그런 건?

103052 #1 영헨, 응. 영헨 그 남이엔 헤도 그 저 도라질 힘이 이서사주 영 헨
헨 영 헨 심근디. 우린 영 이 끝, 이 끝에 영 헨 헛는다, 아들네 심그고 하난 영 고
치 심그듯 세왕 심거서라. 우리 아들이 모르는 거 아니?

103052 #2 아니 게난, 그 전에 우리는 어떻 영 헤그넵에 이추록 헨 양끗만 짝
눌러그넵에.

103052 @ 게 여기 잎이 몇 개 잇는거 마썸?

103052 #1 응, 세 개 네 개 들어야.

103052 @ 아 세 개 네 개 들어사.

103052 #1 응, 세 개 네 개 들어야.

103052 #2 그축 헛는다 요즘.

103053 @ 저 감저밭인 검질 몇 번 메수과?

103053 #1 예콧, 메콧 하건 거, 잘 메든 흥번 메고 게아민 감저꿀 더꺼지국 흥
민 내불든 제완지 숨뻑. 밧이 이거리나.

103053 #2 요 조팍고치 그추록 힘드라질 안헛주.

103053 @ 아 감저밭이 검질은 어떤 거 나나신지 혹시 모르쿠과?

103053 #1 게, 제완지, 속이주. 뉘. 제완지, 속.

103053 @ 제완지, 속.

103053 #2 아니 거난 그이 검질은 원 조팍이나 메야 꼭 같은 검질들인데.

103053 #1 그 꿀 난 덕어지 난, 흥쓸 두르메는 거.

103053 #2 어 철이엔.

103053 #1 잘 하는 것들은 이저 감저밭이 무시거 헤미엔 헤그넵에 영 그랑 갈
아빌민 끌어시도 검질 안메영도 넘어가불고 쟁.

103055 @ 게든 감, 감저 그거 수확할 때 쟁 때, 그 이야기를 쪽 그라썸서. 먼저
꿀 걷영.

103055 #1 걷어그네.

103055 @ 예.

103055 #1 팡, 그랑이 민짜 파그넵에 거 감저 폴젠허민 거 감저 마다리 몇 개
헤다그네. 담양 풀고. 절간 하게 뉘민 그거 담양 시꺼네영 어디 저 테역밭드레 앓다
냥 절간허곡 경헛주.

103055 @ 예, 게든 예 감저 꿀 잇잖아예?

103055 #1 꿀은 쉼 주고.

103055 @ 그 쉼 주는데 어디다 어떻 보관헛당 줘수과?

103055 #1 것도 잘 몰령 무경 놀엇당.

103055 @ 무경 놀어그네예.

103055 #2 느람지 알아?

103055 @ 예예.

103055 #2 거나네 놀 누렁 느람지로 완전 덮영 등글게 허잖아.
103055 @ 느람진 뭘로 만들어수과?
103055 #1,2 세.
103055 @ 아, 새로 기구나. 아 고구마로, 아까 저기 뺏데기마씨?
103055 #2 절간, 절간.
103055 @ 아, 절간이렌 해수과?
103055 #1 응. 절간 감저가 뺏데기주.
103055 @ 뺏데기. 그다음에 뭐이수과?
103055 #1 것도 절간이로헨 풀안.
103055 @ 감자는 절간으로만 팔아수과?
103055 #1 응. 절간으로도 풀고 통차로도 풀고.
103055 #2 그 전에 감저 놀 때, 이 대정분들이 거긴 감저 못질 못헌텐 해가지고 씨를 여기 완 전부 가지고 가났다고. 격이 온도가 차이가 있고 또 뿔따문인디, 여기는 지금 가을에 헤그넵에 앞 봄 나도록 문영 고대로 잇거든. 근디 대정은 경 못헌다 이거라.
103055 #1 옛날엔 대정은 못살아났주게.
103055 #2 못사는게 아니고 경, 안, 못허나네, 겨난 여기 감저씨 사례 계속 와나서. 대정 사름덜.
103055 #1 겨난 감저씨 문엇당 감저씨 돈을 행 사곡허단게 이리렌 지금 밀감허단 이펜드레 하영 돈사는 식으로 감저 행 돈 하영 사났주.
103056 @ 씨감잔 어떻 보관해수과?
103056 #2 겨난 지금 곳자니여. 구텡이 깊이 구텡이 팡 거기 묻은 거주게. 물어 불민, 그대로 막 담아 낱, 막 담아와그넵에 뭐에 딱 헤그넵에 영헤영 흑췌와그네 완전히 물 못들어가게 완전히.
103056 #1 흑 못들어가게 예염에 영 헤가며는 예염에 빙빙허게 검질세왕.
103056 #2 가운데 공기통만 잇주. 공기통. 공기는 통헤야 하나까.
103056 @ 음. 음.
103056 #2 꼭대기에 공기통만 이서. 경헤당 그게 봄나도록 거기 나두는 거주. 가을에 경행 봄나도록 나두주. 경허난 그걸 사례 온다는 거주, 대정서 이디 와나서.
103058 @ 예~. 감저꿀로는 저기 췌 맥이고예.
103058 #1,2 어.
103058 #1 감저꿀은 췌 맥이고.
103059 @ 그 감저농사 지으면서 혹시 뭔가 특별나게 잇었던 기억 하나만 곱아 줍서.
103059 #2 기억 헐 거 업서.
103059 #1 절간허곡 그 저 그 통차, 통감저로 폴앙 돈 살 생각만 헛주.
103059 #2 계난에 그 절간허젠 허민 그 발이엔 현 거 잇주게, 발 저 그 어웁 알

지?

103059 #1 그 절간 감저 허는디 발이혜수과? 그건 생길이우다, 그건.

103059 #2 아, 발에 혜도 그거 영~ 혜그넝에 폐왕 저 그걸 발에도 폐와그넝에
넣어야지, 경 안혜그넝에 거 흥나씩 게아민 흥나씩 주서야 헐건디?.

103059 #1 머시게, 그거 혜수과? 노낙 테역बाट 상으로 글쟁이로 박박 굶영 네
쳐서, 어이고.

103059 #2 허허 허이고.

103059 @ 테역बाट 영영 썰멍 널언마씨?

103059 #1 영, 탁탁 썰어그네 문 탁 혜쌍 놔두민, 웨기 널영 놔뒤도 몰라가면
가들가들 영 들러지멍 몰라 겨민 좁는 사름은 멀리가분디 거 좁고, 흥솔 모두룩 헌
던 글쟁이, 영영 옛날 무시거 술입 굶는 글쟁이 님은 거, 이제도 그런 글쟁이 잇주
마는, 걸로 박박 모야 낱 허곡, 비오람직흥민 혼이낭 난리라도, 우리 하르방 그마니
눅곡, 난 저레 강 혜노민 믈수왕 저끄디 오랑 저디 저 지경 그디 누워도 나 베리멍
모습진 안헐다 허난, 그디강 놀따이사 뭐허레 가린 허멍, 도와 절간 가지 안혜연.

103059 #2 예고, 저, 웨, 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 품 가메 허멍 스몓 한남리
가난, 예춘가난 스몓, 절간감자 들이렌 난리저네 두 번 들이멍 나 혜서.

103059 #1 겨난 들여도 저, 발혀다 넌 건 왕길이, 생길이, 음.

103059 @ 하하하.

103059 #2 아, 겨난, 비~ 왓직 허믈 아무리 어두영 밤이라도 거 들여, 다 들여
야 웨주게.

103059 @ 아, 맞아예. 하하하하.

103059 #2 아 게난.

103059 @ 아, 그때 बात 고찌 안가주난 막 속에서 막 서럽고 그런 거 어서수
과?

103059 #1 아이고, 막 서루와네. 난 무서완 저~ 디간 넘어지난, 밤이간디 무서
운디, 무사 무섭는고, 비 막 오람직, 하늘이 왓왓허난 하간덜로 그 헛불 썩 그거 디
리는 거라. 게 파썩 무서완 나, 우리하르방 고라 그 엠에 막 산덜도 하고, 뭐한디
널엇는디, 저디 오랑 저 산담 옆에 흥솔만 누워도 혜영 벗혜주민 나만이라도 들이
키엔 허난, 그디강 놀바에서 뭐 들이지 뭇허레 가느닌 허멍 안간 고만이 누원 자비
난 그 감저 문 썩어나서, 안간. 절간감저 비맞안 문 썩어난. 하르방 말 안들어.

103059 #1 @ 하하하하.

103059 #1 그런 시절도 살안. 이제야 뭐 대통령 삶이주. 경 정 살아난 스몓
이제는 빼가 이추룩 아팡 걸지 못헐.

103059 @ 게난예, 고구마, 감저 농사는 그걸로 일단 끝나거예.

기타농사

103060 @ 그다은엔, 아까 저기 그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집에서.

103060 #1 그런 거 안헛. 쪼끔 흐~ 방울씩 헛당, 이녁 먹는거나베끼. 그런 것에 신경 안 썬.

103060 @ 고친 어떻혜수과?

103060 #1 그런 것도 이자 이녁 행 먹을 마니 흐쓸혜영 아녀.

103060 @ 배추도 예?

103060 #1 응, 배추나 무우나 그런 거 흐쓸씩 만 허곡 기자.

103061 @ 그며는 일단 수박농사는 뿔 구멍이 안헤도 어떻 혜수과?

103061 #1 아니, 그건 안헛고.

103061 @ 안 심어 봐수과?

103061 #1 아, 아녀.

103061 @ 참외도 안 심어봐수과?

103061 #1 춤웨 흐쓸 흐 저 싱거네 먹어난는디 그거 털어지민 도나곡 도나곡 혜연, 아녀난 기자 봉간 먹음만 허는디 올린 뒤곳 낮관 놔두난 하르방 문딱 메부런 썬져볼거 이제.

103062 @ 아아, 고치 농사는 어떻혜연 마씨? 씨 뿌려수과 아니믄 묘중.

103062 #1 아아니. 흐 뿔개 모종으로 사단 신경 기자.

103062 @ 옛날에도 경혜수과?

103062 #1 아니 옛날에 그 쪼끔 행 이녁거 씨 흐쓸 뿌렸당, 이녁 굿진 헛 먹엇는디 이젠 사당.

103063, 103064 @ 배추농사도 경혜수과?

103063, 103064 #1 배추는 그자 이녁 먹을 거 무씨 흐쓸 뿌려당 국이나 흐깁 끌려먹공. 김치 누물은 사당.

103063, 103064 @ 아니, 옛날에.

103063, 103064 #1 아, 옛날엔 흐쓸씩 갈양 그 이제 누물추록 안헛겨라도 짐치 집에서 헛 먹엇주마는 이젠.

103063, 103064 @ 씨 다 모아놏당마씨?

103063, 103064 #1 응.

103063, 103064 #2 옛날에 여기서는 이녁 먹을 거나 줌 헛지,

103063, 103064 @ 먹을 거를 갈 때 씨를 시장에서 산 와신가 아니믄 그 헤 헤 난 거에 열매를 열리면 보관헛당 예? 그면 배추씨나 누물씨는 어디 나뿔당 혜수과?

103063, 103064 #1 아, 잘 물론 거 거 요세에 무신거에 시나네, 다마네기 흐 거에, 다마네기 잘리~.

103063, 103064 @ 옛날엔, 옛날엔?

103063, 103064 #1 아니 옛날에도게 들령 영 봉지영 흐쓸 영 싸그네 돌아메민 아멩토 안헛여.

103063, 103064 #2 옛날에도 요거 모양으로 그자 공쟁이에 마저 싸그네 즈근즈근 돌아메영 네벳주게.

103063, 103064 @ 아아, 경행 다음에 뿌런예?
103065 @ 그 다음 지슬은 하영 심거수과?
103065 #2 지슬은 얼마나 하영 같아나구렌?
103065 #1 지슬은 게, 미룻 전이 강 댐, 영 골청, 그레 불치 농꼭 비료 흐쓸 뿌
령으네 허민 잘 든는다, 이제는 나무 따문 분지가 나니영 나오는 따문 잘 못갈아.
낭트명에 흐쓸 허젠 헤도 낭빨리 때문에 안 들어.
103065 @ 불치, 흑을, 불치를 낱 흑에다 섞어놔마썸?
103065 # 불치에 흑 영~ 헤영 흐쓸씩 석경 헤불민 돼여.
103065 @ 지슬을 거기다 심으민 돼는 거마썸? 짤라그네예? 순 나는 대로.
103065 #1 응, 순 나는 대로 짤랑 해주게.
103066 @ 아까 피 농사도 지어났젠 헛잖아예?
103066 #2 지슬을 순 나는데로 짤랑 싱거?
103066 #1 하르방 몰람수다. 지슬을 영영 끈영 싱거. 하르방 몰라, 잇거 아예보
난.
103066 @ 지슬을 이렇게 동글랏게 이시면 순 나는 대로 이렇게 영 짤라가지고.
103066 #2 아, 난 웨 우에 순을 끈으린 막 그 아연? 아, 그 지슬 벌렁?
103066 @ 벌른 지슬에 불치를 버무령 헤수과, 이니문 흑에다 불치를 버무령놓
은데다가 지슬을 싱거수과?
103066 #1 지슬 저 벌린데 불치 섞어도 좋아. 섞영 영~행 그자 놀린 불치 우트
레 영~ 놔도 아뭇치도 아녀 불치는.
103066 @ 그다음, 피농사는 어떻행 지어수과?
103066 # 피농사는 우리 안허받.
103066 @ 안헤받 예?
103066 #1 밧 구진 사름만 헛젠 허난.
103066 #2 아, 피농산 우리 저 우리 아버지네 흘쓸 헤난는다, 우리 아버지 아까
목산 잇젠 헛지? 거난, 피, 산디, 모물, 요 세 가지주게. 게 3년 허문 혼 등, 혼 등
거난 경 헤나민 나부리는 거.
103066 @ 아, 3년 헤나면 그 밧디 더 이상 못헤가지고.
103066 #1 그, 세왓 갈양 허는게난.
103066 #2 세왓 혼 등이주게.
103066 @ 아아.
103066 #2 게난 산디, 피, 모물.
103066 @ 모물 헤난 다음엔 또 세왓 같고.
103066 #2 거난 메헤년 가니까. 먼저 헤난 건 내불곡 매년 쪽 갈아난 워낙 밧이
큰 밧이난.
103066 @ 아, 게민 메틸 농사, 피 농사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뿌령 내불곡 마
씨?

103066 #1,2 어

103067 @ 메밀은 어떻게수과? 모물은?

103067 #1 걸름에 줍아냥, 걸름은 뭐인고 허민 불걱, 불치 불치에 씨 섞엉, 씨 현거 무시거, 비루영 조금 섞엉 이지, 밧, 소 혜영 골치는 그 골르레 영~ 줍아 냥.

103067 #2 우린 목산에 그 불치고 못 아저가나실거라.

103067 #1 모물 깔 때?

103067 #1 어.

103067 #1 무시걸로 줍아 냥? 씨로?

103067 #2 씨, 뿌려도 돼주 무신.

103067 @ 그냥 저기, 밧 갈아 냥 그냥 뿌리는 거예?

103067 #2 응.

103067 @ 밧 갈아 냥 뿌리기는 헛잖아예?

103067 #1 난, 그거 몰라, 저디 줍아 낫는 거베끼.

103067 #2 어려울 때 저.

103067 #2 이녁 굴그순드레 줍아 낫는 거라, 그거베끼 아녀보난.

103067 @ 아, 굴 그서나가지고예?

103067 #1 응, 굴 영~ 굴쳐노민 댓 귀 영 심영 이만이 상 구덕에 불치 담으민 날라가는 사름 잇고 영영영영~ 영영영영영~ 짹짹들 뿌려. 게 그 밧디에 그걸로 꼭 맞이민, 이루 후제 살림을 잘살아.

103067 @ 아~, 경혜낫구나예?

103067 #1 응~.

103068 @ 담배 농사는 어떻 지어수과?

103068 # 에이 거 왁왁 헐거주. 거 혜봐서 무신?

103068 #2 담배 농사 안헤어판.

103068 @ 어, 근데 수망리 그 뭐 자료 조사허다 보니까 담배 농사를 피 헤나십 디다?

103068 #2 담배 농사 헤어난 사름도 이서실거라.

103068 #1 아니, 난 어떻게사 현건 모른디, 옛날에 우리 하르바님네 그 헤난 거 닻아. 허연 영~ 무시거 저, 예편, 경헌 거 이서.

103068 #2 어, 우리아버지도 저 막 여편 돌아메난.

103068 #1 경헌 거 어썩 봤는디. 영~ 갈아 썩 토다단 영~ 무시거세 예편 돌아 멘 들류와.

103068 #2 느람지 옆이 여퍼그네 딱딱 돌아메주게. 경 들류와.

103068 @ 아~, 그 담배 할 때 씨로 뿌려신디 뭇로 헤신디 모르고 예?

103068 #1 응, 몰라. 예펜 드라멘 것만 봐난..

103068 #2 예펜 돌아마씨?

103068 #2 담배 잎 입.

103068 @ 아, 이입, 아~ 엮, 아~ 잎, 엮. 엮헨.
103068 #1 그런 건 봐놔주마는 누계사 헤신디.
103068 #2 느람지 옆이들 엮 행.
103068 @ 아, 예 알아수다.
103068 #2 기축행 돌아메놔텐 허는 거주게.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그 밧일 지나고 이제 들일로 들어가겟습니다예. 들일 중에서 췌는, 췌기를 때 어떤 식으로 길러수가?
104001 #2 췌 어떤식으로,
104001 @ 예. 송아지 사당, 아니면 송아지 나게 헤그네.
104001 #2 아, 그거, 쳇 번이야 사다그녕에 구해당 허주. 저, 거의 집이서 낭저 이디서 끷는거주. 송아지 낭 풀아야 그게 수입이니까. 그 웨로 수입이 어시니까.
104001 @ 아 경험구나예. 그 췌 종류에는 어떤 어떤 췌들이 이서수과?
104001 #1 옛날에 토종.
104001 #2 아, 우리는 나 혈 때는 토종베끼 그 웨에는 그저 그로 후제 저의 저 지금 소들은 그 후에 들어온 거지. 우리 혈 땀 토종 전부 토종.
104001 @ 토종예.
104001 #2 나 췌 질런디도 한 삼십년 넘어실건디.
104002 @ 그때 그 췌 토종인데 그 전체적으로 가끔 그 저 갈색깔도는 이런 색 깔 췌마씨 다?
104002 #1 응, 노린췌.
104002 #2 응, 노린췌라 노린췌지 노린췌. 검은췌는 어서. 들어보지 아녀고.
104002 @ 예, 췌는 아까 그 다 팔아그네 헛덴 헛게마는 주로 췌로는 어떤 때 이용해104002 수과? 췌 키와그네.
104002 #2 우리 췌가, 우린 지금은 지금은 저 숫췌가 없는데 우리는 꼭 집이 수 소 하나씩은 길랏주게.
104002 @ 그 숫쇠를 옛날엔 뭐랜 고라수과?
104002 #2 부랭이.
104002 @ 부랭이 키왓잖아예?
104002 #2 부랭이 키왕 그걸로 마차하고.
104003 #1 밧 같고.
104003 #2 밧 같고, 밧은 직접 같고.
104003 #1 태는 돈이 어려와 가민 소 흐나만 풀아도 흐쓸 용돈 쓰고 계난 췌로

살아.

104003 #2 마차 같은 건 이, 물로도 끌주만은 밧갈 쉼론 문 전부 밧은 이녁냥으로 이녁 소로 가는 거라. 농사 지었으니까.

104003 #1 다 사는 사람들이 밧 사곡 밧 물고 하는 게 소 길왕.

104004 @ 근데 그 쉼을 가져그네 밧이라도 갈젠허민 길들여야 하잖아예? 어떻길들여수과? 처음에 길들일 때.

104004 #1 차음 송애기 부렁이 나며는 코 께곡 헤네 이끄는 사름허곡 즈름에 헤영 막 고리쳐, 혼 이틀 그리치민 그 송애기 쉼가 말 잘들어그네 헤가주.

104004 @ 아, 혼 이틀만 헤도예?

104004 #2 이틀에 힘들어.

104004 #1 이틀, 혼 이틀 헤가민 수글허주게 체아마니 경헤여.

104004 #2 체암만이는 아니지마는.

104004 #1 체암에는 드리눅고 들락키고 말젠 스뭇 블라이제왓주게. 경헿 이틀헿 혼 사흘차 뉘가민 츄츄 헤가.

104005 @ 그 쉼들 한테는 그 사람하고는 달라가지고 나이메기는 방법이 달르잖아예? 그 쉼 혼 살은 뉘렌곳고 두 살은 뉘렌 고라수과? 혼 술, 두 술 그게.

104005 #1 쉼 나이 드는 거 곳다가는 거 아니? 몰라?

104005 @ 쉼을 헿 뉘 헿 설 짜리 그 쉼 한텐 뉘렌 고라수과?

104005 #2 금성.

104005 @ 금성마씨?

104005 #2 금승.

104005 @ 금승. 그다음은? 두 술은?

104005 #1 다글. 다갈, 다간?

104005 #2 허허허, 다간.

104005 @ 세 술은마씨?

104005 #1 사릅.

104005 #2 네 술은 나릅. 다습.

104005 @ 그다음은 어서수과?

104005 #1 다섯 다음은 요숫 술 뉘가고 기자 그것만 고르문 드름 때 만 고르문 그다음 부떠는.

104005@ 다섯 다음은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마씨?

104005 #2 응.

104006 @ 다섯까지만. 기구나예. 그다음엔 그 쉼 밧 갈 때는 쟁기가 잇엇잖아예? 그 쟁기에는 어떤어떤 이름들이 이수과? 예를들면 잠대가 잇고 그다음엔.

104006 #1 잠대는.

104006 #2 배, 보섯, 보섭 보섭,

104006 #1 영 심는 건 양쫓머리.

104006 #2 양주머리.
104006 #1 웨영~ 현 거 ㄱ란 그거 무시거파?
104006 #2 뭐 어떤거?
104006 #1 오그라진 영~ 보섭 끼우는 거. 장기몽클.
104006 @ 예 몽클.
104006 #2 몽클 아래건. 몽클이렌 아래꺼.
104006 @ 아래꺼 예.
104006 #1 배, 보섭, 양줏머리.
104006 #2 성예.
104006 #1 똥주 이제.
104006 @ 설치는 뭐파?
104006 #1 설치도 이서 무사?
104006 @ 아 이건 다른 마을에서는 밑에 뭐 하는 걸 설치렌 고릅디다게.
104006 #1 양줏머리 고라?
104006 #2 아니 그 알로 우트레 영~ 우이 세운 거?
104006 @ 예
104006 #2 것 고라 여기 우리 뭐엔 행다마는 그저 알로 옷트레 영행.
104006 #1 아 거 설치렌 해도 똥크라, 영~ 그거 ㄱ라 무시거산디. 영~ 세와진 거 요 영~.
104006 #2 세와진 거 잇주 그 뭐엔 해낫저 만든 그 이서.
104006 #1 잇긴 잇는디 뭐싼디.
104006 #2 거 뭐엔 해낫저 마는 이저부런.
104006 #1 양주머리.
104007 @ 그다음에 그 소 질메가 잇잖아예. 소 질메는 또 그 부분 부분에 대해 이름은 뭐렌 고라수과?
104007 #1 쉼 질메가지여 무시거여.
104007 #2 아 거 가지인데 그 저 등테엔 헤그네.
104007 #1 오그라진 쉼 질메가지엔 헤그네.
104007 #2 이름이 다 딱로 잇는 디, 이름을 이저부런 아 이름은 생각나는 거.
104007 @ 기억나는 거 한번 고라줘봅서.
104007 #2 원간 오레느난 이건 뭐 이저부런.
104007 @ 혹시 그거 이신 거 지금 남긴 건 없지예?
104007 #1 쉼 질메가진 네 귀 난 다음에 네귀 나민 시리어 시리민 검나, 검은 거.
104007 #2 예 예.
104007 #1 아니 그런 거 혈 때 거느림도 잇엇주만은 옛날에 쉼 질메가지 네 고 망 난다.

104007 #2 그저 쉼 질때 서로 저 영~ 그 질때 만드는데 문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잇는디 이져부런.

104007 @ 그랫구나예. 그다음에는 쉼 멩에 잇잖아예? 멩에 할 때 여기 코 췌우는 건 뭘렌 고르고, 걸치는 건 뭘렌 고르고.

104007 #1 망울.

104007 @ 예. 망울, 막는 건 망울. 또.

104007 #1 저 이디 헐 때 코 꺾는 거.

104007 @ 코 꺾는 건 뭘렌고라수과?

104007 #1 코 꺾는 거.

104007 #2 코 꺾는 거 무신.

104007 #1 우찌야 코 꺾는 거 만 낸 쉼 코 꺾는 거지만 고라나고, 망울은 이디 시방 하는 거고. 멩에는 이디허곡 요디고라 무신거렌 고라놔수과 요영.

104008 #2 게메 그거 잇어부러신디.

104008 #1 거 윤이리로 헤수과?

104008 #2 아니 윤이리로 허나 마나 그건 이름이.

104008 #1 들르크라 이젠, 저 상육인 잘 알거라.

104008 #2 아이거 이져부런 이져부런. 중간에 영 안고라나부난.

104008 #1 그사람은 충기도 좋고 우리보다 하영 알고.

104008 #2 거, 맛다. 쉼질메도 나가 문 만들영 나냥 헤낫는 디도 문딱 이져부런.

104009 @ 아까 목산이렌 헛잖아예? 목산은 어떻 관리헤나수과?

104009 #2 목산?

104009 @ 예.

104009 #1 산디? 목장?

104009 @ 아까 쉼 키우는 데를 뭘렌 고라수과?

104009 #1,2 목장

104009 @ 목장 예.

104009 #2 목장은 공동목장 헤가지고 부락에 하나 하든 그 공동 관리를 허주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4009 #1 목장 관리는 흐는 사람 빌영 허주.

104009 #2 목장 조합장이 따루 잇는 디.

104009 @ 예~, 아 게난 우리췌영 늬의 췌영 다 ㄴ치 이렇게 헤주는 거. 다 관리를 뒤가지고예?

104009 #2 응. 조합장이 따로 이서. 거고 지금 수망목장에도 저 분유지가 많주게, 저거 임대료 지금 내.

104009 @ 아 예.

104009 #2 임대료 내그네. 지금 거난 그 조합원들만 임대료도 내고.

104009 @ 그 췌 질러낫덴 헛잖아예? 췌 질르멍 뭘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어수

과? 쉼 잊어먹었 막 좇으레 다니는 거라든가.

104009 #2 난 쉼 츠지렌 별로 이져부렁 츠지레 땡겨나진 아녜는데.

104009 #1 우리 쉼들은 늙의 쉼추룩 안혜영 목장에 혼 번 영 간 보난, 막 이디 구렵장에도 오랑 부량한 쉼들은 막 난리치는디 문들 이녁 거 늙의거나 고집헌날은 다 모야지면은 쉼가 이녁 슈능마다 이녁 혼집이썸 혼디장 ㅋ징 영 무지성 다이서. 게난 우리 츠지메 힘들어보도 안 혜영 그렇게 아까와.

104009 #2 아니 겨울이나 여름이나 끼럭 혼빳디만 그축 혜냥은. 혼수룩정 이서, 거의.

104009 #1 혼수룩정 이서. 늙의 쉼들은 난리가 나불고.

104009 #2 그디서 그집이서 나쁜 게 시민 지랄허지만 나쁜 거 어시민.

104009 #1 강보민 영 수리지영 혼디시민, 아이ㄱ찌도 아까운디 아까와.

104009 #2 건디 혼쉼 새끼이기 때문에, 그 새끼 어찌케 보민 나왕 키우고 나왕 키우고 그 그남쉼, 우리 나 그추룩 혜네 여디 저 쉼, 밧, 쉼영 밧 막 바꾸젠도 혜난 사름인디. 새끼를 그렇게 매해 나가든 새끼를 잘나는 쉼는. 그니까 그걸 저 그렇게 아까워 혜가지고 어떤 건 잇다그네 어디 강 두 개, 혼나 나아그네 하는 소도 잇는 디, 새끼를 그렇게 잘나닌까 그걸 지신디 풀렌 만 허멍 혜낫는디 그런 쉼가 아덜허 민 재수고.

104009 #1 쉼 텨은 므음대로 못혜.

104009 #2 거고 요새는 쉼 문 수정행 허니깐 숫쉼가 필요 업는데 그때 우리는 수정은 안허고.

104009 @ 그때 그 쉼 살 때 송아지 살 때 아니면 팔 때 송아지 그 한 만리에 얼마나 난거 기억 남수과?

104009 #2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알 수가 없어. 월간 오래노난.

말 기르기

104011 @ 그믐에 말 기르는 걸로 넘어가게예. 물은 게민 어떻게워수과?

104011 #2 우리 물 안 길러와부난 알아지크라.

104011 @ 물 안 길러와부난 예. 물의 종류들 은 알아지겠지예?

104011 #2 어.

104012 @ 어떤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4012 #2 유마, 적다, 가라물 또 뭐 어서난가 백메, 흰 색깔 백마엔 혜난.

104012 #1 얼룩물?

104013 @ 좇수다예. 주로 물로는 어떤데 물 부러수과? 물부릴 때.

104013 #2 아니 그난, 그전에 그전에는 그저 올케, 밧블리젠 혜그네 적마 쟁 질 르곡 허민 마케 걸름 블르민 혜그네 험게 우리 대에는 그른게 어스니까.

104013 @ 물고랑 돌릴 때 물 멩 헛덴 헛잖아예?

104013 #2 됴은, 우리는 우리 두린 때 백게는 우리는 물고랑에.

104013 @ 계란, 두린 때 두린 때.

104013 #2 계란에 그건 무신 우리 부모네가 헛지 우리가 안헤나부니깐 모른다 이거주. 계란 저 4.3사건 후에는 4.3 사건 때 돌고랑 전부 타버리니깐 그루후엔 돌고레엔 헛게 어서부리니깐.

104013 @ 아 돌고레도 다 태워버려부렀구나예.

104013 #1 싹~다.

104013 #2 여기 싹~다 완전 다 타버리니까.

104013 #1 얼마나 고생헤어나 아이고.

104013 #2 돌고레엔 헛게 어섯주. 4.3사건 이후엔낮 근디 저 저기 하나 안탄 거 이서가지고 요기 견본으로 헤내 수망리 하나 갖다 놔 냈지 그건 며.

104013 @ 이젠 그거 어수과?

104013 #2 없어.

104014 @ 물은 쉼하고 달라가지고 물 나이는 어떻 헤나수과? 나이. 한 살 두 살 할 때 물 나이는 어떻 정헤나수과?

104014 #1 사람이영 곳든텐 헤나서 물은?

104014 #2 아니 겐디 부름을 뭇엔 불러나시고 그 물 안질러나부난 알아지크라.

떡이

104016 @ 그믐예 넘어갈게예. 소나 쉼나 말 떡이들은 어떤 것들이 이수과?

104016 #2 출 베당 헛주 우린.

104016 @ 출 베다 주고 예. 아까 감자꿀 주고예.

104016 #1 응.

104016 #2 아니 게니깐

104016 @ 무신 존가 뭐가도 조쪽도.

104016 #2 응. 곡식 찍은 다 찢지.

104016 #1 다줘.

104016 @ 아 경헛구나예. 겨울에 거는 출 베어낫당 주고예.

104016 #1,2 응.

104016 #2 아 다 겨울이께.

104017, 104018 @ 기팍? 출은 어떻 준비헤나수과?

104017, 104018 #2 아, 계란 출은, 지금 낮이엔 한 거 모르지? 낮.

104017, 104018 @ 호미마씨?

104017, 104018 #1 아니 아니 큰 거 출비는 거.

104017, 104018 @ 우리가 제주도 예서는 그걸 호미렌 안헤마씨?

104017, 104018 #1 것 고랑 낫당 육지사람 호는 거 답아라.

104017, 104018 #2 아니 낮이 낮이 이신디 모르는디 사진호나 찍젠?

104017, 104018 @ 나중예 갈 때 찍으쿠다. 호미하고 또 다른 것과?

104017, 104018 #2 오. 낫이렌 우리 낫이렌 헌건 사서 바로 베는 거주.

104017, 104018 #1 산 영~ 행 비는 거.

104017, 104018 @ 아. 건 낫이렌 고라수과?

104017, 104018 #2 아니게난 그 육지선 낫이 호미. 지금 여기 호미가 낫인데, 여기는 그것ㄴ라 낫이엔 허고 호미엔 곳곡 검질메는 건 골갱이렌 허는데, 육지서는 그 골갱이렌 하는 말은 엇고 저 호미 고랑 낫이렌 허주게 낫이렌 허는디 이디 여기서는 낫으로 출 베는데 나도 출 삼백 바리 까지 헤본 사람인데 낫꾼 한뼨에 열사람 데령가든 한사람에 열발이는 비거든 경해그네 그.

104017, 104018 @ 바리라는 건 무슨 말이파?

104017, 104018 #2 응?

104017, 104018 @ 열바리 하든 바리가.

104017, 104018 #2 하나에 싯끄는 거 췌 하나에 싯끄는 거.

104017, 104018 @ 췌구르마에 싯끄는게 혼 바리파?

104017, 104018 104017, 104018 #2 췌 하나에 싯끄는 거 마차에 싯끄는게 아 니고.

104017, 104018 @ 아.

104017, 104018 #2 게니까 그 낫으로 벤건 삼백 단 혼 바리렌 허주게 아 삼십 단 서른 단.

104017, 104018 #1 서른 단이 혼 바리.

104017, 104018 #2 서른 단이 혼 바리.

104017, 104018 #1 낫으로 베는 건 막 홀거.

104017, 104018 #2 게난 서른 단이 혼 바리인디 백 바리민, 삼백 바리민 멧단 이라 계산해봐. 얼마니나 마니 헤신가?

104017, 104018 @ 흐루에마씨?

104017, 104018 #2 아니. 일년.

104017, 104018 #1 출비는 거는 우리 이틀이민 그 삼백 바리 끝나.

견디, 나가지 ㄴ를 일이 핫주. 무사허는공 허민 그 시철에 저 크난 낫이렌 허는 싯흥 목장인디, 정심이 열사람할 거 두 번 먹으면 쭈무사름 나시 점심을 정 그 낫 이 전 올라나서. 나 그 출 허메 다리 다 병신 데서. 물도 저디 저 내창 물 먼디 거 지고 그 애기들 키우곡 영허멍 허난이 다 몽고라 출왓디 밥헿 가미 못전더, 그거를 짚어정 가야 흐루 정심 열시 돼민 혼번 먹고, 정심 때 되민 먹고 경해야. 출 비는 거는, 경해산디 그걸 짚어젧만 가낫주게 출비렌 아방네 세빅이 보네동, 조반 세빅조 반 헤그네 먹영 보네동, 정심이영 온 조름에 간벵이 미처가멧 경 얼떡어난, 그거 출 늑에 얼떡어난.

104017, 104018 @ 갈 때 씨아주방이나 씨누이나 곳지가민 될 거 아니파?.

104017, 104018 #2 시누이는 흐나토 어신 집이. 아들만 여섯 형제 이신디 시집 오랑 그 고생은 다혜영. 또 시어멍 노릇헿 그 시아주방들 민 풀아주어. 민 풀고 허

단, 시아주방이 요섯겐디 지금 하르방하고 흐나밧킨 안 살안. 둘리에, 계난 제사 오 란보난에 문 시누인 엇고 동서들도 엇고 허나네 어떻헌게 먼정공 허민 제사 때 뉘 면은 판 문 밥 흔 여난 열댓겐 넘어 거렁 상에 올릴 거 거려동 국거리고 국거리동 나 혼자만 문 아이고.

104019 @ 계난 그 출 운반할 땐 어떻 운반해수과?

104019 #1,2 마차.

104019 @ 말이끄는 거마씨?

104019 #2 응.

104019 @ 들끄는거에 실어그네예?

104019 #2 응.

104019 #1 우린 들은 엇고 쉼로 쉼만.

104019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저장은 어떻게수과? 출 비영 오잖아예. 마 차에 싯경 오잖아예, 그민 그 출은 어떻 헤난마씨?

104019 #2 출놀이엔 헨게 잇주.

104019 #1 시작 헤노면 못고도록 누는게 잇주.

104019 @ 그민 그 출은 말리지 안헤도 뉘마씨?

104019 #2 아 출은 그디서.

104019 @ 아 낮으로 비어냥

104019 #2 낮으로 비른 오늘 비른 날이 창창헤야 바람이 이시른 널 묶으고, 날 이 어썩 축축허민 널 못 묶영 모리 묶으주게.

104019 @ 아 경헛구나예.

104019 #2 계난 그 대 우셴 비젠하른 우셴 그 날짜부터 날씨부터 보는 거야. 널 날이 창창히 좋다 헤야 비는 거.

104020 @ 경 헛구나예. 그문 출 물리왕 묶영 왕 놀 누러가지고 이제그 체에 낭 물 맥이는 거잖아예? 그 밥 쉼 것 만들 땐 그문 어떻게나수과? 그냥 출 묶은거 영 주른 먹어수과 걸로 뭔가 다시 뭔가를 만들지 않고?

104020 #1 아니 영, 그때 출 만 영 쉼만 내불곡, 호루 흔 번 물 강 맥여오곡 경 헤여.

104020 @ 그러면 지대로 뜯영 썰영 먹어예.

104020 #2 아 케니까, 그 때는 지금은 그런디 쉼가 없는데 그때는 그때 소는 봄 나도록 목숨 붙어나민 잘된 거.

104020 #1 막 죽어.

104020 @ 아.

104020 #2 게 그추룩 헤민, 영양가가 어신 거 주어노니까 쉼가 올케 배고프니까 먹엇지. 할 수 어시 먹은 거라. 지금은 막 사료들 막 사다주지만 그땐 그걸 못헛거 든.

104020 @ 영 썰어서 맥이지도 안헤수과?

104020 #2 아 (고개 절레절레).

104020 @ 경헛구나예.

104020 #2 거 쉼가 하나두개라야 정도 하지게 .

104020 @ 맞추다게 계난.

104020 #2 거고 지금은 수도로 전부 땡겨가지고, 수도 탁 틀민 그대로 물 다 주주게. 지금 사름들은 지금 허나네 쉼물 맥이레도 안 가, 지금은.

104020 @ 계난예 이제 맞추다예. 집집마다 다 머이시난.

104020 #2 예이제 쉼도 그레 땡겨그네당에 턱 네여그민 앵간이허민 딱 꺼불고 지금은 우리는 거 하루 한 번 꼭 시간 뉘민 물 맥이레 가야지 하천예.

104020 @ 그 출빌 때 그 점심 헤 낱 날르젠 허난 그때 막 힘들엇잖아예?

104020 #1 아이고, 힘들어.

104021 @ 그 힘든 거 흐끔만 다시 한 번 예기헤줘봅서. 그니까 무사 10시에 점심 먹고 또 12시에 또 먹어수과?

104021 #1 전이 낫질허난 시간뉘세에 배고과.

104021 @ 배고프면 그때는 간단하게 무신 뉘.

104021 #1 그런 거 뉘~이서.

104021 @ 다 밥으로만 헤수과?

104021 #1 응 밥헛주.

104021 #2 아니 그때는 살림 사는 게 그런 것이 어시 간단히 험 뉘 힘은서 엇고, 아침 일찍 그 인부들이 일찍 왕 조반 먹어야정 가불민 그.

104021 #1 그 출 험때도 보리썰에 곤살 쪽곰씩 쉼영 놓고 헤서 아이고 썰밥이 어디서.

104021 #2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 노난 그런 정신 저런 정신, 쌀이라 지금하곤 하늘과 땅이라 노난.

멜감

104022 @ 맞추다. 그 다음에는 예 그 저 그 옛날엔 불스망 밥 헤먹엇잖아예? 불습을 때 그 멜감은 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

104022 #1 아이고 흐썰만 추우나 날이 영 재랑 밧디 강 일 못하게 뉘민 거 낭 강 저당

104022 @ 낭 강, 저당.

104022 #1 응. 낭, 낭. 나무 저당 허고 그 무시거 험 사름은 검질도 비영 누렁낫 당 짓고, 불습양 그거 허곡, 낭은 겨울에 혼테 낭지레 가민 날도 해주만은, 어디 밧디 강 오당보민 에메꺼 돈 짓고 허민 에엄에 반~중헛죽. 이젠 스뉘 사락헤도 경허 명 살앗주기.

104022 #2 계냥 쉼대취영 헤그벵에, 쉼 먹어난 거 찌꺼러기 그거.

104022 @ 아까그거 뉘마썰?

104022 #2 쉼데취, 소 먹단 찌끄러기 그거 헤다그네 갖다그네 때곡.
 104022 #1 나무 저당 때곡.
 104023 @ 지들커 종류로는 낭허당 때기도 하고 아까 쉼데취로도 헤신디, 어 혹
 시나 쉼똥이나 똥똥 그거헤당은 안헤수과?
 104023 #1 그거는 굴목 지더.
 104023 #2 그건 굴목.
 104023 @ 굴목 지더예.
 104023 #1 응 굴목 때지.
 104023 @ 계난 소똥이나 말똥도 주스레 다녀봐수과?
 104023 #1 똥똥 헤다그네 여 솟.
 104023 #2 그거 완전 물류왕.
 104023 @ 응 물리와그네예?
 104023 #1 물리왕 굴목 때는 거.
 104024 @ 그 저기 소나무 잎들 막 떨어지잖아예?
 104024 #1 솔잎.
 104024 @ 솔잎 예, 솔잎이렌 헤수과?
 104024 #1 응 솔잎.
 104024 @ 솔잎 굵으레도 다녀나수과?
 104024 #2 응, 헛지.
 104024 #1 아~ 그거는 솔잎 걸으레 텅기는 건 저 해변사람이주, 옷드렌 솔잎
 걸으레 가느니 저웃디 검질 강 배당 허주.
 104024 @ 아, 경헛구나예.
 104024 #2 아, 그니까 이제 해변이 사람들은 검질 벨띠가 가까운디 엇거든. 경
 행 낭빳디 강 솔잎 전부 걸어당에 하허는디, 여기는 솔잎 걷는 사람 별로 업주.
 104024 #1 검질허민 불경 쓰국게.
 104025 @ 계민 그, 낭 지들커 허젠하면 아까 낭 정 왓덴헤신디 그 낭들은 어디
 시민 정와수과?
 104025 #1 이 저리 가민 막 핫주.
 104025 #2 이디 나가른 허민 나문데 전부.
 104025 #1 나무라난디디, 이젠 막 밧디 정 밧을 멘들아부럿주.
 104025 #2 계난 나무도 이저 해안가는 멀주게, 업주게 낭이 업는데 여긴 밖에
 나가른 나무거든.
 104025 @ 그 낭들은 그 살아잇는 나무에서.
 104025 #2 거 가지 죽은가지들.
 104025 @ 죽은 가지를 뭐렌고라수과?
 104025 #1 삭다리.
 104025 @ 삭다리. 삭다리를 끈영 와수과? 삭다리는 뭘로 끈어마씨. 톱으로?

104025 #1 기남도 꺾어지곡 나대로 찍영도 꺾어 오곡. 풍테이로로 등경도 꺾곡.
104025 #2 나대.
104025 @ 예 알아지쿠다 그 낭들은 어떻 종류의 낭들이어수과? 흑시나.
104025 #1 저 우트레 가민 이제 엇주만은 츠남뵤이엔 현겨. 엇날에 솟 뭇는 츠
남, 그런 거 허민 막 불이 못티곡.
104025 @ 츠남마씨? 츠남
104025 #1 응 츠남.
104025 @ 츠남이 무슨 나문고예?
104025 #1 저 웃드리 이 마을 웃드리엔 막 츠낭이렌현 츠낭뵤이 이서낫주. 이젠
벼랑 어슬겨.
104025 #2 츠낭 구경허켄 허민 나 갈 때 질 ᄇ르켜 주곡 초낭 ᄇ리켜 주주.
104025 #1 어디수과?
104025 #2 아니 요 서성로 가민 꺾 찾주.
104025 #1 예~ 답잖은 소리. 가곡 서성로로 이레 걸어오게. 오늘 어디꺼정 걸어
가웁디가? 이 하르방.
104025 #2 아니아니 난.
104025 #1 올 때 올 때 올 때 뵤지 알지?
104025 @ 아이 그건 저가 모셔다 드리민 뵤니다게
104025 #2 아니아니 난 운동삼아 거기 내려올수도 잇으니까 운동 많이 다니주
게.
104025 #1 막 걷는 거 잘하주 하르방.
104025 @ 아 거난 건강하시구나예.
104025 #1 멘날 걸어.
104025 @ 거면은 낭도 해당 불떼주고.
104025 #2 그저 도토리 나무라고 알아?
104025 @ 예 예 예, 참나무.
104025 #2 그거 그거.
104025 @ 아 그걸 츠낭이렌 헤수과?
104025 #1 응 그거.
104025 @ 아 그걸 츠낭이렌.
104025 #1 아니 거시기 아니꽈?
104025 #2 도토리낭 그게 그거라게
104025 #1 가시, 가시 나미.
104025 @ 제밤낭?
104025 #2 아니 제밤낭 말고.
104025 @ 제밤낭 말고?
104025 #1 가시나미 추룩.

104025 #2 도토리낭 그게 그거라.
 104025 @ 그게 참나무 참나무를 얘기하는거 닥다예 참나무 예?
 104025 #2 응 도토리낭 그게 그거라.
 104026 @ 그다음 숯 같은 것도 구워봐수과?
 104026 #2 안 구워봐.
 104026 @ 안 구워봐수과?
 104026 #2 응.
 104026 #1 응.
 104026 #2 게민 초낭 알큰게 도토리낭 알암시믄.
 104027 @ 예 예 예, 그 뽕낭하레 다닐 때 지들커 허레 다닐 때 특별하게 뭐 기억나는 거 추억거리 어수과?
 104027 #1 어서, 기자 가민 낭 헤아정 짚어져 오젠 허공 현디.
 104027 #2 이디 산에 전부 그 낭이라.
 104027 @ 주로 지들커는 누게가 행완마씨?
 104027 #1 나살민 나가했주. 무신 아이덜이 헤다줘. 나가.
 104027 @ 삼춘 하레 안가수과?
 104027 #1 아녀~. 느미 남자들은 헤도 이 하르방 안행. 나가 죽으라콧 나냥으로.
 104027 #2 아니.
 104027 @ 쟁 혼자 갖다와수과?
 104027 #2 아니 이, 내가 콧니, 나는 젊은 때 목수질 텅겨주게. 게난 저기꺼 뭐 사 들어신지 몰라. 그자 헤그네 어디 나가민 메칠에 흔 번 들어오는다 게난똘, 허허.
 104027 #1 나 막, 얼떡언. 게난 얼떡으멍 나 헤노난 그 소리주. 췌, 소출도 나가다줘.
 104027 #2 게난 어디강 집 만들믄 거기 살멍 게난 차가 엇고 뭐 어시니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일허고 허다그넝 메칠 만에 왕 보고 게난 혼자 다헤부난.
 104027 #1 옛날에, 하르방 강 살앙, 얘기 나는 것도 몰라 몰라서 아이고 나가 경허멍 사랑 고생이나 헛지. 나는 치성을 모르게 친정에서 살앗건마는.

사냥

104028 @ 여기 웃드르난에 그 꿩이나 짐승 같은 것도 잡으레 다녀났지예?
 104028 #2 요디요디 가민 산옹동산이엔 허는 동산 잇는 디 우리는 우리 두린 때 보기는 헛주 잡으레는 안 텅겨났는데, 지금 요우에 사거리 옛날엔 사농동산이렌 헤여그넝, 산옹동산이렌 현 이유가, 산옹힐 때 그 꿩 잡을 때 그 망바난 디 산옹동산, 이런디가 잇주.
 104029 @ 그렇구나예. 그럼 꿩도 안 잡아봐수과? 꿩코 같은 것도 안나봐마씨?

104029 #2 아이 만나봐서.

104029 #1 아 그 하르방 당채. 해농거 먹음베끼 안헐.

104029 #2 꿩코 노으러 텅길 정신이 어서.

104030 @ 예, 경혜낫구나예. 노루 같은 것도 잡으레 안다녀 나고예? 혹시 여기 마을에서는 그런 사냥을 다닌 사람들은 이서나수과?

104030 #1 어서.

104030 @ 게른 뭐 먹어수과? 꿩기론.

104030 #1 득. 득 길황.

104030 #2 그, 아니 나도 거시긴 해나서. 4.3사건 후에 수망리 그 위기 저 위기 재건위서 위기수망을 수망에서 협조원이렌 해가지고, 경찰 협조원 잇주게, 그때 우리 총을 가져낫주게 나 그걸로이 노리 쏘우렌 다녀나서.

104030 @ 노루 쏘아봐수과?

104030 #2 어. 나 노루 쏘아네 흐루즈무랑 쫓아 땡기당, 그 노리에 잡도 못허고 내중엔 혼 메틀 후에 보난에 그 노루산디 아난디 죽은걸 봐네 봉가와났는데, 노릴 헛는데 다리를 마жат는데 이게 도망을 가더라고이? 도망을 가그녕에 허른 빨리 뛰니까 어디간지 몰랑 막 좇앙 땡기다 보민 이늘목에 사람 안보이난 고만 사그녕에 그 대로 새민 사람 딱 비추민 또 도망하민 결국은 뒷날 내중에 그제 죽으면 피다 나와 부니까 죽은 모양이여 내중에는.

104030 #1 경행 건 어디강 먹어서.

104030 #2 건 지 이디오기 전 협조원 헐 때.

104030 #1 응 게메 난 안봐져난.

104030 #2 아니 게난 거 피가 다 나버리니깐 죽은 모양이여. 뒷날은 막 돌아땡기당 보난 발견해내 그건가 다리 총맞은거난 그건가 헛지, 뭐 그날 직접 잡은 건 아니고.

104030 @ 게민 그거 잡으면 집에 왕 먹을 게 아니라 협조원 하는 그.

104030 #2 아 그때 그때는.

104030 @ 읍사무소에서 가져가불어마씨?

104030 #2 아니, 경찰이 여기 살았으니까.

104030 @ 아.

104030 #2 재건해네. 이 우 주둔소.

104030 #1 강 흐디 먹어신테주. 먹어져신가?

104030 #2 아 당채아녀. 이 우에도 민약주둔소 저디 저 거시기 뭐 우에 주둔소가 다 이섯거든.

104030 @ 주둔소 경찰들이 다 먹어불엇구나예.

104030 #2 아니 이게 거 가져오민 그때 그디서 와자작작 헤빌죽.

104030 @ 게난 맞수다.

104030 #1 풀도 못봐실거주.

104031 @ 혹시 지달이 같은, 지달이 사냥은 안해나수과?

104031 #2 게 지달이 파레 텅겨난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104031 @ 게메예, 저 밑에는 보난 지달이 잡아당 그 팔앗덴 하드라고예? 저 무신 뭐 붓하고 뭐 만드는 것 때문에 걸어 가낫덴마씨 저 불목리쪽 사람들은.

104031 #2 어, 그런 사람들도 옛날부터 이서, 겐디이 우리는.

104031 @ 그런 거 안해낫구나예?

104031 #2 아 여기도 이디 어디 지 아르비, 우리 지달이 구멍 잇젠 막 소문은 나나서.

104032 @ 족제비도 사냥 안해난마씨?

104032 #2 족제비 자주 보이른 히여. 지금도 보여. 이 앞이 자꾸 다니는 디 거 보면 재수 없넨 헤여. 히히히.

104033 @ 아, 기과? 그 아까 그 막 노루 쏘아난거 말고는 사냥에 대한 어떤 추억이 하나도 어서수과? 옛날에 어릴 때 막 꿩코나 생이 그물 같은 거 안와난마씨?

104033 #1 아이 그런 거 조아 안해여.

104033 #2 아이 그건 그런디 그거 놀 시간이 업주게 학교다니난.

104033 @ 아 맞수다예.

104033 #2 학교에 다니니깐 학교에 살아시민 한 거지 그런 이디서 남원일 걸언 다녔으니까 .남원리 우리 걸으민 한 시간은 걸려야주게. 계난 아침에 겨울철에는 위기리 해뜨기전에 위기리에 내려 가야 지각을 안허지. 그고 웨정뎌 또 때 또 지금은 아홉시에 허지만 여덟시에 헛단 말이여. 일본놈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을 퀘롭혔다고. 경허른 이젠 아침 그축헤그네 밤에 밥 먹영 이디서 뛰기 시작하든 이디서 가는 거까지 거리가 먼디 뛰기 시작하든 계속 뛰어나민, 발은 산디가 업지, 이디 뛰든 돌이거든. 요, 질도 안질러와난. 경헤영 매일 텅여노난 뭐 나도 내가 원레 흑교 데닐 때 정심과비 정심이 뵤디 알도 못해난는 디.

104033 @ 맞수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어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의생활. 즉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 만들어서 옷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해 나가겠습니다예?

106001 #1 응.

106001 @ 어 우선은, 어, 만들엇던 옷감의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 이서수과?

106001 #1 저, 멍지.

106001 @ 멍지.

106001 #1 미녕.

106001 @ 미녕.

106001 #1 그거 베끼 난 몰라.

106002 @ 그것 밖에 없지예? 그 우선 그럼 멍지부터 저기 물어볼게예? 그 멍지로 그 실을 만들젠 하면, 실을 만드는 그 때까지의 것들을 예, 질문하겠습니다예? 어, 실 만들젠 하면 먼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헤수과?

106002 #1 누에 헤다그네 체암 씨 영 낫다그네, 혼 메틀 시면 깨울 때 돼민 거 파삭하게 씨 영 무시거헨 바둑 텐것에서 그 누에가 나와, 가만 거 나오민 그거 영 털영 뽕낭 행 복작스렁 흐쓸 영~ 밥취가민 그디 영 흐쓸 역아가나 하민 혼즘 자민 일주일에 혼 번씩 찬거라. 그걸 줌을 자. 두점 자고 석즘 자민 월~리뵤 그게 이제 더 집짓게 돼어도 한밤 먹게 되는 거. 경행 키와그녕에 혼 밤 먹영 혼 메틀 시민 누에가 그.

106002 #2 그 혼밤이엔 헌건 그전에는 그 꼭 그 저 썰영 주다네 썰지아녕 주는게 혼밤이주게. 썰영주는거 하고 안썰영 막 크민 썰지 안행 주는 거.

106002 @ 누에 그 누에가 어떻게 키우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질문할게예?

106002 #1 어.

106003 @ 그 멍지에 종류에 대해 얘기해줍서. 멍지에 무슨 종류가 이서수과? 멍지 종류 뭐 생멍지가 잇고.

106003 #1 아 생멍지는 그냥 실 뻥 짤거, 생멍지고. 그 저 뻥 멍지를 제 난 녹여서 영 노임이라고 제 난 영 퀘우면은 그게 들썩허게 죽어정 그 뽕앙 그 저 풀헤영 막 다듬은거라. 경행 그건는.

106003 @ 건 뒤렌 고라수과?

106003 #1 응?

106003 @ 풀헿 다듬은 건 뒤렌 고라수과?

106003 #1 다듬이 그거 노인멍지 .

106003 @ 노인멍지?

106003 #1 응. 노여서 그 풀헿 다듬이 한 거.

106003 @ 아 노인멍지.

106003 #1 강형 옷멘들고 생멍지는 이 여름에 흐는 거 손그랭이 기자 허고, 생멍지로.

106004 @ 그다음엔 멍 지로 어떤 옷들을 만들어수과?

106004 #1 아 그걸로 이불 꺼풀도 허고 그걸로 꼰레 이불도 허고 그저 이 옷덜 저 옛날에 그 무시거 죽으민 호상옷도 그 춤이거엔 준거엔 그걸로 허고 결혼 할 때 도복 큰옷 그런 것 허곡 경헿주. 장옷, 도복 장옷, 여자는 장옷이엔 곳고.

106005 @ 그면은 그 누에고치에서 고치 똥글똥글한 거 잇잖아예 고치에서 보면 멍지 실 만드는데 까지의 그 이야기를 고라줍서.

106005 #1 경허난에 이에 고치를 그 토면은.

106005 #2 아 지금 허는 게 물레에 관해서.

106005 #1 알았수다 .잘 물리와그네 그 실 뽑아내는 물레에 물르레 그 물르레를 영행 돌링 저 빠그넵에 그 실 빠논걸로 그걸로 헤그네 저 멩지를 썰로 행 감앙 멩지하는 거주.

106005 @ 계난, 그거 처음에 그 저 속에 번대기 나와버리면는 거 잇잖아예.

106005 #1 응 고주워리 그게 고주워리.

106005 @ 고주워리? 고주워리를 처음에 그 실 가다가 뽑아야 되잖아예 거기서 부터 고라줍서.

106005 #1 계난게 그거 뽑을 때 도르래로.

106005 #2 아 그거 뽑을 때 저것이 막 딸리거든.

106005 @ 아 우선 짧앙.

106005 #2 응 짧앙 그 영 저름에 짓갈 그걸로 영영헤여튼 실이.

106005 #1 영 사발에 숯앙 사발인디 솟디 숯앙, 영~ 굽영 영 올리면은 실이 나 오주게 나오면.

106005 #2 경행 짓갈에 걸렁 나오민 그때 시작하민 그걸 그 물리에.

106005 @ 한 방울 한 방울씩마씨?

106005 #1 아니 아니, 이레 혼 그 죽은 솟디 영~ 헤영 혼번실 올라오민 어느정도 되게 특하게 영 줍아 놔, 경행 숯아나민 그걸 하시로 영 하민 그걸 다 연결이 웨어 고치에 그 연결되면, 그걸 실 허면 저 이레 감는 무루레는 요정도로 헨거라.

106005 #2 물에 아래꺼는 이름은 모르크라.

106005 #1 가레기 가레기는 저 거시기 미녕 짓는거 고라 가레기렌 곳고

106005 #2 거 가레기 뽑는디 영 헤그넵에 실 첫 번 영 묶어그네 동겨네영 그건 뭐라?

106005 #1 뭐싼디 그건 몰르고 이 무르레예 영영 들르멍 그걸 이추룩 하민 실이 짹짹 나오민 이것에 감아그넵에 영 이런 거 이닭은 물르레에 민 감아정 나오면은 그거 따시 감아그넵에 영몽영몽 감아놔 그몽텅이 또 노는 날은 저 또는 놀미엔 허주. 과짜 그거 세와 세여그넵에 영 놀아. 영행 노라그넵에 무시거 슬헤그네 불솟 쪼르멍 민행 그 무시거 베클에 헨디.

106005 #2 아니 어제 사진에 보니깐 멩질허는 건 이선게.

106005 @ 예예 그 저 그건 미녕하는 건잖아예.

106005 #2 아 미녕이렌 멩지렌 하는게 잇주게 그런건 어서난

106005 #1 게 미녕도 허곡 멩지도 허곡 허는 디 난 그건 헤남은 헨는디 이젠 원 팔보돼아네 아 잘 알지못행 잇어벤 못 들를로구나마는.

106005 @ 이제 나중에 저가 그걸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쭙볼거예. 어 그다음에는 누에 치는 거 그 왜 옛날엔 누에를 뒀렌 고라수과?

106006 #1 누에엔 곳주 무시거렌 고라.

106006 @ 거면 누에를 처음에 어디서 가져와서 뽕잎은 어떻게 헷는지.

106006 #1 아 누에는 이 저 어디서 천구하민 헨 멩 바둑 하민 그 일곱 바둑이

여 세바독이여 호는 땃 개 나오는 거라. 게난 이녀 질린 보통 일곱 바둑 질리민 맞
아 경 안하민 하면은 그 처리하민 어려우난 경행 앓땅 질랑 석점 꼬장 장, 한밤 먹
어가민 이제 한글해가주게 낭썽 잘 주민, 하영 왕창 주어도 먹고, 비오는 거 닳아
먹는 소리가 와사상 해여.

106006 @ 메칠썸 그 누에를.

106006 #1 경허난 메칠사 돼영 올르게 돼는디 일주일에 혼 번은 딱 즘잔 거 닳
아. 경허난 그 올를 때에 돼어가민 그 누에가 밥도 안먹영 먹어진게 이 일로 알르
레 판씩 해영 해둬서 고게 흔들흔들흔들 그거 버써 집지슬 중 오라. 이레 느랑 먹
는 거 어서저가. 똥을 든 싸져가는 거, 겨난 그 우이건 벌써 알아정 그런 거 골리영
옛날에 마머씨라고 노영 파그네 세로 영~ 그레 영~ 짚렁 영영영영영영 해가민 짝
허게 이추룩 누에 영 거시기 해여지게 마보시로 헌것에 좀막에 낡 튼들하게시리 광
이디 저 칭기칭기허게 해네, 그디 주서냥 영영 행 나두민 이세에 저세에 든 허멍
영~ 섞영 집을 짓주게. 경행 그 집 다 지스 다음엔 누에 잘때면은 곳곡, 안되면은
집지스명도 막 썩어불곡 데곡 막 안되는거.

106006 @ 아 지몸이 썩어 불고?

106006 #1 아아, 그추룩 해영 잘되면 꺼턱어서 곱딱하게되고 그 누에 어떻 안텅
순하기 시작허민 것도 병이 전염 돼신구라 그추룩 허멍 음.

106006 #2 전염이주 뭐.

106006 #1 경허멍 허민 낭썽은 어떻허는궁 허민 이디 집이 낭썽 다 어신사름은
고지강 해당해여. 고지 고지가면은 그 덩벌에 가그네.

106006 #2 이디 바로 이 밧디 뿡나무 밧이엔 옛날엔 뿡낭 심가난.

106006 #1 경해당 질왕 그거 씨를허민 이런 것에 영 네그네 체암 고치 썰 빠노
면은 이런 것에 감아나와그녕에 또시 그거를 영 또 든 흔들렁 다 감앙, 모둥이랑
그걸 모둥이연 허. 모둥이 영 멘들아 노민 놀 때는 놀 때는 여 이 몽텅이 열게씩
놔그녕에 잘잘 저레허민 썰이 열겁 다 가는 거라. 그계산 허멍 브디기 께는것도 멧
뽕허민 얼마나 경해났주만은 이제 잊어비연. 또 미녕은 미녕은 소게 멘네허영.

106006 @ 그거 나중에 질문할게 예.

무명

106007 @ 그른 누에 치는 거 그걸로 끝나고 이제는 미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답에 미녕에 종류가 어떤 게 이수과? 미녕의 종류.

106007 #1 미녕은 소게 해여다그녕에 저 소게 영~ 갈아, 멘네 멘네 갈앙도 허
곡 사당도 해서, 어디 강 사당도 허곡 허는디 그걸.

106007 #2 미녕 종류를 지금은 종류를.

106007 @ 게니까 포목이 잇고 무신 저 무슨 생목도 잇고 광목도 잇고 닷세미녕
옛세미녕 종류들을 고라줍서.

106007 #1 아 그거는 닷쉐, 저 옷쉐, 옷쉐미녕 닷쉐미녕은 닷쉐는 완전 짝짝 구

진 거. 일곱쉐가 존 거. 일곱쉐미녕 썰은 아무나 안줏는 거. 겨난 일곱쉐 넘은 거는 엇는 거고, 겨난 옷쉐미녕 일곱쉐미녕 허주게. 계난 일곱쉐미녕은 완전 존 거. 썰 그렇게 잘 골라 잘 빠바야.

106009 @ 토목은 머파 토목은 토목 미녕 종류 중에서 토목.

106009 #1 계난 그 옷췌에 옷쉐미녕 닷쉐미녕 그거밧기 몰라.

106009 @ 생목이나 광목은?

106009 #1 광목은 요 어디 나오는 거주, 이디서 안 만드라~.

106009 #2 광목은 여기서 이디 누에로 만든 게 아니주.

106009 #1 이디서 만들지 아녀고..

106009 @ 아니 누에가 아니라 지금 미녕 하멘예. 목화로 하는 미녕.

106009 #1 목화로 혼 미녕은 토목이여 그 저 거시기 고라 광목ㄹ라 토목이여 무시거여 ㄹ랐는디 미녕ㄹ란 그런 거 어서서.

106008 @ 기구나예. 그 미녕으로는 어떤 옷들을 만들어수과?

106008 #1 대게 저 갈옷.

106008 @ 갈옷 만드는거예.

106008 #1 또 무시거젠 저 광목으로도 이불 안 헛주만은 이불안도 허곡.

106008 @ 예 이불안도 허고예.

106008 #1 응, 광목 저 감들이는 옷이 최고라서.

106008 @ 갈옷들이는거 예.

106009 #1 응 광목이 최고 저 광목인디 미녕이 감들이는 것도 최고 이젠 그만 이 현게 엇주기 광목은 즘진 뿐이주 미녕만이 못헤여.

106009 @ 아 그 토목이라는 미녕 종류중에서.

106010 #1 토목이렌 현거 광목아닌가?

106010 @ 광목 따로 이수다 뭐.

106010 #1 그 광목은 옷광목 웨경목 경은 헤여.

106010 @ 예.

106010 #1 견디 난 미녕 헤여네, 저 멘네 헤여네, 미녕 즘상 미녕 헤여난 거 밖 에 몰라 일곱쉐에 미녕허주.

106010 @ 계난 일곱세미녕까지 헤수과?

106010 #1 어 일곱쉐미녕 좇는 거. 짜나 하든 아녀고 좇는 거. 미녕 즘상 그 썰 만들양 낫는 거 나 최고라 두려부난 올리지 못하민.

106001 #2 미녕 짜나진 안 헤실거라 이거.

106010 #1 아 짜난 건 엇곡. 짜진 아녀곡, 실 좇고 짜는 건 우리 할마님네가 짜 고.

106010 @ 예 그러면 광목은 여디서 만들지 안헛덴헛고예?

106010 #1 아녀고.

106011 @ 그다음엔 포목도 아니고 흥세미녕 이라고 들어봐수과?

106011 #1 흥세미녕? 아 미녕 흥세미녕은 흥세도 놓고게 멩지도 놓고 경해나난 말제라가난 샷바허렌 저 시라목 허고.

106011 #2 흥세라 하믄 그 저 겨 결혼할 때 놓는 흥세말 아니라.

106011 @ 예.

106011 #1 미녕도 놔신디사 몰라 저 시라목 놓고 멩지 놓고 그런 거 낫주만은 미녕 논거 몰라.

106011 #2 미녕도 저 멩지 이거.

106011 #1 하르방은 무시거 썩 왕 오라신디 나신디 올 때 나 몰라.

106011 #2 허허허, 우리 그뎨 무시거 서사 노추, 번직 어션.

106012 @ 그리고 그 목화도 직접 그 심어나수과?

106012 #1 아니 어디 저.

106012 @ 멘네 멘네.

106012 #1 응 우리 태흥리 웨가 집이서 갈아네 그디서 헤어낫주 미녕은.

106012 @ 게 어렸을 때 친정에서 멘네 갈아난 거 기억남수과?

106012 #1 아 웨가칩이.

106012 @ 웨갓집에서 아~?

106012 #1 응 웨가칩이서 갈아나고 요디 우리 친정은 수망린디 안갈안. 웨갓칩이서 갈아그네 그 웨갓칩이서 그 미녕 허꼭 멩지는 수망리 오랑 허꼭.

106012 @ 아 갈아난걸 헤다가예.

106012 #1 응

모시, 삼

106013~106018 @ 그뎨은 모시하고 삼은 안 헤낫덴 헛지예?

106013~106018 # 1,2 안 헤나고.

도구

106019 @ 그다음엔 그 저기 그 물레라든가 아까 저 멘네하고 그 슝 분리된 걸 뒤렌 고라수과?

106019 #1 그 씨블르는 물레가 잇고.

106019 @ 그 씨블르는 걸 뒤렌 고라수과?

106019 #1 씨갈르는 물레렌 헤여. 씨앗 씨갈르는 거.

106019 @ 씨아예 씨아예?

106019 #1 응

106019 @ 아니 아까 뒤렌 고라신디 게

106019 #1 물레.

106019 @ 아니 물레 말고.

106019 #1 씨갈르는 씨블르는 거 씨블르는 거.

106019 #2 무시겨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시건엔 안고라서.

106019 #1 그거 빼긴 또루 몰라.

106019 #2 아 나도 어제도 고라.

106019 #1 아 이 씨를 줄릴 때 저 거시기 영 가레기엔 헨겨 이서.

106019 @ 가레기 가레기가.

106019 #1 그거 미녕 즈슬 때.

106019 #2 저저 미녕썰 흘 때.

106019 #1 그건 미녕 실 즈슬 때.

106019 @ 즈슬 때 씨하고 숨하고 분리된 그거 하는 게 가레기엔 험수과?

106019 # 2 아니.

106019 @ 아니? 그것도 아니?

106020 #1 응 체엄할 때 씨를 갈랑 씨 갈르는 무르레 물레가 있고, 또 이디 저 씨 갈라냥 저 호는 디 가그녕에 그 숨테우는 디 강 테왕, 무신 저 젓가락 닳은 것에 영영영 몰아당 요만씩 요만씩 정이엔 한 건 만들어정, 그 만들어진 거 그거 앓당 그 가레기 무르레에 영 연결헤그녕에 막 뽑아당 영 올렁 영 올렁 허는 거.

106019 #2 그 가레기엔 헨 건 이만이 긴 건데 저 그 고쟁이 쪽 난겨주게. 거난 그 실감아지는 건 그디 끼아그네 그게 물레 돌아가든 그게 막 돌리는거주게 아 썰이 썰이 막 꼬아지는 거라.

106020 @ 아, 예.

106020 #1 게난 그 가레기엔 헨겨 그런 거.

106020 #2 막 도는 거주게 도는 거.

106020 #1 가레기 끼아진 거, 거 무시건디 데와진 거 도는 거.

106020 #2 도는 거주게.

106020 #1 경헤네 그런 거 뽑아봐난에 경 두려도 일곱췌 그때가 어느때 예레숫 예레일곱에 산디 예레숫 산디 그 미녕썰 즈사 나서. 아장 졸랑 올르지 못하민 일어 상 발로 일어사명 올려나서.

106021 @ 그 멘네씨하고 그 저 멘네 그 숨하고 분리되는 혹시 멘네클이라는 말 들어봐수과? 멘네클.

106021 #1 멘네클 멘네 테우는 틀게.

106021 @ 멘네 테우는 틀?

106021 #1 응 테와.

106021 @ 아까 거기서 가레기는 뭐하는 거파?

106021 #1 가레기는 저 썰 뽑양 감는 거.

106021 @ 여기 이시냐 봅써. 이 그림 안에. 그 요 그림 안에.

106021 #1 이거는 이거는 짜는 거 아니? 짜는 건게 이건 베클에 아장.

106021 @ 예.

106021 #1 요거는 짜는 거.

106021 #2 이게 이게 가레기 같은데 이게 도는 거.
106021 #1 어느 거?
106021 #2 이거 이거, 이게 이게.
106021 @ 예 가락 맞수다. 가레기.
106021 #1 가레기. 이거 가레기가 마질거여.
106021 #2 이게이게 맞아 이거.
106021 #1 이거.
106021 @ 예.
106021 #1 맞아 응.
106021 #2 맞아 우리 가레기 가레기 허는 거.
106021 #1 나가 가레기렌 허는 거.
106021 @ 나중에 다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여쭙볼게예. 가락인데 가레기.
106021 #2 가레기렌도 허고 가락.
106021 #1 가레긴디 가레긴디 비슷한게.
106021 @ 맞수다게
106021 #1 이거는 짜는 거. 이거는 무시거 허는 거 맞은게. 신돌아메고 베클.
106021 @ 베클 예.
106021 #1 응 이거 베클 이저 멩지.
106021 #2 거난 이거하고 이게 뜰린 것이 이견 멩지실 짜는 거 님고,
106021 #1 멩지썰 짜는 거어?
106021 #2 응 이거 멩지썰 짜는 거 이거. 이디이 이지이. 이견 가레기가 업다
말이여.
106021 #1 아니 가레기 허는 건 미녕썰허는 거어.
106021 #2 거난 이거 이견 멩지썰허는 거란 말이지 사진 이견.
106021 #1 응.
106021 @ 이거는 저.
106021 #1 이견 미녕이고 이견 멩지.
106021 @아.
106021 #1 마자, 이견 마자. 저 거시기.
106021 @ 맞수다.
106021 #2 이견 멩지, 이견 미녕.
106021 @ 예.
106021 #1 마자. 요건 또 무시거라?
106021 #2 거, 저, 멩지. 저 거시기 허는 거 아니라? 풀칠허는 거.
106021 #1 어디 풀칠허는 거?
106021 #2 이거 저 페랭이 돌리는 거 마자. 실뽑는 거라 실뽑는 거. 이거 이거
랑 ㄱ튼거 아 요거 요거요거 요거랑 ㄱ튼거. 이게 요고랑 ㄱ튼 거 이거랑 ㄱ튼거라

실뽏는거아니라 이거 이거영 요거영 ㄹ튼거라. 이거영 이거영 ㄹ튼거 아니? ㄹ튼거 달믄디 ?

106021 @ 아니 좀 다른 거마씨.

106021 #1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106021 #2 이거 실뽏는 거 달믄디?

106021 @ 예 이거 썰 감는 거.

106021 #1 멍지썰.

106021 @ 예.

106021 #2 감는 거온 감는 거.

106021 #1 요 이거는 저.

106021 #2 이거는 멍지고 이건 미녕.

106021 @ 이거는 저 썰을 요 요기 그 저 이렇게 감아놔야 나중에 옷을 찢거잖아예? 해논거를 다시 이렇게 썰로 감아논거마씨. 물레나 베클이나 전부다 다 해낫잖아예?

106021 #2 이것도 베클.

106021 @ 베클도 안장 해낫지예?

106021 #2 베클은 우리집엔 안해나고.

106021 #1 아 씨긋는 거, 멍지허는 멍지 저 누에질랑 실뽏아 논는 거 거빼긴 따른 건 안해난.

106021 #2 응 짜는 건 안헨.

106021 #1 짜는 건 건 안해반. 짜는 건 안해반.

106021 @ 그 저 베클은 안해봐수과?

106021 #1 응 베클은 저 우리 할마님이 잘헤여낫는디 베클 찢 때는 나 두려.

106021 #2 저저 베클은 젊은이들은 별로 안헨주게.

106021 #1 두려, 베클찢 때는 두려 씨긋는 거는 최고, 일곱세미녕은 완전 최고 미녕은 완전 잘쫓넨 나 소문나나서 두린헨디.

106021 #2 장찌세 베틀은 나이 많은 사름만 허곡 베틀은 아무 집이나 어시난.

106021 #1 우리 할머니네허곡 일곱세 일곱세미녕 잘 쫓넨 나 막 추려밧고 나 춤 늑미 말 고라나서. 쭉~ 허민 그대로 썰이 굿짜 박는 거라.

106021 @ 음~ 썰로만 만들고 그걸로 천은 안 만들어나수과?

106021 #1 응 썰 만 만들면 우리 할마니는 영 천을 찬에.

106021 @ 천을 만들어낫구나예? 아 그렇구나예.

106021 #1 거난 이 할마니 짜는 거는 나 안해반.

바느질

106022 @ 그다음엔 그 바느질은 늘쌍하멍 살아실 거 아니파예?

106022 #1 바느질은 그자 이녁거는 이녁대로 해입영 살아.

106022 @ 그 바능질 할 때 바능질 할때는 뭐뭐가 이서나수과? 뭐 바능이 있어 낮고 그다음엔 바능질 하젠하면 썰도 이서낮고.

106022 #1 썰 잇꼭.

106022 @ 그다음 뭐이서수과?

106022 #2 우리집 할망신디 지금도 바능싼지 이서.

106022 @ 거난에 바능싼지 안에 들어진 거 영 생각하멍 고라봅써. 아니면 가정 왕.

106022 #1 에에에, 바능허고 실허민 그거민 헤결이주 무시거 들어.

106022 @ 아니 ㄱ세도 이서야 되고.

106022 #1 ㄱ세 잇주게.

106022 @ 예,

106022 #1 거 말양.

106022 #2 거 바능쌍지 앓당 다 빼와.

106022 #1 에~ 어서 어서 당추 거베끼 그계민 벨거라도 헛주.

106022 @ ㄱ세에 바능질감 허고예.

106022 #1 응.

106022 @ 골무 같은 거 어서수과?

106022 #1 아~, 그런 것도 안허고 당초 아녀. 골무 그런 것도 안허고 안녀는디.

106022 @ 바 그 바능을 보관하젠 허면 바능은 어디다 놔수과?

106022 #2 바능쌘지.

106022 @ 바능쌍지 안에?

106022 #1 바능쌍지 허질 안허고, 썰.

106022 #2 쌘지, 쌘지.

106022 #1 썰, 영~ 감아진 것에 혹, 썩 영 네빋주.

106022 @ 아 썰 감아진 거에마씨? 막 머리카락 같은 거 찢라가지고.

106022 #1 예 거 저 바능짤레 안 만들어 안만들어, 놉 다허는 사람들 고양이 만들 주.

106022 #2 아 거난 나 찢라나나 신디

106022 @ 바능짤레렌 고라수과?

106022 #1 응 바능짤레, 바능짤레.우린 그런 것도 안허고.

106022 #2 것도 이신집 어신집.

106022 #1 경해도 안해도 이거 줍는 거는 아무거세 앓다봐도 내 주어. 만들양.

106023 @ 바능질 할 때 바능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잇잖아예 어떤어떤 것 들이 이서수과?

106023 #1 어떻 어떻 헛 게 이서?

106023 @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옷을 헛을 때 영영 감으멍 하는 바능들도 잇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

106023 #1 아이고 우리 시철에 그런 거 저런 거 여성, 기자 여영 주리엔 요영
줍는 거 요영 줍는 거. 영호민 영 동굴실밥 영 주민 흡는 거.

106023 @ 이런걸 동굴실밥이렌 혜수과?

106023 #1 응 동굴실밥이렌 허곡 영 동구라넨 똥굴랑 허게 영~감아 내는 것 고
라 동굴실밥이엔. 경안헌건 영행 내밀곡 외영 허민 바능 감침이엔 헌건 웨영 허곡.
것 골려당 여영 허곡 김이엔 해당 바능 숨방숨방 저레 영 주어 가는 거.

106023 @ 주어 가는 거예?

106023 #1 응.

106023 @ 주어가는 것도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줍기도 하지만 한
번 꺼내가지고 뺀다음에 다시 뒤로 가는 것도.

106023 #1 어, 건, 뒷바능질.

106023 @ 그걸 뒷바능질이렌 혜나수과?

106023 #1 응. 뒷바능질.

106023 @ 아, 뒷바능질 알아수다.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에는 옷에 종류에 대해가지고 저기 여쭙볼게예? 어 남자들 옷
엔 어떤 것들 어떤 것들 이서수가?

106024 #1 남 남자들은게 저 남자나 여자나 곳지 글주. 중이적삼이라고.

106024 #2 이 할망 대장 아니라 곳 잘 알았지.

106024 @ 예.

106024 #1 예~예.

106024 @ 예 중이적삼.

106024 #1 응. 중이적삼, 우이 쪼끼, 그 우이 두루마기나 후루마기나 영 걸치는
건, 그런 거. 남자는 경허곡, 여자도게 여잔 옛날에 결혼할 때 우이 입는 건 그 장
옷이엔 곳죽 장옷. 여자 장옷.

106024 @ 여자옷은 따로 저가 다시 물어볼게

106024 #1 응.

106024 @ 남자 옷 중에서 중이적삼은 바지 얘기 하는 거파?

106024 #1 응.

106024 @ 위에는?

106024 #1 중이적삼은 이 우에는 적삼, 아래는 저 밧, 정벙이, 정벙이엔 곳죽,
중이적삼이엔 해도 정벙이. 또 겨울옷엔 우이는 두루막.

106024 @ 누벼진 거마씨?

106024 #1 아니 두루마기아니고 후루메.

106024 #2 후루메 후루메.

106024 @ 예.

106024 #1 장옷.

106024 @ 후루메?

106024 #2 응.

106024 #1 여름에는 창옷이엔 헐거, 홋옷으로 뵈 거. 모시나 저 멩지나 그런 거 뵈곡 겨울인 저 후루메엔 헐거 검을 걸로 헐거 허곡. 아래는 그대로 후루메에 따랑 은 바지허곡.

106024 @ 그것도 다 만들영 입혀수과?

106024 #1 게 경헛주게.

106024 @ 속옷은 뵈렌 고라수과? 속에 입는 이런 런닝구 비슷한 것 들은 뵈렌 고라수과?

106024 #1 난닝구 말앙 그 무시거 저 이서? 나닝구 입엇주 무신. 난닝구 허곡 쏘곱에 그냥 내의 그냥 저 다른 거 무시 거 입은 거 서?

106024 @ 그 속에 그 밑에 뵈스 같은 건 뵈렌 고라수과?

106024 #2 소중이.

106024 @ 소중이는 안만들어수과?

106024 #1 아 남자가 소중이파 여자가 소중이주.

106024 #2 게, 여자.

106024 @ 남자는 안입어수과?

106024 #1 남자는 뵈스게 뵈티.

106024 @ 그거는 누가 것도 만들언마씨?

106024 #2 다 만들안.

106024 #1 거의 만들안.

106024 @ 미녕으로 예.

106024 #1 미녕으로곡 광목으로곡 거거야 뵈 아무거라도 만들안 다 만들안 입 엿주기.

106025 @ 그담엔예 어 여자들 옷들 어떤 것들 이서수과?

106025 #1 아휴! 여자 옷사 옛날엔 무시거 헛젠해도 난 그런 거 안헤봤는디 영 옷을 해도 우리 할마님네 입은 거 보민 옛날에 영 아이마가정 무신 고장중이엔 허 멩 정벙이에나 안에나 영 함치지 안헤영 굴림 윗구정 탁 씨왕 입곡 거 이런 디 알 른 터지곡 허게 옷을 입고. 또 어른덜 쪽옷을 안 입어. 옛날엔 소중일 몰라. 슝엘 역불러 어른들은 안입영 살고 경헛게.

우럿때 뵈 때는 겐 저 소중인 아무나 안 입어서 이거. 소중인 안 입어도 뵈트게, 뵈트입고, 또 영 졸른 거 나 진거나 경 입고 살았주만은 옛날 어른덜은 거 영 터진 거 이디 아이 막아정 영~ 허민 강알 다 바레지는 거 입곡, 요만안헛거 굴 이만한 중이 입곡 경허멍 그 소중인 노즌 사람이 입넨 안입고 경헛나서.

106025 @ 그 요기까지 속에 속옷입고 요기까지 그건 뵈렌 고라수과? 무릎 위에 요기까지 오는 거.

106025 #1 옛날 어른사 그런 거 해서? 저 굴중이엔 현 거.

106025 @ 예 굴중이

106025 #1 응 굴중이.

106025 @ 나중에 일본식 때는 시찌브 시찌브 헛잖아예?

106025 #1 응.

106025 @ 그걸 굴중이렌 해수과?

106025 #1 응 굴중이.

106025 @ 아 그랬구나예 굴중이.

106026 @ 그다음엔 아이들 옷들은 어떤 거 이서수과? 아이들 옷.

106026 #1 아이서사, 요세 사는 거 포는 거 사당 아무거라도 그자 입엇주 무신 멘들아 줘서.

106026 @ 옛날에사 포는 거 어섯슬 때마씨, 어서실 때.

106026 #1 어서실 뎌, 기자 그모냥으로 멘들안 입엇주 무신. 저 무시거라게 저, 붓뎨옷 ㄱ튼 것도 그거사 다아는 거. 전서미로 낀 기자 애기 썩꼴락 허곡 영 멩지라도 영~ 세에 기자 혼굴 다 놔그네 이레 막 건들여 낀 붓뎨옷 멘들양 입곡, 즈른 건 죽게 흐쓸 멘들양 입곡 ,아멩이나 헛주. 아이 그뎌 사는 거 시난 썩왕 네불엇주. 베랑 옷이엔 잘 안헛주.

106027 @ 그다음엔 옷 만들 때 이제 천을 떠서 올 거 아니파예? 그때부터 옷이 다 만들어 질 때까지 이야기를 좀 고라줍서. 옷 천 상왕, 그 다음 아니면 저기 미녕으로 천 만들어 그다음 어떻게수과?

106027 #1 멘들양 어떻게. 멘들양 이녀 몸에 맞게 만들앙게 고틀 도나 단출 도나헿.

106027 @ 아 만들려면 이케 그 본을 떠야 될 거 아니파예? 옷 크기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

106027 #1 아이고, 그거 본뜰 생각 영 해봐그넵에 헤영 옷 뵙 영 다른 옷 영 짐작헿입단 거 심영, 그거 영 생각헿 낀 그 옷보단 크게 헤살거민 더 혼들렁 몰르고 .

106027 @ 멀로 혼들러마씨?

106027 #1 옷은 영 놀거아니라 영, 저 옷은 신 거, 그보단 크게 헤살거민, 옷 짐작해서 본뜨곡 하간거, 승당승당 ㄱ사그네넵에 영 허민, 더 크게 헿게민 더 너이 흘들르곡 죽죽게 헿거민 거깁 조리게 허곡 경헿 멘들알 살앗주.

106027 @ 게민 먼저 옷을 바늘로 이렇게 시침질 안헿그네 바로 바느질 들어가수과?

106027 #1 아니 경헤영 기차 놔그네 기차낱 영 돌아나지 못하게 영 흐쓸 영 시꺼. 시끄민 영 얼러놔 경헤놔그넵에 좃고, 이 다른 옷에 영헿 낀 저옷 베리고 이사람 베리면은 이거 보다는 커야할로구나 헤그넵에 짐작헿 헛주. 경 하강것 이제추록 본뜨곡 하각거 경헤사 무사 틀려?

106027 @ 애기들 옷은 그른 사 입혀수과?

106027 #1 사 입으나, 그거 짐작행 멘들구정 허면 이마니 낡 옷을, 이마니 커살 거민 이 죽은 옷으로 영 걸게 낡 허고, 이 옷이 크며는 웨영 꺼꺼동 들르고, 경행 살안.

106027 #2 죽게할거사 끈어불민 될거주.

106027 #1 아니아니 죽게할건 이 먼저 본 대는 옷을 예영 거꺼불민 즈그비연, 옷으렌 맞고, 아기들 옷 사입히꼭 사온 것에서 짐작행 노꼭. 경혜연 멘들아 줏주.

106028 @ 경헛구나예. 그러면 그다음엔 예 바지하고 저고리 치마 그다음에 버선이 잇는데, 바지가 만들잖아예 바지 멘 밑에 잇는 요걸 뭐렌 고라수과?

106028 #1 어느 거?

106028 @ 바지가 이렇게 잇잖아예? 바지는 바지 요 멘 밑에 요우에 잇는 단을 뭐렌 고라수과?

106028 #1 바지 단?

106028 @ 바지 단?

106028 #1 바지 단 이게 이 바위에 혼거?

106028 @ 예.

106028 #1 바지단이주 무신거라.

106028 @ 예, 그그며는 요기는 뭐렌 고라수과?

106028 #1 그딘 무신거까 이서?

106028 @ 다른 이름이 어서수과?

106028 #1 바지세뿌기여 무신 무시거 상복이여 혼거 말인가?

106028 @ 아 일단 이게 바지 단이잖아 예? 바지 단이고 그다음에 바지 단을 이렇게 좁혀봤잖아예? 더 요기 좁혀잇는 요기는 뭐렌 고라수과?

106028 #1 주름.

106028 @ 주름 주름?

106028 #1 응 바짓주름.

106028 @ 바짓주름. 그다음엔 바지 이 바지 주머니는 뭐렌 고라수과?

106028 #1 주멍 주머니사 무시거 저 수봉주머니.

106028 @ 주머니 말고 다른말 어서수과?

106028 #1 보게또?

106028 @ 보게또 말고

106028 #2 계와.

106028 @ 계와?

106028 #1 응, 어거 그거 마지켜. 계와, 계와엔엔 고라서 맞아.

106028 @ 계와?

106028 #1 응 계와.

106028 @ 계와.

106028 #1 응 이것 그라 계와.

106028 @ 예, 계와.

106028 #1 응 계와가 맞고.

106028 @ 그다음엔 이 여기 이 허리 허리 단마씨 허리.

106028 #1 허리는 뭐인고?

106028 @ 그냥 허리엔 ㄱ라수과?

106028 #2 게 뭐코, 콤콤헝 뭐헝 기억헤지질 안헤난 몰라.

106028 #1 허리엔 말앙 뭐렌 고라사겐고? 바지털이 흐쉴흐민민 이건 바지털이 이건 바지 셋복, 상복 경헤난.

106028 @ 경헝 셋복은 뭐고 상복은 뭐파?

106028 #1 셋복은 이런 디 죽은 거 흐쉴 일루루 영~헝 주여진 거 셋복.

106028 @ 예.

106028 #1 셋복광 이 경 고른 거 셋복이여 무신거여 헝거는 알아질루구만마는.

106028 @ 상복은마씨.

106028 #1 상복은 이디 큰 거. 큰가달.

106028 @ 큰가달, 그걸 상복예?

106028 #1 응.

106028 @ 그다음엔 그 어 저구리 만들 때 일단 저구리를 저 뭐렌 고라수과? 저 구리?

106028 #1 저구리.

106028 @ 저구리, 저구리 헝을 때 요걸 뭐렌 고라수과? 저구리 요 끝에.

106028 #1 끝둥?

106028 @ 예.

106028 #1 끝둥이엔가?

106028 @ 끝둥?

106028 #1 응.

106028 @ 소매의 끝에 부분?

106028 #1 응 이디 끝둥.

106028 @ 그다음 이거는마씨?

106028 #1 이거 소미.

106028 @ 소미예?

106028 #1 응.

106028 @ 소미.

106028 #1 요영 헤진 거 집.

106028 @ 집? 예.

106028 #1 응 외영 헤진디 큰 압섭은 밧압섭 외영 압트레강 안압섭헌디. 이제는 ㄹ ㄱ꾸로 ㄱ라. 안압섭 헝게 바께뜨레가고 옛날 만이 아니고.

106028 @ 밧앞섭, 안앞섭예?

106028 #1 응. 바뀌져서 지금 지금 텔레비 보민 바뀌져. 옛날엔 문 기축 만들앗 주~.

106028 @ 밧앞섭 안앞섭,

106029 @ 그다음엔 그 지금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헛잖아예? 단추를 메기 위해서 요기사이에 이렇게 꼬멘거는 무신거과?

106029 #1 이거 단추게 단추 코.

106029 @ 단추 코?

106029 #1 단추코 이거는 이거 옛날식으로 모진단추.

106029 @ 모진단추?

106029 #1 어영 이제 이거 허렌허민 아무도 못헐거메. 이런 거 못 모자. 이거 이걸 모진단추 저 이런 거 모진거 모라 모 불모작.

106029 @ 불모작?

106029 #1 불모작

106029 @ 예 게 모진단추 불모작, 불모작으로 모진단추를 만들엇구나예?

106029 #1 응 불모작으로 불모작이엔 곱는 거. 원래가.

106029 @ 모진단추허고예?

106029 #1 응.

106028 @ 게 여기는 뭐렌 모라수과? 여긴?

106028 #1 짓 게.

106028 @ 짓?

106028 #1 응. 한복에선 짓, 기냥 이런 것에는 예리엔 모람실거주만은 한복에서 는 짓.

106028 #2 예린 일본말마씨.

106028 #1 예린 일본 말.

106028 @ 짓 예.

106028 #2 거거 거시기엔 동전이엔도 곱고.

106028 @ 맞수다.

106028 #1 동전은 한복 짓둥이 도는 거 동전. 마무리 헐거 동전.

106028 @ 치마는 치마는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게 한복 치마잖아예? 그래서 이렇게 치마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끈메잖아 예? 그럼 여기를 뭐렌 모라수과?

106028 #1 치멧단?

106028 @ 치멧단?

106028 #1 알리 치멧알.

106028 @ 치멧 알? 치멧 알. 그다음엔 이거는마씨?

106028 #1 어디라 그거?

106028 @ 그니까 이거 이게 치메잖아예 이게 치멧알예?

106028 #1 응.

106028 @ 요기는 뭐렌 ㄹ라수과?
106028 #2 옆에. 옆에.
106028 #1 몰라 그건.
106028 @ 그리고 그뎨 요기는 뭐렌 ㄹ라수과?
106028 #1 허리? 치메 허리.
106028 @ 치메 허리.
106028 #1 응.
106028 @ 그다음에 옛날에 이젠 묶어놨잖아예?
106028 #1 응.
106028 @ 이젠 뭐렌 ㄹ라수과?
106028 #1 치멧곰
106028 @ 치멧곰 예.
106028 #1 응 무끄는 건 치멧곰.
106028 @ 그다음엔 치메가 열려져그뎨 이렇게 감앙 입엇잖아예?
106028 #1 응.
106028 @ 그 열려잇는 요 열려잇는 부분은 뭐렌 ㄹ라수과? 치메가 열려서 이렇게 겹쳤잖아예?
106028 #1 응.
106028 @ 요 부분을.
106028 #1 흔들른 거.
106028 @ 흔들르는걸 뭐렌 ㄹ라수과?
106028 #1 모르크라. 깝치메 흔들러 경 ㄹ랏주~. 흔들르민 깝치메 흔들른 거.
106028 @ 흔들르라 할 때.
106028 #1 이것 ㄹ라 깝치메.
106028 @ 뭐 흔들르라 헤수과?
106028 #1 치매 영~ 행 흔들러, 이레 영~허민 깝치메 흔들르고 기자 경 ㄹ라나 신디 몰라.
106028 @ 그니깐 그.
106028 #1 뜯 ㄹ 이서?
106028 @ 그 이게 치메잖아예? 치메는 요롱게 되잖아예? 치마가예 이렇게 요롱게 해야 치매가 입어지잖아예? 게민 요부분을 뭐렌 ㄹ라수과? 요부분을. 요요요 요부, 원래 치매가 묶어진 게 아니라 열어 진거잖아예 그뎨 치메를 이렇게 해서 영~행 입엇잖아예? 영~행. 영~행 감아그네 요기 끈으로 치메 허리로 헛잖아예?
106028 #1 경 후들른거 배께는 난 알지 못허크라.
106028 @ 요걸 뭐렌 안 ㄹ라수과? 요걸 치메섭 요 부분을?
106028 #1 응 치매갈 영 흔들르는 거 말 아니?
106028 @ 예 거난 요걸 뭐렌 ㄹ라수과?

106028 #1 그거 몰라.

106028 @ 모르쿠과 계난, 치메 요부분 요부분 요부분.

106028 #1 흔들른거는 맛주마는 나 모르크라.

106028 @ 흔들른덴 헤신디 뭐 흔들르렌 헤수과? 뭐 흔들르렌?

106028 #1 치메깍 흔들러.

106028 @ 치메깍 예?

106028 #1 응.

106028 @ 깍예? 깍.

106028 #2 치멧단이엔도 허고 그건 뭐라.

106028 #1 아니, 치메깍.

106028 @ 치멧단은 요거고예 깍 치메깍.

106028 #1 응.

106028 @ 맞을거우다. 그 다음엔예? 우리가 저기 버선 신잖아예? 옛날엔 버선을 뭐렌 ㄱ라수과?

106028 #1 버선고라 코지버선이엔 ㄱ지 무신.

106028 @ 코지버선에.

106028 #1 응.

106028 @ 코지버선이면 버선에서 요 앞부분을 뭐렌 고라수과?

106028 #1 앞코지.

106028 @ 앞코지?

106028 #1 응.

106028 @ 그럼 요런딘마씨.

106028 #1 그런디사 무시거엔 ㄱ라서, 기자 보선 앞코지 앞코지 곱고 국고 그것에 호랭인디 이런 것엔 몰르고 고자도 웨영웨영 허멍 막 요꼬장 이런 코지노멍 뿐을 네여그네 영 받아. 경행 올로 본 노콕 헤영.

106028 @ 요디 버선에서 요부분을 뭐렌 ㄱ라수과?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106028 #1 그거 나 몰라.

106028 @ 뒤에는마씨 뒤에는 보선 뒤에.

106028 #2 아따.

106028 #1 듯치기 앞치기밖엔 난 몰라.

106028 @ 뒷치기?

106028 #1 듯치기.

106028 @ 듯치기에 듯치기.

106028 #1 앞보선 앞코지.

106028 @ 앞코지에.

106028 #1 응.

106028 @ 그다음엔 보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예? 요 끝 부분을 뭐렌 ㄱ라수과?

106028 #1 보선모래기.
 106028 @ 모래기?
 106028 #1 응.
 106028 @ 모래기에?
 106028 #1 응 모선 모래기하고 보선 앞코지 듯코지.
 106029 @ 아까 그 단추 그 무신단추렌 혜수과? 그거.
 106029 #1 볼모작.
 106029 @ 볼모작.
 106029 #1 응.
 106029 @ 단추에 종류들 볼모작, 볼모작 단추 또 그다음 뭐가 이서수과? 무슨 단추?
 106029 #1 모진 볼모작하고게 이거 모진단추엔 빼끼.
 106029 @ 모진단추하고 다른이름.
 106029 #1 볼모작이 진짜라~아.
 106029 @ 볼모작예.
 106029 #1 응 볼모작단추.
 106029 @ 다른 이름 다른 건 어서수과?
 106029 #1 어서.
 106029 @ 그냥 이렇게 단추를 다 그렇게 예쁘게 안헤가지고 속에 뭐 집어넣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단추들도 이섯잖아예? 그건 무신 단추렌 혜수과?
 106029 #1 몰라 그런 건 흐곡 이거는 진짜여시, 이게 몰모작이 진짜 이거는 모진거. 이디, 이거 납작헤비였주만은 똥글락허게. 이거는 해운디강 헛주만은 이거는 모는사람은 진짜 문짝하민 뽀~끌랑 허게 허는디, 이거는 완전 홀타지게 안헤네 힘에게, 봉우지 힘에게네 호는 사람 빌언 헨게야. 멜랑멜락 헤여. 이거 이추룩 안허게 모는 거. 몰모작 진짜로 모는 사람은 이런 디 뽀작하게 모는디, 똥끌똥끌락 아깝주게. 게난 이거 허는디 강 헨거. 난 이추룩 옛날에 모질 때 이추룩 안헿 잘 모자. 몽콜락하게.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다음엔 이제 그 어 옷을 아까 옷감을 사가지고 본 낭 영헿덴 헿잖아예? 그렇게 할려면은 옷감을 사당 바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뭐 뽀다든가 뭐가 하나 하지 안헤수과? 옷감.
 106030 #1 사당게 뽀 것도 잇국 기자 제기 허주. 그 뽀명 누게가.
 106030 @ 뽀명 안헿 예?
 106030 #1 응 경헿거도 잇고 아녀는 사람은 기냥 흐곡.
 106030 @ 옷감 손질할 때 그 저 갈옷만들 때 옛날 그 갈옷이렌 안헿 뽀렌 고라수과? 감헤가지고 하는 거.

106030 #1 감드리는 건.

106030 @ 그걸 뭐렌 필?

106030 #2 저저 포도가루.

106030 #1 미녕? 미녕.

106030 @ 미녕을 사당 미녕 그 천 짜그네 옷 만들기 전에 우선 .

106030 #1 아. 절문미녕 그 옷 만들기 전에 ,그 저 그 저 감 들이는 거는 만들 아 낱, 그 짓물을 지와비동, 그 풀멕이멍 저 미녕 멘들젠 허난 그런 게 잇 주게. 풀 메긴저 거, 부병 질와동, 옛날에 제 흐살 낱, 그걸 켈와놓는 거라. 게민 그거가 폭삭 하게 잘 돼부는 거. 경현다음에 서너 벌 빨아동, 감물들이민 때 경 좋을 수가 었는 디, 이제는 나 돈 알존 안헤도 인제 사름들은 그 미녕이엔 한 것도 진짜도 아니주 만은 빨아도 기장 솜도 안허고 기냥 들이는 거. 켓물에 영 솜앙.

106030 @ 솜아야 하는다.

106030 #1 솜앙해서 썩 그 저 무신 물이 다 빠정, 저 풀물도 빠지곡 미녕이 폭 삭하민, 경 감들이민 경 곱고 오래가고 경헛는다, 이제는 기냥 빨앙 들여, 그냥 빨 앙 될 어시 나도 헤보난 경은 헤난게.

106030 @ 그래서 이제 감물 다 들여가지고 바짜하게 마르면 와가지고, 그다음 은 어떤 방법으로 옷에 들어가수과?

106030 #1 그거 몰랑 감은 들이면 들영 널엇당 뽀들뽀들 헤가민, 이 풀한 거 식으로 손 잘 빵, 손 잘빠그녕에 직각하게 시리 잘 빵, 거 오그라진 거 어시 바짜 페우민 그 그 발명도 바짜 오그라진디 히딕히딕헌디 어시 잘뽀곡 ,안헌딘 안혀는디 여라질이난 이젠 물도들영 감들인다 어떻한다라 ,다 몰라.

106030 @ 아니 그난 그때 옛날에 게 옷 만들젠 하면 감물들인 천을 이제 바닥 에 낱, 옷을 놓고 이제 본을 행 가위로 잘른덴 헛잖아예? 그 그 거기까지 어떻게 헛는지 고라줍서.

106030 #1 보슬 저 드린넨 그 보낱, 헌덴 허는 사람 허는 건 다른 사름덜은 그 옷 놓고, 그 정확하게 자 험주만은, 나답은 사람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본도 엇곡 허난, 늣입은 옷을 보면은 저 옷은 어디가 송나고 어디가 파르난 그 옷 낱 송나빈 디는 줄이구 배우곡 쟁 몰랑 그 뿐 따랑 나는 헤연 살구라 이말이라.

106031 @ 아 예 그다음엔 예 감물들인 거 말고 다른 색깔들 들였을 거 아니파 예? 그 다른 색깔들 그 저 그 색깔은 필로 들어수과? 어떤 색깔?

106031 #1 다른 색깔 옛날엔 그거 안헛주. 붉은 물이민 붉은 물 푸린 물이민 푸 린 물, 영헛는다 감만 들이곡 경헛는다 이제는 막 색깔이 경 헌덴 허는 디 고와.

106031 #2 요새깔로 색깔 내는 거 이제사 난거.

106031 @ 아니 저 뭐파, 미녕 말고 멍지로 할 땐 멍지 이불허젠 허난 색깔 안 들영 와수과?

106031 #1 아 그거는 색깔 들이는 디, 멍지민 붉은 물은 붉은 물만 들이고.

106031 @ 붉은 물은 무시거로 붉은 물 들련마씨? 붉은 물감은.

106031 #1 물감 그런 물로 사당.

106031 @ 아 물감을 사다가.

106031 #1 으응 물감 사당 이제는 붉은 물이여 푸른 물이여 합행 들이민 영~ 어우러 지민 막 뽀나는 것도 이시난 그런 거는 왁왁 허곡, 그때는 이불검지 돌거는 붉은거 이런 저 무시거 헐 거는 큰 거적 헐거는 푸린 거 경행 했는디, 그건 물로 사당 또루 또루 들어.

106031 @ 뭔가 다른 있이나 이런 것들도 안해가지고예?

106031 #1 안해여.

106031 #2 그때 그런 거 생각 꿈에도 몰랐주.

106031 #1 이젠 거 섞으는 거 한한했주게. 막 옛날 옷 하네, 이제 물들이는 사람 하도, 난 이젠 알지도 못허곡 거들영 머하린 다 내비언 소라불처랑.

106031 @ 게도 소라불지 말앙 나답써.

106031 #1 낫당 무시거 헐거라.

106031 @ 지금 잊지예?

106031 #1 응.

106031 @ 그때 시집올 때 헛던거예

106031 #1 응.

106031 @ 그거 오늘은 카메라 안가져왕, 찍게 한번에예? 소라불지 말앙 나답써 예?

106031 #1 아이고.

신발

106032 @ 그다음 신발 만들어 난거 물어볼게예? 그 신발들은 어떤 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 옛날에.

106032 #1 초신?

106032 @ 예 초신잇고, 또.

106032 #1 초신은.

106032 @ 종류종류 초신잇고 그다음엔 또.

106032 #1 초신잇곡 일본 왜경 때엔 게다가 잇고.

106032 @ 예 게다.

106032 #1 게다.

106032 @ 그다음?

106032 #1 그다음 그거 말앙 조리가 잇곡.

106032 @ 조리가 잇고 그다음에.

106032 #1 그거 베긴 엇주 무슨.

106032 @ 초신.

106032 #1 게 초신.

106032 @ 초신하고 게다 조리 예? 거면은.
106032 #2 게다엔 현 말은 일본말.
106032 #1 게메 건 일본.
106032 #2 게 우리나라말로 고라야지.
106032 #1 이제 그런 거 신도 안허여 왜경때나.
106033 @ 그 가족으론 신 안 만들어 봐수과? 쇠나 뭐 무신.
106033 #1 아 거 저 노우미 하르방 옛날에 현 거.
106032 #2 가족 우리 아버지 포섬 포섬.
106033 #1 가족 포선이여 가족으로 옷 허는 사람 옛날에예 잇주게.
106033 #2 아 게난 그건 생짐 씻는거난, 거난 저 가족으로 헤민 거 추울 때나
뛰나 걱정 없주게 저.
106033 @ 예, 게난 아 그믐은 가족으로 보선을 만들엉 초신을 신영 다녀수과?
106033 #2 아니 신이 아니고 보선 보선. 그 베기때 또 신을 신는 거.
106033 @ 그난 그 베기때 그니까 가족보선 위에다가 그면 초신 신영 다녀마씨?
106033 #2 응.
106033 @ 겨울에도?
106033 #2 아 게, 겨울에 겨울에.
106033 #1 신도 깍신 잇곡, 초신 깍신이 잇고 털멩이 신 잇곡.
106033 @ 아 초신에도마씨?
106033 #1 응.
106036 @ 아 초신에도 종류가 잇구나.
106036 #1 두가지 두 가지.
106036 @ 아까 초신에 무시거 무시거마씨?
106036 #1 깍신, 털멩이신 날만이 알아지쿠과?
106036 @ 깍신은 뭐고 툄멩이 털멩이 신은 뭐과?
106036 #1 깍신은 깍 내으멍 코영 예쁘게 고양이 힘 침, 시상재주 다 배경 현거
곡, 털멩이는 산디쪽으로 영~ 행 꼬아가당 흥쓸 요마니 하면 영~ 꼬왕 오그리멍
그냥 흐루신영 마는 털멩이신.
106036 #2 털멩이신이렌 현건 직접 깍을 영영, 그때는 그걸로 헤영 내우멍 짝
삼는 거고, 저 깍신은 미리 깍을 내여그녕에 그런 거주게.
106036 #1 경현디 또 거 곤신에 또 무시거 신골이엔 현게 잇주, 실골 곤 신에
그 골을놔간, 그 신에 곱딱하게 허젠 허민 악골 뒷치기 중간에 두 개 본 내우는 거
깍지 멧가지 그 가지를 놔야 그 신을 모양 만드는 거.
106036 @ 게, 거 만들양 신어봐수과?
106036 #1 거, 곤신사 신어봤주게. 깍신 우리하르바지 짜서.
106036 #2 아이 이제 새각시신 신는 걸로 하지아네.
106036 #1 새각시신도 옛날에 헛주게. 그거 행 신고, 시집올 때 어땡헤신고 허

민, 나 물메우고 가메 탕, 또게탕 싸우고 머리는 어떻게하는거민 이만~현한 건지 고 갱이 틀아지는 건지 쓰곡.

106036 @ 그거에 나중에는 그것도 질물할거 이서에 시집올 때 어떠한거에 대해서 아까 가족은 신은 안만들고 보선만 만들엉 신엇고 예 그다음엔

106036 #2 가족옷도 이서.

106036 #1 어디수과?

106034 @ 아니 지금은 신발에 대해서 질문하멘예. 아까 조리는 나무로 만든거 파?

106036 #2 응.

106036 @ 그럼 나막신은 뭐파?

106036 #1 조리는 짠 거.

106036 #2 나막신은 낭으로 만든 거.

106036 @ 나막신도 만들어봐수과?

106036 #2 남신이엿 헨.

106036 @ 남신?

106036 #1 응.

106036 @ 남신도 만들어봐수과?

106036 #2 아이.

106036 @ 신어는 봐수과?

106036 #1 아 신어비어 그거는 옛날어른들 허는 거 받 신엿텅기는 거 받.

106036 @ 아 옛날어른들 신어난거 봐수과?

106036 #1 응.

106036 #2 거 옛날에 눈에 빠지지말젠.

106036 @ 예 계난.

106036 #1 저 나무로 환 신 남신.

106036 @ 게 거 남신은 무슨 낭으로 만들어나신지 모루쿠과?

106036 #1 몰라 무시거 썬다.

106036 #2 그때 뭇낭인지 옛날 사람들은 보만 헷지 헤보진 안헤연.

106035 @ 그다음엔 초신만들 때 어떤식으로 헷는지 처음부터 그거 초신 만들 때 무신걸로 헨덴 헤수과? 췌?

106035 #1 산디쩍.

106035 @ 산디쩍?

106035 #1 응 산디쩍으로 허는디, 그 산디 영 여물 도라지는 디 허곡, 요런 남 뎡이 둥 영 세 봉우질 끈영, 그걸 모아놔 챗물 들영, 솟는거라. 그걸로 솟으민 그 찻이 산디쩍에거, 경 노랑행 곱나고. 경 고면 영 어르신들 아장 영 보병 썬 허게 허 민, 꼭 꼬양 놀 꼬아지는 거. 푹닥허게 경행 꼬면, 요만썬 요만썬 허게 문 경헤영 멘들아놔, 그 초신을 삼는디. 그 그거를 아사 불히명 삼아, 영 삼는디 친구리 뻗젠

공 하민 압 골 뒷골 중간에 요 두 개 또 멘들아와, 굽을 꺾는 거 무신 남죽 닳은 거 허민 그거가 다숫개 다숫개라이, 다숫갠디 이 이겨그네 쪽~ 허게 헤여노민 게 경 고와. 경 고운거민 새각시 신으로도 허곡, 또 경 안헌 건 산디 찍으로 영~ 행 삼아가당으네 털맹이엔 헌거는 그거는 영 꼬양 부병 이추룩 허곡 털맹이는 그날 신 영 일행 설러불고, 거 새각시엔 헌 허영 신는 신은 삼도 흠는것도.

106035 #2 거 새각시 신은 아무나 숲지안해서.

106035 #1 아무나 안헤여. 옛날 우리 하르바지가 그추룩 허는 거 나가 봐나난 거.

106035 @ 집에서 흔히 신는 초신은 거민 어떻 꼬아수과? 털맹이?

106035 #1 털맹이.

106035 @ 털맹이?

106035 #1 응.

106035 @ 털맹이 거민 학교갈 땐 뭐신영 가수과?

106035 #1 초신이나 신어낫겠주.

106035 #2 아 나도 초신 삼아나서.

106035 #1 삼아서 누게 수원이 수원이 선생 경 잘 삼았젠 고라.

106035 #2 수원이 선생 나보다 좋아렌디 그 사름이 삼았는데 내가 못삼아?

106035 #1 응 계난, 그거를 숨씨 좋은 사람이 잘 만들어.

106035 #2 계난 우리도 그축허난에 공일날마다 마다 삼아야 한단 말이야

106035 @ 아 일주일 동안에 학교 다닐 신을 신을.

106035 #2 거난 초신을 나냥으로 삼으면 일주일 신기가 힘들어. 웨냐, 사흘신영 똥썩 사흘 신어야 하는데 똥썩 사흘신기 전에 터져분단 말이여 이게.

106035 #1 그 신은 초신이렌 헌거 똥썩도 신곡 헤여그넵에 경 신엄주게. 계난 얼마 못신영 계다도 멘들앙 계다도 멘들앙 신고, 계다도 일본 말이주게. 그거 경허고 옛날에 신이 어디서.

106035 #2 것이 힘이 조양 잘 재왕 삼아지민 .

106035 @ 게 조리는 뭘로 만들어수과?

106035 #1 산디 찍으로.

106035 @ 아 조리도?

106035 #1 응.

106035 #2 거의 똑 같은 건데 신 놀, 조린 놀 헌건 무스걸로 헌지 아냐믄 미우쟁이 허면 알아져?

106035 @ 예 미우쟁이 저 역세 속에 잇는거예?

106035 #2 응 그거 뽑아다그넵 그거 몰리왕 그걸로 헤네 거 노를 꼬아네 그 신을 헌거라. 거 다른 날은 산디찍 같은 건 약행 안되주게.

106035 @ 거 역세 꽃을 미우쟁이렌 고라수과?

106035 #1 응 거 미우쟁이.

106035 #2 아니 저 그.
 106035 @ 역세 속을 뭐렌 고라수과? 그때.
 106035 #2 미우쟁이엔 현거 그저.
 106035 #1 거 흔들흔들 현 저 미우쟁이.
 106035 @ 그 꽃을 그 역세를 아에 미우쟁이엔 고랏구나예?
 106035 #2 응 거곡, 그저 꽃 말고 꽃 베끼떠 잇는 게 그 그걸 헤다그넵에 신을
 꼬앗주게.
 106035 #1 그건 신을 꼬우고.
 106035 @ 아 그답에 그 초신에는 깍신이 잇고 털뎡이 신이 잇는데 그 미우쟁이
 로 한 거는 조리를 만들엇다는거과?
 106035 #2 아니아니 놀놀 놀.
 106035 #1 놀 놀 그저 거시기 무시거라게 미우쟁이 나가는 속에걸 해당 꼬는
 놀.
 106035 #2 놀이렌 현건 모르는 모양인데 거 초신 삼젠허민 거 속에 노 헤그넵
 예 거 찢긴 거 헤야주게. 그 재우는 거, 그걸 놀이엔 허주게. 그그 그걸 헤그넵에
 녁줄.헤그넵에 이거 영~ 행 녁줄 헤그넵에 엮으는 거주게. 역어그넵에 영 그걸 재
 와그넵에.
 106035 @ 그걸로 초신을 삼는거예?
 106035 #2 응.
 106035 @ 그럼 발 막 안아판마씨? 발
 106035 #1 아이고 체암 그 초신을 신어나민 발 베껴지는 사람도 하ندی, 츠츠
 신어가민 그런 것도 어싯데그네 안 허곡, 체암은 발베껴정 막 아과.
 106035 #2 초신 신을 때 발 뒤치기가 완정이 켩이 뉘주 켩이.
 106035 #1 아이고, 잘못웬강 옛날에는 그런 고생 이제 사름덜사 호강버쳐가난
 별지랄을 다햐주.
 106035 @ 아이고, 알아수다예.

모자 등

106037 @ 그다음엔 모자에 대해서 저기 물어볼게예? 혹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하명도 쓰고 어디 나들이 다니명도 써실건디 모자는 어떤 종류들이 이서신
 지 혹시 기억납수과?
 106037 #2 일혈 때 뉘민 페렝이썩 뎡기고.
 106037 @ 옛날에도 페렝이 써수과?
 106037 #1 옛날에 페렝이 페렝이 하영 썩주게.
 106037 #2 페렝이 우리도 하영 만들어나서.
 106037 @ 아 직접 만들어나수과?
 106037 #1 응 짜네 밀쩍 봉우지 짜그넵에 영 만들어 만든게 여라해 쓰곡 좋아.

106037 @ 그 페랭이 만들 땐 뭘로 만들어나수과?
106037 #1 밀짚 봉우지 꺾어 낱.
106037 #2 밀짚.
106037 @ 밀짚이면 밀갈아난?
106037 #1 응 옛날에 밀 막 갈았주게.
106037 @ 아 기구나, 페랭이이 말고는 또 어서수과?
106037 #2 그전엔 그 페랭이는 그늘 허젠 쓰는 거곡, 그늘허젠 쓰는거곡, 그때는 모자들은 페랭인 모자가 아니고 거 여름철에 거 그늘허젠 허는 거.
106037 #1 페랭이 아녀고 여름에 그거 그늘 허젠 쓰곡 겨울인 지금 궁허민 대젠 수건 썬 살아.
106037 @ 수건으로 예?
106037 #1 응 하르방들은 나까우리 쓰곡 할망들은 수건 썬 살아. 영~행 마수건 무경.
106037 @ 겨울에 막 추울 때 어디 먼디 가젠허면 뭘 쓰는거 어서수과?
106037 #1 거 계메, 수건 더깁이에 쓰는 거 쓰곡, 그 무시거 수건이나 흔들릿주여자는 어서서.
106037 @ 남자 어른들은마씨?
106037 #2 지금은 허지만은 옛날엔 여자는 어케 바께 출입이 힘들엇주.
106037 @ 맞아 게 남자어른들은 예를 들어 목수 하시면 이제 먼디 집 지스레 갈 때 며칠씩 잇다가 오잖아예, 가고 올 때 뭘 안 썬 다녀수과?
106037 #2 저 그땐 그자 아무거라도 쓸 거 봉강 써야지.
106037 #1 아 저런 모자 썬 살아지나.
106037 #2 그때는 허곡 이 저 남자덜토 어디 전 뭘 흐쫄 어디 일헤난다 하믄, 이 향교 같은 거 텅기는 사름덜은 조금 나온 거 뭘 어디 상 썬 텅기고 경 안한 사 람들은.
106037 @ 거난 걸 뭘랜랜 고라신지 혹시 모르쿠과? 썬 다녔던 모자가.
106037 #1 나까우리.
106037 #2 아 나까우리는.
106037 @ 나까우리?
106037 #2 건 일본말이고.
106037 @ 나까우리는 뭘파? 나까우리.
106037 #1 나까우리는 영 동글랑 혜정 전해진거 대게 써지고.
106037 @ 응 옛날 막 저.
106037 #2 나까우리 그.
106037 @ 순사들 쓰고 헛던건가.
106037 #2 여름 거.
106037 #1 겨울 거 이디 아쫄오라봍서 겨울 거.

106037 #2 겨울 거는 어서.
106037 #1 어? 아이 거던 거.
106037 #2 이런 식이 나까우리.
106037 #1 저거 저런 나까우리.
106037 @ 아 그걸 일제시대 부터 썼구나예?
106037 #1 응 그거.
106037 @ 그전엔 어섯고예?
106037 #2 그저 일제시대 그전에는 거 그전에는.
106037 #1 그전에는 어서 저런 거 서.
106037 #2 이걸 여름 거주게.
106037 #1 분이 저런 거.
106037 #2 나도 이거 사놓긴 사났는데 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 이거 거난 나도 안쓰주게.
106037 #1 놈 쓰국 안쓰국 거벙이주.
106037 @ 그믐 그냥 뭐 폐랭이 썼고예?
106039 @ 겨울모자는, 막 겨울에는 특별하게 쓴 건 어서나고마씨?
106039 #1 겨울 모지도 저 닳은 거 겨울 거 썼주게. 저디 조 바로 요 닳은 거.
106040 @ 그믐 양태는 뭐파? 양태.
106040 #1 양태가 무시거라? 건 어디 표현이라.
106040 @ 모자 모자.
106040 #2 아 양태모자 그 그것이.
106040 #1 양털모저?
106040 #2 양태는 그 저 거시기 우리 아버지도 걸 썩 다녔는데 그 저 뭐인디 저 이지 저 땅소굽에 사는 저 무시거?
106040 #1 오르감티?
106040 #2 오르감티.
106040 #1 오르감티~.
106040 @ 오로감티?
106040 #2 거 거 말하건게.
106040 @ 오로감티는 필로 만드는 건데마씨?
106040 #2 오로가죽.
106040 @ 오로? 오로가 뭐파?
106040 #2 오로가 저 땅소굽에 사는 거 저 지다리.
106040 @ 아 지다리로 만든 거예.
106040 #2 어 쥐다리 가죽.
106040 @ 겨울에는 예 아 오로감티 오로감티파? 오르감티파?
106040 #2 오로라넨.

106040 @ 오로 오로 하난예? 그 오로감태는 지다리로 만들고예?

106041 @혹시 그러면 총모자라는거 들어나수과? 총모자.

106041 #2 총모자 총으로 만든 모자 모양인데 그런 모자 저 바난 거 닮은디.

106041 @ 총이 머짜? 총.

106041 #2 총은 지금 말허민 몰총.

106041 #1 몰총.

106041 @ 말꼬리.

106041 #2 말꼬리 몰총.

106041 @ 아~.

106041 #2 그런 걸로 만든거주게.

106041 #1 문 하간디강 들어오라신게게.

106041 #2 아게 딘 데 조사하고행 문딱 아는 거지게.

106042 @ 그 혹시 탕건은 알아?

106042 #2 탕건더 알주게.

106042 @ 탕건은 썩 다녔던 분 어수과?

106042 #2 탕건은 건 좀 어디 뎡기는 사람들, 켄디, 탕건은 무시거 뎡기는.

106042 #1 망건은 무시거고 멩건은 무시거라?

106042 @ 게 지금 탕건하고 망건하고.

106042 #2 탕건이엔 현건 그저 올케 저 옷도 건사하게 출려입고 우에 탕건 영 썩 뎡기는 게 탕건이주게.

106042 @ 수망리에서는 탕건 만드는 사람 어서난마씨? 썩 다니는 사람도 어서 나수과?

106042 #1 몰라.

106042 #2 거 탕건을 몰총으로 만들어실 거라.

106042 @ 탕건도마씨? 아 기구나.

106043 @ 망건은마씨?

106043 #2 망건이라 마나 그거 다 그걸로 만들어실 건데.

106043 @ 망건도예?

106043 #2 어 거난 그거 우리 만들어보지 안헤나네 모르곡, 문딱 그 짜난 사람이 옛날 이서낫주게.

106043 @ 아예~.

106043 #2 텔레비에도 흔 번 나오데 그거.

106043 @ 예 자주 나올거우다 아마도.

106043 #2 거거 문딱 몰총으로 멘든 것들.

106044 @ 비 올 때 우장은 입어났지예?

106044 #2 응.

106044 @ 우장으론 보통 뭘로 헤그네.

106044 #2 세로 세 불류완.
106044 @ 세로 헤그네예?
106044 #2 세 영~ 가운데 꺼 영 꼬리로 문 멘들앗주.
106044 @ 우장은 여기선 우장은 뭐렌 고라수과?
106044 #2 여기도 우장.
106044 #1 우장.
106044 @ 혹시 도롱이란 말은 안들어나수과?
106044 #1 도롱이? 건 몰라.
106044 #2 도롱이?
106044 @ 예 우장을 도롱이렌 헤낫거든마씨.
106044 #2 난 그 저 고향마다 이디 이름 틀려그넵에.
106044 #1 우장, 우장.
106044 @ 우장, 우장. 도롱이를 우장, 우장 헛구나. 도롱이가 아마 표준얼 겨우
다 아마
106044 #2 아 표준언 몰르고.
106044 @ 거 우장도 긴 거 잇고 짧은 거 이섯지예?
106044 #2 아 긴, 사름 키에 마창 하는 거난.
106044 @ 아 경혜수과? 아이들 긴 아이들 거 따로 잇고마씨?
106044 #2 아이들은 우장 썩 텅기는 아이는 별로 잇고.
106044 @ 계민 학교 갈 때 어떻 혜수과? 비오면.
106044 #2 아이고, 아이고, 학교 아정 강 어디 강 걸 츠자네여.
106044 @ 아 맞다예.
106044 #2 아 학교 다닐 땐 학교 데니는 아이는 그거 쓸 생각을 안허고.
106044 @ 그른 비오면 어떻혜수과?
106044 #1 비오민 그냥 살겨주. 무신 죽지아민 살기지 무신 옛날엔 우산이 이서
무시겨여 무시겨 옷 갈जू력 헛나 둘러쓰민 강오고 헛주.
106044 @ 거 학 먼 먼 학교를 가젠 허면 아침부터 비 와버리면?
106044 #1 아이고 경해도 가고.
106044 #2 아 거난 비오면 안가불고 거 무신 학교 데니는 거 뭐 어딜 가져?
106044 @ 아 그러게예.
106044 #1 아이들이 비가 오꼭 눈이 오꼭 비가 젓고 눈이 오꼭 가난에 우리 먼
디서 걸어아정 남원리 걸영 텅겨서어, 우리아이덜.
106044 #2 우리아이들만 걸어텅긴게 아이라 아방도 걸영 텅겨서.
106044 @ 맞습니다. 다음에는 식생활로 넘어갈게예, 잠깐 쉬고예.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자 시작할게예. 이제, 이제까지는 옷이라던가 집에 대해서 물어봤지예?
이제부터는 식생활에 대해서 물어볼게예. 밥에는 어떤 종류가 이수가? 밥 종류.

107001 #1 밥은게 요새 늘어진 기자 찰밥이고. 국은 기냥.

107001 @ 아니 밥만, 밥만. 국은 나중에 또 질문할게예.

107001 #1 응, 밥은 게, 찰밥에. 이따그넵에 무시겨 풋도 썩건 햅쌀 먹고.

107001 @ 옛날에, 옛날에.

107001 #1 아 옛날에 해난거?

107001 @ 네, 옛날에거.

107001 #1 아이고 옛날에 찰밥이 어디시나?

107001 #2 옛날에 찰밥은.

107001 #1 보리쌀에 좁쌀 섞어동 먹고, 감저도 난 먹고. 석경먹언. 경헛주.

107001 @ 그 다음마씨? 그런 밥 밖에 어서수가?

107001 #1 응, 모물궤루헛 요 범벅도 햅쌀 헛 먹고.

107001 @ 맞아예, 거 맛있잖아예?

107001 #1 응~.

107001 @ 경 범벅은.

107001 #1 그거 햅쌀 만들엿 먹고. 곤밥이 어디시나 말이야. 감저밥 헛 먹고 조
팝 헛 먹고 보리쌀 햅쌀석 석경도 먹고. 곤쌀은 안헛고 제사 때 베끼..

107002 @ 그 다음에 그 밥을 하기 위해서는 어 밥을 하는 그 쌀들 종류좀 이야
기 해 줘서. 아까 곤쌀도 잇엇고, 좁쌀도 잇엇고, 그 다음 뭐가 이서수과? 밥. 밥을
하기 위해서 쌀들.

107002 #1 보리쌀도 잇고게.

107002 @ 예. 보리쌀도 잇고.

107002 #1 어, 옛날에 그 피쌀도 이서도 피쌀은 경 안 먹으나. 아무나 갱 먹어
져서? 빗쌀도 잇고.

107002 @ 피쌀, 예 그 다음에.

107002 #1 모물 쌀도 잇고. 그거주.

107002 @ 모물 쌀도 잇고.

107002 #2 우리 살림 산지 후젠 피쌀은 힘들고.

107002 @ 좁쌀도, 좁쌀도 뭐?

107002 #1 좁쌀도 두 가지가 잇주, 흐린쌀이 잇고, 모인쌀이 잇고.

107002 @ 흐린쌀도 잇고예. 그 다음엔

107002 #1 또, 곤쌀도 석산배쌀이렌 헛거.

107002 @ 예, 석산배쌀예.

107002 #1 또, 저 보리쌀도 거시기 보리쌀은 여러 가지주, 두 줄 보리쌀도 잇고,

술오리쌀도 있고, 그자 겉보리쌀도 있고.

107003 @ 잇엇고예. 그믄은 보리쌀로 밥 해먹을 때, 보리밥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7003 #1 보리밥에는 기냥 보리쌀만 헨 먹고. 어리완 하난 그것에 좁쌀이나 흐쌀 석건 먹어난거주 무신.

107003 @ 뭐, 이런 감저나 지슬같은 건 안헤수과?

107003 #1 저 무시거 감저도 난 흐쌀 석건, 감저도 난 먹어서 밥에.

107004 @ 아 경헛구나예, 그 다음 반지기 밥이 뭐우파? 반지기밥.

107004 #1 반지기밥은게 무시거 게 곤쌀에.

107004 #2 반지기밥은 여러 가지 석은 게 반지기주게.

107004 #1 석거, 석근걸로 반지기밥.

107004 #2 곤쌀도 석그고 이기 뭐 하는 거.

107005 @ 예, 그 다음엔 예 흰밥에 대해서 말헤줍서.

107005 #2 흰밥이 쌀밥이여,

107005 @ 흰밥이 쌀밥이고 그걸 또 우린 뭐렌 ㄹ라수가?

107005 #2 곤밥이엔 고랏주.

107006 @ 곤밥이렌 고랏지예. 그 다음에는 조밥엔 어떤 것들이 잇는지 조밥에 대해서 말헤줍써.

107006 #1 좁쌀에 조팝이엔 감저도 놓고 모물 느쟁이엔디 한 것도 흐쌀 석건 먹고.

107006 @ 모물 느쟁이마씨?

107006 #1 으, 모물느쟁이, 모물ㄹ루 못헨 거. 그 초불쌀 두불쌀 허는다. 곤 거, 곤 거로 만들젠 허민 두불쌀로 하고. 초불쌀로 경 골아난 느쟁이엔 헛주.

107007 @ 아 기구나예.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엔 팻밥은 어떻헤나수과?

107007 #1 팻도 흐쌀 석경 먹언.

107007 #2 팻밥이엔, 쌀밥에 팻노면 팻밥이주.

107007 @ 팻밥이잖아예. 보리에나 조에는 팻 안 석경 먹어수가?

107007 #1 그 저 거시기, 무사 보리쌀 숲을 때 팻 난 숲으민 또 좁쌀도 석그고 이거저거 허민 문 석거저부는거주.

107008 @ 아, 경헛구나예. 그다음엔 아까 피밥은 보통사람들 안 먹엇텐 헨게만은, 피밥은 어떤 거파?

107008 #1 그, 피밥은.

107008 #2 보통 잘 안 먹음 이 아니고, 조금.

107008 #1 그 옛날에.

107008 #2 건 농촌이 완전 산에밖에 안 갈기 때문에. 여기에 저 이지 해변 사람들은 거를 갈아나질 았앗지, 아예.

107008 @ 경 수망리에서는 피밥을 안 먹어환마씨?

107008 #1 아니, 옛날에 햅쌀 먹어 텡겡주마는, 벵랑.
107008 #2 피밥, 우리아버지 산 때 피밥 우린 많이 먹엇주.
107008 @ 그럼 피밥은, 부제가 먹는 거파, 아니면?
107008 #2 아니 아니.
107008 @ 어신 사름덜이, 어신 사름덜이 먹는거파?
107008 #2 어어.
107009 @ 그 다음엔 감저밥은 뭐우파? 감저밥.
107009 #1 감저밥은 게.
107009 #2 고구마!
107009 @ 계난 감저에 무슨 그 찰들 석은 거 마썸?
107009 #1 응, 밥 허는디서 곶아난데.
107009 #2 밥, 밥에 감저 논디, 그 썸은거주.
107010 @ 그 다음에 무밥도 먹어나수가?
107010 #1 아니 우리는 그런 거안 헤 먹어난.
107010 @ 놉삐밥 안 헤 먹어난마씨?
107011 @ 그 다음엔 예 여기 바닷가 사람들은 늘상 햅떡엇다고 헨게만은, 저 톨로, 톨밥 햅떡어나수과?
107011 #1 아니.
107011 #2 아니. 그런 거 안헤난.
107011 @ 그런 거 안헤낫고예.
107011 #2 거 이제 톨 여 할망 여물 햅쌀 사 완게만은 데껴불렌헛주.
107012 @ 음, 패밥은마씨?
107012 #2 것도 안헤보고.
107012 @ 패밥도 바닷가가 아니난 안헛구나예?
107013 @ 자 이제는 예 국에 대해 그라줍서. 국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나수가 옛날에.
107013 #1 국은 놉삐국도 먹고게, 또 저 무시거 메역국도 헿 먹고. 또 웨냉국도 헿 먹고. 그런 것에 놓는 거는 가지각색. 고깃국 끌려먹구정 허민 그거 메역도 낵 먹고, 무도 낵 먹고.
107013 @ 음, 그 다음에는 그 국에 뭐 된장국 같은 것도 잇고 저 췌기국할 때 췌췌기도 놓주만은.
107013 #1 거, 국할 때 된장국은 누물국 같은 거 할 때 좋고, 저 거시기는 고기에, 췌췌기나 바닷췌기나 할 때는 이덧장 놌야 이덧장이 맛 좋주. 나 산 장으로는 안 먹어봐서 고자, 집이 장 둥근 걸로 먹주.
107013 @ 해마다 장 담강수가?
107013 #1 어, 안 담, 작년 부터는 안 담안.
107013 @ 무사마씨?

107013 #1 이제 실편.
107013 @ 경해도 계믄 집에서 안 담은 장.
107013 #1 안먹어난디꼬정. 제 이해 고모님 담양 먹어야 되켄 해야,
107013 @ 아 콩은 계믄 사다그네 마썸?
107013 #1 아직까진 사당 안해보난, 어성 사살거난 안 해네.
107013 @ 계믄 내년애 콩 갑서예.
107013 #1 사사 헐크라. 우리 간거 서야 거 저 됴을건디. 못헐꺼.
107013 #2 우리도 헐쓸 가는디, 잘 안뵤.
107013 @ 기짜?
107013 #1 계난 니랑 헐쓸 사 집이꺼 산, 사자니언 국을 헐는디, 작년은 콩을 사살거난 장 안 됴으난. 경해도 고 먼저 장으로 이제꼬정 먹엇는데, 이해 곱으며는 겨울인 콩 상 줍아사. 경해난 난 산 장으로만 먹주게.
107014 @ 녹물국에 대해서 그라줍서. 녹물국은 어떤 무신 녹물, 어떻 끌려수과?
107013 #1 녹물은 쟈, 쉼장, 쉼장 난 녹물국은 끌리고. 무 그튼 거 무신 저 거시기 뵤국 그튼 건 이디 물장 난 끌이고.
107013 #2 메역은 녹물국이 아니주게.
107014 @ 응, 녹물국에 대해 예. 된장으로 만들엉 예. 콩나물 국은 아까 콩나물은 직접 콩나물 티왕도 먹엇덴 헐잖아예?
107014 #1 전엔 티완도 먹고, 난 우린 원레가 원 쉼장을 잘 안먹어져. 국하는 건, 쉼장, 국물장, 그런 것만 잘 먹고. 녹물국에만 된장 헐쓸 놓고.
107014 @ 음, 그럼 콩나물국에는 계믄 뵤 놔수과?
107014 #1 나는 물장만 놔.
107014 @ 아, 물장 예.
107014 #1 어.
107016 @ 그다음엔 무국은마씨? 무, 늣뵤국.
107016 #1 물장. 물장.
107016 @ 늣뵤국도 물장예?
107016 #1 어, 녹물국 무친건만
107016 @ 늣뵤국에는 그냥 늣뵤만 난 헐수과?
107016 #1 그 그것이 무시거 콩나물도 헐쓸 놓고.
107016 @ 놓기도 하고예.
107016 #1 메역도 헐쓸 빨아난 썸건.
107017 @ 콩국, 어
107017 #1 콩국에는 소금 난 끌런.
107017 @ 아 콩, 그 뜨거운 콩가루로. 우리 오늘 먹은 건 썸, 아니 그 뵤지? 오늘은?
107017 #1 기냥 그루로 한거게.

107017 @ 아, 기지예?

107017 #1 그거는 소금 끈겨주.

107017 @ 콩국에는 뭐뭐 난 해수가? 물장도 낫주만은. 늪뻘?

107017 #1 아니, 콩국에는 저 무시거 웬장, 저 저 소금. 소금 놓고 무 놔도 돼고, 썬물도 돼고. 거 ㄱ랑 아무거나 놔도 돼어.

107017 @ 무 놔도, 아, 기파? 아 썬물도 놔수과?

107018 @ 호박잎국도 끌렁 드섬지예?

107018 #1 호박잎 국에는 저 무시거 놔야, ㄱ루 어성 썬겨야.

107018 @ 아 밀ㄱ루 마썬?

107018 #1 어, 거 썬겨야. 밀가루국 메밀가루국 호강되게 놔야.

107019 @ 물망국은 안 끌려 먹어 봐수과?

107019 #1 아니 물망국은 아니 먹고, 물망국은 저 무시거 큰일 때예, 그 옛날에 무신 큰일허젠 허민 헤그네 그 고기 씹아난 물에 물망 놓고 ㄱ루 흐썰 놓고게.

107019 @ 수망리도 몹국, 물망국은 헤 낫지예? 잔칫날 같은 때.

107019 #1 어, 응, 응, 그런 거. 그거.

107020 @ 그 다음에 생선으로 만드는데, 물고기 생선으로 만드는데 국은 어떤 종류가 이수과?

107020 #1 생선으로 하는 거는 메역놔야.

107020 @ 아, 메역.

107020 #1 어, 생선국엔 메역 놔야.

107020 @ 생선은 주로 어떤 걸 써수과?

107020 #1 솔라니.

107020 @ 솔라니 예, 솔라니로만 국 끌려수과?

107020 #1 기자 하는 건 다른거 흐썰썬 헨거 끌려주만은 솔라니 국이나 소고기 국이나 메역놓고.

107020 @ 게 메역국에 할 때는 솔라니나 쇠고기나 놓는 게 메역국예?

107020 #1 응, 메역국에 그런 거 하는데 집이장.

107020 @ 집이장으로 예? 물장으로 예.

107020 #1 응.

107022 @ 응, 그러면 아까 냉국 잠깐 저기 오이냉국인가? 냉국은 어떤 어떤 것들이 이수과?

107022 #1 저 웨냉국엔 웬장 난 헤어.

107022 @ 외, 게난 냉국에는 어떤 종류가 이수과? 웨냉국 잇고, 또.

107022 #1 난 그거 박기 몰라.

107022 @ 웨냉국 말고예. 응.

107022 #1 웬장에 이거저거 문딱 헛당 그거 흐썰 걸려놔 헤 먹어.

107023 @ 그 다음에는, 성계국도 끌려 봐수과?

107023 #1 응.

107023 @ 성계국에는 뭐 놔마씨?

107023 #1 성계국엔 조개 다시다.

107023 @ 조개 다시다를 놔가지고.

107023 #1 응.

107023 @ 음 그 저기 건더기는마씨? 성계 말고, 건더기는? 메역, 메역?

107023 #1 메역.

107023 @ 메역만 예.

107023 @ 그 다음엔 혹시 보말국도 끌려먹어 봐수과?

107023 #1 아니.

107023 #2 그런 거 어디신줄.

107023 #1 와야 무슨.

107023 @ 너패국도 안 끌려 먹고예?

107023 #1 아, 너패국은 모물 ㄴ봐나.

107023 @ 아, 너패국은 끌려먹어 봐수과?

107023 #1 거는 저, 어디서. 태흥리 이실 때. 수망리에는 딱히 어서.

107023 @ 계난 태흥리 이실 때 했던 것도 생각나는 대로 ㄴ라줘예.

107023 @가시리로는 국 끌려 먹어 봐수과? 가시리.

107023 #1 메역세사 국 끌렁 먹었지만 가시리 국사 끌려? 가시리? 너패국은 이서도.

107023 @ 너패국은 이서도예.

107023 @ 그 다음엔 파래국은 끌려먹어 봐수과?

107023 #1 파래연 옛날 옛적에 어어 어디 고 흐쓸 끌린 거 얻어, 흔 번 얻어먹어나신디 어떻게 헤신지.

107023 @ 물회는, 안 행 드셔나수과?

107023 #1 아니.

107023 @ 자리물회도 안 해봐수과?

107023 #1 아 그런 거는 먹주.

107023 @ 계난 자리물회, 물회, 물회.

107023 #1 뭐, 물회. 자리. 그런 건 잘 먹어. 허기는 실퍼도.

107023 @ 여기, 하, 수망리에서도 자리물회는 해 드시지예?

107023 #1 응, 막 그건 먹어.

107023 @ 자리물회 말고 물회 종류는 다른 거 어수과?

107023 #1 몰라, 난 자리회만 거 먹어난.

107023 #2 요새 요새도 우리 경로당 모임하든 자리물회들 여틀 모영.

107023 #1 저 경로당 모임으로 강 막 먹어, 먹으든.

107023 @ 경로당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엄수과?

107023 #2 아 건 경로당마다 찢리주게.

107023 #1 아 혼들에 혼 번은 맞아.

107023 #2 아 게, 우리 수망리는 한 달에 한번 하고. 갱 경로당에 그 회의에 지정한 게 달려 잇으니까.

107023 @ 맞수다예. 그

죽류

107024 @ 다음에는 죽에 대해서 저가 저기 질문할게예. 어, 죽에는 어떤 종류들이 이수과?

107024 #1 팥죽도 잇고 콩죽도 잇고 전복죽도 잇고 무신 죽삼대까지 핫주.

107024 @ 게난 생각나는 대로 다 ㄹ라봅서.

107024 #1 팥죽.

107024 @ 팥죽.

107024 #1 콩죽.

107024 @ 콩죽, 전복죽.

107024 #1 전복죽.

107024 @ 그 다음.

107024 #1 모물쌀.

107024 #2 아무, 아무거예나 놔그넝 죽 쑤민 먹을 거지.

107024 @ 모물죽

107024 #1 모물쌀죽.

107024 @ 예, 모물죽.

107024 #1 곤쌀만 낱도.

107025 @ 쌀죽예, 곤죽예, 곤죽. 음, 그믐 곤죽에 대해선, 곤죽은 어떻 쑤니까? 참.

107025 #1 어떻허난, 물 하영 노민 죽이 돼고, 죽계 노면 밥이 돼고.

107026 @ 조죽에 대한 ㄹ라줍써.

107026 #1 조죽도 마찬가지로.

107026 @ 조죽은, 어, 곤죽하고는 좀 다르게 쑤지 안헤마씨?

107026 #1 무신 쑤는 거사 달라?

107026 #2 그거 물 하영 노면 죽 아니라? 무신.

107026 #1 물 하영 노민 죽이 돼고, 조경 노면은 범벅돼고, 더 조경 노민 밥이 돼고.

107027 @ 응, 그, 팔죽은, 팥 난 하는 팥죽하고예. 팥죽은 그냥 동지 외에도 팥죽 끌려 먹을 때 이서마씨?

107027 #1 미깡 탈 때는 간식.

107027 @ 아 기구나예.

107027 #1 아아, 솥양. 압력밥솥에 솥앗다그넝에 간식으로다가.

107028 @ 콩죽은, 콩죽은 어떻 끝립니까?

107028 #1 콩죽도 게, 쌀 놓고, 그냥 죽 쑤듯 쑤는데, 대게 풋죽을 잘 쑤.

107028 @ 풋죽. 아 콩죽도 그 풋처럼 콩 알 그걸로 그냥 죽을 끝립니까?

107028 #1 아니 마루 마라당.

107028 @ 아, 그문.

107028 #1 마루 콩국 하듯 마루 마라당 한 걸로, 쌀 놓고 죽 쑤는 거.

107028 @ 콩, 은 국 끝리젠 하면 확 부꺼불잖아마씨.

107028 #1 그거는.

107028 @ 콩죽.

107028 #1 불 슬 때 끝걸로 싹 깔양 현디, 저 옷각 부끄지 아니현 때 멍심혜사. 게난, 그 국이 어떻해서 맛있는고 허민.

107028 @ 아니 죽 일때도, 콩 죽을 끝릴 땐?

107028 #1 죽 끝일 때?

107028 @ 예.

107028 #1 죽 끝릴 땐 어떻사혜신디, 대게는 우린 풋죽하고 콩국은 잘 끝리는디. 콩국할 때 잘못하면 확 부꺼.

107028 @ 게난, 예.

107028 #1 경허난 그 국을 헐 때에 어떻 허는고 허민, 저 그 마루영 물 놔그네 죽 흘마니, 저 국 흘마니 물 낱. 그 물이 켈 거 아니? 싹 켈면은, 저, 그 습퀴를 놔. 녹물. 녹물을 낱 그 우트레 마루를 놓는 거라. 노왕 영 헤그넝에 불 헉쓸 줄영, 영~ 헤지민 거 폭삭 익으면, 고만이 시며는 그게 저 소금 농륙, 소금 놔야. 으 소금 놓고 헤그넝에 짹 헐, 영~ 헐 저스명 마만히 톱 덕경 꼬리질만 헤그넝 끝령허민 부끄는 일이 어시, 그 완전, 부곽 허곡. 저 미룻헐 막 저서불고 어떻헐 허민 국이 기자 지르르륵 허게 안 좋고. 그 맞춰완 잘 습키 놓고 저 그 마루 놓고 게그네 오고생이 끝령 부곽하게 영~ 헐 저성 헉쓸 끈끈하게 저섯당 쑤어그네 톱, 두께덕경 놔두민 터박터박 저 비제기국 닭양 좋아. 게난 거 미룻 놔그넝에 마루 먼저 놔불민 게 습키영 먼저 놓지 안허민.

107029 @ 그다음엔 그, 모물죽 잇잖아예? 모물죽은 어떻 끝립니까?

107029 #1 모물죽은 무신 모물 헉쓸, 쌀 나뉘그네 싹 켈민 돼는 게난 불 과리영 헤도, 물 하베여도 알루민 가르륵 헤벼도 시민 불어. 모물축사 켈민 쌀 놓아 헉쓸 시민 돼주.

107029 @ 그문, 돼면 모물죽은 모물로만 쑤는 거파? 아니면 쌀죽 끝령?

107029 #1 쌀.

107029 @ 쌀로 끝리당 켈민 그거 놔마씨?

107029 # 쌀 처, 물 낱, 솥당 켈민 쌀을 놓아.

107029 @ 무신 쌀? 메밀?

107029 # 모물쌀.
 107029 @ 흰쌀, 곤쌀 낱, 끌리다그네 허는게 아니고마씨?
 107029 # 아니, 모물쌀은 모물죽에 모물 놓는 거주게.
 107030 @ 혹시 녹디로?
 107030 #1 안헤반.
 107030 @ 안헤봐수과? 녹디로는?
 107031 @ 그냥 득죽은 잘끄려그네 드시지예? 득 숯아냥 득죽.
 107031 #1 득은 영허민 득을 숯을 거 아니라 허민 숯양 그 득레기 먹고 그 국 물에 쌀 흐쌀 낱 쏘아.
 107031 @ 계난 예, 득죽은예.
 107032 @ 그다음엔 쟁죽 쟁죽.
 107032 #1 쟁이죽?
 107032 @ 쟁이죽 말고마씨, 쟁죽.
 107032 #1 쟁죽? 쟁죽이 무시거라.
 107032 @ 국에 국에 밥 넣어가지고 끌린 죽이라고 하는데예 쟁죽.
 107032 #1 나 몰라 그거.
 107032 @ 쟁죽 쟁죽.
 107032 #2 쟁죽 그 저저 전에 거시기로 쟁이엔 현건 국이엔 현 말이주게 국이엔 허고 쟁죽.
 107032 @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어실 때난 밥먹영 밥 먹젠 허면은 막 하영 들어가잖아예 거면 쟁죽은 국이 이제 끌려지는 밥 혼사발로 여러 사람 먹젠 국에 놔그네 죽처럼 끌려서 먹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쟁죽.
 107032 #1 건 몰라.
 107032 #2 우린 경 헤나지 안헤부난 모르지.
 107032 @ 맞수다 그런 거 답수다예.
 107033 @ 그다음에는 죽 종류 중에서 예 뭐 닭죽이나 뭐 메밀죽 말고 혹시 그 다른 죽 특별한 다른 죽은 어서수과?
 107033 #1 어서.
 107033 @ 어서난예 뭐 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론 죽 안 끌려 먹어반마씨?
 107033 #2 썩 잡아보도 안헤시난.
 107033 @ 계난 거면 썩고긴 어떻행 먹어수과?
 107033 #1 몰라 난 먹어보지 안헤부난.
 107033 @ 아 기구나예.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엔예 범벅하고 수제비에 대해서 여쭙보게예, 범벅에는 어떤 종류의 범벅들이 이수과?

107034 #1 범벅은 옛날에게 모물ㄴ루 놓고 저게 범벅하고 지금 밀ㄴ루로 범벅하고 허주게.

107034 @ 무시거 낱마씨?

107034 #1 감자 훔쓸 나그네.

107034 @ 감자만? 호박 같은 건 낱 안헤수과?

107034 #1 감자 훔쓸 낱 행 먹어도 나고 기자도 뭐 헤먹고.

107034 #2 집집마다 뜰테지.

107034 #1 호박 같은 건 안헤나고?

107034 #2 호박이신 집이 호박행 형 거고 감자이신 딴 감자 낱 헐 거고.

107035 @ 어 그 여기 수제비는 여기서 뭐렌 고릅니까?

107035 #2 저베기.

107035 @ 저베기, 저베기는 여기서는 만들엉 먹어봐수과?

107035 #1 저베기사 멘들아 먹주게.

107035 @ 저베기는 그 밀가루는 사당마씨?

107035 #1 사당 먹을 거.

107035 @ 아니, 옛날엔.

107035 #1 옛날에도 저 무시거 저 옛날 완전 옛날에 밀 굴 때는 밀 ㄴ란게 저베기 밀ㄴ루 이디 저 무시거 토종 밀 ㄴ라왕, 이제 나는 건 헤영헌거고, 그땐 벌경헌 밀이랏주게. 경헌 거 곶앙.

107035 #2 옛날엔.

107035 @ 보리가루로는 저베기 안행 먹어판마씨?

107035 #1 아 저 어디 그때 훔쓸 훔는디 이서나실거라 만은, 난 밀ㄴ루로는 안헤보고.

107035 @ 밀로만예? 밀고라당예.

107035 #1 어려운 때 그 보리쌀 말제가가난 것들 헐 뭐 그런 거 동저베기나 먼들 헐젠 고라라만은 건 안헤고.

107036 @ 안헤보고예? 겐 칼국수는 행 먹어봐수과? 칼국수? 칼국수도 밀가루 사당헤수과? 혹시 밀 갈아당?

107036 #1 사당.

107036 @ 사당? 옛날엔 사지 못 할 때는 안헤판마씨? 칼국수?

107036 #1 그 칼국순 아녀고 그 사당 부틀땐 영 헤영 훔쓸 톤아논 거.

107036 @ 톤아논 거 헐구나예.

김치

107037 @ 그다음 김치에 대해서 여쭙볼게예. 어 김치종류는 지금 냉장고에 무신 김치 무신 김치 이수과?

107037 #1 아이구 무신김치 출리국. 저 이체껏 시난, 막 시금전, 배추김치 훔쓸

잇지 그거 막이.

107037 @ 응 배치 배치집치예?

107037 #1 응.

107038 @ 그럼 그 배추집치 담글 때 처음부터 어 배추를 밭에서 갈아서 캐 오잖아예? 그다음부터 고라줍서 어떻 담그는지.

107038 #1 케오면 소금에 죽엇당, 죽으민 건정, 그때 아이고 마농농고, 무신 짓갈이나 흐쓸 놓고 무시거 그냥 고추ㄴ루나 흐쓸 놓고 행 그거 먹엇주 무시거.

107038 #2 양념은 제대로 놔서.

107038 #1 그거 갱 먹엇주.

107038 @ 옛날에 고춧가루는 집에 이신 고치 말렛당 혜수과?

107038 #1 응 옛날엔 그거 이제는 문딱 사당.

107039 @ 계난 열무 김치는?

107039 #1 그런 거 저런 거 아녀고.

107039 @ 열무김치 안 혜 먹어봐수과?

107039 #1 나 안 혜영 먹고정 허민 흐쓸 사당.

107039 @ 사다가아.

107039 #1 먹구져 허민 사당 먹주.

107040 @ 물김치 같은 건 안담강 먹언마씨?

107040 #1 먹고종 허민 사당.

107040 @ 사당, 근데 픈는 건 막 조미료맛 낭 뭐 안혜마씨?

107040 #1 그냥 그거 맞앙 혜영 구저불민 아이상 먹고 기자 짐치.

107040 @ 아이세, 만들어진 김치를 사다 먹어수과?

107040 #1 응.

107040 @ 그럼 옛날에 옛날에, 옛날엔 어떻혜수과? 예를 들면 아까 출 빌 때도 점심만들젠.

107040 #1 경헌데 기냥 짐치 혜그넹예 흐쓸헛주 경 하간짐치 여러 가지 혜서? 온가적 노물이나 삶고 경행 그런식으로 웬장이나 허곡 하간 저 그냥 푸습세들이나 혜영 삶곡 헛주.

107040 @ 푸습세가 머파?

107040 #1 이거 저거 저 무시거 이제 ㄴ트민 고기 썸 허민, 상추 ㄴ물 삶은 거 그런저런 식으로 흐쓸씩 헛주.

107040 @ 아 예.

107040 #1 고기.

107040 #2 그전에 그추룩행 정심 먹을 때는 게 뭔가 그때는 못 살 때난 무시거 배고치 배고프지나 앓으면 윈 그거 꿀릴 수도 었고.

107040 #1 깔치ㄴ튼 거 행 볶으나 구나 그런 거 밥만 하영 아정가민 뿔주.

107041 @ 동지김치는 안혜봐수과?

107041 #1 아 그런 거 저런 거 안해. 안혜영 기자 사당 먹고.
107041 @ 옛날에도 사당 먹어수과?
107041 #1 옛날엔 행 먹엇주만은 이젠 몰라 이젠 사당, 흐쌀 네불민 식으르와불고.
107041 @ 계난 저가 지금 물어보는 건 예? 옛날에 해난 거 물어보는 거라 예?
107041 #1 계난 옛날에 옛날에 무시거 동집치?
107041 @ 예.
107041 #1 아 동집친 잘행 먹고, 동집치를 행 먹어도 동집치허곡, 느물배치집치 허곡 해신디 물집치 그런 저런 건 사다그넝 먹어도 안해여.
107041 @ 여기서도 여기서는 동집치렌 해수과 동지집치렌 해수과?
107041 #1 동집치 동 꺾거당 혼 만든 거.
107041 @ 거 동이렌 해수과 동지렌 해수과? 마을마다 달랑 물어보는 거마?
107041 #2 동지집치는 동지엔 허는 거 동지집치고.
107041 #1 아니, 동.
107041 @ 아니 느물동을 동지렌도 하거든예.
107041 #1 동집치 동집치 허주. 느물동 돕근거.
107041 #2 여기서 여기선 동집치지, 동지집치 동지집이엔 헌건 동집치지 동김치.
107041 #1 동집치 저 느물동 당가당 우선 허여 느물동집치.
107041 @ 느물동집치예
107041 #1 동집치지.
107042 @ 그다음엔 예 어 무로는 늬빠로는 어떤 어떤 김치 행 먹어수과?
107042 #1 그 무는게 훌게 썰영 훌은 나보기 집치도 행 먹고.
107042 @ 무신 집치마?
107042 #1 나보기 집치.
107042 @ 나보기 집치?
107042 #1 응.
107042 @ 나보기 집치.
107042 #1 응 그런 것도 행 먹고, 또 줌질게 나풀나풀 썰영도 먹고.
107042 @ 그 나풀나풀 줌지게 썬 걸 무신 집치렌 해수과?
107042 #1 무시거 줌지리 북짜 썬 거, 그거 흐쌀 물집치로.
107042 @ 아 혹시 깍두기 라는 말은 안써수과?
107042 #1 깍두기집치도 흐쌀 행 먹엇고.
107042 @ 깍두기 여기도 깍두기렌 해수과?
107042 #1 응 옛날에 경 헛주. 요세.
107042 @ 깍쩍이 이런 말은 안써봐수과?
107042 #1 깍두기.

107042 @ 깍두기로 예.
107042 #2 깍제기 깍제기.
107042 #1 깍두기.
107042 @ 다른데는 깍제기라고도 해가지고예?
107042 #1 깍제기?
107042 @ 네.
107042 #1 아 깍두기, 깍두기 허는디?
107042 @ 아 아니 아니, 그건 다른 마을.
107043 @ 혹시 그럼 파김치는 안해봐수과? 파김치는 어떻 해수과? 파김치 파김치?
107043 #1 파로 만든거?
107043 @ 쥌쥌한 파로 만든 거.
107043 #1 그건 건 안해진 거 다텐. 안행 먹어난 거 다텐.
107043 @ 그 쥌쥌한 파를 무시거렌 고라수과?
107043 #1 패마눔.
107043 @ 패마눔이파? 그게?
107043 #1 응 패마눔.
107043 @ 패마눔김치 안행 먹어반예?
107043 #1 응.
107043 @ 그 다음엔예 패마눔 잇고, 그다음엔 예?
107043 #2 흘근 건 콧데산이고, 콧 데산이라고 다른데도 곳는가?
107043 @ 예 콧데산이가 뿌리 안날 때를 패마눔이렌 허는거과?
107043 #1 아니 아니, 그거 말앙 장에서.
107043 #2 패마눔이엔 현거 저.
107043 @ 쪽파 쪽파를 패마눔이엔 해수과?
107043 #1 응 쪽파 그것 고라 패마눔.
107043 #2 응.
107043 @ 그럼 큰 대파는 뭇렌 고라수과?
107043 #1 그 무시거.
107043 #2 아까 거 콧데산이 콧데산이여 뭇여 곳지.
107043 #1 콧데산이엔 현건 대산이 저.
107043 @ 아니 대산이가 마눔이고 대파마 대파 대파.
107043 #1 대파는 대파주 무신.
107043 @ 대파렌 해수과?
107043 #1 응.
107043 @ 패마눔은마?
107043 #1 패마눔은 쪽파.

107044 @ 그다음은 예 썩 썩마눔은 아시잖아예
 107044 #1 썩마눔은 드르에 나는 마눔.
 107044 #2 드르에.
 107044 @ 썩마눔은 캐당 안드셔봐수과?
 107044 #1 아 옛날 두릴 때엔 먹어났주만은 이제 이저비언, 먹어났주. 건 테우
 천 먹어.
 107044 @ 김치는 안헿 먹어보고예.
 107044 #1 응 지시 듸앙도 먹어나고 옛날엔 그거 쫌쫌하게.
 107044 #2 이치롬 그건 막 심영 포는디 이시는 모양이.
 107044 @ 맞수다게 비싸예.
 107044 #1 썩마눔 꽤마눔.
 107046 @ 그담엔 세우리는마?
 107046 #1 세우린 지금도 이디서.
 107046 @ 여기도 세우리렌 하지예?
 107046 #2 응, 세우리 이디 이서.
 107046 @ 게, 이십디다 보난. 세우리짐친 안헿 먹어봐수과?
 107046 #1 것도 헿 먹고.
 107046 @ 헿낫잖아예? 세우리짐치. 세우리 김치는 어떻 만듭니까?
 107046 #1 세우리 짐치는 무시거 조끔 무시거 헿저신가 소금 흐끔 버무렸다네
 무신 젓갈 흐졸 버무렁 먹어진 거 닻아.
 107047 @ 기지예. 어 배추김치하고 무 늠뻘김치 담갓다가 배추김치는 담글 때
 쪽 말끔해 주섯고예 무김치 담글 땐 어떻합니까?
 107047 #1 무짐치도게 소금 흐졸 버무렸다네 양념헤 논 고추장 버무리나네.
 107047 @ 아 고추장을 버무리수과?
 107047 #1 고추.
 107047 @ 고춧가루로예.
 107047 #1 고춧가루.

젓갈

107048 @ 그다음엔 젓갈종류로 헿 저가 여쭙보게예? 어 젓갈에는 어떤 어떤 종
 류가 이수과?
 107048 #1 젓갈은 무시거 저거 저 자리젓도 헿 먹어나고 멀젓도 헿 먹어나고
 그거벧겐.
 107049 @ 자리젓.
 107049 #2 이디적엔 그런거벧게 다른 건 뉘.
 107049 @ 자리젓은 어떻 답금니까?
 107049 #1 다 자리젓은 소금에 맞추아그네 소금에 자리에 맞추아 간바지면은

맛이 막 좋고 짜나 흐쓸 싱거우나 헤나민 구져.

107049 @ 건 간을 어떻 맞춰마?

107049 #1 계난 소금에 경 마진 거는 기가뻑히게 자리젓을 잘 먹어신디. 거 싱가와도 안돼곡 짜도 안돼나네 거 싱가와 흐쓸 헤빈거는 맛은 좋아도 저 거시기 무시거 맛은 좋아도 흐쓸 폰뜩헌디 이신 건 먹고정 안 허고 경허난에.

107049 @ 자리 흐 웨에 소금 얼만큼 난마?

107049 #1 옛날에 헐 때 자리 흐 말에 잊어버어네. 자리 흐 말에 소금 대성이여 관대엔 헐거 잇주. 그거 하나 노민 맞넌 고랑, 생각헤영 헤여도 어떤 때는 뒤 막 좋을 때가 잇곡, 하영 안하고 흐쓸 헐 때는 어떤 땐 맛 어성 버려볼곡.

107050 @ 멸치젓도 당가 나수과?

107050 #1 멸치은 당글 때 옛날에 흐쓸 당근디, 그것에 고추버서 놓고행 막 당그난 우리 하르방도 아니먹을 거 나도 아니먹으난 아녕먹은디, 우리 시아주방 하나는 그렇게 좋아헤영, 잘 먹으멍 헐 사름은 좋아헐. 사름은 멸치도 잘 먹고 헐 사름은 제기 확 죽어불고, 아무것도 안먹은 사람은 우리 고자 살아점져.

107050 #2 가이는 먹는걸 보면 참 잘먹어.

107050 @ 그 군대가서 돌아가신분마?

107050 #1 아니 아니, 그냥 차사고냥 죽어비연.

107050 #2 차사고로 우리 막내.

107050 #1 차사고로 죽어비연.

107050 @ 몇 살 쯤 돼가지고마?

107050 #1 애기 다섯 개 나동 죽엇지.

107050 @ 아 결혼헤가지고 애기 다섯이나.

107050 #1 애기 다섯 나도 하나토 안 풀아동.

107050 #2 아 지금 가이 자식들은 전부 결혼헐주.

107050 #1 다 결혼헤서 견디 손지가 지금.

107050 #2 우리집 중에 손지가 켈 하.

107050 #1 열네 갠가? 웨서. 손지가 열네 개 웨서 손지가.

107050 @ 잘도 잘도 힘들어시쿠다예 혼자 다섯 키우젠 하민예.

107050 #2 아 계난에 우리 아주망이 고생헐주.

107050 @ 계난 아주망이.

107050 #1 계난 지금 큰 딸 시아방은 죽영 널 일포난 그디 갈 거.

107050 @ 아 기구나예.

107051 @ 혹시 아감젓이 뭔지 알아지쿠과?

107051 #1 응?

107051 @ 아감젓.

107051 #1 몰라 난 그거이상 한번도.

107051 #2 아가미젓이엔 저 텔레비션 자꾸 곳지만은 그거 우린 헤보지 안헤서.

107052 @ 그담엔 쟁이 짓은 알아지쿠과?

107052 #1 쟁이짓은 옛날에 먹어봤주. 태흥리서 먹어나명 해서 곳쁜 안혀고.

107052 @ 아까 자리젓하고 멸치젓 만드는 거는 그믐 자리젓은 관똥로 네 똥, 소금 한 똥 헨거치고 멸치젓은마 멜젓은?

107052 #1 아 멜젓은 그보다 조정들거 닳아.

107052 @ 아 멜젓은 소금 조금예.

107052 #1 겨난, 경 하영 안형 옛날에 하영 헐 때 경고란, 그 말 들영 그것에 비규형 소금을 내가 허는디 멜젓은, 멜젓이나 자리젓이나 이제는 쪼곰만 하는 따문에 그것에 비교헤영 그 멜, 접, 물건 논 것에 소금을 낳, 어느 정도 영 버무리민 기자 내불민 맞을 때가 잇곡 안 맞을 때가 이서.

107054 @ 그다음에는예, 어 출레, 우리가 그 제주보면 출레, 출레 하잖아예 출레가 뭐고예, 출레 종류는 뭐가 이수과?

107054 #1 출레 무시거영 허곡, 밥먹젠 허민 무신 출레나 이시냐, 그런 말이 쓰는 거.

107054 @ 예.

107054 #1 그런 말 써, 옛날엔 밥먹젠허민 무슨 출레나 시냐, 헨 게, 원, 거.

107054 #2 출레렌 직접 말하면 양념 무슨 양념은 무시걸 놓곡.

107054 #1 먹는 밥에 먹을 양념 이신거를 드는 거시기라.

107054 @ 반찬이 무신거 이시냐 출레가 계민 반찬이파?

107054 #1 응 경헐 생각으로 저 출레 이시냐 헨거가 그거라.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다음에는 예, 어 장아찌 하고 회에 대해가지고 제가 여쭙 볼게예? 장아찌에는 어떤 종류가 이수과?

107055 #1 짬아치는 우린 안헐 먹는다, 딸 헤오며는 그건 좋아헤여.

107055 @ 우선 마농지가 잇고예.

107055 #1 옛날엔 그 소용 어서나고.

107055 @ 계난.

107055 #1 마농지사 무슨 편이주만.

107055 @ 겨난 마농지가 잇고 또 뭐가 이서수과?

107055 #1 무시거 몰라 이제 마농지 옛날에 그거세 마농지 왕지 헛쓸 썩경 민 짝 헤결헛지만은 이젠 벨것도 먹구정 헨게 어시난.

107055 @ 아니 옛날에 계난 마농지 종류 고라줍서.

107055 #1 옛날엔 게 저 대사니지나 허곡 대사니지 그거나 허곡 감자나 청 먹고.

107055 @ 그 지 종류 중에 아까 대사니 꼭지를 뭐렌 고라수과? 아까.

107055 #1 뭐엔사 고라신디 몰라.

107055 @ 아까 그 쪽 뽑으면 나오는 거. 그 대사니 꽃 피기 전에 영 뽑아가지고 그거로 담그는 그거.

107055 #1 대사니 뿌레기?

107055 @ 뿌레기?

107055 #1 응.

107055 @ 예 뿌레기, 그거로 지 안 담가수과?

107055 #1 그거는 대우처네 무쳐먹으면 해도 대사니, 그 제라운 대사니 혈 때 지 덤그민 그거 지 담앗단 이제, 다 아이먹어지민 무시거 저 고기 볶을 때, 바닷게기 볶을때나 흐썰 접아놔 먹고.

107055 #2 요센 그 대산이빨레기.

107055 @ 여기 아 여기 아니구나 반치는 지 안담가 먹어바수과?

107055 #1 옛날엔 그 장 덤으멍 그 반치 놔그네도 장 덤양 반치만 건지멍 그 짹짹한거 먹어나서.

107055 #2 반치 이디 이시난 지금도 이신가?

107055 #1 메빗주~.

107055 #2 메비서.

107055 @ 어저께 그 어디서보난 그 반치이선게 마는예?

107055 #1 응, 막 하서 수망니 한디 서. 겨난 옛날에 혼 흐썰씩 그 장뎀을 때 거 췌당 경 짹거 먹어놔주만은 이제 그거 누구 먹카부텐~.

107055 @ 양에로는 지 안담강 먹어수과?

107055 #1 양에는 솥양 무쳐먹고 그냥 헛주 지 안뎀안.

107055 @ 그 마농지, 반치지, 양에지는 안헤먹어보고예? 모자반 그 바다에 잇는 모자반 들망으로는 안헤봤지예?

107055 #2 아 그런 거 우리는 안헤보고.

107055 #1 들망게 몰망국.

107055 @ 그 유썸으로는 유썸지 안 담강 먹어봐수과?

107055 #1 아~ 아이고, 거사 처 무시거게 행 먹주.

107055 @ 계난 예 종류들에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마농지 담그는 대사니지 담그는 방법에 대해 말해줍서.

107055 #1 옛날에사 저 무시거게 그 대사니지에 그 장물 농콕 소금 조금 농콕 했는디, 이젠 그거 저거 어시 무시거사 험신디. 옛날엔 원 소금 농콕 소금 흐썰 버 무리고 장물 놔 그거해서. 경헛당 께아그네 장물 들만허민 께양 먹는 디. 이제사 별 거 다 놔주게.

107055 @ 옛날에 장물하고 소금예?

107057 @ 그다음에는 예 그 아까 자리회 이서놔잖아? 자리 물회도 잇지만 자리회도 이섯잖아예? 그 회종류는 자리회 말고 다른 거 또 뭐이서나수과?

107057 #1 몰라.

107057 @ 꿩, 꿩떠그네 먹는거 뭐.
107057 #2 아 우리 여기는.
107057 @ 수망리.
107057 #2 응, 수망리는 거 꿩 그런 거 먹어보지도 안해서.
107057 #1 꿩, 논 거 먹은 만 해났는디 자리꿩.
107057 #2 어디가든 놀래 강 식당에나 강 먹어지지 여기서 별로.
107057 #1 먹고정은 해엿지. 그런디강 먹으멍 해난지 몰라.
107058 @ 그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찬 즉 반찬들 종류가 다를 건디 예, 어 주로 반찬들은 뭐해그네 먹어나수과?
107058 #1 예 반찬출리곡 하간 거 어시 그냥 국에 밥만 먹영 살았주.
107058 @ 계도 여긴 산이난 고사리 같은 건 하영 볶아 먹지 안헨마?
107058 #1 고사리 꺾겨사 하영 먹엇주게 고사리 꺾겨사 행 먹고.
107058 @ 고사리 반찬.
107058 #1 고사리 반찬, 기자 양에 반찬, 그런 저런 그런 거는 행 먹주만은 바당에건.
107058 @ 바당엿 건 안 먹어도 고사리도 잇고 또 양에도 잇고 또 뭐 이수과?
저기 보난 호박 아 호박 같은 건 뭐 안 해먹어수과?
107058 #1 호박도게 보강도 먹고 국도 끌령 먹고.
107058 #2 호박 끌려, 갈 때랑 호박이나 하나 줘.
107058 #1 어 튀김도 행 먹고, 호박이나 하나 주크라.
107058 #2 하나 빌령가.
107058 @ 아 저는 안줘도 돼마씨.
107058 #2 아 호나 주께 아정가.
107058 #1 호근 호박은 아니 다른 호박은 이제사 여난 맛 잇고 뜯호박이엔 헌 건 요만엔 해여 크지 안해여 이런 거 어쨌든 호나 이신게.
107058 @ 계난 그런 호박 같은 거 해 먹고예. 그다음엔 호박무침 같은 거 호박, 호박 그 제사 때 한 거 뭐라고 헛지? 그 호박 뭐렌합니까? 제사 멩질인가.
107058 #1 호박 호박메물?
107058 @ 호박 메물이렌 합니까? 그거는 그런 제사 외로는 안 해먹어판마씨?
107058 #1 무사 안 해먹어게? 호박 꺾겨 사 집이 헛난 자꾸 행 먹주.
107058 @ 계문 예, 지금 현재 반찬에 예, 여기서 나는 그 저 나는 걸로 하는 반찬 뭐 이수과?
107058 #1 무시거여 췌넙도 잇고 오웨도 잇고, 호박도 잇고, 호박썰도 잇고, 이젠 얼마 어성 양에끈도 양에끈 양에끈이엔 헌거 양에도 그것도 잇고, 저 콩넙도 잇고.
107058 @ 맞아 콩넙도 잇지예?
107058 #1 이제 저 무시거 상추는 이제 세여불국 풋고치도 잇고 하~주게.

107058 @ 그거 다 심어수과? 흐끔식은?

107058 #1 흐방울씩 다 싱건.

107058 @ 아이 진짜 잘햐수다게.

장 담근기

107059 @ 그다음은 장담그긴데 예 어 웬장 담글 때 어 웬장은 언제 담근니까?

107059 #1 된장은.

107059 @ 아까 1월 아까 언제 담근덴 고라수과?

107062 #1 그저 어느 때 동가져시니? 동짓돌 채 아니랄 때 메주를 숲아, 매주는 동짓돌 채 아니랄 때 동짓돌 낭 숲아도 되지마는, 미릿 헤사 더 존거. 그저 문 숲양, 메주 숲양, 콩 숲아그네 만들양 티왕, 티와그네 트몽 몰르멍 허게시리 돌아멧당, 저 셋돌 음력 셋돌, 지금 동짓돌이렌 현 것도 음력으로 곶는 거. 셋돌 그믐날은 장 돕아.

107061 @ 셋돌 그믐날예?

107061 #1 장은 돕는 디, 소금 소금물을 헤영. 하영 헤노민 짜나네 이 소금, 이 향에 소금을 생각에 마련이 흐 말 놀떠면은 두웨와 흐 말이 녀 웨주. 두 웨만 그 소금물을 고랏당 이래 푼라 낱 ,그 메주를 드리컷당, 그 녀영 그 소금이 그 메주 흐 쫄 즈물양, 그 무시거에 뿌그락 헤가건 우트레 저 무시 것에 싸냥, 그 겨민 그디 든 디난 소금은 두 번째 허민, 다들어가는 거 아니, 경행 싸와그녕에 그 잘리에 영 뵙 소금이 제기 거저 제기 혼 사흘 서뵙, 그 또사갈 때난 제기 풀어지지 안혀주게. 언 때라부난 영 건저뵙 소금이 흐쫄 잇건 저 흐쫄 잇건, 건저불고, 하영 하영 뵙다비영 엇건, 쫄곰 소금 녀곡 허민 간 제라게 맞아.

107061 @ 저 간장하고 웬장 분리는 어떻힙니까?

107061 #1 경허난 이제 어느 때 웬궁 허민 음력 3월 3월 달 웨면은 갈라, 장을 경행 갈랏다그녕에 웬장 따루 물장 따루, 웬장은 물 흔들러질렁 놔두고 그 물장은 쵸에다 문딱 지렁 향 소굽에나 어디 낫다그네 떡곡 경헤.

107062 @ 아까 매주는 동짓달에 쓴덴 했지예?

107062 #1 응 동짓돌 채 못헐 때.

107059 @ 채 못헐 때.

107059 #1 응 못헐 때 꺾그네 키와.

107063 @ 그담엔 장 담글 때 뭘 특별하게 시리 영허문 안된다 헤가지고 막는 건 어수과?

107063 #1 아이고, 저 텔레비 나오라고라마는 나 경 안헤영 기냥 경헤도 꾸준히 소금만 그것에 잘 그것에 맞추양 흐 말 차불민 디짱 맞아.

107063 @ 응, 한말에 두 웨예? 소금예.

107063 #1 흐 말에 두 웨 안웨지, 아니 콩 흐 말 숲은 거에 콩 흐 말 숲은 거에 그자 흐 말 들어가.

107063 @ 소금이마씨? 아까 두 뒤편 안혜수과?

107063 #2 아 첫 번 두뒤편 놓고.

107063 @ 아 첫 번 두뒤편.

107063 #2 나중에 싸그넵에 두뒤편 놓는, 경행 빨리 녹으면 싱거운 거고, 빨리 안 녹으면 덜 싱거운 거. 짠거다, 현거주게 소금 녹는 거 봐서.

107063 #1 겨난 그 소금 체암 놀 때는 겨을의 됴으기 때문에 항 고스카부덴 소금을 쪼금 놓는 거라. 경해야 소금을 고뢰낫당, 흐 번에 다 노면은 소금 장이 맞아서.

107063 @ 아~.

107063 #1 경허는 거, 겨난 겨을의 됴으기 때문에, 항이 막습주. 항 벌러지 카부덴.

107063 @ 아, 항이 벌러지기도 합니까?

107063 #1 고스면 고사, 겨난 그 말의 이 항에 소금 흐 말 들거라 허민, 반만 먼저 소금물 그랏다그네 다음은 잘 이저빈거 싸놓아 또.

107063 @ 그 말이구나 예? 장담을 때 특별하게 금하는 건 엇고예?

107063 #1 엇고~ .

107063 #2 아 도시에서는 잇는 모양이란게.

107063 @ 겨난.

떡류

107064 @ 그다음엔 예, 떡, 떡에 저 떡들을 해서 저 제사명절에도 쓰고 해야되잖아예? 떡에 종류에 대해가지고 어떤 떡들이 잇는지 생각나는 대로 고라줍서.

107064 #1 아 시리떡 허고 설벤, 절벤, 인절미 또 무시거 저 무시거엔 행 웃지, 그거민 되는 거, 상에 올리는 거는.

107065 @ 그러면 시루떡은 뭘로 만듭니까? 재료는 뭘로하고 예?

107065 #1 아 시리떡은 곤쌀.

107065 @ 곤쌀로?

107065 #1 응, 곤쌀로. 영 허는디 저 거시기 상에 올리는 거는 풋 안 낱. 안노면은 흐쌀 희뜩 허는디 희떡으로 허곡 풋 보무린 거 흐쌀.

107065 #2 풋떡 놓는 건 제팬이렌 헤그네 거 상에 올리주게.

107065 @ 겨난 그 시루떡 만드는 과정을 쪼고라줍서.

107065 #1 시리떡은 뭘 어디가민 헤오는 때문에.

107065 @ 아니 집에서 할 때.

107065 #1 집에서 할 때는.

107065 @ 옛날에.

107065 #1 옛날에 집에서 시리에 할 때는, 그 그루에 물, 그루 고라다그네 물 버무렁 예영 췌어보면은 알아져. 그자 브쩍 췌어진거영 삭 불어불민 징계징계 놔그

넙에 중간에 풋 농콧, 풋 아니냥 허는 떡은 영 험벅 농콧 헤그넙에 치면 떡 돼는거 주, 무신.

107065 #2 풋은 풋은 서로 부트지 못허게 하겐 허는거주게.

107065 @ 아 그렇구나.

107065 #1 응 풋은 서로 부트지 못허게.

107065 @ 시리는 지금도 이수과?

107065 #1 우리 우리 시리는 잇어도 무슨 쫄꿀락 헨거 흐썰은 난 허는 거. 옛날엔 막 큰 시리에 헛주게. 겨난 그거 어디 벌러정 설러정 데껴부러트주 무신.

107065 #2 시리 옛지안헤여? 우린.

107065 #1 옛날에 헤난건 어서.

107066 @ 그담엔 송편은 뭘로 어떻 만듭니까?

107066 #1 송편 절편 경헌 거 잇주게 본.

107066 #2 뿐 이섯주게.

107066 @ 아.

107066 #2 절편뿐 송편뿐 이섯주.

107066 #1 송편 절편 인절미는 그냥 땡기나 이서나고.

107066 @ 송편하고 솔변하고는 다른 거 아니파?

107066 #1 아니아니, 솔편이나 솔변이나 그튼 거.

107066 @ 송편, 송편.

107066 #1 송편은 기계로 빠냥 동글동글 헨거.

107066 @ 아 기계로 빠수과?

107066 #1 어.

107066 @ 집에서 만들어판마씨? 옛날에?

107066 #1 송편이엔 헨게 그 기계로 뽀는거 낫주. 그 옛날떡은 솔편, 절편, 인절미 베끼 안헛주게.

107066 #2 솔변은 거 달모양 헨거.

107066 @ 겨난 솔변은 게난 우리 어릴 땐 그거 이렇게 하면은 막 영 헤가지고 막 하게엔 같이 헤나신디 송편 만들 때.

107066 #1 어, 만드는 거 도아 지 헤나실거주게. 게난, 그 그건 작구떡이라고 해서 의미가 이신 떡이라부난 솔편, 절편, 인절미 저 무시거 허꼭 이 초상난덴 저 중례, 약례 그런 거 잇주. 초상난딘.

107066 @ 으음~.

107066 #1 겨난 성복에 못 올린 건 올리도 안헌덴 허주~. 중례 약례는, 그 중례는 영 기창 호롬 허게 요영 기차그네 영~ 헨건 중례고, 대과는 영 무데기 난거 우이 덕그는 거. 것 고라 중례, 약례 중례여 약례여 경행 헨거 잇곡, 경행.

107067 @ 빙떡은 안만들어 봐수과?

107067 #1 무사 안만들아?

107067 @ 여기선 빙떡을 뭐렌 고릅니까?
107067 #1 저 전기.
107067 @ 전기떡 예?
107067 #2 어.
107067 @ 전기떡은 어떻 만듭니까? 재료는 뭘로 해가지고.
107067 #1 저 모물ㄱ루게.
107067 @ 모물가루로 어떻행?
107067 #1 모물ㄱ루 헤그넵에 카그넵에 저 무시거세.
107067 #2 솟뚜껍에.
107067 #1 저 옛날에 솟뚜껍에 지젓주. 솟뚜껍에 지름 불량.
107067 @ 계난 빙떡에 속에는 뭐 준비헛당.
107067 #1 무농양, 무채속.
107067 @ 늣뻘 예?
107067 #2 어.
107067 @ 늣뻘 채썰어그네예 채 썬 거는 간 안혜수과?
107067 #1 무사 안혜여. 께도 농륙 지름도 조금 농륙 소금 농륙 파썩 더운 때 건정, 소금 농륙.
107067 @ 그다음에 상웨 떡은 안혜봐수과?
107067 #1 무사 안혜여, 것도.
107067 @ 여기도 상웨떡이헛 허지예?
107067 #2 응.
107067 #1 응 상웨떡.
107068 @ 상웨떡은 어떻 만듭니까?
107068 #1 옛날에 이젓거사 ㄱ랑 무시거 허여, 옛날에꺼 뭐 무시거 누룩 알주 누룩.
107068 @ 예 예.
107068 #1 거 밥 혜영, 누룩 헤그넵에 밥 버무령 나두민, 거 부각허게 올라와.
107068 @ 아 밥으로마씨?
107068 #1 응 밥혜여.
107068 @ 곤밥?
107068 #1 아 옛날에 곤밥이 어디서 보리쌀.
107068 @ 아~ .
107068 #1 보리밥 맛이 더 좋고 부각~혜네, 그거 누룩에 그거 밥에 혜여그네 버무려 나두민, 그거에 부각허게 올라오미는, 저 누룩 건저도그네, 그 걸러 걸령, 그 물에 그 순다릴 현거라. 순다리 물에 저 ㄱ루를 버무령 나두민, 무시거 버무려그네 영 ㄱ랑 북썩하게 ㄱ랑, 무시거 덕껍 나두민, 이 상웨떡은 여름에 허는거난, 이마는 올라오민, 치면 이추룩 빵떡돼주.

107068 @ 계난에 아 그거를 보리 보리쌀로 했구나예.
 107068 #1 보리쌀로 헛주게. 이제는 곤쌀이 널어 짓주마는, 그디 순다리헛꺼깍
 장 곤쌀 헛 말이라. 그뎨 보리쌀 혼전허고 곤쌀이 어려와.
 107069 @ 그담에 제사 할 때는 어떤 어떤 떡들 헤수과?
 107069 #1 제사헛 때, ㄴ싸 ㄴ라 솔편, 절변.
 107069 #2 솔편, 절변 몬딱 그 작곡떡이엔 허는게 그거주게.
 107069 #1 초상난텐 중궤, 약궤, 그거 작구떡은 ㄴ싸, 멧가지라 제궤, 송궤, 인
 절미, 절벤, 중궤, 약궤.
 107069 @ 아 상 날 때 초상날 때는 아까.
 107069 #1 중궤, 약궤.
 107069 @ 중궤, 약궤예.
 107069 #1 응.
 107070 @ 상례 때는 중궤, 약궤 예.
 107071 @ 그다음엔 설기떡에 대해 고라줍서.
 107071 #1 무시거?
 107071 @ 설기떡.
 107071 #1 설기떡은 나 몰라 나 헤난거 베께.
 107071 #2 설기떡엔 여기는 설기떡이엔 헛게 없는데.
 107071 @ 설기떡 그다음에는 설기떡 없고예 인절미는 어떻 인절미는 이섯지예?
 107071 #1 저 중궤, 약궤에 인절미는 그디 다 들어간 거.
 107071 @ 아 중궤, 약궤 안에.
 107071 #1 제궤, 송궤, 인절미 또 무시거 약 아이 중궤, 약궤, 우썸 요숫가지이
 딱 요숫가지.
 107071 @ 응, 요숫가지.
 107071 #1 요숫가지는.
 107071 #2 절변?
 107071 #1 초상난 때만.
 107071 @ 하는 거고.
 107071 #1 응 요숫가지고 다른 뎨 무시거담다, 다숫가지 담다. 제궤, 솔벤, 저
 절벤, 인절미, 우썸 다숫가지 닻다.
 102072 @ 인절민 어떻 만듭니까?
 102072 #1 네비난거, 다른 건 영 솔궤은 돌반착이고 또 절벤은 두개 포부청 누
 르당 가운데 조썸헛 거고 인절미는 영 네 귀난 거.
 102072 @ 예 네 귀난거예.
 102075 #1 기고 저 무시거 우썸은 썸썸락 헛 거 우트레 허는 거고.
 102075 @ 게 우에 언치는 거고예?
 102073 그다음엔 아까 절이 절벤은 이렇게 썸 이렇게.

102073 #1 똥꼴랑 현거.
102073 @ 아 똥꼴랑 하게 현거.
102073 #2 두개 포물랑 누르는 거.
102073 #1 두개 포물랑.
102073 @ 아 그게 절벤이구나예.
102074 @그 다음에 슬벤은?
102074 #1 슬벤은 돌 반짝.
102074 @ 돌 반착이고예.
102075 저 아까 우찌떡 우찌떡은?
102075 #1 우찌떡은 쪼꼴락헌 종제기로 어픈 거 님은 거.
102075 @ 어프고예 그다음엔.
102072 #1 인절미.
107076 @ 고사지낼 때나 당에 가져갈 때 하는 떡은 뭐파?
107076 #1 돌레떡.
107076 @ 돌레떡 예.
107076 #1 응.
107077 @ 그 다음에 굿헐 때 허는 떡은마씨?
107077 #1 굿헐 때 떡? 나 뭐 무시거 고를 줄 몰라. 저 굿헐 때는 돌레떡이여 손레성이여 발레성이여 그런 거 잇는디 나 그런 거 몰라.
107077 @ 손레성, 발레성마씨?
107077 #1 응 그런거 이실거라.
107077 @ 손레성, 발레성.
107077 #1 더깁이 쓰는 거 마라 무시거렌 허는디, 그런 거 이실거라. 나 이저비 언 대게 돌레떡 이주. 돌레떡에 손레성, 발레성.
107077 #2 알기도 잘 아네.
107077 #1 그.
107077 #2 난 몰라.
107077 #1 몰라도 좋주.
107077 @ 거난 꼭 같이 해야 되는 거마씨. 그다음엔.
107077 #2 문딱 할망 찍세주, 나 찍세는 어시난.
107078 @ 어 이외에 다른 어떤 떡들이 이수과? 감저떡도 이서수과?
107078 #1 감저떡은 옛날에 저 거시기 절간감저 허영 그걸 마루 마라그네, 게, 마루 보수영 감제떡 시커멍 허게 행 먹어낫주게.
107078 #2 감저떡 여긴 이녁 배고플 때 헤영 이녁 먹젠 헤난거.
107078 #1 거 먹어낫주. 그것에 무신 쓰젠이나 그런건 안현거 먹어난거.
107078 @ 무신 똥떡이니 똥떡 조베기니 이런 건 안해나수과?
107078 #1 똥떡도 저 썩떡 숙떡, 이디 하는디 영 접아 논 것도 똥 님으메 썩떡.

107078 @ 아 뭉뚱떡은 썩떡, 손으로 접어난 거구나예.

107078 #1 지금도 기계로 ㄹ라당 허민 영 아저오랑 기계허는 사람은 영 인절미 떠오고, 집이 오랑 만드는 사람은 위영위영 정 뭉뚱떡으로도 헤여 썩떡.

107078 @ 응 썩떡을 썩을 아까 뒀렌 고라수과?

107078 #2 속.

107078 @ 아 속떡.

107078 #1 속떡 저 기계 가그네 그 떡 썩 놓고 그거 저 재료만.

107078 #2 이제 거의 썩이엔 곳지 속이엔 거의 안 곳는다.

107078 @ 게난 옛날 말 할 때 속떡예

107078 #1 속떡 ㄹ루 ㄹ랑 고루에 무청 온 거. 집에 아저오랑도 경 풋도 버무리고 콩도 버무리고 저.

107078 @ 아 그럼 저 그걸로 조베기도 행 먹어난마씨? 저기 저 저배기도 행 먹은거 마씨? 그걸로?

107078 #1 아니.

107078 @ 그 속떡.

107078 #1 속떡으론 저배기는 안허고 속떡은 그추룩 허그네 허곡 속 낱 옛날에 범벅은 행 먹엇주게 범벅은.

107078 @ 범벅은 예.

107078 #1 속 낱 범벅은 행 먹어나서 옛날엔 어려우난 그거 저거 가정.

소와 고물

107079 @ 그다음엔 떡에, 떡 속에 집어넣는 걸에 무치는 거라든가 속에 집어넣는 소나 고물에 저가 여쭙 볼게예?

107079 #1 어.

107079 @ 어 그 떡 그 저기 뭐야 속, 걸에 무치는 걸로는 뭐가 이서나수과?

107079 #1 무치는건 게 썩떡에는 속떡에는 콩고루도 무치고 빵고루도 무치고 또 저 만디는 떡도 섯주 모물 고루로 만두 접은 거여. 접양 만디엔 현건 풋도 무치고 여러가지 다 또 낫주.

107079 @ 그 붙이는걸 뒀렌 고라나수과? 떡 그런 걸 떡 부트지 안하게 시리 붙이는 가루를 떡 고물이엔 헤수과?

107079 #1 아니 붙으니 아녀는 게 빵ㄹ루.

107079 @ 게 그걸 뒀렌 고라수과?

107079 #1 속 저 거시기 속떡에 빵ㄹ루도 허고 콩ㄹ루로도 허곡.

107079 @ 그걸 뒀렌 ㄹ라수과? 콩ㄹ루니 빵ㄹ루니.

107079 #2 게난 보뜨지 안헤여 거 허는.

107079 #1 분고루?

107079 @ 아니 빵가루니 그 콩ㄹ루를 뒀렌 고라수과?

107079 #1 그 부트지 말렌 그 인절미레.
 107079 @ 고물 떡고물이레 해수과?
 107079 #2 아 계난.
 107079 @ 떡 고물? 걸 뒤편 고라수과? 뒤편 떡에 뒤편 무치렌 마라수과?
 107079 #1 콩마루.
 107079 #2 아니 콩마루가 아니고 무신 무시거엔 또루 마르는 이름을 드는 거 아니라?
 107079 @ 콩마루 무치라 해수과? 그 마루를 전체적으로 뒤편 마라수과? 떡에 무치는 마루는 뒤편 고라수과?
 107079 #1 콩고루.
 107079 @ 거난 이름 콩이라고 하지 말고 어 그 떡에다가 그.
 107079 #1 분마루.
 107079 @ 저기 뒤편.
 107079 #1 붙이는 거 고라 그거 분마루엔도 꺾고 콩마루디 분마루엔도 꺾고 부트지 말렌 부치는 거는.
 107079 #2 지금 마루는 거는 분마루.
 107079 @ 그니깐 고물 고물이라고 하거든마씨. 콩고물 무치라, 뒤편 떡고물 무치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뒤편 고라신지 떡 뒤편 무치라 해수과? 떡에 콩마루 무치라 정고라수과?
 107079 #1 응.
 107079 @ 다른 말이 엇고 예.
 107079 #1 응.
 107080 @ 그다음에 떡 속에 집어넣는 건 뒤편 고라수과?
 107080 #2 아 거난 아까 분마루엔 한 거 님은게.
 107080 #1 앙꼬.
 107080 @ 분마루?
 107080 #1 속으베 담는 건 앙꼬.
 107080 @ 앙꼬?
 107080 #2 앙꼬는 일본말이지 앙꼬 그걸 지금.
 107080 1 아 옛날에 부터 속에 놓는 거 계민.
 107080 @ 그니까 속에는 찻만 놓는 게 아니라 앙꼬만 놓는 게 아니라 뒤편 설탕도 놓기도 하고 찻깨도 놓기도 하잖아예
 107080 #1 응 거 안에 경허난.
 107080 @ 그 안에는 전부다 뒤편 고라수과? 안에 놓는 걸.
 107080 #1 안에 놓는 거. 찻, 그거 설탕도 놓고 찻도 놓꼭, 모르큰게 설탕도.
 107080 @ 그 그 떡 속에 떡 속에 넣는 전부 그걸 합쳐서 뒤편 고라수과?
 107080 #2 아 계난 아까 앙꼬엔 현게 뒤편 말인디 우리말로.

107080 @ 아니 양꼬는 팟인데 팔 팔이영 콩 그 속에 넣는 녹두니 머니 그 가루를, 떡 떡 속에 떡 속에 넣는 거를 우리는 뭐렌 고라수과?

107080 #1 겨난에 난 양꼬 놓는 거 백게 몰라

107080 #2 양꼬엔 헨게.

107080 @ 양꼬는 팔이잖아예 팔이.

107080 #1 아니 양꼬는 속으베 놓는 거 아니라.

107080 #2 속으베 놓는 거. 양꼬렌 허는디 거 일본말이렌 허니까 나가.

107080 #1 속으베 놓는 거나 현건 양꼬.

107080 #2 양꼬가 일본말이라.

107080 @ 팔말고 콩이나 이런 걸 다 양꼬렌 고라수과?

107080 #1 응 양꼬엔 안에다 논건 양꼬라.

107080 #2 양꼬엔 현건 양꼬.

107080 #1 양꼬엔 현건 일본말 맞고.

107080 #2 일본말이라부난 여기 말.

107080 @ 그 일본말 나오기 전엔 뭐렌 고라수과?

107080 #1 기자 우이 볼르는 건 분ㄱ루.

107080 #2 겨난 건 몰라.

107080 @ 아 위에 놓는 건 분ㄱ루 안에 놓는 건 그냥 양꼬예?

107080 #1 양꼬.

107080 #2 겨난, 거 일본말로 뭔지 몰르는 거.

107080 #1 겨난, 나보곡 현디는 일본말이라 제주말은 몰라서 아는 거는 양꼬라 속에 담은 거 다 양꼬 일본말 맞아.

107080 #2 양꼬 양꼬 한건 다 일본말 일본말.

107080 @ 맞수다 예 혹시 소라는 말 안들어봐수과?

107080 #1 응?

107080 @ 소 소, 떡 소는 뭘로 할 거니? 헤가지고 이런 말은 안들어봐수과?

107080 #1 떡 속에 무시거 놀거닌 한거란 백긴 속은 뭐.

107080 @ 소라는 말 안들어봐마씨?

107080 #1 응.

107081 @ 그다음엔 그 어 떡을 만들 때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떡이, 떡 저기 신방 떡 이라든가 상례떡 만들 때 며 영허믄 안된다 이런 거 어서수과?

107081 #1 나 몰라.

107081 @ 굿 같은 건 안헤봐마씨?

107081 #1 아 굿도 헤나서.

107081 @ 굿헐 때 허믄 떡같은 거 만들 때 뭘가 부정안타게 뭐 어선마씨?

107081 #1 그런 건 안ㄱ란 몰라.

107081 @ 안헤봐예

107081 #1 난 그런거 부정타는거는 벼랑 안골랑 살아
107081 @ 그렇구나예.

별식

107082 @ 그다음엔 그 저 밥이든 국이든 떡이든 빼고 뭐 순대라든가 뭐 특별한
뭐 묵이라든가에 대해서 저가 여쭙볼게예? 순대도 담양 먹어봐수과?

107082 #1 먹은 거 해 논거 먹음 백젠 안헤판.

107082 @ 순대 담은 적 어수과? 삼춘 어수과?

107082 #1 안헤여. 이 형제들 하난 아시들 문 헤불고 난 어른.

107082 @ 순대는 주로 어떤 때 행 먹어수과?

107082 #2 거 순대렌 헛거 여기 그때는 돛추림을 여기 몇 사람 저 모여가지고.

107082 #1 아니 아니 저 걸릴 때 잔치 때에 어떻게사 순대를 담았주.

107082 #2 겨난 잔치 때 ㄹ튼 때 거 헤그네 보고, 요센 전부 사단 먹는 때문에.

107082 @ 계난 요새 말고 옛날에.

107082 #2 옛날에 그 순대는 수웨엔 해주게.

107082 @ 아 수웨 예?

107082 #2 수웨, 수웨 담으라 수웨 담으라하는데, 저 몰케 맞존거여 헤그네 이
것 저것 섯터가지고 수웨 속에 막 담아그네 이사 먹는데 저저 인사야 그런 것들을
하영들 헤먹엇주.

107082 @ 수웨 담았던 거 어떻 담아났는지.

107082 #1 우린 이녁이 직접 안담아 나부난 몰라.

107082 #2 먹음만.

107083 @ 혹시 두부는 만들엉 먹어봐수과?

107083 #1 그런 것도 안혀고 옛날에 고레에 ㄹ랑 멘들암젠 헤도 우린 그거 안
혀고.

107084 @ 매밀묵은 해봤지예?

107084 #1 어.

107084 @ 모물묵 쓸 땐 어떻 쏘니까?

107084 #1 모물묵 쓸 땐 어떻 썬게 ㄹ루, 쓸 땐 기냥 ㄹ루로 낱 혀고, 저 무시
거 청묵헐 때는 쓸 물에 컷당 잘 꺾양 잘리 잡양, 담아그넵에 빨아놔그네 썬민 청
묵 뒤고.

107084 @ 아 메밀로 저기 잘리 담양 한 거는 청묵.

107084 #1 청묵허는 거 쓸.

107084 @ 쓸로 멘 쓸로 예.

107084 #1 응.

107084 @ 매밀묵 헐 때는 매밀 ㄹ루로 혀고예?

107084 #1 응.

107085 @ 아 쏘로 허믄 칭묵하는 거구나.

107086 @ 그담엔 미숫가루 개역 해, 개역 행 드셔났잖아예?

107086 #1 예.

107086 @ 개역은 어떻 만들어수과? 만들 때.

107086 #1 개역은 볶양, 보리 볶아그녕예 그루에 그라.

107086 @ 그루에 그고랑 예? 개역에는 다른 거 뭐 안섞어 나수과? 콩 볶은 거라 든가.

107086 #1 그런 건 안섞으고, 기자 개역만 헤여그네 소금행 버무령 기자 먹고, 이젠 별거 돈거 다놔도 옛날에사 그거 기냥 먹었주 무신.

107087 @ 그다음엔 지지미도 지정 먹어봐수과? 지지미는 어떤 재료를 사용행 어떻 지저 먹어수과?

107087 #1 지지미는 기자 무시거 속도 속도 흥쓸 농콕.

107087 @ 예.

107087 #1 무시거 잇당 그 다마네기도 조금 썰어 농콕, 김치도 쪼끔 썰어 농콕, 경행 그 식으로 흥쓸 그거.

107088 @ 그다음엔 예 그 오메기술은 아까 안 담강 먹어났덴 했잖아예?

107088 #1 안 담강 먹어. 옛날에 옛날 어른들은.

107088 @ 혹시 담그는 거 본적은 어수과?

107088 #1 어?

107088 @ 담그는 거 본적은 어수과?

107088 #1 보도 안혀고 떡 오메기영 다 멘들양 주어네 먹는 건 반. 옛날 어른들 호는 거 기자 먼디서 베림만 헛주, 몰라.

107089 @ 쉼다리는 만들어 먹어봐수과?

107089 #1 쉼다리사 최고주.

107089 @ 쉼다린 아.

107089 #1 좋아.

107089 @ 지금도 행 드섬수과?

107089 #1 응 나는 먹어도 이 하르방은 안 먹고, 나는 막 좋아헤여. 쉼다리는 누룩 헤그녕예 저 물 물 멘도롱 허게 시리 흥끔만 멘도롱 헤영 안되여. 물 바싹 데 불게 허영, 재료 밥이나 아무나 영 노아그녕예 그 물 두듯힐 때에 누룩 낱 나두민 부곽~하계 꿰민 나두민, 기자 가르륵 허게 시리 그 웬것에서 막 무테비어.

107089 #2 거 지금은 밥통이시난, 거 밥통 어실 뎨 밥 쪼끔 잘못허민 쉬어불주 게.

107089 #1 간디.

107089 #2 거 문딱 쉼다리주.

107089 #1 어 난 옛날에 우리 어멍은 나영 고찌도 말제 우리 어멍이 말제 배우 고, 나 혈건 기자 확~ 꿰도 싹 허게 헤도 그자 훌딱훌딱 쉼다리 먹으면 나 최고로

흔 들게 허곡 제기 먹어져.

107090 @ 누룩은 계민 누룩은 어떻 만들엄수과?

107090 #1 누룩은 옛날에 보리 헐 때에 보리 영~ 헤그네 줌진 채로 친 건 소레 기주. 소레기헌거 물 버무렁 췌영 췌영 팍허게 돌게 나두민 그거에 푸싹허게 터그네 노릿 노릿 허주. 노릿노릿 헐 꽃이 시면은 그건 잘된 거.

107090 @ 게 걸 말렸지예?

107090 #1 응 그거 물리와그네.

107090 @ 햇빛에 말려수과?

107090 #1 아니 기자 트멍 들르멍 기냥 햇빛에 안해도 플라.

107090 @ 아 계난 요즘 누룩 안만들아그네 사당 햄수과?

107090 #1 요센 사당.

107090 @ 만듭서게.

107090 #1 에이 그거 그거 헐세.

107091 @ 그다음에 혹시 옛 같은 거 만들어그네 드셔봐수과?

107091 #1 옛은게 옛은 인척에도 고라라 무시거 흰좁술에 밥 헤여 낱, 그저 거 시기 골 골사당으네게 버무려 나두민 궤면은 췌게헤영 나두민 오래 딸리민 옛이되 꼭 알류민 감지가 되고.

107091 @ 아 기? 경허는 거구나 예 아 얹으민 감지가 되는 거구나.

107091 #1 응, 두루 딸리민 감지가 되고, 그거 뽀짝하게 막 풀풀 허게 딸렁 나두민 옛이 췌곡.

107091 @ 아~.

107091 #1 거 대신 난 그런 거 안허는디 옛날엔 잘헤낫는디 안허는디 그대신 우리딸은 식혜를 식혜를 잘 만들어.

107091 @ 아 기파.

107091 #1 응, 우리딸은 저 어디 저 식당에 땡기는디 식혜를 잘 멘들아. 경허고.

107091 @ 걡 가정업니까?

107091 #1 무시거?

107091 @ 딸은 식혜 만들민 가져와마씨?

107091 #1 아니 만들어 경 만드는 사람 이시난에 일단 거 멘들암주. 딱 줄디도 잇고 안줄디고 잇고.

107091 #2 식당에 꺼 함부로 가져와져게?

107091 #1 아녀자와.

107091 @ 왜 요즘 식당들은 식해도 식혜 가루 이서그네 물만 섞으민 식혜 되고.

107091 #1 어떻사는디 전이 이디 살 때 헨게 식당에 땡긴 후엔 일절 안헤여. 그냥 식당에 아이 땡길 때 헤췌 먹어난.

기타

107092 @ 그다음에는 식해도 감주도 말고 뭔가 특별하게 시리 어 수망리에서 해먹는 그 특별한 음식 어수과?

107092 #1 아이고 난 몰라 난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

107092 @ 아니, 옛날에.

107092 #1 몰라 무시거 행 먹은 거 그거 백기는 어서.

107092 @ 옛날에 막 방학 때나 장마 때 비올 때, 일도 안 나가면 집에서 뭐 해 그네 떡영.

107092 #1 개역이나 백기. 그 옛날에 아이덜 배고팠 허민 저 거시기 개역이나백기 무시거 해먹어.

107092 @ 개역이나.

107092 #1 보릿ㄹ루.

107092 @ 보릿ㄹ루해그네 .

107092 #1 거 백긴.

107092 @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예.

8. 주생활

구조

108001 @ 자 시작해보게예 이거 가까이다 농크라예? 그 집을 지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지었던 경험.

108001 #1 예 시작해요?

108001 @ 예.

108001 #1 예 옛날에 그 우리 초가집을 지었던 그 제 제 바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는 그 초집 짓젠 허면은 나무가 아주 힘이 들어 저 없어가지고 나무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 밧 주위에 전부 쌓여 잇는 게 나무지 만은 그때는 초가집을 지으면 나무가 그렇게 귀하게 거 나무가 없으면 어디를 가냐면, 나무를 구하느냐 하다 못헤민 저 산에 들어가는 거라예? 밀림 속에 밀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그 저것이 정부에 꺼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냇을 거기서 하나 허면은 그때는 요새는 톱으로 라도 잇나, 그때는 도치엔 헤여 도끼, 도치이 요만한 거 뿔 돋은 거 그걸 가지나, 또 나대 나대는 조금나주. 그때는 옛날에는 그걸 보고 메호미엔 헛다. 메호미. 메호미, 메호미, 허면 게 여기 잇는 거 사투리로 육지부에선 낫이엔 헛게 여기선 호미엔 허고 또 육지에선 호미엔 헛게 여기선 골쟁이엔 허는 식으로 경 걸 보고 도끼엔 안허고 도치라고 여긴 말론 도치허곡.

메호미 아정강 그 냇을 기치는 거라 양. 우에 잘른다하는 말이 기친덴, 기차그네 그디서 그걸 꺾테기를 베껴가지고 쫓꿈이라도 거볍게 할라고 꺾테기 베껴가지고 그

걸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어깨로 지어다가, 그걸 뭐 흔꺼번에 두 개씩 못 지는 거고 딱 호나행 지영 내려왕 내비동.

또 그 집흔거리 짓젠허민 냥이 숫자가 하영 듸니다게 이거 무슨 뭐 상모루 깃슴 이여. 뭐 뭐 기둥 깃슴, 포깃슴이여, 뭐 서리여 뭐 귀커려 뭐 허당보니, 뭐니 뭐게 거 빈지여, 빈지엔 현거 뭐 무슨 뵤 말인지 알런진 몰라도, 그거여 문헐거여 허당 보면은 나무가 숫자로는 아주 셀 수없이 듸니다.

그거 그걸 헤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그 집지을 자리는 요즘 세대에는 그냥 아무데 라도 그자 편편하고 그자 길옆에 주거 집을 짓는디 옛날에는, 거 풍수지리 시대라 나가지고 집을 아무데나 못지어수다게.

게, 거 풍수지리 지관, 지관이영 돌아다그넝에 이녀 밧디 다 돌아당 배우멍 아 어 느 밧디 집을 지스면 우리가 잘 살고 즈손도 이리후제 잘 뵤영 좋암직허꾸과 헤영, 그 지관한티 들으민 지관이 데이멍 뵤, 밧 고리치렌 행 경 밧디 강, 이만하민 여기 집 지슴직 허다 하민, 집은 또 방향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랑 양. 그 집에 세대주 그 집에 세대주엔 하민 쥬 우엿 어른, 뭐 아버지나 아버지 우엿 또 하르버지가 계시면 하르버지가 세대주 뵤 는 거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믄 아버지가 세대주지만 아버지가 그 멩운이라 헤가지고 그 사름 일름에 그 터 보는 사람이 택 일도 헤그넝에 멩운에 맞아야 집을 짓나, 또 그 식구안에 또 하다가 그 옛날 그 풍수지리법에 세대주가 또 그 그해에 집을 지슬 운이 못뵤면은 그 식수들 중에 아무라도 아무라도 일일이 식구헤뵤, 또 멩운이엔 행 또 아예 맞지엔안하민 이사람 운에 금년 집을 지스면은 뭐 집이 망하거나 뭐 즈손이 뭐 죽거나 뭐 여른뵤행 집을 못짓겐 짓지말렌 행 안짓어났단..... 경허민 집은 꼭 지서야 뵤거고 하니까 경허민 은 이 집에 맞는 사람이 뵤 사름, 뵤 사름 운을 운 비영 뵤 사름을 빌어난도 지서 나수다.

게민 옆에 사름은 아무개 이씨가 난 김썸디 이서방이 보니깐 금년 집지슬 운인데 그 사름 일름 빌러가지고 집을 지스라. 경행 집을 지서노면은 내중에 이사할 때는 그 사름이 이사 허는 그 사름 일름에 이사하는 식으로 이사 행으넝에 그 사름이 또 포는 식으로 저 매매 그 집 문세를 헤주는 거라 마썸 원래 그 집주인 헌티. 경허민 이녀 집이 뵤자 그런 식으로 옛날엔 그 무신 식산지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나수다 게. 우리 알거니도. 집 지슬 때 그추룩 터 봐그넝에 집을 지스는디, 동네에 목시 어시민 어디 저 이웃 부락에강 목시 헤당 빌어그넝에 집 짓젠 허민.

집 짓젠허민 거 다 준비가 이수다. 그 주춧돌을 준비헤야지 양? 주춧돌이엔 헌건 이녀냥으로 못허면 동네에 서꾼 빌영 그뵤에,

108001 @ 주춧돌 이름은 다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 겁니다 뭐. 질문할거난 그런식으로 헤가지고 지관 빌어그네 집도하고 낭도 날라오고 예? 그거까지 경황으로 저가 정리하고 예?

108002 @ 그 집에 종류들을 말헤 줍서 삼춘이 지엇던건 초가집이었지예?

108002 #1 예. 종류는 저 이칸집엔 이칸집 이칸집 허고 삼칸집 허고 스칸집까지

이어나수다. 겨난

108002 @ 예 겨난 무슨 집 지어나수과?

108002 #1 이 이칸집이엔 현건 어떤 식으로 이칸집엔, 포영~ 헤그넵예 제일 아주 제일 중요한 포 가운데 딱 하나 세워그넵예 가운데 노 중심행 갈랑 이축 이축 헤그네 이칸. 또 삼칸집은 그 포 영~ 현거, 포를 두개 메와그넵예 세우민 양쪽에 칸 하나 양쪽에 칸 두개 삼칸집.

108002 @ 삼촌 지어난 집은 무슨 집이과?

108002 #1 예, 우리 지어난 집은 상 보통 삼칸집

108002 @ 삼칸집 예?

108002 #1 삼칸집 또 쉼막이엔 행 쉼막은 이칸집, 경 지서그넵예 거 또 지스면은 이녁만 그것이 집을 완공을 못시킵니다게. 어떤 식으로 완공을 시키냐면 목시 빌영 일단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집을 짓는다, 또 문딱 그 헤낭으넵예, 그 목시 빌어그넵예 아래에서 짚을 짜 낭으넵예, 메칠 날 상냥하라, 영 상냥 택일을 헐 택일을 또 뽑니다. 거 지관한티 강 지관이나 거 택일하는 사름한티 강 아 메칠 날 상냥하라 허여. 또 그날까지 집은 완전히 밑에서 문 모양을 만들어 놔야 웨양. 만들어 낭, 상냥하는 날은 거 동네사름들 문딱 그 초청을 합니다. 메칠 날 우리 집 세와시메 ㄱ치 오랑으넵예 저 지둥 저영 심어주고, 집 세와도령 헤그네.

거 이녁 혼자만은 집을 못세우니까 양? 집 세우젠 허민 거 기둥을 헉낙씩 헉낙씩 기 두군대 뽑아그네 그냥 양쪽에 사람 두사람씩 두사람 너이가 가그넵예 집을 네사람이 장정들 네사람이 이서야.

108002 @ 삼촌이 지어난 집은 삼칸집예?

108002 #1 예 삼칸집.

108003 @ 삼칸집이고 그다음엔 어 그 삼칸집인데 그 집들도 저기 안커린지 밖 커린지 아니면 목커린지 헤냏잖아예? 삼촌 지은 집은 뭐여수과?

108003 #1 안커리.

108003 @ 안커리 지어났구나예.

108003 #1 응 안커리허고 쉼막.

108004 @ 쉼막 지어났구나예? 그럼 삼칸집 지을 때 어, 아까 얘기헐잖아예? 그 기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삼칸집 지을 때는 어떤식으로 저기 주춧돌하고 한 거를 고라줍서.

108004 #1 주춧돌은 멘들라면 자기대로 멘들지 못하면 동네에 거 석공이라고 그때엔 석씨엔헤. 석씨 옛날 말로.

108004 @ 계난 삼칸집 지을 때 시작부터 고라줍서. 시작부터.

108004 #1 시작은 그거 시작부터 멘처음 준비하는 게 주춧돌을 준비해야지.

108004 @ 예 주춧돌 준비하고 그다음?

108004 #1 주춧돌 멘들젠 허민, 동네에 석씨 빌어다그네 그 옛날엔 요즘은 그 시대가 바까저네 그 뭐 요즘 석수들은 요렇게 그 방멩이추룩 사 만든 거, 뭐 견노

라 뭐 걸로 헌디, 옛날에는 돌착이렌 혜영, 우리 어릴 때 보며는 그 돌착이렌 혜여. 도끼식으로 웨그네 그걸 헤그넵에 돌 다듬아그넵에 주춧돌 멘들아 놔그넵에, 그 미르에 목수 빌어다그넵에 집을 짜 낱, 집을 세우는 날은 다 그 목시가 맞췄, 여기에 주춧돌 심그라. 멘들아 놔그넵에 경행 식은 그냥 또 세우는 거라 마썸.

108004 @ 예.

108004 #1 예, 주춧돌 노령, 세워그넵에 전~부 세워그넵에, 나중에 제일 나중에 허는 일은 상냥식이라고 헤가지고 상모를 올립니다.

108004 @ 상모를.

108004 #1 응, 상모루. 목수, 경혜냥, 목수는 그 기둥 문밖 세워난 후에 목수가 올라가그넵에, 아래서 상모루 올리라, 헤그넵에 상모루 올리면은 목시 그 목시가 그 디서 받아가지고 상모루 주꼭. 상모루 그 밑에예 나중에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상모루 밑에다가 글귀를 씁니다. 메칠날 그때 구식으로 뭐 갑자년이민 갑자년 멧 월 메칠 입교. 상냥 헤가지고 글귀를 딱 씁니다.

그거 글쓰는 사람, 자기가 글을, 그 집주인이 글을 쓸 줄 모르면 동네에 글쓰는 사람 빌어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게, 글 그 글 양쪽 끝엔 나무 끝엔 흔짝엔 저 용용자 쓰고 흔짝에는 범 모자 쓰곡, 호랑이 허고 범이라고 헤가지고, 건 그 집을 액을 막아준다는 그런 글자 쓰고. 그 사이에 뭐 갑자년이민 갑자년 멧 월 멧 일 멧 시 입주 상상냥. 거 이렇게 문구를 써가지고 거 목수가 상모루 아래서 올리렌 허민 후에 목수가 받아가지고 딱 걸치고, 거기다가 찝끔 그 부유허게 사는 사름은 그 미녕이나 광목이나 흔필 사당 상모루에 다 그 상모루 올린다음에 거칩니다. 걸침으넵에 아래에선 그디다가 그 장독, 장독을 허나 미리 그 집세우젠 허민, 옛날은 장독을 미리 허나 준비해수다. 수탑, 장독을 허나 큼지막 헌거 것도 장독도, 어린 건 안 웨고, 새벽에 우는 득이라야, 장성은. 그걸 헤그넵에 코에다가 웨영 줄 혜영 광목에다 영~ 태와가지고, 목수한테 줄 넵기면은 줄을 땡겨가지고 상모루 까지 딱 올려가지고, 거 목수는 허리에 그 자귀를 차 잇다가, 득을 상모루 위에 딱 걸쳐가지고, 목수가 거기서 메칠, 멧 월, 메칠 날 상냥험습니다, 헤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찻던 자귀를 꺼내가지고 득 모가지를 툯 자르는거라예, 탁 잘르민 득은 밑에 딱 떨어지면은, 그 머리가 완전 동강나니깐 찢라지니깐 탁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뭐 깊으게 자그만한 구덩이에 깊으게 툯라가지고 그 득대가리는 그디 묻고, 묻곡, 또 그 득을 목가지 잘랑 퍼따퍼따 뛰는 걸 가지고 그게 아무라도 뭐 거기 잇는 사름, 사름 뭐 안골려가지고 심어다가, 삼칸집은 보통 기둥이 네겐디 예, 네개에다가 툯툯툯 거기 가그넵에 뭐 도장찍는 식으로 찍는거라 양.

108004 @ 피로?

108004 #1 응, 피 묻혀지게 그걸 그렇게 헤야 액운을 막아진다고, 그렇게 헤난 다음에, 그걸로 거기서 이젠 집 주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전부 그걸 헤가지고 그건 이젠 뭐 옛날에는 어려운 때니깐 양? 집세우렌 오렌 행, 온 사름들 그걸 헤가지고, 쥔 나눠먹기 쉬운 방법은 그걸 전부 헤가지고 그 칼로 잘게 잘라다 국을

끓입니다.

국을 끌러 가지고 그렇게따문 보통 상냥시간은 보통 열한 시로 열 시, 원 그렇게 하민 그 동네에 놀래온 사람 허곡, 여기 다 읍센헝 그걸 그자 국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는 못드립니다. 옛날에 어려운 때니깐 양? 그 사람들은 아 그 아무네 집이 집세운덴 우리 가그넝에 강 구경허곡 놀레가자 헝 가며는 그 사람들 온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다 주아집니다게. 뭐 누구는 안주곡 누구는 안주면은 뭐 상당히 그 옛날은 그 먹질 못허곡 귀한 때니깐 아무네 집이 집세우는데 가니깐 그거 그 아피간 사람은 얻어먹고 내중에 간 사람은 기냥 얻어먹지 못헝젠 허면, 그런 소문내우지 말젠 오는 사람 영 보면서 좀 그 득 혼 마리가 얼마나 합니까. 그거 칼로 쫄게 썰어가지고 물을 조금 사람이 많이 올 거 같으면 물을 조금 많이 놓고, 거기다가 뭐 뭐 늬삐도 썰어놓고 뭐 무슨 뭐 옛날도 메역 이시난 메역 농곡 헝, 그걸 영 조금씩 다 나눠줍니다. 게민 그걸 먹곡 경헝 끝나.

쟁, 경헝 상냥 그날 하루 끝납니다. 끝나민 또 흑질이렌 헝게 잇습니다. 흑질 흑질이엔 헌건 뭐냐면 흑을 물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그 집의 옆이 옆이 불르는 거라 양. 요즘식으로 요렇게 세멘헤지만은, 그때는 그 삼칸집을 지스면은 그 안에다가 칸을 막습니다. 지금 요추룩 요거는 구들 요거는 삼방 요거는 정제 요거는 고팡앵. 그 사이사이에 뭘 막아야 될건디, 요즘은 뭐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은 때니깐 뭐 아무 걸로라도 합판이라든가 무슨. 부룩으로 싸든가 백도 싸든가 헤그넝 세멘 해주만은, 그때는 흑을 불립니다. 불라야 됩니다. 그 흑질이엔 흑질날은 그것도 택일헤야 합니다. 아무날에나 하질 앓고 택일하는 사람신디 강, 아 우리집 이젠 흑질 헤야 될건디 메칠 날 흑질 허젠 헝심디 어느 날 헤시민 좋쿠과, 강, 들으민 에, 아무날 흑질 허라, 게민 흑질 허는데, 그 흑을 어느 방향에서 파웁니까, 것도 방향도 이서수다, 어 아무방향에나 허질 안허곡 게 거 옛날 구식말로 뭐 무신 뭐 갑을방이니 병진방이니 뭐 경신방이니 헤가지고 허면은, 게 그때 보면은 보통 뭐 시계 시계방향으로 영 파나 아무방향에서 그걸 파가지고 그걸 사용 허라. 게민 그걸 흑질허젠 허민 또 동네 사람을 전부 다 빌어야 됩니다.

게, 메칠 날 우리집이 흑질헝시니깐 오랑으네 흑질 헤줍서. 또 남자들 헌틴 영허고. 그때 흑질허젠 허면 흑을 버무르젠 허민 물이 이서야 뿔 거 아니파? 물을 곳나 조금 고무라가민 또 물을 먼디 강 지라오젠 허민, 그때 물 어떤 방식으로, 물을 동네 여자들 또 별도로 빙니다. 널 우리 흑질헝시메, 물 오랑 저 줍서 헤여, 쟁허민 거 그자 의무적으로 그 뎨 갈걸로 알아수다 옛날엔 다 돌아가명 경 허니깐 게민 그 여자들은 그 허벽 지오랑 물로 저날랑 남자들은 흑을 파민 그래 물을 그냥 비양 놓는 거라 양.

경허민 그 흑을, 거 물만 비아노민 되는게 아니라 그걸 그냥 막 영 버무려야 됩니께. 저 아무걸로 헤영. 게도 그 흑을 버무리는 방법은 그 췌가 이서야 됩니다. 췌, 췌도 아무췌나 안됩니다. 아주 막 그냥 일 잘하는 소, 바깳췌, 맞가는 췌 양. 큰놈, 그걸 아무 집이강 것도 미리 빌어야 됩니다.

넬 우리 흑질 허젠 허니깐 쉼 빌려줘. 저 흑블릴일, 흑 블릴 수, 흑을 그자 버 무런단 말을 흑 블릴 쉼 빌려줍서 헤그넵, 것도 아무나 안 빌려 줍니다. 그 쉼이 상당히 못전됩니다. 그거 흑을 불리젠 허면은 흑을 파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생각을 헤봅서. 그디 들어가그넵에, 그걸 발로 그걸 밟아야 될 거 아니파. 아무 힘약한 쉼 튀지도 앓고 또 아무나 쉼을 빌려 주질 아닙니다. 동네 쉼이서도 좀 인정이 좀 가깝고 친척이나 쉼 사름신딘 저 마지못헤그넵에 쉼 빌려 ,그거 품삯이엔 주는 것도 아니우다. 기냥 기자 공짜로 기자 그 허는 식으로 헤영, 그 물 지렁 오는 여자들도 허벽으로 물 질어당 그리 비우는 것도 다 품삯 받는 것이 아니우다. 그냥 도움 서로서로 그자 그자 일면 말하면 수눌어. 수눌므로 우리 제주도 방어가 그 옛날엔 그 수눌음이렌 헤여그네, 아주 그냥 쉼 첨 역사적인 말인디, 게 수눌영, 그걸 쉼로 그냥 막 그걸 불봐그넵에 막 그 섯터노민 그 흔 번 또 쉼스렁으로 그거 또 뒤집어야 됩니다. 그 골고루 튀게시리 그 뒤집을 때 쉼은 불리당 바깳디 ㅍ서내 그넵에 조금 물도 맥이고, 출도 주곡 헤그넵에 먹여 낱.

그 사이에 장정들은 들어가그네 것도 아무나 안합니다. 것도 사람을 택헤야 됩니다. 것도 쉼시랑질도 혈줄도 알곡, 좀 힘도 쓰곡 현 사람은 흑곳이엔 헤그네, 게, 흑질 허젠 허민 흑곳에 들 사람을 또루 빌어야 됩니다. 건 무슨말이냐 하면은, 흑곳, 아무네 집이강 그 좀 일잘 험시민 넬랑 우리 흑구테 들어줘, 흑구테 들어줘, 그 사람 특별히 빡니다. 게 흑구테 들어 들어 흑곳이엔 현건, 그 사람들이 헤영 보민 그 땅을 파곡 또 쉼이 들어가그넵에 블릴 때 그 쉼을 그냥 다 방향 쉼양 쉼을 아무테나 가면 튀는 게 아니고 쉼도 그 잘 들어가젠을 안합니다게. 것도 말, 짐승이라 말은 모르지만은 그것도 자기가 힘들다라고 헤가지고, 게난 그 흑구테 들 사람들이 그 지맹행 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쉼 녹대를 잡아그넵에 그냥 이경 들어갑니다. 이 두에서 저 몰아주곡 행 양, 경헤영 튀 그냥 멘손으로 하는 거 빼고, 작업하는 막 멍이 집영 툽툽 때리멍 기자 들어가렌 행, 경헤영 골고루 멍입니다. 골고루 멍이면 거기서 또 기냥 멍이는게 아니라 소리를 헤야튀어 양. 노래를 불려야튀 양. 밧 블리리는 소리렌 헤가지고 옛날 거거 것도 밧블리는 소리도 것도 아무나 허는 것도 아니고 거.

108004 @ 기억 남수과?

108004 #1 에. 요즘.

108004 @ 한번 이때 그 밧블리는 소리 한 번 헤보쿠과?

108004 #1 건 난 할 줄 몰르는데, 나도 옛날에 그 우리 집에 쉼도 잇고 물도 헤가지고 옛날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를 갈젠 허민 밧 블릴 거, 밧 블릴 거엔 현디, 우리집인 조금 우리집인 그당시에 동네 조금 그래도 조금 살림을 좀 산다는 평을 받아수다게. 남이 밥을 안빌어먹고 게난 건 옛날에도 거 쉼, 물은 집집마다 잇서나질 안헤수다. 그 그런 그 길로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쪼끔 동네에서 부유하게 산다 헤가지고, 쉼도 잇고 물도 잇서가지고, 우리 집이 물로 우리 집이 밧을 불려수다게. 에, 갱행 그자, 또 동네에서 어신 사름신디 메칠 날 밧

블러드렌 행. 갱헌디 그 흑 블릴 때도 그런 소리를 그 동네서 영 뺑, 후달령 목청 목소리 좋거든 야 그 저 밧 불리는 소리 허멍 흑 블리라, 게영,

거 섭섭허게 하지 말앙 게민 그 사람들이 헤영 소리 허멍, 거 밧을, 밧 불리는 식으로 게난, 흑 발린다는 것이 밧 불리는 식이우다 게. 빨리, 그 흑통에 췌가 들어가니까 빨리 걷지 못하는 거지. 췌는 게 뜨벽 뜨벽 밧갈췌가 동작이 허는 것이 블릅니까 게. 물은 빨르지 만은, 행으네 게 그걸 영 침, 그냥 불리는 걸 밧 불리는 소리 허멍. 흑을 블랑으네게 그 흑곳에 든 사람들이 전부 그걸 다 책임정, 흑을 전부 그냥 거기서 버무려 놓니다.

버무려 노민은 이젠 흑을 흑을 걸 날라가야 옆이 흑을 블를거 아니꽂? 저만치 어디 먼디 강 헤노면은 거 산태엔 헌게 이서 산태, 산태엔 헌거 이신디 앞에 혼 사름 뒤에 혼 사름 이렇게 행 들르는 건디, 그것을 그 산태도 거 다 미리 준비해 낡니다 게. 이녁신디 어시민 동네 집이라그녕에 거 산태도 경 집집마다 어서나수다게. 것도 건 낭으로 만든 건디 양, 것도 만들어 놔그녕에, 헛나만 이성 되는 거 아니라 산태 혼 두 개 세 개는 이서야 됩니다게. 겨겨 계속 흑을 날라야 뵈게, 산태 들르는 사름도 아무나 힘 약한 사름 못 들릅니다 헤예. 누구누구 산태 영 들러다 드라. 흑을 들라그녕에 안에다 들러내민, 안에도 흑을 블르는 사름이 또루 이십니다게. 손으로 몽 쳐가지고, 그 축 이 벽에다가 블르는 사름이 신디, 브르는 사름이 자기대로 흑을 떠서 브르는게 아니라 옆에 또 흑을 몽쳐 주는 사름이 이서야 됩니다.

흑을 요만큼씩 덩어리 만씩 몽쳐가지고 이 옆에 벽 블르는 사름 헌티 거 주면은, 그사름이 받아가지고 거 벽을 블르고, 것도 흑을 날라 가는 사름은 산태에 헛던 사름은 거기서, 또 게, 소주 그때도 어려와도 소주는 이서서양. 술, 양, 술 그 먹는 사름은 혼잔씩 저 먹으면 또 술보름에 또 서로 힘자랑 한다고 양, 힘자랑 한다고 산태 들를락 헛주게. 산태 들를락 헤당은 산태가 막 뿌러지는 수도 이십니다. 힘 좋은 사름들 옛날에는 그렇게 먹지 못허고, 요즘 처럼 뵈 고기를 자주 먹어서까 무슨 고급으로 무슨 쌀밥을 먹어서까 옛날에는 보리밥, 조밥 뵈 모물핍벽, 이런 걸로 먹영 살앙 그래도 힘 잇는 사름은 힘 이서수다 게. 산태 들를락 헤다그녕에 산태들 기자 걱경 데껴볼곡 양. 흑을 경헤영 경하는 것도 잇는디, 이 주물 안에서 흑을 블르고, 또 지붕우에서 흑을 블라야 됩니다. 지붕엔 서서렌 헤여네, 그날 다 흑질나래 서서렌 헤그녕에, 서서헛 헌건 무신말이나면은 초가집은 이렇게 헤가지고 서리렌 헤영, 서리 쪽쪽 글면 그 우에다 또 서서렌 헤여가지고, 망사 추록 그 대든, 그 나무 깐거든, 나무 깐건 서설목이엔 헤여그녕에 것도 흑질 허는 날 거 멧멧 사름이 거 줌 거, 것도 별도로 빡니다. 널랑 오랑 우리집에 오랑 서설목 깨어줘 게 서설목 깧건 어디 저 하천에 내창에 가그녕에 존존헌 낭을 헤당으녕에 둥글둥글 헌거엔 허면 그걸 깨야 됩니다게. 쪽 허게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것도 자귀질을 툭툭 찍을 줄 아는 사름이 그 소름 깨여그녕에 주면은 지붕우에 올리민 지붕에 또 서설 하는 소름이 따로 이수다게 서설을 기냥 그 망사추록행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꼬양 놔도양. 새끼를 여기서 뵈 여기서 제긋말론 노영 헤그녕에, 게, 우에서 서로 야

거 아래서 노 올리라 노 올리라 하민 요즘 사람들은 노올리라 하민 무슨말인지 몰라 거 새끼줄 올리라는 뜻인데 노올리라 노올리라 올려주민 거 서설허는 사름들은 그 제각기 자기만씩 자기 쓸만큼 헤여그네 이 그 허리에 참니다. 게 요만씩 찢라가지고 거 길면은 거 못하니까 양. 요만씩 보통 요만씩 현 길이 일메타 몇씩 찢라가지고 자기 허리에 찾다가 거 일일이 쪽 삼칸집이민 우에 양쪽에 양쪽에 혼쪽에 혼대략 혼 심명, 열명정도 아자야 그 서설을 험니다. 게 계난 우에서 그 나무 깨건나 대나무나 헤영 주면은 그 딱딱 그 그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거 엮으면, 그 우에다 또 고대라고 헤가지고 양. 고대 고대라고 행은, 흑을 버무린걸 또 아래서 밀으로 또 기냥 덩어리차 올립니다. 그것도 것도 아무나 안됩니다. 것도 힘이 있어야 양. 이 집은 이만큼 안높으지 만은 옛날 초가집은 얇으니깐 거 밑에서 흑을 둥글둥글허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지붕 우트래 올려줘야 됩니다 예. 거 저 배구하는 식으로 양. 요즘 배구하는 식으로 올려지민 거 우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 서설 현 후에 짝 하게 깎니다. 끌아가지고 거 잘 ㄱ라그넝에 거 ㄱ랑만 내부는게 아니고

ㄱ르민 거 저 팬팬하게 우에서 아래서 갈레죽 올리라 갈레죽 올리라 요즘 삼 양 그걸 올리민, 그 삼 등얼로 이렇게 착착 나라지십니다. 이렇게 그걸 기냥 흑 거 서설한 후에 흑 터벅터벅 논걸 걸, 맨작하게 우에 선 거, 삼 줌 올리면 삼 등어리를 그자 이렇게 이렇게 문지민 거기서 그사름 들은 경 헤지민 내려와빈, 그거 또 거 또 다 행 내리민,

또 거 집 일 사름이엔 행 거 집 일 사름이엔 허민 무슨 말이고, 그 띠 세, 세로 집 덮으는 사람 것도 아무나 못헤가지고 밑에서 선정을 행 보냅니다. 나와네 혈만한 사람 아 거 집 가그네 집 이러줘 집 이러줘 허민 거 고대 끝나민, 그 사름은 또 올라가그네 집을 다 덮으고 행, 그 띠로 헤그넝에 세로 집을 짝 덮으면,

또 아래서 줄 올리라 헤그네 다 덮으민 줄 올리면, 그 줄로 그냥 줄 멜 때도 양쪽에 그 흑질허는 날은 사는 날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깐 혼쪽 끝에 네사람씩 네사람씩 사 양, 줄이 건줄 잇고 쫄른줄 이시니깐 쫄른 줄이렌 현건 키 집 그 동선 그 집이 기니깐 쫄른 모퉁이에 앞뒤 혼 사름씩 사고 또 건줄이엔 헤그네 양쪽 모서리에 혼 사름씩 서고 네 사람 이상. 거 없실 때는 두 사름도 됩니다. 두 사름 허젠 허민 일로 갖다, 절로 갖다, 막 돌아가젠 허민 불편헤여 양, 계민 네사람이 세우면은 쉬워 계난 거 서설 험 때는 사람인원이 많으니깐 네 사름 세워그넝에 줄 멜 사름. 그 그 또 집을 좀 높은 사람은 것도 또 키작은 사람은 아래서 팡에나 안아지민 것도 줄 매지도 못합니다. 줄 매는 건 거 밑에다가 거왕이라고 헤가지고 이렇게 만들 아가지고 거기다 줄을 맹 집을 짓는디 예, 그 집 경행 거 집을 그렇게 헤가지고 이면은 그것이 하다보면은 헤가 다 깎박 저뭉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 머물 때 경행 그 흑질 날이나 헤가지고, 경행 그 곳을 땀음에 그다음은 뭐 또 그걸 아무때나 강 살지도 못허곡 또 거 집이 들어가는 날도 것도 택일 헤양. 들어강 거기 살곡 집을 지서그넝에 처음 들어갈때 아무렇게나 거 살림살이를 들어가야 돼는데 살림살이를 아무나 거나 들어가는 것이 것도 순서가 이

서양.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가냐면 밥해먹는 솟이 들어가야데 양. 솟허곡, 그다음은 뭐 그 곡식을 장만허민 저 저런 정고레 이시민 정고레. 또 푸는체, 체, 그거 따라가곡, 그다음엔 살림살이 들어가는 거라 예. 경행 하곡 게 흑질허는 날은 그 동네에 상뒤엔 고릅니다. 상뒤. 그 흑질 쌍뒤이. 뭐 초상나민 영장 상뒤, 동네 그 인부들을 빌영허는 거 보고 상뒤라고 허는 디, 게, 품삭 주는는 대신 음식을 헤영 양. 대접헤영 양. 그 흑질허는 날은, 뭐 거 여자들은 물을 저동 오라그넵에 물만 체와지민 그 일찍 낫납니다 게. 혼 오전중으로 여자들은 낫납니다. 낫나면은 그 여자들은 대접헤영 보내야 될건디 대접을 점심을 헤그네 밥을 주면 될거고 보통은 보면은 그때 떡을 합니다게.

흑질 헐 거 떡 헐 거엔 헐, 그 집주인이 멧멧이엔 헐 떡을 허는데, 대게보면 모물로 만든 거라 양. 모물떡을 하는데 모물만디라고 헤가지고 요즘 만두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헤동 만들고, 또 그렇지 았으면 조끔 부유허게 사는 집은 또 시루떡을 만들영 헤 양. 친떡이엔 헐 그걸 만들영 조끔씩 쥐그넵 예 그 여자들은 속앗젠헐 게 그걸로 주어그넵에 돌려 보내고.

또 흑질 헐 사람은 또 별도로 밥을 합니다 게. 밥헤그넵 점심맥이고 제일 낫난 다음에 또 흑질 피력이라고 헤영 양. 그 피력이란 말이 그 사람이 돌아가민 영장 때도 피력이렌 헐 말이 이십니다. 피력이렌 헐건 제일 막 그때 돌아갈 때에 그 상주들 헐티 대접하는 거라 양. 밥이든 뭐 술이든 떡이든 양 보통 헤영 보민 기자 떡헤그넵에 하나씩 드리고 저 술 술이엘 허민 요즘은 뭐 마트에 가민 술사지만 옛날엔 술허젠 허민 집이서 술 만들어수다. 집이서 술을 만들어그넵에 그 고소리로 그 소주를 만들영 양 것 고랑 술닥으는 거렌헤. 술 고소리로 술 닥양, 그거 건디 옛날엔 집 짓젠 허민 미리 거 다 준비를 합니다. 그거 흑질날 뭐 헤영 먹일 거 또 건디 거 조끔, 거 일 능력 이서그넵에 뭐헤민 흑질 허곡, 서설허곡, 대부분 혼꺼번에 합니다게. 흠치. 서설 게 어떤 때는 그걸 다 혼뻘에 못헤그넵에 서설허는날 또루 흑질허는 날 또루 합니다게.

108005 @ 주춧돌은 어 거민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은 어떤 거고 언제 그 돌을 놓니까?

108005 #1 그 집 세우는 날.

108005 @ 세우는 날 예?

108005 #1 예.

108005 @ 몇 개쯤 마썸?

108005 #1 예?

108005 @ 몇 개쯤?

108005 #1 거 숫자는 셀 수가 없는데 숫자는 하튼 기본적인 주춧돌은 네 개. 기본적인건 제일 기본적인 건 네 개. 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잇는데 뭐 뭐 개윗돌 이여 뭐 무슨 개위도 뒷 개위, 앞 개위, 허젠하민 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거. 옆이 뭐 양편이 부세엔한 말인디, 양편이 부셋들 영 것도 네 개허민 것도 네 개 들어가는 거, 허다보면은 뭐 한 주춧돌이 한 스무 개 정도 들어갈까?

108005 @ 기둥은 몇 개 들어감수과?

108005 #1 예?

108005 @ 기둥, 기둥은.

108005 #1 기둥두 그.

108005 @ 삼칸집에.

108005 #1 예 기둥두 삼칸집에 기둥은 기본적인 기둥은 네 개.

108005 @ 네 개?

108005 #1 네 개.

108005 @ 포. 포는마씨?

108005 #1 포는 두개 포라고 하지 포.

108005 @ 포예, 두 개예?

108005 #1 상모루 호나.

108005 @ 도리는 도리는마씨?

108005 #1 도리는 앞 도리 뒷 도리 헤가지고 네 개 도리.

108005 @ 서까래가가 서리지예?

108005 #1 응, 서리 건 서까래.

108005 @ 서리는 아까.

108005 #1 서리는 건, 선쟁이여수다 그거는.

108005 @ 선쟁이.

108005 #1 그거는 쪼끔 사이를 좁게 허는딘 쪼끔 많이 들고 쪼끔 사이를 넓게 하는딘 넓게도. 계난 그 나무를 그 낭을 충분히 준비가 되면은 그 죽게 허는 것이 집이 더 돈돈 험주게 예. 그 드물게 허는 것 보단 낭을 많이 준비되면 죽게허곡 낭이 좀 넉넉허지 못허게 하면 쪼끔 사일 띠영 쪼끔 드물게양 드물게 허면은 쪼끔 그 쪼끔 불안합니다게. 그 서설헐 때고 거리 가그넝에 거 광광 흑을 놓고 모하다 모면 더러 그 밭도 빠지는 사람 이십니다게. 그 서리 드물게 하민 그사이에 그 그 젊은사람들은 술이나 혼 쪼끔 먹영 우에 가그넝에 고대헤도라 고대헤도라, 그 나이든 사람은 지붕우에 올라가면 돌아댁기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헝 경헝 술이나 혼 쪼끔 먹고 헤 그넝에 그냥 광광 땁기다 보민 밭도 그냥 빠져그넝에 서리드물게 헌디 밭도 빠지고 경합니다게. 서설헝거 꺾거저그넝에 하당 보민 멍심허라 멍심허라 헤봐도 그 사람들은 멍심을 험니까? 술 혼 잔 먹은 보름이야 장난 비뚝허게 막 허당보민 그헤영 밭도 빠지곡 경헌디 그거 허카부텐 웰수이시민 서리 좃게 만들젠 험주게. 좃게 허젠 허민 낭이 이서야 될건디 낭이 하다 하다 버치민 그냥 그 서까래, 그 서리는 숫자는 건 혼 못합니다.

108006 @ 그다음에는 그 저 흑 밭를 때 예 흑 밭를 때 뭐 외나 산자 인방이나 반자들, 이런 것들 사용되지예? 흑 밭를 때 어떤 것들이 사용 돼수가?

108006 #1 손으로 순전히 손으로 예 손으로.
108006 @ 그 흑 발를 때 손으로 하는데 그 다른 것들 사용하는 거 어수과?
108006 #1 손으로.
108006 @ 반자틀은 뭐짜?
108006 #1 응?
108006 @ 반자틀 반자틀
108006 #1 반자틀이엔 현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108006 @ 인방이엔 현 말도 안들어봐수과?
108006 #1 응?
108006 @ 인방.
108006 #1 인방 건 뭐 방향을 말하는 거 같은데.
108006 @ 아니 흑 발를 때.
108006 #1 거 계난 그 집 짓는 풍속도 이 요기 허곡, 제주도 산네 동서남북 다 틀린다니깐 허는 방식들이 이름도 틀리고.
108007 @ 맞수다예 거민 방이 방을 만들 때 삼칸방 만들 때 뭐 방이 두개고 이제 삼방까지 하는 거잖아 예 근데 방에서 큰방 작은방 뭐 시렁 벽장 피 이불 상 아랫목 윗목 같은 거 쪽 할 때 그 방을 만들 때 큰방은 어 어디를 정행 큰방이라고 하고, 그 방에는 시렁은 어떻게 만들고 그걸 좀 고라줍서.
108007 #1 거 여깃 말로 큰 구들 작은 구들.
108007 @ 맞수다게 .
108007 #1 큰 구들 보편은 집이 알레레 돌아앉은 집이민 큰 구들은 오른쪽을 합니다 보. 작은 구들은 왼쪽하고. 게 거 등어리엔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거 집 방향보명 정제허곡 정제 맞은편엔 고평허곡 곡간, 고평.
108007 @ 고평예.
108007 #1 응 뭐 경혜그넵예 삼칸집은 게 가운데는 마리, 이렇게 포 두개 이렇게 세우민 이렇게 갈라가지고 작은 큰 구들, 작은 구들, 정제, 고평 우린 경혜나수 다게, 대부분 보민.
108007 @ 시렁은 어디다 만들어수과?
108007 #1 응?
108007 @ 시렁.
108007 #1 시렁은 그 구들 안에.
108007 @ 구들 안에.
108007 #1 응.
108007 @ 걸 뭐렌 고라수과?
108007 #1 구들 안에 또루 ,그 그 나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그걸 보고 시렁 아 아때, 그 시렁 귀클이엔 허는데, 그 일름이 시렁귀클 헤가지고 그 돌귀클이엔 헤가지고 그 맞인 그 돌귀클이엔 현건 거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약간 곱으트룽 현

걸 해야돼 양. 직선던걸 허민 우에 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행 안돼여. 처져불칸부덴 그 돌귀클이엔 헌건 영 약간 구부르툷 헨 것이 존넨 행 그거 행 놔도도 난중에 보민 폐와지는 수가 이서. 우에 그 우에 흑을 막 불라 농곡 그 우에도 그냥 막 지붕 무게로 견디, 탄 거는 거, 이 저 포 나 뭐 무신 탄거 부세에 헨거 같은디는 아래 백선이엔 헤그넨에 양 달달한 기둥 백선 백선이엔 헤그네 받으면은 그건 알레레 그 처질 염려가 었는디 돌귀클은 아래 바트는게 도리 도리도 안네 아래 받는 것이 것도 켈 나중에 켈 단단한 나무로 택하고, 게난 그 집짓는 낭중에 켈 택하는 나무가 상모루 포 도리 우다게.

건 전혀 아래 것도 사람도 보기가 들으멍 이렇게 보면은 도리는 앞에 잇는 거니깐 보기도 좋콕 허게시리 저 동네 사람들은 처음 온사람들, 그 도리헌 낭만 잘 사각으로 반듯하게 만들양 헤시민 아 집 잘지섯져 이렇게 평합니다게. 게난 낭이 귀한때라노난 양 그추룩행 망에다 짹짹 사각으로 뽑는 낭이 어서나수다게 낭이 구헤노닌간 그자 통나무에다 꺾질만 베껴가지고 그걸 기자 걸쳐그넨에 집짓는디 그 집을 그렇게 낭을 좀 큰거에다가 딱 사각으로 만들젠 허민 좀 그이 좀 부잣집이 옛날 말로 부잣집이 사람들은 어디 낭을 어디 저 먼디 강 사다그넨 양 그 예.

108008 @ 널, 마리, 마리 놀 때 그 널이 라든가 부섭은 어디다 설치하고 마리는 어떤 걸 어떻 헤수과?

108008 #1 마리는 우리 집 경우는 옛날인데 그 4.3사건 전이엔 지금은 4.3사건 전에거 얘기하는 거우다 .

108008 @ 예.

108008 #1 허는데 마리는 홈마리엔 헤가지고 양 마리 널이 요만씩 밖에 안헙니다. 옛날에 나무가 어려와가지고, 그 요즘은 보민 뭐 기자 마루라고 헤가지고 길쪽 길쪽헌 거 놓는 거 헤가지고, 기자 허는다. 옛날에는 낭이 흐쭉 요만씩 그 마루판 요만씩 그 홈마루엔 헤그넨에 마리 귀클을 여러개 놓니다게 .그냥 허젠 허민양 경행 혼말에 요만씩 헤가지고 그 사이에다 그 그 목수도 양 아주 기술자라 웨야돼 양. 그 마리 노는 것도 양 거 못질허는 것도 옛날엔 못이 어섯스니까 양. 옛날은 서까래엔 헌건 서리가 꺾도 못이 어서나수다게. 못 어시민 서리 헨 때도 게민, 그 줄로 그냥 그 세로 줄놔그넨 그 줄로 그냥 막 끌거 메는 거라 양. 거 움직거리지 못하게.

108008 @ 마리 놀 때도.

108008 #1 마리 놀 때도. 거 홈마루엔 행 그걸 헤가지고 거 목수가 빌민 거 전부 그 예 그 톱을 웨아가지고 그 홈에 딱 딱딱 끼게시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헤가지고 마릴 놔나수다 우리 경우는.

108008 @ 부섭은마씨?

108008 #1 홈마리라고 헤가지고 그 목수도 좀 잘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또 마리 뿐 아니라 그 문두 문은 그 문은 쉬웁니다. 문두 낭만 이시면은 만들기엔

108008 @ 부섭 부섭 마리에 부섭.

108008 #1 부섭은 것도 돌로 된거 돌로 되그넵에 마리 한가운데 부섭을 놓은것이 아니라 양 마리 대게 보면은 알르레 도라진 집은 그 부섭을 좀 그 북쪽으로 땡겨가지고 또 문이 앞이 문 이신건 대문이엔 허곡, 뒤로 문이 이서나수다 삼방 삼방에 뒤에 이신건 뒷문이엔 허는디 대게 보면은 우리집이든 하든 그때 보니까 그 동네집이엔 보면 부섭은 대게 뒷문쪽으로 양 뒷문 가깝게 헤그넵에 거기서 그 돌로 만들영 그 부섭을 받엔 것도 목수가 다 해줍니다. 마리 노면서 행 거 겨울철엔 거기서 낭 헤당 낫당, 거기서 그자 불 살라그넵에 겨울에 불 쬐고, 또 그걸 그 부섭에 불을 살르민 그것이 옛날에 그 이용 하는 것이 많아 놔수다 게. 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햇빛이 잘 안나그넵 양 곡식을 헤다가 햇빛에다가 물리지 못하면은 골이엔 헤그넵에 대나무로 큰 바구니처럼 만들양 그걸 부섭 우에 돌아메는 거라 양. 게 거기서 조코구리도 낱 물리고, 그 물김으로 그 피 혈 땀 피도 그래 담아냥 물리고, 거기서 몰라 그넵에 그걸 발로 보면 그걸로 집어서 방에로 찌가지고 밥을 행 먹어나수다게. 경행 햇빛에 겨울철 햇빛이 모자라민 계난 그 부섭이엔 헌건 그런디서 쓰곡.

108009 @ 고팡은 어디다 지어나수과?

108009 #1 고팡은 큰 구들 뒤에.

108009 @ 그 뒤에 정제 맞은편마씨?

108009 #1 예.

108009 @ 그 고팡에 혹시 어 안칠성이라든가 뭐.

108009 #1 어 우리 집인 그거 어서수다. 예, 그거 잇는 데는 이서수다. 예, 난 이거 우리 집 경우를 말하는 거우다.

108009 @ 예 맞수다 계난.

108009 #1 우리 집이 그런 건 어서수다.

108009 @ 다른 데는 이서낫지예?

108009 #1 응 다른 데는 나도 그 칠성을 헤가지고 모신다 헤가지고 어디 저 밑에 것도 수망리는 멧 집 안땤난 걸로 알고 잇는데 양. 것도 이서난디가 이수다. 혼 멧 집이.

108009 @ 응 안칠성예?

108009 #1 예 그것을.

108009 @ 향이나 창곰은 무슨말이파?

108009 #1 응?

108009 @ 향.

108009 #1 향.

108009 @ 향아리?

108009 #1 향아리 향 게 이런 고팡에 곡식을 노민 향.

108009 @ 창곰은연?

108009 #1 응?

108009 @ 창곰.

108009 #1 창고?

108009 @ 창곰

108009 #1 창공?

108009 @ 창곰.

108009 #1 창공은 무슨말인고?

108009 @ 창곰.

108009 #1 창곰? 거 뭐 나야 모르는 말이고 항 하곡 망데기 작은항아리 고라 망데기, 그것에 곡식 농콧 썰, 썰 농콧, 조금 희귀한 썰은 망데기에 농콧, 뭐 보리쌀 좁쌀 좀 양이 많은 썰은 항에 농콧 그렇게 우리 집이 경허고 창공이 아니고 창곰말 하는 거 아닌가?

108009 @ 어 아니마씨.

108009 #1 창곰이엔 헌건 여기서 무슨말이엔 허면 그 고향 그 옆이 공기 통허 렌 문 뚫어 논거 그거 창곰이엔 허는디.

108009 @ 창곰이엔 했습니까?

108009 #1 응 참곰.

108009 @ 아 고향에 문 뚫려 논거 예?

108009 #1 응 공기 통허라고 여기선 창곰이엔 허여. 에 그 거기도 그 자그만하게 문 멘 들어네 덕엇당 열엇당 허는디 글로 잊어불지 안헤그넝에 밤에즉 안덕그민 글로 고넝이가 들어오라그넝에 뭐 곡식을 먹어부러 양. 쥐 고튼 것도.

108010 @ 그다음에 부엌은 여긴 뭐렌 고라수과? 정제렌 헛지예?

108010 #1 정제 정지 정지.

108010 @ 정지예?

108010 #1 응.

108010 @ 정지에는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08010 #1 솟.

108010 @ 솟 잇고.

108010 #1 물항.

108010 @ 물항 잇고.

108010 #1 정고레.

108010 @ 정고레, 아 정고레를.

108010 #1 응 정고레도 정제에 낫다그넝에 그디 간다 저거니깐 그냥 그저그제.

108010 @ 맞다. 정고레 그다음 살레 같은 건.

108010 #1 살레.

108010 @ 살레 잇지예?

108010 #1 응 살레엔 행 뭐 그릇 잇는 거고.

108010 @ 그다음엔 그 부엌에 간단하게시리 차라든가 뭐 마실 수 있게 또 다른

뭐 작은 방 같은 거라든가 뭐 어서나수과?

108010 #1 예 그건 옛고 우리 집 경우는 그 물 물항, 그거 그 정고레, 살레, 그 거 놓고 뭐 그 정도로.

108010 @ 그 정제에서 보면 약간 높게 헤가지고 이렇게 평상처럼 마루가 영 뭐 나신디 그런 건 어서나수과?

108010 #1 어 그건 우린 그런 집이도.

108010 @ 아니 어릴 때 기억이 나그네.

108010 #1 예 동네에도 그런 집이 그 정제 안에 이렇게 반 짝 갈라그넵에 마루에 놔그넵에 그런 집이도 이서나수다 좀.

108010 @ 저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예?

108010 @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 문설주 잇잖아예? 문설주.

108011 #1 문설주?

108011 @ 예 그니까 어 문지방 잇잖아예 지방.

108011 #1 응 문지방.

108011 @ 지방 지팡이

108011 #1 여긴 지팡이엔 허는데.

108011 @ 지팡이엔 하잖아 예 그 문 지팡에 대해가지고 문지방은 밀로 만들고.

108011 #1 문지방이야 나무지게.

108011 @ 나무로 만들었지예.

108011 # 응, 냐.

108011 @ 그 문지방과 지방 사이에는 뭐가 이서나수과? 문지방 밑에 거기엔 또 뭐런 고라나수과?

108011 #1 문지방 안에는 마루.

108011 @ 예.

108011 #1 그 마루 배끄딘 그 뿔난간, 앞에 지방 앞에는.

108011 @ 예 예 예.

108011 #1 뿔난간 뿔마루.

108011 @ 뿔마루예.

108011 #1 응 계계 여긴 난간이우. 난간 여기는.

108011 @ 혹시 막 돌쩌귀라든가 돌쩌귀라 든가 문얼굴이라 든가 이런 말 안들어나수과?

108011 #1 거 난간 앞에는 잇돌.

108011 @ 잇돌예?

108011 #1 응, 잇돌 여기서 잇돌.

108011 @ 잇돌이엔 헛구나예?

108011 #1 돌에다 쪽 빠는 거 잇돌.

108011 @ 잇돌 예.

108011 #1 거기 마당에 앓당 올라가지민 잇들 밭양 그라믄 그 난간 뽕아그녕에 문지팡 넘어에 마루에 들어가는 거.

108011 @ 기지에 그다음에는 문도 이제 그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싹 영~ 단 양 영~ 여라지는 문 이섯잖아예 들어갈 때 무시거렌 고라수과?

108011 #1 것도 그걸 보고 대문이엔.

108011 @ 대문이렌 고랏지예?

108011 #1 응. 옛날에 보통 보면 대문 대문 허면은 그 마루 앞에 도는게 대문이엔 허고.

108011 @ 그 문 안에 잇는 문은 뭐렌 고라수과?

108011 #1 안에는 문이 무슨 문이 이서 안에 놓는 방문 방문은 지계문엔허곡.

108011 @ 예, 지계문예.

108011 #1 응 지계문 지계문도 방이 마루쪽으로 문이 잇곡 바깥쪽으로 문 잇는 디 안지계 문 박지계 문.

108011 @ 박지에문 예?

108011 #1 응 이 바깥쪽으로는 박지계문 안쪽 마루쪽으로 잇는건 마루쪽으로도 방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난 방은 요즘식으로 기자 마루쪽으로 문 바깥쪽으로 지계 문, 안지계문 박지계문.

108011 @ 상기둥은 뭐짜? 상기둥.

108011 #1 응?

108011 @ 상기둥.

108011 #1 상기둥?

108011 @ 예.

108011 #1 상기둥은 뭐 무슨 말이라 거 나 모르는 말.

108011 @ 기둥 중에서 그 마루 안에 잇는 마루에 놓는 기둥들 이섯잖아예?

108011 #1 마루에 무슨 기둥이서.

108011 @ 그 기둥하고 기둥이 그니까 집을 짓젠 하면 마루 안에 기둥이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이섯잖아예?

108011 #1 이렇게 가로 된 건 도리고, 기둥이엔 현건 거 쫓귀, 거 상기둥에 쫓귀둥을 말하는 거 같은데.

108011 @ 쫓기둥마씨?

108011 #1 예.

108011 @ 쫓기둥은 뭐짜?

108011 #1 포게 포 받쳐주는 거 기둥게.

108011 @ 포 아 포 받쳐주는 거마씨?

108011 #1 응.

108011 @ 건 쫓기둥예?

108011 #1 쫓기둥.

108012 @ 그다음엔 예 어 창문 중에도 이런 요런 문은 뭐렌 고라수과? 이문 이
거 창 창으로 된 문 창오지 발른 문.

108012 #1 아 건 그대로 창문.

108012 @ 그냥 창문이엔 고라수과?

108012 #1 창문.

108012 @ 그 띄창문은 그럼 뭐짜?

108012 #1 그건 모르겠는데.

108012 @ 모르쿠과? 창문예? 옛날엔 창문 바를 땀 뭍로 발라수과?

108012 #1 거 가시리플 창오지.

108012 @ 창오지?

108012 #1 응.

108012 @ 창오지 어실 때, 창오지 어실 땀마씨?

108012 #1 창오지 어실 때는 그 문은, 우린 창오지로만 발라난거 땀은디.

108012 @ 초지도 창오지렌 합니까?

108012 #1 어 창오지는 어떻게 꺾냐면 옛날엔 거 어디 강 사오는 수도 잇꼭, 옛
날 보민 거 두부상이라고 해가지고 두부상, 요즘 그 사람들이 그때는 갖고 다니더
라고 그 사람 언제 메칠 날 온다 하민 그 사람 한티 그거 사그넵에 그 가시리 플로
해그넵에 물 발라낭거.

108013 @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이수과, 할 때, 누게라 하명 문 열기도 하지만
그냥 저 쪼고만한 창문 만들어 가지고 영 저 사람 볼 때 하는 작은 창을 뭐렌 고라
수과?

108013 #1 그것이 뭐엔 해난고, 우린 우리 집인 그런 거 어섯스니깐.

108013 @ 어섯지에?

108013 #1 응 근데 우리 집인 보통 손님 허민, 저 바깥에 오랑 이수과, 허민
그자 보통 마리에 아жат당 대문, 대문이엔 행 문 열앙 영 보고, 저 구들에 안자실 땀
구들에 저 반문 열아그넵에 보통은 구들 문 연거 반문 반문 허는디 맞찍이문 그거
열앙.

108013 @ 마루에서 연문 반문이렌 합니까?

108013 #1 응.

108013 @ 요런데 방에 잇다가 요만큼 쪼고만 하계시리

108013 #1 어어 우린 그런 거 어서.

108013 @ 어서수과?

108013 #1 응.

108013 @ 호령창이라고 어서수과?

108013 #1 예 건 모른 거지 저 얼마 서쪽드레야 아마 이서실거야.

108013 @ 그계 서귀포 지역에 이섯잖아 예?

108013 #1 예 거 집짓는 옛날도 집짓는 방식이 다 지방마다 틀리니깐.

108014 @ 굴 굴목은?

108014 #1 굴목은 이것주.

108014 @ 굴물은 어느 향에다 헤나수과?

108014 #1 굴목은 큰 구들 죽은 구들 다.

108014 @ 다헤나수과?

108014 #1 다.

108014 @ 게 정제에서 불 스물 때는 그 불은 어디로 들어간마씨?

108014 #1 앞으루 이 정제에서 그 밥 헤먹을 때 밥 헤먹을 때 요 이.

108014 @ 방안으로 불이 따듯하게 안 들어 와수과?

108014 #1 벽 쪽, 아무 벽 쪽 아무 쪽이나 벽 쪽으로 솟을 영 아찌면은 거기서 그냥 거기서.

108014 @ 게난 그 솟 안치면.

108014 #1 솟 알로 기자.

108014 @ 그 불들이 이렇게 방안에 들어가서 방 따듯하게 해주는 거 어서마씨?

108014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08014 @ 아 방은 다 굴목으로.

108014 #1 응 방은 다 굴목으로 떼고, 정제엔 밥흐는 거 또루, 솟을 솟굽으로 솟 아찐덴 허는디 솟강알에, 거기서 기냥 검질로 검질로도 허고 나무로도 떼고 굴목은 방 따듯하게 굴목 별도로.

108015 @ 풍채?

108015 #1 풍채?

108015 @ 풍채과 품채과?

108015 #1 풍채. 여기서는.

108015 @ 풍채예?

108015 #1 응. 풍채는 그 초가집 앞이 이렇게 걸게시리 헤그네, 이거 딱루 만들어 딱루 만들어그넵에 그 비올 때는 그 양쪽에 저 기둥 닳은 거, 여긴 작데기엔 허는디 양. 요롱게 된 거 작데길 받았그넵에 비올 때는, 그걸 작데기를 땡여부는거라양. 비바람불때는 거 그냥 거 옛날은 거 이렇게 밧쪽에 문헌티 거 품 무는 거 그 종어로 창호지로 불라난 양. 비 들어불민 문 젓으카부덴 양. 또 마리드레 비 드리카부덴 비오라, 브, 비오라가면 그 풍채 받았던 작데기가 싹 내려와뵐니다. 내리면 그것이 이렇게 헤가지고 집 앞 그 구들 앞이영 상방 앞이영 막아지는 거라 양. 막아지민 걸로 저 비 비가림도 뵐고 또 보름도 막아지고, 경허다그넵에 날 좋은날은 그 걸 또 싹 하게 양쪽으로 풍채 짝데기에 헤그넵에 받아주곡.

108016 @ 음, 물팡은 무시거과?

108016 #1 물팡은 옛날은 거 허벅 헤다그넵에 물질어 오며는 그 부엌 바깥에 부엌드레 출입허는 앞에 거 물 저당 영~ 허게 놓는 거. 거게 놓고 거기 또 그것이 지금 말하며는 물팡이여 물 그자 물허벅 놓는 디.

108016 @ 건 뭘로 만드는 거마씨? 물팡은.

108016 #1 돌로, 돌로.

108016 @ 돌로?

108016 #1 돌로 돌로 것도 순전히 돌로 이렇게 밑에 받곡, 우에다 돌 또 큰거 헤다그넝에 거 물허벅, 게난 물팡이엔 헌건 물허벅 놓는다.

108016 @ 예 물구덕이나 물허벅 놓는디예.

108016 #1 응, 물구덕 거 물허벅은 항상 물구덕에 그냥 놓양 이시나네 놓아그넝에 배도 아에 딱 그냥 물구덕에 행 걸려, 놓고 헤영 기자 물 지레 땡기다그넝, 물 지영 오랑 안에 강 물항에 이렇게 물 허벅 진 채로 양. 지금 그 모양이 점, 제주시 그 박물관에 들어간 때문 그 물항에 비아동 바깥뜨레 나오라그넝에 그 물팡에 강, 그냥 구덕차 그냥 놓양 내부는거라 양, 놓아 내빋당 물질러 갈 때 또 그냥 거기서 정 나가고.

108016 @ 여기는 집이 여기 झा아예?

108016 #1 예 바로여기.

108017 @ 여기가 길인데 어 그 바로 여기서 헤버리면 길에서 바로 들어오기 좋은데 이렇게 좀 길게 올레를 만들엇 झा아예? 무사 경혜수과?

108017 #1 것도 아무렇게나 안뿤여. 방향이 이서야뿤.

108017 @ 거난 무사 경혜수과? 방향은 왜 어떻행 잡아마씨?

108017 #1 응?

108017 @ 올레, 올레 잡을 때 아무렇게나 안행 방향은 왜 방향은 잡았고, 왜 올레를 만들어수과? 길가 집인데도.

108017 #1 거 옛날 풍수지리에선 그 집이 무슨 짝이나면, 그 집 방향에 따라그넝에 그 올레 방향도 틀린답니다. 게난, 올레를 아무 방향에나 내질 못헤 양. 예, 그 우리는 여기 이 방향으로 집으로 방향 올레를 정헐는데, 게 가깝게 일르라도 흘 수 잇고 조금 방향이 그렇게 뿤가지고.

108017 @ 그 이유가마씨? 골목을 만든 이유가 올레를 만든 이유가.

108017 #1 올레를 만든 이유가 거 출입구니깐 사람을 다니기 위해서 만든. 이유는.

108017 @ 게난, 사람 다니는데 무사 이렇게 길 가까운데 안헤그넝 이렇게 들게 헤수과?

108017 #1 아, 거니까 그 방향 때문에 그 사람 명운에 따라 집 방향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이 집은 어느 아무 일로 올레 뿤다, 경헌 때문에 길이 올레가 좀 밀 비틀야 질수도 잇고 멀 수도 잇곡.

108017 @ 아.

108017 #1 올레도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옛날에는 거 그 집 방향하고 그 사람 운에 따라 가지고 올레 방향을 메기는 거. 이 집은 아무 편으로 올레를 허라 헤그넝에.

108018 @ 게 그 출입구 문, 문을 만들 때 출입구 만들 때도 문간 채, 옛날엔 이 문간 같은 거.

108018 #1 어 우리집 이문간은 어서수다.

108018 @ 어떤 데가 그 문간채를 만들어수과?

108018 #1 이문간은 조금 대게 보면은 좀 잘사는데, 부잣집이 이문간 따루 헤그넝에 거 이문간 허는 집에는 보며는, 안커레, 또 손천거레, 목커리, 그런 거.

집이 뭐 집이 세 채, 네 채 잇는 집 보며는 그런디 보며는 대게 옛날에는 그 아들 살곡 또 손자 장수 행 오래 산 집도, 또 손자살고, 또 그 옛날에는 머슴, 그 옛날에는 도사랭 헤네, 여기서는 거 머슴 사는 방 따루 허곡 헤그넝에, 경행 그런 잘사는 집에는 이문간 따루 짓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요쪽에 이문간 이신지가 딱 흔 집 백게 어서나수다. 그건 좀 잘살지 게 이문간 헤영.

108018 @ 겐디 문간채 그 이문간에는 또 문간채다 헤가지고 뭇가 방 같은 거나 쉼왕.

108018 #1 예, 이문 것도 집을 이렇게 길게 지어야, 가운데는 이문간 지은 거 마당허고 출입하는 이문간이고, 옆에는 뭇 방도 잇는 디 잇고, 거기에 또 저 방앗간 양. 거 방에 방에 놓는, 대부분 방에 놓니다 방에.

108018 @ 아 방에를 낫구나예.

108018 #1 응 방에 놓곡, 거 이짜 흔짜 방에 방 만들어 놓고 거기 춤, 거기 옛날 말은 너미집 사는 사람 머슴 양. 그런 사람들 살고 헤수다.

108019 @ 예 그다음엔 혹시 어, 가리터라는 말 들어봐수과?

108019 #1 가리터 거는 나 모르고.

108019 @ 가리 터 숨박꼭질이라고도 하고.

108019 #1 숨박꼭질은 거 애들 애들 허는 것이 숨박꼭질 아닌가?

108019 @ 가리터 가리 틸.

108019 #1 가리틸.

108019 @ 낫가리 같은 거. 그 놀 누르면 놀 같은 거 누러봐수과?

108019 #1 응 놀이엔 현건 여기 출 여기는 그 뭇 제주도 농촌에는 다 공통적인 난 출 눈디 잇고, 겨울에는 곡석놀이도 잇곡.

108019 @ 거면 그 놀 그 놀 누를 때 놀 맨 우에 걸친걸 뭇렌 고라수과?

108019 #1 놀 어디 우에?

108019 @ 예예 놀을 이렇게.

108019 #1 아 우에 노람지.

108019 @ 노람지?

108019 #1 예 노람지 노람지 놀 우에 덮으는 거.

108019 @ 그 노람지 사이로 아이들이 막 숨으, 그 곱을락할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기도 헨마씨? 틸을 만들영.

108019 #1 거기 그 거기 놀이 느자와서 노람지 속읍에 아이들 들어가고 허주.

그 노람지 어디 저 밑에 내려 놀 때, 거 가을에 곡식이나 뭐 허젠허민 미리 노람지를 준비해 놉니다게. 준비해 놔도야 돼여. 거 세, 노람지 할 세영, 세도 좀 긴 로 것도 좀 졸본 건 안돼곡. 졸본거는 헤다그넵에 낫다그넵에 봄 나민 집이나 일고 뭐 현디, 노람지 쉰 좀 특별한 세, 좀 긴거 헤다그넵에 노람지로 그 가을에 그 곡식 덜을 거 준비헤다그넵에 딱헤 자르민 거 아이들은 거.

108019 @ 노람지 사이로 곱을락 안헤마씨?

108019 #1 행 놔두민 노람지 영행 세워노민 그사이에 아이들 거 장난하는 아이들 거기서 곱을락 하고 거.

108019 @ 삼춘은 안헤봐수과?

108019 #1 안헤서 우리는 그런 거.

108019 @ 애기 때 안헤판마씨?

108019 #1 예.

108020 @ 그 다음 예 그 도통 잇잖아예? 어 도통에 대해서 그 여쭙겠는데 예? 그 도통에 보면 뭐 그 돛도구리도 잇고 이런 것들 잇잖아예?

108020 #1 예 돛도구리도 잇고.

108020 @ 그 도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라줍서.

108020 #1 도통도 거 옛날에는 거 옛날에는 뭐시든지 다 츠레가 잇텐헤 양. 도통도 아무데나 못헤여. 방향이 이서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살 때, 도통을 저 서북쪽 서쪽 모퉁이에다 도통을 헤나수다. 도통을 허면은 그 돛도구리렌 현거 돌로 만든 거양. 대게보면 돌로. 것도 그 동네 아무나 것도 만들지 못헤민 거 기구 거 석씨 빌어그넵 만들영 돌로 만들영 영 우리는 서북쪽에 요긴 도통이 서났고 도새긴 보통 현나.

108020 @ 하나씩예.

108020 #1 호나 길르고, 그 또 가끔 저기민 그 그 돼지, 그 암토새기 길러그넵에 거 좀 새끼도 처가지고, 것도 우리도 폴아도 나고 헤수다.

108020 @ 그믄 그 도새기들이 그 것 먹어난 그릇은 뭐렌 고라수과?

108020 #1 먹어난 그릇?

108020 @ 예.

108020 #1 먹어난 그릇이 돛도구리주.

108020 @ 돛도구리지예?

108020 #1 예.

108020 @ 그다음엔 그 것은 어떻게 줘나수과?

108020 #1 것은.

108020 @ 무시거 주고?

108020 #1 거 여름에는 보리채. 보리채엔 현건 뭐냐면 보리헤그넵에 돌그레에 강 그라양. 고라그넵에 그 꺾질 그거를 보리채엔 현덴. 거 허곡 또 그기 또 무신 구진물이엔행 양 밥 흘때 쓸씻은 물이나 뭐 먹단 국 끓영 먹단 거나 그거 모다다그넵

그거 섞어그넝에 여름엔 대게 주곡.

겨울엔 조 채엔 헤영 양. 그 조로 그 줄 헤여그넝에 물 ㄱ레에 ㄱ르민 것도 거기서 채영 행 꺾데기가 나옵니다. 그거헤영 보름에 것도 췌 보름에 불려불민 멀리 놀아가부넝에 거민 겹 것도 아침새벽이 아주 약한 보름에 불령 그거 메와그넝에 것도 기냥 걸로 점 밥 헤먹을 때 좁쌀 씻은 물이나 뭐 뭐 무신 뭐 쓸씻은 물, 거 허곡 뭐 먹다남은 국 고튼 거 거 망데기에 영 드루 메왔다그네 거세 거때거때 거 조채에 헤그넝에 도새기 줄거엔 또루 버무령 주고.

게 거 여름에는 옛날도 더위들 때도 좀 사람이 잘 먹는 집에는 도새기도 좀 슬진덴 허고 양. 기름기 게 좀 살림이 곤란헤그넝에 못사는 디 사람들은 도새기가 준덴 헤나수다 먹지 못헿, 사름에 따라그넝에.

108020 @ 뚝통 뛰어넘는, 뚝통 뛰어넘기라는 뭐가 이서수과? 무신일 이시민 뚝통.

108020 #1 예.

108020 @ 그 돼지들이 도새기들이 그 도통을 뛰쳐그네 도망가 나지 않아수과?

108020 #1 예예

108020 @ 게난 그 도망가지 못하게 뭐 뭐 헤난 거 어서마씨?

108020 #1 거 담 싸는 거?

108020 @ 담 싸는 거?

108020 #1 응 담만 노프게 싸면은.

108020 @ 흑시 그.

108020 #1 담 야트게 싸면은 도새기가 기어나그넝에 배고프민양 배고프민 기어나와그네 집 두에 막 그냥 탱이멍 그자 주둥이로 막 땅을 갈아놓니다. 거 뭐 땅을 파다보민 뭐 못디 땅에서 뭐 나오젠 합니까게 뭐 개구리 고튼것도 나오고 게민 또 뭐 채소고튼 거 싱근 디 강 채소 막 먹어볼곡 양. 예.

108020 @ 게민 그 어떤 마을 같은데 보면 그 저 뚝통 지을 때 옆에 담싸은 옆에 다가 가시냥도 심고 헤난.

108020 #1 아 그 그 도새기 기어나오지 못허게 방지 허는.

108020 @ 그 무신 싱것던 냥이 무신냥.

108020 #1 통지냥.

108020 @ 통지냥?

108020 #1 응 가시냥 통지냥 .

108020 @ 통지냥?

108020 #1 통지냥 여기는 탱자나무고 통지냥 통지냥 허는디.

108020 @ 아 여기는 꺾가시냥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통지 통지예?

108020 #1 아니 꺾가시냥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거 탱자나무 여기선 통지냥 통지냥. 거 가시 거 거 뚝통옆에 싱그면은 도새기 기어나오지 못허게.

108020 @ 아 탱자를 통지를 심었구나예.

108020 #1 에 계민 답을 못 넘잖아.

108020 @ 그 다음엔 그 돛통에서 이제 그 소변이나 대변 불러면 이 놓는 돌을 뒤편 고라수과?

108020 #1 두들팡 디들팡 디들팡.

108020 @ 두들팡 디들팡 예?

108020 #1 응 그 대변보는.

108020 @ 예 디들팡예?

108020 #1 응.

108020 @ 디들팡 그다음엔 거기에 휴지대신에 뭐 뉘나수과? 옛날에.

108020 #1 어디?

108020 @ 그 돛통 가젠 하든 대변을 보젠 하면 뉘로 다끄젠 하면 거기다 뉘가 이서야 될 거 아니파? 지금이야 화장지 잇주만은.

108020 #1 옛날에는 검질로.

108020 @ 검질로, 거 검질을 모아뉘수과?

108020 #1 검질은 옛날에 마당에는 마당에 흐면은 마당에 검질을 썬니다게. 검질 아니 깔면 마당 막 파져 불고, 그 게 마당에 검질 덮으는 이유는 마당을 잘 멘 들앗다그넝에 그 곡식 때 뉘면은 그 마당에 검질 고티 거 싹 옆이동 마당 깨끗하게 마당에 거기서 곡식을 뉘그넝에 도끼로 때렁 두드립니다게 보리든 조든.

108020 @ 계민, 그 마당에 이신 검질 가져당 따까수과?

108020 #1 에 도통에 뉘싸레 가구정 허민 기자 그 이상한 말 고티지 만은 그거 다끄젠 허민 검질 쯤썬 접앙가그넝에 걸로 그냥.

108020 @ 계민 설사 같 은거 나민 어떻헤수과?

108020 #1 응?

108020 @ 설사 같은 거 나면.

108020 #1 설사?

108020 @ 예.

108020 #1 설사 나실 뉘 보통 여기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여름철에 설사가 많이 나는데 여름철엔 보면은, 음식두 고티지 못 허고, 계난 옛날은 먹을 것이 쯤썬 품허지 못헌 때난 계 사람 먹당 낭겨둔거도 지금은 냉장고나 잇다, 옛날엔 기냥 어디 내불민 약간씩은 쯤썬 뉘 합니다게 그걸 뉘하민.

108020 @ 거 설사 나민 뉘로 다칸마씨?

108020 #1 설사를 고티는디?

108020 @ 아 설사 나면 뉘로 다까수과?

108020 #1 아 마찬가지.

108020 @ 아 검질로마씨?

108020 #1 응.

108022 @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저기 이것저것 호미랑 무시거랑 막 거 놓는

데 창고를 예 옛날엔 뭐렌 고라수과? 뭐 팽이 같은 거랑.

108022 #1 에 건 우리 보통 쉼막에 놔놔는데 쉼막에 혼.

108022 @ 아 쉼막에 같이 놔수가?

108022 #1 응 흔짝 옆에다가 그 줄헤그넵에 거 낭 돌아메여. 거 낭 돌아메영 거 기다가 호미도 걸치고 쉼스랑도 걸치고 거 다 걸칠 수 잇는 거 아니파. 거 다 꼬부라진 거니깐 양. 호미든 골갱이든 쉼스랭이든 뭐.

108022 @ 옛날에 게른 쉼막을 쉼막이렌 헤수과 쉼왕이렌 헤수과?

108022 #1 쉼왕 쉼왕 쉼왕이엔 헛주. 쉼왕.

108022 @ 쉼왕예?

108022 #1 응, 여기 우리.

108023 @ 그다음에 장 같은 거 웬장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놓는 거를 뭐렌 고라수과?

108024 #1 그거 놓는다 뭐엔사 신디. 옛날에 우린 보면은 거 영허민 마루 뒤에 거 안튀엔 헤그네 안튀 안튀엔 헤그네 거기 저 옆에다가 놔그넵에 겨울에는 보민 그 저 거 노람지 말했지만 노람지 우에 또 덮으는 거 이서나수다. 거 주쟁이엔 헤그넵에 주지 그거 만들양 덮영 헤놔수다.

108024 @ 그 그거를 뭘 그 웬장 간장 막 노는 데를 뭐렌 따로.

108024 #1 아 따로 아녀.

108024 @ 예를 든다면 표준어론 장독대렌 헤잖아예? 옛날엔 뭐렌 안튀 안튀에 뭘.

108024 #1 안튀.

108024 @ 그냥 안튀엔 헤그네 웬장 퍼오라 경헤수과?

108024 #1 응 안튀에 웬장.

108024 @ 응.

108024 #1 안튀엔 현건 집 두에를 말하는 거.

108024 @ 계난 예 집 뒤에.

108024 #1 게 요즘은 장독대니 뭐니 또루.

108024 @ 기지예. 그

108025 @ 다음에는 예 어 혹시 춤이라는 말 들어봐수과? 춤.

108025 #1 에 춤. 춤이엔 현건 무슨말인고 허니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옛날엔 물이 어려운 때니깐 그 세 헤그넵에 요렇게 요만큼 길게 짜그넵에 나무에 기냥 나무 크기에 따라 나무 큰 건 좀 길게 만들고 작은 건 죽게 만들고, 나무에 장 이렇게 묶어 나두는 거라 양. 바로 거 밑에는 또 확허게 조려그넵 접아그넵에 뭘 줄로 묶영 게 비오면은 거 낭에서 노리는 물이 그 춤으로 헤영 내리는 것이 춤.

108025 @ 그 춤에 물 받으는 건 뭐렌 고라수과.

108025 #1 허벅 허벅으로 받안.

108025 @ 허벅.

108025 #1 허벅으로도 받고 망데기로도 받고.
 108025 @ 망데기로도 받은 거 예.
 108025 #1 응.
 108025 @ 그걸 그뎨 춤 허벅? 춤 망대기? 아니면 춤 항?
 108025 #1 춤 허벅.
 108025 @ 춤 허벅이렌 혜수과?
 108025 #1 응 춤허벅.
 108025 @ 응 춤 허벅예?
 108025 #1 게 춤물 춤물 허주게.
 108025 @ 춤물예?
 108025 #1 응.
 108025 @ 그 춤물 허는 낭은 보통 어떤 낭에다가 혜수과?
 108025 #1 누룩낭.
 108025 @ 누룩낭? 아 여긴 누룩낭이구나예.
 108025 #1 응, 누룩낭.
 108025 @ 아니, 바닷가 같은 데는 예 돛박낭에도 혜서예.
 108025 #1 응 우리는 누룩낭. 여 누룩낭, 옆에 큰 거 이섯는데, 우리는 누룩낭 거 대부분 판 집이도 보면 누룩낭 허곡. 게 낭이 거 춤 받기 좋게 크는 낭이 누룩낭 빼끼. 누룩낭이 그냥 메질로 곱게 쪽 크니깐 거죠. 비도 오면은 그 누룩낭 이파리가 조니까 그 물도 많이 내리곡 게니깐 대게 누룩낭으로 춤 낭을 허곡.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그다음에 그 초가 지붕 이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가 여쭙볼게예? 그 초가집을, 초집을 지으면 이제 툼툼이 다시 또 그.

108026 #1 일년에 혼 번씩 이려야주게.

108026 @ 예, 이려야 돼잖아예?

108026 #1 예.

108027 @ 그 이르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가 여쭙볼게예? 어 그 초가집을 이젠하면 세나 각단을 어떻 준비합니까?

108027 #1 에 것도 거 조금 잇는 집에는 거 밧을 또루 만들어 돼야돼. 거 세왓엔 헤그넵에 각단이나 세왓이나 그튼디서 나느 거.

게난 긴 것은 세고 좀 짧은 건 각단, 각단이엔 현건. 거 세 빌 때는 가을에 동지 전에 동지 넘으면 안웁덴 헤, 동지 전에 출 헤난 곡식도 다 헤나곡. 그다음 세왓디 왕 세 허는디. 긴 건 또루 헛당 세렌 허곡. 짧은 건 각단할거엔 행 각단할 건, 거 호미로 호미로 비는 것이 아니고, 옛날은 낮으로 출은 낮으로 양 긴 거. 즈록 길게 도든거 잇지 안허팡? 게 그난 그것으로 비는 원인은 거 각단을 헤다그넵에 줄 놀 때, 그걸로 베면은 지그자그로 막 서터져그넵 줄 놓기가 조읍니다게, 나도 헤봤는

데. 계난 호미로 비는 건 차근차근 잇게 되면 건 줄 놀 때 상당히 불편헤여 양. 그것이 줄 놓다보면 줄도 고르게 놔지지 안 허고, 게 낫으로 기냥 후려 칭 헤논 건, 건 줄 놀 때 상당히 편합니다게. 줄도 골르게 놔지곡.

게 각단이엔 헌건 딱루 낫다그넝에 낫으로 비어그넝에 거 고찌 헛다그넝에 치불젠 허민 젤 먼저 세에 봄나면은 한가은 시끼니깐 거도 줄을 그냥 거 식구가 잇는디 식구 동원헤그넝, 메칠 날 줄 노게 줄 놔그넝 거 각단으로 헤영, 거 각단은 그런식으로 베야 줄 놓기 좋주, 호미로 비민 호미로 영 심영 영영 허민 츠근츠근 돼지 안 읍니께. 그건 줄 놓기가 상당히 구집니다 구지면은 거 낫으로 빈거라야만 줄 놓기도 좋곡 줄도 골르게 나오고 경행 줄 놓곡 .

108028 @ 혹시 집줄 할 때는 쫄른 줄도 잇고 진 줄도 잇긴 이신디 진 줄은 어떤 거고 쫄른 줄은 어떤 거짜?

108028 #1 쫄른 줄은 거 짚 짚이 직사각형으로 뵈거난 양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뵈난 쫄른 줄은 쫄른 모서리에 영 메는게 쫄른 줄이고 긴 줄은 길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나가는 거 어어 그게 긴 줄이고.

108029 @ 집줄 만들 때 사용 되는 연장들은 뭐가 이수과?

108029 #1 어 호랭이 여깃 말로 호랭인디 줄 이렇게.

108029 @ 감는 거 예?

108029 #1 응 감는 거 하면서 나가는 거 호랭이.

108029 @ 그다음은마씨?

108029 #1 그다음에 또 그 줄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또 그 이렇게 짜야 되지 않으짜? 짜면 그거 허는 거 보고 뒤치기.

108029 @ 예 뒤치기.

108029 #1 응 뒤치기는 거 뒤에 앉아서 계난, 그 줄을 헤여그넝에 그렇게 하젠 허민 거 줄을 뽑을 때는 줄 놀 때는 두 사람 이민 됩니다게. 줄 비는 사람 흥 사람 줄 비는 사람, 아무나도 돼 양. 여자도 돼고 남자도 돼고. 줄 노는 사람은 보통 나이든 노인들 남자들 여자들도 가끔 놓긴 험니다. 그민 대부분 남자가 줄을 놓아주곡 줄 비는 사람은, 비는 사람은 호랭이 심영 영영 허멍 나가는 사람 고라.

108029 @ 호랭이하고 뒤치기만 이시민 돼수과?

108029 #1 예, 뒤치기 계난 줄을 잇당 내여 노민은, 그자 내중엔 줄로 올리젠 허민 세 사람 네 사람이 돌아아자야 됩니다. 네 사람.

108029 @ 예 건 나중에 질문할게예?

108029 #1 예.

108030 @ 그다음엔 평고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과?

108030 #1 평고대? 아 건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서설 헤그넝에 서설 우에 집 갖으로 쪽 돌아가지고 덮으는 거. 건 딱루 만들어야돼.

108030 @ 따로 만들어마씨?

108030 #1 건 대나무.

108030 @ 대나무로예?

108030 #1 예 대무로도 만들곡 낭으로도 만들고.

108031 @ 그다음엔 그 집줄 멜 때 집줄 멜 때는 이제 그 서실허고 맹담, 서실은 어떤 걸 얘기하고, 맹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파?

108031 #1 맹담?

108031 @ 집줄 묶을 때 예 집줄, 집줄은 게민 이제 초집, 초, 세 비어다그넝 지붕 이을거잖아예?

108031 #1 응.

108031 @ 줄을 묶을 때 어디다 묶어수과?

108031 #1 거 서리 밑에다. 이렇게 여긴 말로 거왕이라고 헤가지고.

108031 @ 예.

108031 #1 거왕을 뻗니다게. 거왕을 메여그넝에 거기다가 줄 메는거라 양. 줄을 이렇게 뻗겨다가.

108031 @ 거왕에?

108031 #1 응 거왕에다 거왕을 또루 만들어 거 같이, 거왕은 거 옛날에는 못어 실때는 거왕은 거에 놔그넝에 그 새끼줄로 묶으든가 게민 거좁 오래가는거 어디 거산에 가면은 거 년추렌 행 양 그 저 도래, 골, 그걸로 허민 줌 오래가곡행 걸로 무꿍니다. 게난.

108031 @ 거 묶을 때 어디다 무끄는 거파?

108031 #1 서리에.

108031 @ 서리에 다가예.

108031 #1 응 서리에다 무꺼.

108031 @ 서리에다가.

108031 #1 서까래.

108031 @ 서리에다 묶는 거구나 예.

108031 #1 서리에다 무껍 줄은 그 거왕에다 무끄는 거.

108031 @ 무끄는 거고예?

108032 @ 그다음에는 그 집줄 쓰다가 막 남잖아예? 줄 쓰당 남으믄 걸 어디다 사용헤수과?

108032 #1 보통은 남질 안합니다 .줄은 우리 집 경우는 게난 거 갯수가 다이서 양 미리 줄을 만들젠 허면은 미리 그 갯수를 딱 셉니다. 아 요집은 줄이 멧 개, 찰른 줄이 멧 개, 긴 줄이 멧 개 헤그넝에 예를 들어 백 개민, 백 개다 헤그넝 딱 기억해놨당 줄 놀 때는 그 숫자에 맞게 대게 대부분.

108032 @ 하당 영 하당 길게 남으면 그걸 찢를 거잖아 그 남은 것들.

108032 #1 아 남은 거는 불 저 밥헤먹을 때.

108032 @ 불 지더부러마씨?

108032 #1 응 밥헤먹을 때 검질로.

108032 @ 혹시 저기 불스플 때 꼬라앉는 방식 같은 건 안만들어수과?

108032 #1 방식 고튼 건 그거 옛날 그 아까처럼 그 집 이러그넵에 줄 걸 남은 거 그 짤른 거 그걸로 만들어 그걸로 이렇게 동그략게 만들.

108032 @ 그 방~ .

108032 #1 대부분은 그걸로 만들어.

108032 @ 그 방식을 뭐렌 고라수과?

108032 #1 거 정젯방식.

108032 @ 정젯방식 예.

108032 #1 응 정젯방식 것 고라.

연장

108033 @ 그다음에는 예 그 집 지을 때 연장에 대해서 저가 질문해 볼게예? 연장들 예.

108033 #1 집 지을때?

108033 @ 예 집 짓는 연장에는 어떤어떤 종류들이 이수과?

108033 #1 그건 목수가 가져 잇는 거고, 거 집 지을 때 보통 연장은 포, 자귀, 끌, 대패, 굵은자, 떡통 그거주 뭐.

108033 @ 그른 그거 하나씩 다시 물어볼게예? 어 톱은 어 어떤어떤 톱이 이수과?

108033 #1 톱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앞뒤로 땡기는 거 양쪽에 놀 돋은 거.

108034 @ 예 그거를 뭐렌 무슨 톱이렌 혜수과?

108034 #1 양놀톱? 양놀베기 톱?

108034 @ 양놀베기 톱예.

108034 #1 응.

108034 @ 그.

108034 #1 양놀박이톱 게 양놀베기톱 예 거난 그 목시들 그 흔작 팽이 놀 돋은 톱도 있고, 양쪽으로 저 놀돋은 톱이 이어나수다게, 거난 목수들은 대게 보며는 흔 쪽은 나무를 가로 짜를 때 쓰는 거.

108034 @ 건 뭐렌 건 무슨톱이렌 혜수과?

108034 #1 것도 양놀 양놀베기 톱.

108034 @ 양놀베기톱예?

108034 #1 거 양놀베기 톱이엔 행 양작엔 톱 놀이 잇다그네 흔쪽은 나무를 가로 자를 때 쓰는 거 흔 쪽은 나무를 길게 쥘 때 쓰는 톱 거 양놀베기톱.

108034 @ 양놀베기 안헤그넵 한쪽만 놀 잇는 건 뭐렌 혜수과? 그냥 톱?

108034 #1 그냥 톱.

108034 @ 톱?

108034 #1 거 한쪽 만 잇는 거 무조건 가로로만 쥘르는 거.

108035 @ 못을 뽑을 때 쓰는 그건 뭐렌 고라수과?
 108035 #1 응?
 108035 @ 뽕 뽑을 때 사용하는 건.
 108035 #1 못빼기.
 108035 @ 못빼기렌 해수과?
 108035 #1 응 여긴 보통 못빼기.
 108036 @ 그다음엔 대패는 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
 108036 #1 대패는 여기 보통 거 두종류 뿔대패 뿔대패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침글자 그대로 뿔도져 가지고 건 두사람이 앉아서 땡겨다 낫다 하는 거.
 108036 @ 그다음은 다른 대패는?
 108036 #1 다른 대패는 거 그 기냥 그 그때는 뿔대패엔 허고 그때는 그자 뿔대패 말아 기자 뭐 목수 쓰는 거 기자 우에 대패? 우에대패엔 현건 거 단대패엔 하는 가 기자 목수 혼자만 쓰는 거.
 108037 @ 그다음엔 자 아까.
 108037 #1 곱은 자.
 108037 @ 곱은자 예? 자는 곱은자만 이서수과?
 108037 #1 곱은자.
 108037 @ 곱은자고예.
 108038 @그다음엔 먹통하고 먹줄은 뭐파?
 108038 #1 먹통하고 먹줄하고 먹줄은 먹 안에, 거 썰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은, 그 그 썰을 만들젠 허민, 것도 미녕썰로 미녕썰로 해그네 그자 길게 만들영, 거 나무를, 요나무는 꼬부라 저시니깐, 나무를 곧게 만들기 위해서, 저 쪽에서 양쪽으로 땡겨가지고 술을 탕기민 그 먹술 배끄티 잇는 건 짤라 대껴부들가 나무를 곧게 사 용할 때 드는 거.
 108039 @ 그다음엔 흑손이라는 게 잇고 흑받기란게 게 이섯잖아예? 흑받기, 흑손이 뭐과? 흑손.
 108039 #1 흑손이엔 현건 거 요즘 요세 곧드민, 뭐야 미장공덜 쓰는 건데, 그 흑손이엔 현건 그 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뭐 흑줄하는날 그 손으로만 볼르민 그 울통불통 현 거 그 흑손으로 다가 그 그 다음날 걸로 짹~짹~ 밀어그병에.
 108039 @ 그 흑손은 나무로 된 것도 잇고 췌로 된 것도 이수과?
 108039 #1 응 췌로 된 것도 잇고 나무로 된 것도 잇고.
 108039 @ 아 경헛구나에.
 108039 #1 보통 그때 나무로 췌 게 많안. 췌가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뭐 혼한 시절이 아니니까 옛날엔. 4.3사건 이전에는.
 108039 @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걸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9. 신앙

109001 @ 어 오늘은 예 그 신앙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어 먼저 예 그 가신에 대해가지고 말해줍서. 혹시 집안에 모시는 신은 이수과?

109001 #1 어서.

109001 @ 어서예? 혹시 그런 집안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혹시 수망리나 어디 이수과?

109001 #1 집이 집안에서 모시는 딴 어서.

109001 @ 그 집 그.

109001 #1 어디는 거주. 저 거지기, 동짓들 초일레나 동짓들에 허곡, 유월에 허곡, 이 저 분향이엔 헌딘. 일뤼에 강 일뤼에.

109001 #2 강. 강.

109001 @ 여기도 분향단 이수과?

109001 #1 어 단 이시난 그디들은 다 가.

109001 @ 다예? 삼신네도 가고예?

109001 #1 응 젊을 때 가났는디 이젠 안가.

109001 @ 안감수과?

109001 #1 응.

109002 @ 그다음엔 예 그 성주 즉 집안에서 모시는 그런 신은 이수과?

109002 #1 모시는 거 거시기 그런 신은 엇는디 집 지스며는 성주는 집마다 내기 때문에 우리도 성주는 내여서, 우리는 모시는 거시기는 엇는디 누게가 집지스민 성주내여.

109002 @ 성주 내는 방법을 좀 고라봅써 게문.

109002 #1 그 심방을 그 해당 빌어당 허면은, 저 무시거 저 도끼로 도끼로 아정 땡이명 상모루민 영헌디 상모루 베자 중모루 베자 무시거 베자 허난 이거 다 일르 명 그 도치루 영영 거치는 거라.

109002 @ 아 그게 성주내기.

109002 #2 그 재목을 베는 형시로.

109002 #1 이디 문장 베자 어디 지등 베자 무시거 말이 베가 그런 식으로 헤여, 문 건드령. 그거 허주.

109002 @ 아 그게 그 성주구나예.

109002 #1 응 그게 성주.

109002 @ 아 예 알았습니다.

109003 @ 그다음엔 문전제사는 어떻 지냄수과?

109003 #1 문 제예 ?

109003 @ 예.

109003 #1 제사 할 때 문제는 무시하게 메 거러 놓고, 무시거 영 헌거 출려농곡
행 문전에서 혜영 제사를 하는 거.

109003 #2 거 문제도 허는데 안허는데 이서.

109003 @ 삼춘은 험지예?

109003 #2 응 우린 허고.

109003 #1 문제 안허는 디가 어디서? 문제를 모르는 공사가 어디서 문제 안허
는 디 어서.

109003 #2 지네집이 안허는 거 답안게?

109003 #1 아니아니 문제 안허는 딴 엇곡 문제에 음식에 쟁을 안올리주.

109003 #2 아 경하는 거구나.

109003 #1 문제.

109003 @ 아 문제에 쟁을 안올령 저기.

109003 #1 응 밥만 올리우곡, 그 하간 거 떡 해논거영 저 거시기 무시거 제속인
디 무시거 젓갈인디 헌 거 다 올리고 술도 올리는 디, 문제 허는 디. 우리 친정에는
쟁을 안 올리는디. 이딘 혜여. 이딘 다 올려. 겨고 나 밥 올리면은 쟁을 올리게 뵈
겨주. 싸벤 음식도 곳국 잇당 경허죽

109004 @ 기지에 조왕에 대해 고라줍서 조왕.

109004 #1 조왕에는 그 저 그 집이 일년의 혼번 정월이나 나면 원 혼 번은 저
무시거 허는 겨주. 저 문전코시라고.

109004 @ 정제.

109004 #1 문전코시라고 허민 문전코시엔 허면 문전에 빌어당 심방허게 되면
조왕에도 거러 논 무시거 뵈 거러와났주.

109004 @ 조왕이 뭐파?

109004 #1 조왕이 부억에.

109004 #2 부억에.

109004 #1 밥 허는.

109004 @ 정제에 예?

109004 #1 정제, 솟덕에 무시거 영~.

109004 @ 아~ , 솟덕에.

109004 #1 응, 정제 솟덕에 무시거 와났주. 그런 거 험 땀, 그 조왕을 거느려.

109004 #2 조왕이시면 게 뭐.

109004 @ 그것도 험수과?

109004 #1 그것도 험 땀 혜여났주. 나는 이제 늙어부난 아무것도 안허는 옛날에
혜나서.

109005 @ 그다음엔 예 칠성에 대해 고라줍서.

109005 #1 칠성 어서.

109005 @ 그 그런.

109005 #1 늬의 집이 우린 어시난.

109005 @ 아 계난 늬의 집에.

109005 #1 늬의 집이 영 허는 거 보민 옛날에 이젠 이디 어신디 옛날에 보민 저 영~ 뒤에 이 뒤고라 안튀 허주. 안튀레 저 무시거 저 세 세무경 영~ 노람지 님은 거 영 새운디가 이서서. 거 집 마다 어서.

109005 #2 건디, 그것이 안칠성 박칠성 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안칠성 이라는 제사 헐 때 안내놔그녕에 저 그자 메밥그튼거 올리는데 박칠성이엔 헌건 밧긔데 밧긔데, 왜 저 비 안맞게 저 영행 뵐 만들어 제 할 땐 거기가그녕에.

109005 #1 아니우다게.

109005 #2 거 다 올린덴 나도 다 들어서. 계난 박칠성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 기 신을 위하는 거라 박칠성.

109005 @ 음~.

109005 #2 수망리에도 저 여운이 새집이여 어디는 거 다 이서낫주.

109005 #1 이서나긴 헛주.

109005 @ 아 네 알았습니다 예.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어 세시풍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먼저 정월이 이서예. 정월에, 어 정월 일월 일일 날 정월 명절에 대해가지뎡 고라줍서. 어떤 식으로 멩질 헤신지.

110001 #1 멩질에는 무시거게 제사허듯, 그 저 영운나시 뵐 메 다 헤놔그녕에 저 상에 다 출려놔 제허곡 문제는 문진 문저 제 헤도그녕 제라허게 제허고.

110001 #2 제라는 건 지어난거 똑같주.

110001 #1 제허는 거 밥해놓고 떡이멍 적갈이멍 그런 거 다 헤놔 거주 정월 초 하루 날은.

110001 @ 그 정월 초하루날 상에 올리는 거 생각나는거 흔 번 고라줘봅서.

110001 #1 신건 다 올리지. 과일 과일들 다 올리곡 적갈 뵐, 저 바닷케기멍 소고기멍 도야지지고기멍 또, 저 술도 술이멍 감주멍 그런 거 다 올려 떡도 다 지와, 작구떡 다.

110001 @ 그 떡 떡들은 어떤 종류 헤나수과?

110001 #1 저 어제 고른식으로 술펜, 절펜, 친떡 그런거게 헤그네 다 올리고 이신 거는 다 출령 올려.

110001 @ 아 떡 종류를 그렇게 막 여러개 헛구나예.

110001 #2 아 계 옛날에 오곡 떡이엔 해주게 다섯가지 다.

110001 #1 다 의미가 잇단거라. 들반착이, 들이나 인절미, 네비난인절미나. 옷트

레 구제비나.

110001 #2 게 오곡이 계난 다섯 가지 곡식이란 뜻이주게.

110001 #1 경헌 거 다해그네 정월에 과일도 이신거는 과일은 혼덴 하는거주. 다해영.

110002 @ 그다음 정월 대보름날은 뭘 해나수과?

110002 #1 아 우린 알지 못허는 디, 소문 들으메 대보름에 무신 어 저 무시거 보름에 무시거 혼덴 고라도 본베도 엇고 소문만 들언.

110002 #2 안혀난.

110002 #1 이렌 이젠 안헤여. 어디 육진 막 혼덴 허구라 만은.

110002 #2 아 육진 크게 허주.

110002 #1 안혀, 그런 건 소문만 들엇주. 나 흐는 거 본데 어서.

110003 @ 그, 그다음에는 어 그 방사와 액막이란 말이 잇는데 예 어 정월에 .

110003 #1 응 그런 때 정월 보름에 액막넨.

110003 @ 액막넨 해가지고.

110003 #1 응 그런 막 그런 소문만 들언. 우린 안헤. 흐는 거 본베도 엇곡 그런 소문은 서도 수망린 그런 거 안헤여.

110003 @ 안헤 예?

110003 #1 응 수망린 안혀난.

110003 @ 게도 뭘 헤먹기도 안헤봐수과?

110003 #1 무신 오곡밥 헤먹나 어떻헌다 헤도, 우리 그런 거는 안혀고, 저 동지 죽은 썬 먹주.

110003 @ 아 동짓날, 거는.

110003 #1 응 그런 건 헤도

110004 @ 어 여기는 포제 옛날에 헤낫지예?

110004 #1 응 옛날에 포제 허당 이젠 설러부릿주.

110004 #2 포제 헤낫주. 옛날 나도 제관 해나시난.

110004 #1 옛날에

110004 @ 아 그럼 제관 해나시난 예? 포제할 때 그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쭉~ 하다가그네 그 포제헛던 이야기를 좀 헤줍서.

110004 #2 거 이저부렁 뭘 나이 이제는 뭘.

110004 #1 포제는 헝게뉘며는 삼일 연석이라고, 이 저 집이 안이 집이 안녕, 제사 허는 사람이 집이 안녕, 그 제사 제사당에 강 제사허는디 자. 포제면 모이는 집을 멘들야. 포젤 멘들면 사일동안, 저 삼일동안 집이 오도 안혀곡, 그 밥을 그디 헤당 맥여. 제관들을.

계난 물도 그런디강 지러오곡 물이 잇곡 이 도야지 잡앙 하지 안헤수과? 도야지 잡앙 허민 그 놓는 그릇도 그 대로 새로 멘들앙 헤난거 닳아. 거난 하르방도 포제 헛 때 그 반찬해영 그디 그 포젯당에 그 포제허는디 모인디 아자강 그디서 모여 올

레, 올레 밧기던디 그 모인집 밧기딜 나오질 안헤나서.

110004 @ 그 모이는 집에는 혹시 이렇게 뭐 그 줄을 처나수과?

110004 #1 응.

110004 @ 그 줄을 뭐렌 고라수과?

110004 #1 솧.

110004 @ 솧?

110004 #1 솧미여 솧.

110004 @ 솧?

110004 #1 솧 메여. 솧메영 노끗으로 세로 꼬와.

110004 #2 이점, 여기 보면 저 저 얘기나쁜 여 딱~ 줄쳐그넝에 그디 막 뭐가 그런식이주게.

110004 @ 그걸 솧멘텐 허는 거과??

110004 #1 응 솧 솧 솧멘텐, 솧메며는 그거 어떻 부정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당 그런거 이시민 안들어가는 거주게.

110004 #2 건디 웨 수망리가 포젤 치와부랴느냐.

110004 @ 아 그건 잠깐만예 건 나중에 말씀드르고 예 그 솧을 메잖아예? 그 솧 메고 그다음엔 그 붉은 흑을 뿌리는 것도 이수과? 흑 뿌리는 거?

110004 #2 요세 안뿌려 봤는데?

110004 @ 기과? 그다음에 제관은 어떤 조건을 가정 제관을 정헤수과?

110004 #2 거 가문 그니까 여기 여기 김씨, 한씨 영 허른 씨가 한 사람씩.

110004 @ 한사람씩 보통 제관은 몇 명 정도 정헤나수과?

110004 #2 초환관, 어 어 저 삼한이고, 축 대 저 진예, 축, 예 안내난. 건, 지금은 저 그나네 그게 젤 문젠데 안내가, 그건 조끔 노즌사름 허는 때문에 그거 메우민 막 기분 영헤영 그건 심부름꾼이주게 지금 안내는.

110004 #1 심부름꾼이난.

110004 #2 심부름꾼인데 그거를 허른 막 기분 안헤젠 허주게.

110004 @ 거며는 아까 멘처음에 뭐지?

110004 #2 삼한.

110004 @ 삼한.

110004 #2 삼한이엔 헌건 초한, 아한, 종한, 그게 삼한이고 대축, 짐예.

110004 #1 짐예가 제일 좋은거주.

110004 #2 거 저 안내 허는 건 또 뭐엔 헤낫지만은 건 두 사름씩, 거난 그 사름은 그 사름 그 삼한을 영~ 모셔가곡, 영~ 모셔오곡 허야주게. 게난 비치럽다 하는 거주게.

110004 #1 경한 사름은 안헤젠 허는 거주 옛날은 말로 하여, 탈 많고.

110004 @ 그러며는 제관의 조건은 뭐여수과? 제관이 뵤젠하면.

110004 #2 아 겐 총회에서 선출이 뵤지.

110004 @ 총회에서 선출할 때 게니깐 뭐 예를 든다면 다른 마을에 보니깐 포제를 하는데 제관을 하젠 하면 결혼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이혼해서도 안되고.

110004 #2 아하 그런 조금 뭐 그런 것들 잇주.

110004 @ 대신 뭐 부정탄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여기도 그런 것들.

110004 #2 어어.

110004 #1 그런것들 조금 잇주게 똑 ㄱ튼거난.

110004 #2 거 건 집안에 과가 쪽 내려와네 그 집안에 자식이 많이 죽으나 뭐 좀 제워줘여.

110004 @ 그거를 누가 정해 누가 정해수과?

110004 #2 아 총회에서 허믄.

110004 @ 그 총회라는 건 마을 총회마씨?

110004 #2 그렇지.

110004 @ 아 마을총회에서예? 이게 언제 저기 언제 저기 언제부터 안해수과? 여기는.

110004 #2 몇 년돼야는 지, 안했는디 몰라 확실히 모르겠어.

110004 @ 오래돼수과?

110004 #2 오래됐주.

110004 @ 그 이유가 뭐고예?

110004 #2 이유가 뭐냐 그건 나가 아는데, 어떤하나하면 제관엔 해면 잡인이 못 들어가게 됐거든. 일절. 근데 그디 제관 보면 삼일동안 보면 심심하면 보면 화투들 치거든. 화투치는 젊은이 들이 와락 가락 했는데, 무조건 초한 했는 그 집은 타버렸다고, 이거 부정이 잇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어서전.

110004 #1 아 모여난 집 타비언 누게집 타수과?

110004 #2 이디 이디 순베네 아방네도, 모성아네도 타고, 누게네도 타볼고.

110004 #1 아~ 맞아.

110004 @ 여러 집이 탐니까?

110004 #2 아 게난 초원 헤난집 게니깐.

110004 #1 흔 디에.

110004 #2 그 흔꺼번에 탄게 아니고 그 헤난, 금년 헤난 초원 헤난 집이, 금년 불타고 또 내년 내년헤난 집이 불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110004 @ 거 이상하다예.

110004 #2 경헤가지고.

110004 #1 난 거 몰라.

110004 #2 거난 웨냐, 그, 저, 올케 금허는데 자기가 부정헌 사람이 거기 참석해 낫다 이거지 이야기가 이렇게 웬거지.

110004 #1 경헤가면 아무나 그런 헛젠도 안헤주.

110004 @ 집을 내줄수가 없잖아예?
110004 #2 아 계난 초원을 안혀켄 딱 자빠지니깐 다.
110004 #1 아 그거 보멍.
110004 #2 그거 보멍 초혼을 아무집안에도 초혼 안하켄 자빠져가니깐 어떠켓어?
110004 #1 나 수망리 살아도 모르켜.
110004 #2 아 내가 마트주.
110004 #1 아 경행 설러진거게
110004 #2 경행 설러진거라. 건디 이 수미아방네 저 거시기 허남준가 누게 살던 데도 불낫주만은 초원헤난데 안하켄헤부나네.
110005 @ 안택이라는 말은 들어 봐수과?
110005 #2 응?
110005 @ 안택.
110005 #1 안택?
110005 @ 정월 그 정월에 뭐 보름 지난 다음에 그 안택하는 거.
110005 #2 모르켜
110005 #1 들어보지 안년.
110005 @ 그 어 정월달 들어가지고 어 그 집을 자기네 집을 잘뵈게 헤가지고 저 모시는 제사마씨 안택.
110005 #1 토신제?
110005 @ 예.
110005 #1 아 그런 거 허는덴 헤여.
110005 #2 아 그거는 지금도 헤여.
110005 #1 토신제 허는디 헤.
110005 @ 아 지금 수망리 하는데도 이수과?
110005 #2 응.
110005 @ 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 것도 신방 빌려당마씨?
110005 #1 아니 그거는 저 무시거 제관 제관 빌어당 토신제 허곡, 또 그 안혀는던 저 문전코시라고, 올레 올레코시시렌 헤그네 나그네 빌어다그네 그 이제 정월날 거아니라 그 해를 저 헤낭 하단거 잘 뵈고 건강하게 헤줍센 경행 하는 거.
110005 @ 맞수다 맞수다.
110005 #1 그런 거 허 올레코시.
110005 @ 올레코시를 예.
110005 #1 올레코시엔도 허고 문전코신엔도 허고.
110005 @ 아 이 안택을 예?
110005 #1 이 초례를 올레코시엔도 허고 문전코신엔도 허곡 경하는 거라.
110005 @ 거난 그 해에 뭐 농사를 잘 뵈게 헤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110005 #1 응 그거 헤여 그런 거 허곡 사람 다 편안하게 허곡.

110005 @ 거난 맞수다.

110005 #1 응 그거 행 비는 거 헌거 다 밧짱.

110006 @ 그 다음에는 보리밭 밟기, 정월 뒤면 그때 보리밭을 잘 안밟은덴 헛
잖아예? 여기는 예 근데 그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일제 때 저 아이들 안티 보리
밭부렌 헛덴 하명예?

110006 #2 응.

110006 @ 어떤 식으로 밟봐나수과?

110006 #2 거 아이들은 야 즐지서그넝에 앞에 사 앞에, 영~ 등따리 손 집어그
넝에, 저 그자 아이덜 허면 앞에놈 뛰어가면 그자 즐음에 메영 옛사 옛사 뛰멍 블
밧지뒤 경허지 거.

110006 @ 경헛구나예.

110007 @ 그다음엔 그 걸궁이 여기 마을엔 걸궁이 이서낫덴 헤신디 예 걸궁 헛
던거 기억나는 대로 고라줍서.

110007 #1 걸궁은 옛날에 그거는 웨정때라?

110007 #2 해방 후엔데 그것이 어떻게 똬냐하믄, 수망리엔 우리 백부님이 웨정
일본 웨정 때 일본 강 살았는데, 거기서 돈을 모금헌거라. 모금 허여네 이자 그 나
팔, 북 이거 저거 하튼 그디 필요한 거 전부 사네. 여기 기증을 헛거든. 기증을 헛
는디, 딱 해방을 똬니칸 들어왔어. 공로가 잇다고 해서 이젠 그대로 그 해에 당장
오니까, 이장 썩우고, 그대로 그해에 걸궁하고, 막 헤네 걸궁허면 이 집안 우리 집
거난, 집집마다 다 돌앗주. 이집에 오믄 우선 여기 주인이 막 똬 갖다 밧지고, 그
사람신디 막 헤낫주. 거면 막 돌아그네 올케 저 막 헤영 춤추고.

110007 #1 막 춤추고 경헤여.

110007 #2 춤추고 벨디 왕 이 방안 다 돌아다니주게.

110007 #1 똥똥똥똥똥 막 춤추멍 하르방 통대 하르방 출령 허는 사름, 꿩기
똥으는 것에 꿩 허는 사름, 무시거 막 출령 이거 저거 행 출령 ,걸궁이라고 들락 헛
집마다 빙빙 돌아낫주게.

110007 @ 그걸 언제까지 헤수과?

110007 #2 아, 흐 번.

110007 #1 흐 번.

110007 @ 아 흐 번.

110007 #2 흐 번 허 거난 웨 언제 꺼지 못헛냐, 그추록 헤네 45년 도 해방똬엇
는디 46년대 경 헤시니칸 46년 그해 아 듯헤에 헛구나 헛는데

110007 #1 4.3사건 난리주엇주게.

110007 #2 저 47년도 여기가 제주도가 어지렁 헛거든. 경헤네 거 그걸 헛 정신
이 어디서. 젊은 사름은 피하기가 바똥는디. 헛 수가 없엇지 건디 48년 예는 똬 이
디똬디 썩 다, 불똥져불고.

110007 #1 이디 흥여그네 기냥 텔레비도 나오는 거 보민, 걸궁추룩 출령 막 출령 북 뚜드리멍 무시거 뭐 췌지 두들리고 막 해난.

110007 #2 거난에 온 그때 사용 해난 용구를 누가 어떻게 처리 해 버렸는지도 몰라.

110007 #1 지국에 문 간서부러주 무신.

110007 #2 밤에 그때 저디 부락 그 사무봐 난 것도 어디 강 보민 이저부러텐 현 말이 이서. 그든 거 누가 발 누가 해가지고 뭐 해그넵에.

110007 #1 사람안티 카비수다게. 예, 하영 곳지답서. 불스라비영 행 칸거라.

110007 #2 아, 불스라비영 카분 것도 잇곡, 그테론 그때 해네 그 저.

110007 #1 시국나네 집이멍 무시거 모딱 부떠부난 그런 거 농음지멍 어디 아무 것도 어시난 모딱 칸겨우다. 다 카비수다. 쓸사람도 어서불고 사람 막 하영 죽어비 언 수망리.

110008 @ 그 다음에는 예 어 그 정월에는 그 입춘하고 우수가 이신디예 입춘에는 어뎡 해수과?

110008 #1 입춘에는 남자들은 가고 여자들은 올레 밧기데 안나가.

110008 @ 맞수다 예.

110008 #1 경헨, 찰.

110008 @ 지금도 경헨수과?

110008 #1 지금들은 대게 경 안혀여. 그때추룩 안혀여. 시간 언마니 든다 막 시간만 보젠허곡 옛날은.

110008 #2 요센 경로당 이시난 경로당에 막모여.

110008 @ 게든 그때 뭐 입춘 대길이니 해가지고 저기 대문에 붙이고도 해나수과?

110008 #1 아니 그런 거 엇고.

110008 #2 붙이는 사름도 잇주. 지금도 붙이는데 이서.

110008 #1 몰라, 난 아직거정 붙이지 안현 살아부난.

110008 #2 지금도 붙여 저 그야 옛날에 그 학문 서당에 당여난 사름들은 거의 붙여. 그저 아는 건 디 거 안혀는 사름들은.

110008 @ 응 우수에는 뭐 안해수과?

110008 #1 우수가 무시거라? 나 것도 몰라.

110008 @ 절기.

110008 #2 우수 나무 절기 닳은거, 우수 저 우수가 정월 중.

110008 #1 그런 거 어서서 우수여 무시거여.

110008 #2 우수, 경칩 다 잇주게.

110008 #1 어서 새철에나 여자들 못나가게 하고.

110008 #2 요즘.

110008 #1 동지엔 죽썩 먹고.

110008 @ 우수는 예 양력으로 2월 19일 인데 예 어 눈이 녹아가지고 어 비나 물이 돼어가지고 곧 날씨가 풀린다 라는 그런 의미의 날이거든마씨.

110008 #1 아 그런 것 혜영 절기루 그런 말은 혜도 무시거 허는 양은 어서.

2월

110009 @ 거난예, 어 그다음엔 2월에 넘어갈게 예. 어 2월에 2월에는 그 연등 제 여긴 안혜나수과?

110009 #1 안혜 안혜연.

110009 @ 안혜낫덴 헛잖아 예 바다가 아니난 예.

110009 #1 바다가 아니난 엇주.

110010 @ 그다음 그 경칩이나 춘분이 오는데 그때 뭐혜나수과? 경칩.

110010 #1 그런 것도.

110010 #2 예 그런 거 별로 안혜.

110010 #1 우리 둘이 몰라.

110010 @ 혹시 경칩에 어 경칩에 무슨 일을 한다 이런 말은 안들어 봐수과?

110010 #1 나는 못 들언.

110010 #2 그런 거 어서나서.

110010 #1 절기들은 어떻게끔 갖는 것 들도 어떻게끔 건지 나 몰라.

110010 @ 그 개구리가 경칩엔 개구리가 깨어난덴 혜잖아 예?

110010 #1 게난 그런 말은 들어도 몰라 무신 십년이면 강산도 변헌다 그런 말 들어도 몰라 어떻게 하는디 몰라.

3월

110011 @ 삼월엔 이제 한식이 잇잖아예 한식.

110011 #1 한식 옛날엔 혜낫주 웨정 때.

110011 @ 겨난 한식 어 웨정 때 혜나수과?

110011 #1 웨정 뎀 옛날이나네, 그때 웨정 때 아니라 한식, 웨정 때 뵈 때 설러 못허게 혜신가?

110011 #2 어디?

110011 #1 아니 저 한식이 웨정 때 못 허게 혜나서. 못 허게 안햏주. 그때 허당 웨정 때부터 설러 거 답아.

110011 #2 웨정 때 저 정월명질도 양력으로 답달혜네 양력으로 혜나서. 음력으로 못허게혜.

110011 @ 예 원래 한식은 4월 6일날 음력이다. 예 음력이라예.

110011 #2 응.

110011 @ 그때는 이제 그 .

110011 #1 옛날에 햏쓸 혜나서.

110011 #2 한식은 저 음력으로 2월 달이주.
 110011 #1 웨정 때는 해난 거 닳다.
 110011 @ 예 경될거우다.
 110011 #1 못허게 해난해서 웨정 때 한식.
 110011 @ 케민 그 한식날 저기 어 조상 무덤에 가그네 제지내거나 절하거나도 안해수과?
 110011 #1 그런 거 안혀.
 110011 #2 한식이 4월 5일이나 4일 5일.
 110011 @ 예 4월 5일 예.
 110011 #1 5월 5이날 멩질 헛주.
 110011 #2 아니 5월 멩질은 안허고 단오 말고 한식이 그 양력으로.
 110011 @ 4월5일이나 4월 6일쯤마씨.
 110011 #2 아 거난 입추 입춘이 4월 5일 웨곡 한식은 4월 6일 될 때가.
 110011 @ 아니 입춘은 2월 4일이나 2월 5일 웨고 예.
 110011 #1 입춘은 저 새철아니과?
 110011 #2 입춘이 아니고 식목일.
 110011 @ 예 식목일이 4월 5일이난 거의 그때 한식하고 겹쳐예.
 110011 #1 해난 건 알아지는다.
 110011 #2 식목일 허고 한식 허고 겹쳐지는구나.
 110012 @ 예 맞수다. 예 그다음 청명이나 곡우에 대해 들어봐수과?
 110012 #1 아 청명이엔 헌건 청명 날은 뭐 어디 산에 강 그 산에 무신 태가 잘 못웨영 혹, 태 안 입은 디 이시면 그런 것도 입지고, 그런 날이 청명이엔 좋은 날이엔 헤그네.
 110012 @ 맞수다.
 110012 #1 응 그런 거 헤.
 110012 @ 그거 해낫지예?
 110012 #1 응.

4월

110013 @ 그다음엔 어 4월에 들어가지고 이건 4월 초파일은 무신 날이파?
 110013 #1 초파일은 무시거게?
 110013 #2 저 저기아니?
 110013 @ 예 이건 지금 음력으로 물어보는 거라 예 4월 초파일날 절에 감수과?
 110013 #1 아니 난 절에 안텅겨 멩기는 사름은 다 가.
 110013 @ 아 어디?
 110013 #2 4월 초파일 날은 다들 절간에 가는 다가서.
 110013 #1 다가.

110013 @ 아 아무데도 안다넘수과?

110013 #1 난 안가.

110013 @ 교회도 안다니고 예?

110013 #1 응 교회도 아니 믿고, 아무디도 안다녀.

110013 #2 4월 초파일 되면 서귀포 그 저 일호광장 째은 거기 인과 훨씬 해주.

110013 #1 절 믿는다.

110013 @ 예 막 전날 많아 예.

110013 #1 절 믿는 사람은 믿는다 고싸 고라 맞다 젊을 때는 고 저 무시거 거다 해논거 앓단 저 밀감이명 무시거 명 잘 돼줍센 맞젠 헛거 거 올레코시 그거 뿐 이자락.

110014 @ 예 경헛구나예 어 그 4월에는 절기로는 입하하고 소만이라고 잇는데 혹시 그건 들어 봐수과? 입하, 소만.

110014 #1 몰라.

110014 @ 몰라예?

5월

110015 @ 그다음엔 5월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명절 중에서 4대 명절 중에 하나라 예 5월 단오가 예?

110015 #1 해낫주게 옛날에.

110015 @ 5월 단오는 옛날에 어떻게나수과? 생각나는 대로 고라줍서.

110015 #1 그것도게 정월 명질 허듯 헤영 저 떡 해농곡 메 해농곡 다 헤여, 그 런 거 고트 정월명질이랑 똑고트게 해낫주 이젠 8월 멍질 허곡 정월 멍질만 헤는 다.

110015 @ 게 안하는데 예.

110015 #1 응 떠러둬에 멍질하는 건 꼭 ㄹ타 꼭 ㄹ트는디 안헤여. 이젠 5월 명질 안혀고 한식 안혀고 8월 멍질하곡 정월 멍질만 헤져.

110016 @ 그 5월 단오명절도 잇엇지만 또 5월에는 망중하고 하지라는 절기가 또 이서예.

110016 #1 아 그런 것에도 절기여 헤여그넝 절기 딱랑 하간 거 안헤져. 약간 거 절기가 어떻 돌아가는거 안 뿐이주 그런 것에 무시거 허든 안혀고, 겨민 그 절기 딱라그넝에 농사 하는 거 거 어느 때 돼문 아무거 헤살로구나 아무 절기엔 아무거 로구나 헛쓸 경돼부난 그런 계산만 허는 거.

110016 @ 그때 농사 지을 때 뭐 이때 되면 뭐 이제 콩을 간다든가 이런 건 어 서수과?

110016 #1 게난 그런 절기를 생각 헛거.

110016 @ 거 생각하명 예.

110016 #1 응 절기 생각 행 어느 때가 저 무시거 하지여 초복여 말복이여 헤가

민 그 요세허는 거.

110016 #2 그때는 게 조금 생각이 낫는데 요새는 우리 그런 거 안혀니깐. 아 어느 때 넘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

110016 @ 맞아 예.

110016 #1 농서를 헐 때 그 절기를 때 쓰는 거라.

110016 #2 이제 절기도 몰라 이젠 이저부렁 헤나서 그거 우리가 그거에 따라그네 문 해야 생각이 나고 허지 요새 그런 걸 안헤노니깐.

110016 #1 초복이여 중복이여 말복이여 헐거는 어느 때 돼민 문 허곡 시작허곡 생각만 행 살았지.

110016 @ 계난 보리 씨 뿌릴 때 보리 씨를 언제 뿌려수과? 보리씨.

110016 #1 보리씨가 음력 9월.

110016 @ 음력 9월 예?

110016 #1 음력 동짓달.

110016 #2 구월.

110016 @ 산디는마씨.

110016 #1 응?

110016 @ 산디 산디.

110016 #1 산디는 음력 스월 달이라실거라.

110016 @ 혹시 음력 4월 그때가 혹시 망종이나 하지나 그때 아니여수과?

110016 #1 아니 하지는 일르고 망종은 보리고슬 망종 넘고.

110016 #2 하지가 저 6월 절 보름 전엔데 하지 저 하지 넘어야 아 겐디 산디는.

110016 #1 망종.

110016 #2 하지 전이 헤실거라.

110016 #1 스월 날 백꼭새 울어가민 허는 거 백꼭새 울어가민 허는 거.

110016 @ 그 백꼭새 우는게 망종일거 닳으과? 하지일거 닳을과?? 하지 전?

110016 #1 아 망종이 넘어.

110016 @ 넘어.

110016 #1 우 저 산디끈으러 저 보리끄르에 간 니을 지나네 산디

110016 #2 산디 끄르 산디 지금 산디 끄르를 보르는 게 아니라 산디 볼릴 때를 말하는 거 아니라.

110016 #1 망종 전이 산디 흐는 거 닳아.

110016 @ 망종 전에?

110016 #1 응.

110016 #2 산디는 이 저 조 ㄱ튼거 보다 헐신 빨리 해주게

110016 #1 제기흐는 거. 계난 그 백꼭새 나민 때 뵈젠 곱는건디

110016 #2 헐신 빨리허주

110016 #1 옛날에 좋은 밭이는 그 보리 비어동 그 거디에도 산디 헐 수가 잇는디.

110016 #2 저 조그튼건 저 유월절 가까워야 하는데 하지 넘어 하는데 산디는 하지 전에 해주.

110016 #1 망종 돼며는 보리를.

110016 @ 응. 하지 전에?

110016 #1 응 하지 전에 허곡 산디는 망종 전이 불러.

110016 @ 망종 전에.

110016 #1 망종 전이 불르곡, 망종이 되면 못 먹을 곡석이 었다는 못 빌 보리가 었다. 망종 돼며는 못 빌 보리가 었다. 보리 다 비게 웬가 허는 거. 거난 조금 망종 전이 산디 불린 거 닷아 뻐꼭새 그 조 불리는 건 유월절이 거 그자 보더가고.

110016 @ 뻐꼭새.

110016 #1 하지 넘으며는 산디 그튼건 불러 가는거라 .

110016 @ 뻐꼭새 올면 씨뿌린다 예 저 산디 씨 뿌린다.

110016 #1 응 뻐꼭새 올며는.

110016 @ 게 그때도 뻐꼭이렌 혜수과?

110016 #1 뻐꼭이엔 고랏주게 뻐꼭 뻐꼭 혜여.

110016 #2 거 아 거 뻐꼭 뻐꼭 허난 뻐꼭이엔 그 이름은.

110016 #1 뻐꼭이엔 떡국새엔사 그라신디 뻐꼭뻐꼭 허난 떡국새엔 그라실거 닷아. 몰라 어떻사 혜신디. 떡국새여 뻐꼭 새여 허난 떡국새 닷아. 떡국 떡국 떡국새 떡국새 닷다. 뻐꼭이가 아니고 떡국새 .

110016 @ 떡국새예.

110016 #1 응.

6월

110017 @ 그다음엔 그 유월이 되면 저 득잡아 먹는 날 잇잖아예?

110017 #1 응 유월 쓰무날.

110017 @ 유월 쓰무날 예?

110017 #1 응.

110017 @ 그날을 뭐렌 그라수과?

110017 #1 6월 쓰무날 돼민 득 잡아 먹넨 경 그랏주게 무신.

110017 @ 그날을 복날이라든가 이런 날이렌 곳지 안혜수과?

110017 #1 무신 곳든 안혀고 유월 쓰무날 득 잡아 먹넨 기자 경 그란.

110017 @ 경행 득 잡아네 먹어수과?

110017 #1 먹엇주게 이젠 요센 그런거 저런거 안헌디, 옛날은 득 질를 때난 똑 그때는 잡양 먹엇는디, 이제는 사명도 먹는 사람은 먹는디, 우리 이젠 그거저거 안행 살아. 먹는 것도 설러불고, 기자 당하민 떡곡, 주민 떡곡, 안주민 말곡, 경행 살

암주게.

110017 @ 그민 저기 그 딸나 아들들 득 잡아먹는 날이렌 해가지고 저기 득 상 안와마씨.

110017 #1 아니 딸이나 아들들은 어느 날 오는 고 허민,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어머니날 그런 거 벳긴.

110017 #2 거 득 잡아먹는 날 가네들은 생각도 안햐실거라 요세사는.

110017 #1 우리사 그 생각 햐 허주만은.

110017 #2 요세 가네들은 생각도 안햐.

110017 #1 득들은 아무때나 그냥 먹으난게.

110017 @ 맞수다

110017 #1 응 먹으난 그거 중허게 생각 안햐.

110017 #2 아 그런 생각을 안햐.

110017 #1 어멍 아방 생일에나, 어머니날에나, 그런,거 생각허주. 득 잡아먹는 것에 생각 윈 안햐여.

110018 @ 그민 예 그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말은 들어 봤잖아 예?

110018 #1 응 그런 절기사 잇주게.

110018 @ 그 초복, 중복, 말복엔 뭐 햐수과? 삼복에.

110018 #1 흐른 무시거햐. 그자 초복 돼민은 무시거 햐 누구나 말복 돼민 무시거 끝났구나, 그런거 생각만 햐 살앗주 그런 거 어서.

110019 @ 기구나 그다음에 혹시 소서나 대서에는 뭐햐나수과?

110019 #1 그 소설이여 대설이여 그런 말막 들엇주.

110019 #2 소설허곡 소서하고 뜰려.

110019 @ 소서, 대서.

110019 #1 말만 들엇주 우린 흐는 거 어서.

110019 @ 소서나 대서 그거는 겐 무슨 날이렌 햐 만들 어수과?

110019 #1 그것도 절기 아니?

110019 @ 예 절긴데.

110019 #2 아 절긴디 우리가 저거 나가 소서가.

110019 #1 우리 절기가 얼마나 돌아갓구나 그런 것만 알안.

110019 #2 그 소서가 그 저 머냐면 종이냐 저 거시기냐주 그게.

110019 @ 얼마나 더운지 소서면 답기 시작할 때고 뭐 이제.

110019 #1 그런 게 살만히 사라.

110019 @ 예.

110019 #2 케난 저것이 소서민, 저 오월 중순 거면 두 유월절 다시하른 유월절 일일 식이주 것도 보름에 한 번씩이 거든 그게 딱 보민 그런 절기주게.

110019 @ 예 맞수다.

110019 #1 그런 절기사 경 생각만 햐사 살주.

110019 #2 딱 보름에 한 번씩이난 건디 그걸 영행 관심에 똥 헤지민은 난 윈 그런 거에 관심이 안뒤지기 때문 어느 때가 소선지 어느 때가 대선지 하나도 모르켜.

110019 @ 예.

110019 #1 농서 저 허고 끝나고 그런 거 헐 때 제엇주 이젠 윈.

7월

110020 @ 그럼 칠월에 들어가지고 예 어 칠월 칠석엔 뉘헤나수과?

110019 #1 칠월칠석에도 절간가는 사람 막 하곡 옛날에 저 칠월 칠석에는 임금 님 걸아간 날이엔 행 꼭 그날에 비 혼방울이라도 헌텐 경 곳은 거 들언.

110019 @ 혹시 견우와 직녀라는 말은 안들어봐수과?

110019 #1 나 몰으켜.

110019 #2 거 우리 듣긴 허는디 거 내용을 자세한 몰라 듣긴 듣주.

110021 @ 백중뎌 뉘헤 나수과?

110021 #1 백중 때야 이제난 하주 저기 소 질를 때는 막 출렁 백중상 헤먹어.

110021 #2 백중 때는 백중 때는 그 전엔 헤낫주 지금도 흐는 사람 이서.

110021 #1 득 잡고.

110021 @ 어떻헤나수과?

110021 #1 득 잡아 놓고, 떡 해놓고 밥해 놓고 헤그넝에 영 무시거 흐는디가 잇주. 백중동산이라고 백중동산에 좋은 동산에 강 저 영 무시거 케우려도그네 먹영 오라낫주.

110021 #2 겨난 옛날 그전에 백중이엔 허면 거 아시날 전날에 듯날 새벽똥영 왔는데 이제는 다들 목장에 목장에 강 쉼을 위한 겨난 겨난 목장에 강 허는 거게.

110021 #1 그 쉼 질를 때 쉼질를 때만 간 집마다 헤낫주.

110021 #2 것이 칠월 열나흘 날 헤낫나.

110021 #1 예 칠월 열나흘 날.

110021 #2 견데 이제는 그 새벽당일에 허는 때문 듯날 행, 칠월 보름 날들 목장에 강 다헤.

110021 @ 백중동산은 어디수과?

110021 #1 수망리는 수망리 계난 그디 아무나 안형 이녁 가는디 만씩 다 뜯나. 우런 난 친정이 현칩인디, 저 쉼기오름이엔 헌디, 저 오름 잇주. 오름으로 흐썰 영 채 못간디 오름 못간디 오름 못간디 웨 영 허노난 흐썰 흐썰 모도룩한 동산이 이서 그디 가 낫주.

110021 #2 집안 만씩, 집안 만씩 정헤그넝 겨난에.

110021 #1 이녁 집안 만씩.

110021 #2 혼군대가 딱 정헤진게 아니고.

110021 #1 집안 만씩 행 가면, 득 잡은 거멍 떡헌디멍 가민, 옛날에 다 큰 거

베와냥 이래 문 베와냥, 득이멍 퀘기멍 딱딱 착착 지지멍 문 갈라 먹고, 갈랑 집들에 문 놓고 그릇에 난 보내고, 이젠 소 안질른딘 안햐주게.

110021 #2 지금 저 마을지 만들젠 허나네, 수망 포젯단 포젯단만 고라도 포젯단 저 아래가든 설사주게 아무것도 어서 문딱 치아부난.

110021 @ 치아부난 예 계난예 맞다.

110021 #2 계난 이 포젯단 이거 이제 완전히 제 해난 단이 잇주게.

110021 #1 그 맛, 이제 누게 아람수과?

110021 #2 아 거 부락거주게. 부락건디 거 지금 그디 그전에 그 저 돌작업 허는 사름덜 사무실 지스멍 싹 치와부러서. 거 뵈디 몰라. 기자 언제 치와분 거주게. 거 난 강보난 아무것도 어시난 뵈.

110021 #1 포제 허는다.

110021 #2 누가사 치와브신디.

110022 @ 그디 옛날에는 백중에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낮에는 그 음식들 싸그네 혹시 모래 찜질허레 가고 안해나수과? 바당에.

110022 #1 아 백중날 물맞으레 가는 거 허난.

110022 @ 해낮지에 여기서 수망리선 어디 가나수과?

110022 #1 어디 저 소문 들은 소리주 만은, 난 갈 때 서귀포 가냏구나만은, 어디 선홀이엔 헌디 잇젠 허멍 가나서 옛날은.

110022 @ 선홀에 예?

110022 #1 응 옛날 어른들 우리 보다 웃대 어른들은 선홀 가나고 우린 서귀포 정방 폭폰디 어디 그디 강 맞아나고 켜디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안해.

110023 @ 그디 강보면 막 사람들 정방폭포 옆에 아니면 소정방 가실 건디 엄청 사람들 많아 실 건디 물 맞아 저 마시?

110023 #1 경 해도 맞아져 다 허 경들 가냏주.

110023 @ 건테 진짜 물맞으른 하간디 아픈 거 나사 나수과?

110023 #1 어떻 사난디 경헌텐 허난 그때 뿐이고 용 헌텐 허난 가냏주 이젠 물도 아니맞고 하는거 해나산디 아픔도 몰라, 물 맞인 사람도 아픔도 허곡 죽음 도 허곡.

110023 #2 용 헌텐 허난.

110024 @ 그면 이제 칠월에 가면 아까 유월에 보니 막 삼복이서그네 뵈 소서니 대서니 어 소복, 중복, 말복 막 이렇게 헛는데, 칠월에 가면 바로 입추가 이서예? 입추. 가을에 들어서는 예 입추나 소서에는 뵈혜수과?

110024 #1 그 곳기로는 처서를 넘으면 그 검질을 옛날에 막 뵈주게, 처서 넘으면 검 검질도 올멍 돌아간텐 그 두루 난텐 해도.

110024 @ 무사.

110024 #1 그 두루 난텐 철이 넘어 갓다 이말이주게. 올멍 돌아가미랑 마랑 경해도 나, 경해도 나. 경고라.

8월

110025 @ 거면 팔월로, 팔월로 넘어가게 예 지금 팔월이잖아 예? 어 팔월 하면 바로 벌초 하는 날이 이수과?

110025 #1 벌초날 지정헌날 팔 음력으로 팔월 초하루.

110025 #2 아 건, 집안 마다 뜰려.

110025 @ 아, 건 음력으로?

110025 #2 건, 집안 마다 달라.

110025 #1 응 초하루디 이젠 바짜정 공휴일날만 허난 초하루가 예.

110025 #2 이젠 초하루렌헨 무조건 거의 공일날 웨야 허주. 거난 자식들 자손들 오기엔.

110025 #1 공휴 날 헤야 문중벌초렌 헨거, 헨솔씩 헨건 벌춘 지네만씩 허였는디, 문중 벌초는 똑 초하루 웨민 헨는디, 이젠 다 직장이라 노난 ㄹ 8월절은 들어나 허면 공일날 아무시때라도.

110025 #2 건디 우리도 지금도 문중벌초 다니는데 지금 저 이 젊은 사위덜 문 혼빳디 치와다그네게 저 거시기엔 놓아불켄들.

110025 @ 이 저기 삼춘넨 벌초 몇군데 험수과?

110025 #2 우린 가족 공동묘지가 이시니깐.

110025 #1 아 짝 다 모여오랑 다 혼빳디 모영.

110025 @ 아 ㄹ치들 예.

110025 #1 다 ㄹ치.

110025 #2 거난 우린 가족 공동 묘지가 이스니까 그.

110025 #1 다 이묘혜왕.

110025 #2 그디는 문제가 벌초 그 거시기 문중벌초 허는 날, 문중 벌초허민 오전에 끝나니깐, 가족 공동묘지 이녁 집에 이녁 빳디 와그넹에 하믄, 이제 기계 헤그네 확,헤그넹에 그날 후손 아이들 전부 오렌 헤그넹에 정심왕 떡곡.

110025 #1 문시딱 집이 이신 아이들 꼬장 문딱 정심 강 먹어.

110025 #2 계난에.

110025 @ 여자들도 가그네예?

110025 #1 응 나도 집이시민 벌초 다혜오랑 저기가게 오라 시끄래 오민 가는 거 먹으레.

110025 #2 그 우리 자식들이 그게 내 아까워비어 양, 무조건 정월 초하루씩 웨면 돈 십만원씩 내놓거든. 그걸 운영 행 나가는거라. 그니까 아 야야 요것덜 잘험다 하는 짓이주게.

110025 #1 그 돈으로 다 사먹어.

110025 #2 거난 늬의 집안이 허는 그런 말 ㄹ르민, 늬의 집안은 당초 그런 사름이 엇주.

110025 #1 오월 오월에 오월 무신 단오에도 그 벌초 오월땡, 오월 때도 저 무시 거 허주 봄 벌초. 두 번을 허는디, 두 번 다 먹으레 돌양가. 나도 집이 2만 이시민 시끄레오니깐 가는 거. 우린 경혜여. 벌초 허는데 여러빚디 안허난 혼 밧디 싹 허난 제기 헤치우주게.

110025 #2 아 난 게 챗번에 걸 안 내뵈주게. 안 내 영 헤보니까 안 냐터라고. 게 멘날 먹으렌 쫓아 텡기고 가이는 나도 진짜 나이들언.

110025 #1 건디 이 얘기는.

110025 #2 내렌 내렌 말 안헤주게.

110025 #1 이 얘기들 안오라난 때는 어떻 헤신 궁 허민, 정심을 나가 너랑 다 헤가. 나 혼자만 다 헤가난, 나가 못헤가난, 그 정심 허는 거를 아들 안티레 위임허 게 뵈난, 우리 시아즈방들은 정심 혼 때를 안헤뵈 넘어가게 뵈난, 우리 아들만 또 흐렌도 안허곡. 그런 이제 모여 난, 오다가 먹는 식을 허는 거라. 그추록 허난 이젠 잘 먹고 잘허는 이종애가 문 몽그라지만, 난 다른 사름들은 잘 살거주. 나만 다 힘 들언, 정심헤영 짚어정 가는 건, 벌초허는 디 먼디. 옛날인 무신 차가 이시카. 하르 방네 거 대기 강 얘기들도 강 허민, 이제는 난 벌초는 안헤 뵈주. 여자들도 허는디 이서도. 정심 출령 가고 허당보민 안헐는디, 나 못허게 뵈가난 이제 돈 모아 놔네 오다가그뵈 먹는거 불령 먹는거 허라 하난 이젠 ,강 먹음만 하네 이젠 사는디. 혼밧 디 가부난 벌초허민 힘들긴 아네주게. 모다들영 다 오랑 헤불민.

110025 #2 바로 요기난.

110025 @ 삼춘 그문 벌초허레 갈 때 그거 음식 찰령 갈 때 몇 사름 분을 행 가수과?

110025 #1 몇사름 분 알아 지크라. 집이 싹기만 허난. 문중 벌초 출려 갈 땡 그 때 몇놈이 헤고 30명이나치 행 갖주. 강 족아네 50명도 더 들어신가.

110025 #2 몰라 .

110025 #1 경 출령.

110025 @ 밥을 게 어떻 헤마씨 그 50명 분 밥을 밥 솟.

110025 #1 솟 석 현 밥은 확 나가 헐는디, 그 이가지에서 허는 건 경 늘양 나가 헤나난 곳는디 문중벌초엔 현건 제주시레 가나서 출려. 경행 간 때 그 사름이 몰란 다른디서 출려 간덴 허난 왕창 가부난, 그 가지가 문중벌초 김씨.

110025 #2 문중벌초 허는디가 어디냐 허면 덕천이주게. 우리가 글로 넘어오니까 넘어오난 덕천 그 목장 안엔데.

110025 #1 거난 그 안에서 출린게 그 시절에 뵈인궁 허,민 그때 이제 이추록 출 리지도 아헐주게. 도야지고기여 헤사 행 솟양, 어떻사 헤저신디. 허곡 문어 2튼거 흐썩 그사 친기 허곡 윈 김치2튼건 물론이고 흐썩썩헌 건 이것저것 헤였는디.

제일 문제가 수제 수제를 죽게 행 간거라. 밥도 하영 담아 간건디. 이거는 저 어 디서 남군에서 출려 오람젠 허난 왈각 올 사름이고 안 올 사름이고, 벌초 안뵈기던 사름도 다 간 거 아니라. 경허난 그때도 나 출리다 보난 허고, 이제 그땡 가불면 안

웨난, 출령 가는 며느리들, 며느리는 흐나고, 동세는 흐나고, 여자는 돌리고 매기. 딸들은 또 가는 딸이 어섯고, 여자는 돌리, 돌리 보내고, 흐난 숫구락이 쥘 문제난, 땃 개사 보내전디 허난, 우리 동세가, 흐나이신 거, 막 착한 부지런한 동세가 이서. 거난 그 간 쫄이멍 무시거 더 산, 밥도 더 허고, 수제가 문제라네, 수제 빌언간, 그 룯도 하영 놓고 헤는디. 건디, 흐 수제가 서른 사람시서 놔신디, 어더난 숫구락 알 려 집이강 문 빌고 헤단 밥허고, 헤어네, 보내구렌, 그날 맥엇고렌 허난, 흐 번 그때 만 헤반 다신 그런 것도 안허고. 그거 출러가기 전인 어떻 허는 거궁 허민, 안전 옛 날엔 어떻허는거고 허민, 그 별초 때에 이디서 가는사람 정이 그땐 정이 정이 헤연, 정이서 가는 사름은 또 모물돌레떡을 헤여 오라는 거라. 모물돌레떡 허민 모물을 아따그넵에 이제 지금7장도 낮당,이 팔월 나민 그거 문 7라그네, 아이고, 그거 문 7루로 정7레에 7랑, 넬은 별초 잣다 허민, 차가 어시민 새벽이들 걸어 가곡, 밤 에. 그 돌레떡은 어느 누게가 서시카, 나 혼자라. 그거 다 멘들양 싯경 가민 정이서 모물돌레떡 온덴 베리는 거라. 메여 당번이 경뵈여 . 경허멍 나 이 이 하르방 광 살 안 흐세상 살안.

110025 #2 겨난 이 우리가 어디서 정심을 먹냐면, 덕천 2리 사무실이라. 건데 거 음력 음력으로 무조건 그전엔 팔월 초하루날 헤낫거든. 건디 이젠 이 젊은이들 공일날로 허자 공일날로 허니까 ,공일날엔 이건 뭐 탁 종강 열어 주질 안헤. 거 사 무실이나 거 누게 아무도 어실 거 아니. 토요일 아 겨 막 요번에도 막 금년에 나 금년 이 작년이 근데 요 중간엔 이 80넘엇누렌 배짱부렁 안갓주게. 나야 뭐 우리 가도 나 나이는 업거든.

110025 #1 하르방 이젠 안땡기고.

110025 #2 아 쟈디 겨나저나 올해만 행 작년에 가봤는데.

110025 #1 흠 지금 정심 어떻험수과?

110025 #2 정심은.

110025 #1 아니, 이제는 이제는 침 무시거 헤빔구나. 이녀만씩 돌아 얼마 안행 돌아와분거 아닌가.

110025 #2 겨난 그 공공 비용 이니까 지금은 공공으로 공공으로 우리가 회비를 내니깐, 공공 비용이엔 행 작년에도 그 참 소정 소정헤네 보나네 여저 흐사람이 오 랑 문 열아 주더라고, 열아주는디 그것 이제는 공일날 헤노니깐 그 속 공일날 그 저 좀 앵간이 열아주지 안허주게 소무실 그거 .

110025 #1 뱃기디서라도 먹주게 그거.

110025 #2 아니 건디 사무실이 보른 그 리사무실이엔 말뿐이지 소무를 아이 보 는 거 다향. 그 저.

110025 @ 덕천 마을이 막 죽은 데 과?

110025 #2 아 덕천 덕천도 2리니깐, 2리 거긴 사는 땃 호 어서 거긴. 아 저저 산간부락이주게. 덕천2리는.

110026 @ 그다음엔 이젠 8월로 뵈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추석 명절이 잇잖

아 예? 추석 명절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엔날엔 어떻 허고 지금은 어떻 험수과?

110026 #1 지금도 옛날 허던 거.

110026 @ 옛날 허듯 예? 거문 명절은 어디서 찰리멘마씨?

110026 #1 우린 아들 집이.

110026 @ 아들집이서 예. 아들 집이서머는 저기 삼촌네 가족들만 모이는거마 씨?

110026 #1 아.

110026 @ 멩질은 몇곤데 먹엄수과?

110026 #1 멩질 세빳디.

110026 @ 세 빳디.

110026 #1 응 이디, 아시 말췌 아시가 잇고 족은 아시가 잇고 경허난에 세빳이

110026 @ 세 빳디 예.

110026 #1 겨난 그 디 우리 시아즈방들은 우리 동생네가 허고, 우린 이젠 늙어 부난 우리 아들이 말아 가부난 큰 제가 웨어.

110026 #2 건디 금년 헐 때는 네 빳디는 헤야, 혼 빳디는, 혼 빳디는 제주시나 네 먹을수가 어서 우리는.

110026 #1 겨난 아직 깃장 기자 세 빳디만 갓젠 그랏주.

110026 #2 가네는 멩질 허젠 하면 이디 먹으레 못 올거라이.

110026 #1 걸랑 말제라도 그릅서 만든.

110027 @ 그 다음 8월에는 추석 명절이 잇고 예? 그 절기로는 백노하고 추분이 이서예? 백노하고 추분 그때는 뭐헤나수과?

110027 #2 백노하고 추분 헛낫주 무시거 어서.

9월

110028 @ 뭐 안헤난.예 그다음 9월 들어가지고는 어 백노가 8월 그때도 8월에 들어설 때도 잇주만은 9월에도 들어설 때도 잇잖아 예?

110028 #1 백노는 절기라?

110028 @ 예 절기마씨.

110028 #2 절기지.

110028 @ 상강이라는 절기 들어봐수과? 상강

110028 #1 상강은 그 거의 들어그넵에 상강일 넘으며는 못먹을 곡석이 없언.

110028 @ 예.

110028 #1 옛날엔 모물 췌 먼저 비는디, 상강일 웨면 모물도 비게 웨어. 다 곡석을 헤들이게 웨어. 상강년 넘으면 그 저 고구마끈도 상강 넘으면 소돌소돌 헤가 쳐. 절기 그 전이 다 헤 상강일 넘어가민 다 헤서.

110028 #2 옛날사 거 절기 모딱 췌주만은 저.

110028 #1 절기를.

110028 @ 아 상강됐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 할 거라부난 이제 그 곡식들 다 걷 엇구나예.

110028 #1 응.

10월

110029 @ 그다음엔 시월에 들어가지고는 예? 어 입동 즉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 셋잖아 예? 입동하고 소설이 이서예 그때는 뭐 해나수과?

110029 #1 지금 미강들은 다 타레 덩기는 거 아니? 미강 탐실거라 .

110029 @ 미강 예?

110029 #1 응.

110029 @ 옛날엔마씨.

110029 #1 옛날에사 경안혈 때 저 무시거 돛길롬밭 헛주게.

110029 @ 아.

110029 #1 보리 굴곡.

110029 @ 소설 때?

110029 #1 응.

110029 @ 아 그때도 헛구나 그믐.

110029 #1 이젠 돛길롬밭 그런 것 안혀네 미강을 타는 거 할 수 이서게.

110029 @ 그 제주도라 부난 수망리도 어떻게지 모르쿠다 만든 소설에 뭐 무신 눈이 오거나 그런 건 어서수과?

110029 #1 몰라 그거는.

110029 #2 저 눈 옛날에는 소설이면 그 작은 눈인데 작은 눈인데 옛날은 와실 꺼라. 요세는 옛날하고.

110029 #1 음력 시월, 시월 나민 소 혼 스무날 돼가민 잇당 제기 오민 눈도 오라서.

110029 #2 거난 그 지금 온도가 옛날하고 차이가 커

110029 @ 커 예?

110029 #2 지금 옛날사 이딘 눈 이디 짝 차낫주 이젠 경 오도 안혀.

11월

110030 @ 자 십일월 들어서는 동지가 잇잖아 예 동지 양력으로 하면 뭐 십이월 이 겠지만 예 동짓 때는 어떻 해수과?

110030 #1 동지 돼어 가민 눈이 막 하영 오랏주

110030 @ 음식같은 거 뭐 안 해먹어 나수과? 동짓날.

110030 #1 동짓날 죽 썬먹주, 풋죽.

110030 @ 지금도 썬 먹엄수과? 근데 무사 풋죽을 썬먹어신고예?

110030 #1 풋죽먹으민 감기 안온덴.
110030 @ 아 경헤그네 풋 죽 썬먹은 것과?
110030 #1 겨난 그 풋죽 그 침 애기 동짓날은 안 썬먹고.
110030 @ 예.
110030 #1 소동짓 때 안 썬먹엇덴 애기동짓엔 혼 때는 안 썬먹넨.
110030 @ 어떨 땐 애기 동지렌 그라수과?
110030 #1 몰라 겨나네 올히 애기 동지엔 영 그르민게 안썬고 경안헐 땐 기자 동지엔 헨건 썬 먹고. 애기 동지엔 그른건 안 썬 먹어서.
110030 @ 안썬먹고 예.
110031 @ 납평날이 라는 말이 잇는데 예 혹시 납평날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과?
110031 #2 납평날이엔 헨건 듣기 처음인데 .
110031 @ 그 동지 지나가지고 예?
110031 #1 몰라 난.
110031 @ 음력으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달에 선달인디 예?
110031 #1 선들.
110031 @ 선들.
110031 #2 아 쟈디 그 쟈안이 앓아게. 거 우리 보기에 어디.
110031 #1 아 본전디언 경험수게. 본인 못전딘 못전딘 대로 못전딘 우리 폐난이 안진 거 아니짜. 나도 아는디로 경 헨디.
110031 #2 아 저기 대와정 못전딜 건디.
110031 #1 하르방 방석 주렌, 방석 주카?
110031 @ 방석 이수과? 예.
110031 #1 방석 주 어디래 방석 아지레 감수과?
110031 #2 이쪽 방 드레.
110031 #1 아이고 그거 그 방석 말고 아이고 머시께.
110031 #2 어느 방석 이니 이거?
110031 #1 그게 그젠디이.
110031 #2 이거 말고 어느 거? 우린 그자 여름엔 시원하게 그자 막.
110031 @ 혹시 납평날에 옛날리기 같은 거 안헤나수과?
110031 #2 옛날에 옛날리기 헤나도 그건 무신 무시거 우리 꼭 무신 날이엔 헨 헤나지 안헤난 뉘.
110031 #1 웨정 때?
110031 @ 아니 그냥 웨정때 든 웨정 전이 어느 때든.
110031 #1 아이고.
110031 @ 이 마을에선 옛날리기 안헤 봐수과?
110031 #1 아이고, 아니 옛날에 아이들 흐썬씩 헨 텅경게 만든.

110031 @ 아 기? 아 그렇구나예. 막 그 집안에 그때쯤 되면 막 마루에다 막 창
흔지니 뭐니 헤가지고 막 심각하게 연 만들고 경 안혜수과?

110031 #2 아이고.

110031 @ 계난 예.

110031 #2 게고 거고 잊지 우리는 여기는 우리 헤네. 네 우리 두릴 때 웨정 뎨
그만큼 압박 받아 불고, 헤방 웨영 얼만어시난 4.3일어나불고 허난 우린, 어릴 때
에~ 쎄하니 살아보질 못했주게. 고생, 겐디 올케 저 돈이나 한디 집안들은 허지만
은, 거고 여자들은 웨정 때 여자들은 학교 이신디, 학교 시킬 생각도 안헤나서게.
여긴 이쪽도 여기 올케 부잣집 딸이나 학교 갖지. 학교 갈 꿈도 안뻗는데. 지금 우
리 집이 이디도 이디도 그전엔 살 만큼 살았주게. 친정어. 경해도 학교를 안보내는
디 뭐.

110031 @ 대설이나 동지는 아까 풋죽을 써먹엇텐 하고 예? 대설 뎨민 여기도
눈 막 하영 와수과?

110031 #2 대설 뎨민 눈 하영 온덴 허주. 요전에 그 전에는 눈도 잘 왔주.

110031 @ 계난 그뎨 계민 수망리서 그때쯤 뎨민은 밖에 어떻 다녀수과? 눈이
하영 와불뎨. 어차피 차는 어성 걸어 다녔주 만은.

110031 #1 눈에 빠지멍 걸영 텅겼주. 막 빠정.

110031 @ 기억 납수과?

110031 #1 겨울엔 나 이 쎄 이디 매고, 삶은 저기 살았는디, 여기오기 전에 저
기 살았는디. 이디 오랑 쎄 출 주어동 가단, 요디간 원간 눈이 크게 오니깐 브름 획
부니깐 그 담은 몰르니까 획헤네 영 넘어졌는디 그 담 앞에는 막 짙은 디라이 짙은
던디 그디 막 눈이 획 매와버리니까 몰른 거라. 그래 빠지나 풍덩 영행 빠져나서.
그만큼 눈이 겐디 이젠 그렇겐 눈 오질 안헤어 .

12월

110033 @ 경헤 예. 그 다음엔 12월에 들면 예 어 음력 12월에 들면 우선 뎨
먼저 친구간이 들잖아예. 친구간에 들면, 물론 친구간이 어떤 뎨 보면 명질 정월에
그때도 잊주만은, 예 혹시 이사할 때 친구간 보멍 이사 헤수과? 여기 이사는 어떻
여기 이사 올 때도 경헤수과? 여긴 이진 언제 오십년 뎨텐 헤수과?

110033 #2 오십년 훨씬 넘엇주.

110033 #1 이거?

110033 @ 63년 아.

110033 #2 육삼주택이니까아, 이거 이것이 육삼주택이고 저기는 우리 세면뎨 그
채전에 부튼거. 그 전에 부터 내가 58년 도에 결혼헤네 살긴 저쪽에 살았는데 이
지 집지를 걸로 헤가지고 여기 소는 여기 뎨스니까.

110033 @ 아 경헛구나예.

110033 #2 소기를 때.

110033 @ 여기 이사 올 때도 친구간에 읍디가?
110033 #2 우리가 어떻 이사 와서?
110033 #1 어떻사 헤져신지.
110033 @ 경해도 늬의 집도 살아봐수과?
110033 #2 늬의 집은?
110033 @ 안 살아 부난 막 친구간 그런 거 멩심허고 안헤봐시켜 예?
110033 #2 건디 촌에는 늬의 집이 사는 사름 하지 안허주.
110034 @ 그른 여기 이사 올 때 이집을 집터로 행 집 지서가지고 생각한 이유
는 뭐 과?
110034 #2 아니 이견 월래 나 난 터니까.
110034 @ 아 여기서.
110034 #1 옛날.
110034 #2 이견 나 난 터고 지금.
110034 @ 그 불 부터빈 집이 여기 이디여 수과?
110034 #2 응.
110034 @ 4.3때 불 부터 집.
110034 #1 응.
110034 #2 거난 웨냐. 지금 우리 형님이 이섯는데, 형님이 저 6.25때 군인을 갖
는 저 영상공으로 군인 갖는데, 근데 그 가기 전에 좀 아팠어. 아파도 병원에도 못
뎅기고 허난 ,그것을 저 군대서 군대생활이 그때는 6.25때 그때. 경헤난 고치지 못
헤가지고 의병제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디왕 병원에도 못 가곡 돌아가셨거든. 그러
고 게니까 그밑에 우리 저 영리 헤도, 내가 큰아들이나 다름 없어 이. 우리집안에
선. 모든 게 나 위주라.
110034 #1 에이, 나 이디 왓당 나 얼떡언.
110034 #2 하하하. 계난 이디 우리 할망이 쥬 고생헌게 그거주게 쥬 고생한게.
110034 #1 조용히 합서 밋성발루우다. 하영 곳지 맵서. 그만 마라.
110034 #2 하튼 무조건 종손 노릇 헛주게.
110034 @ 맞수다 예 .
110034 #2 경헤노난 게 이 집터나 뭐나 이거 전부 나 재산이라.
110034 @ 게 그때 이미 집터로 집이라 나부난 뒤트래 나중엔 집지서사지 그거
는 계속 이서 낫구나 예 갱 거 결혼헤 가지고 언제 썸이 여기 이사와나수과? 아이
들 다 난 다음에마씨?
110034 #1 아니 우로 두개 난 때 우로 두개 난 때.
110035 @ 여기 집 지서 가지고 맨 처음에 뭐 부터 갖다 놔수과? 이사 오젠 허
난.
110035 #1 무시겨 갖다 놀게 이서?
110035 @ 옛날에 이사할 때 맨 먼저 뭐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하는 거 이서

낮잖아 예?

110035 #1 무시거 체암 게 오때 체암 올때 솟 솟 혼 아저온거주

110035 @ 솟 가져 완. 예 그때는 정제에 그냥 솟떡 헤그네 밥 헤수과? 그때 부터 예 ?

110035 #1 소떡 헤영 검질불 습고.

110036 @ 그 다음에는 그 솟 갖다 놓고, 집알이라는 게 있는데 집알이 같은 거 헤수과?

110036 #1 그거 무시 거? 아니.

110036 @ 그런 거 안헤판 마쓰?

110036 #1 응 체암 저디 밖그리엔 해주게 밖그레 오랑 흐고 살다네, 이디 돈 이디 멘들아완, 이디 들어완 밥헤 먹고.

110036 @ 밥헤 먹고, 거 이집이 어떤 집인가 헤가지고 그 집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엔 형식적으로 한 흐룻밤 먼저 자고 경헤난 거 답아예.

110036 #1 그거 안헤언.

110036 @ 게 바로 그냥 완 사라수과?

110036 #1 저디 살당 게 바로 이디.

110037 @ 그 다음엔 그 우리가 그 친구간 때 어 집들이를 하잖아예. 집들이, 예 집들이 집안에 할 때 어떤식으로 선물을 헤수과? 놈이집 갈 때 라든가

110037 #1 아 집들이 할때 기냥 헤민 춤 무시거게 여 부지 흐쓸 헤 주는거주 부지 그릇도 헤주고.

110037 @ 그릇도 헤주고?

110037 #1 응

110037 @ 옛날엔마씨?

110037 #1 그냥 그릇 무신 그릇도 흐쓸 헤여 주고 쓸 부지도 경허곡 경헛주.

110037 @ 그렇구나 예.

110037 #1 쓸 부지도 흐쓸 헤나고 그릇으로 흐쓸 헤주ندی 잇고.

110037 @ 그 그 집들이 할 때는 막 게도 막 밥 헤먹으멍 나눠 먹고 헤낫지 예.

110037 #1 응 아싯밥 헤먹주

110038 @ 그 다음에 그 십이월에는, 음력 십이월에는 보면, 그 아까 일월에도 그게 들어가긴 하는데, 정월, 일월에 그 소한, 대한 잇는데, 음력으로는 십이월에 잇기도 하잖아 예? 그 소한 대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내수과?

110038 #1 아무것도 안혀고 그때 웨민 그 말이 옛날 말이, 대한에는 나간 사람 촌자보도 말라.

110038 @ 맞아 그 말을 합디다예? 다른 마을에도 조사할 때 보난.

110036 #1 그런 말 헤서.

110036 @ 무사 그 말을 헤신고?

110036 #1 쥬 춰다는 거라.

110036 #2 아, 그니까 눈이 켈 많이 오니까.
 110036 #1 그때 나간 사름은.
 110036 #2 어디 가그넝에 올케 저 묻혀버리는 사름이 이시는 거라.
 110036 @ 아.
 110036 #1 경혜신 고라. 대한나간 사람 좇아 보지 말라.
 110036 #2 이제는 경혜. 그전엔 대한에 나간 사름사, 이젠 소한에 나간 사람 좇아보지 말렌 한 사름도 이서 소한에가 더 온다.
 110036 @ 더 추웁 예 예 알았습니다. 이거 세시풍속은 어 이걸로 정리 끝나겟 습니다 예.

11. 놀이

연(鵝)

111001 @ 놀이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해나수과?
 111001 #1 놀이는 그자 자치기엔 고망 자치기엔 헤그네 그거 허곡, 또 그 주로 그 두린 댜 머니까, 그 학교 가기 전에는 그 흑 헤어그네 떡 만들면 무신 저 밥허면 밥허민 그 무신 저 그 구쟁기딱살 봉가나그네 그디 흑 질어낱 그 쓸 헤그네 기자 그것에 헤그네 물 낱 밥허멍 그자 그추룩들 허멍, 그 여자들이영은 신편는 경허멍 놀곡 양. 겐 느는 어멍허라 날랑 아방허켜 허멍 둘이 경허멍 게.
 111001 #2 부서그레다 새가시 만들고 공기허곡.
 111001 @ 공기하고.
 111001 #2 응 뽕이치기허곡.
 111001 @ 뽕이치기 하고 이제 그런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물어 보쿠다 예? 어 연 날릴 때 연의 종류에는 뭐가 이서수과?
 111002 #1 거 뭐 막 연 종류는 하낱는디 무신 가오리연이여 뭐 돌연이여 무신 문 뭐 이젠 연 고라 무신, 이제 문 잊어부런 무신.
 111002 @ 방패연이여.
 111002 #1 예 막 게
 111002 @ 그 정도 예?
 111002 #1 잊어버려네 원.
 111003 @ 연 날릴 때 연을 날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가 이서수과?
 111003 #1 그때양 그 연 줄이 썰이 겐 썰이 귀헤노난 양 실이 어서서 마썰.
 111004 @ 썰은 뭇로 해수과?
 111004 #1 아이 저 미녕 썰 그 헤그네 쓰는 거에 나그네 그거 헤그네 두버포 헤그네 영 허민 끊어져 버리고 또 어멍한티 매 맞고 혈망한티 매 맞고 허멍 해나신 디.

111004 @ 거난 저기 미녕썰 헛고 그 다음엔 마씨?

111004 #1 원 미녕 썰은 원, 판 썰이 어서나수다.

111004 @ 얼레 같은건 어서수과? 얼레 안 만들어수과? 감는거?

111004 #2 감는 거?

111004 #1 감는거? 그거 저 이 경 막 구루 후제 저 혼 4.3사건 난 후에 나가난 예 양. 그때는 혼 원 우리 일곱 요듭살 댜 막 감는 거 만들명 못 해서나서.

111005 @ 그 다음 혹시 그 연 날리명 혹시 연싸움 헤난 기억 이수과?

111005 #1 연 싸움 뭐 헤난 거 이수다 만은, 우리 양 그거 거난 침 그땐 그 요듭살 전에나노나니깐 양, 이 주로 그 우리 연 헤그네 벗들을 허쟁 헤도 그 자꾸 영 만나그네 그때는 막 이추록 집단으로 살지를 못헤영, 기자 이디 저디 막 뭐헤노니까 양, 경 만냥 뵐 허질 못헤서 마썸. 거 동네 혼 서너 네집 이시문 그때 다 아이들 기자 고치.

111005 @ 고치 연만들고 경 안헤난 마씨?

111005 #1 연은 연은 기자 저 우리가 만들지 못헤그네 침 그 선배뵐는 어른들이 영 헤그네 좀 만들어 주곡 영 행 만들어 도렌 허곡.

111005 @ 경헤낫지 예?

111005 #1 예.

111006 @ 연 날리면서 뭔가 그 혹시 연 날렸던 추억 있잖아 예? 연 잊어먹은 거 봉그레 간 추억이라든가 혹시 어서수과?

111006 #1 그런 거는 엇고 예.

111006 @ 어서수과?

제기차기

111007 @ 그다음은 제기 차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제기차기 옛날엔 뭐렌 고라수과?

111007 #1 제기는 저 그땐 제기차긴 그자 쪽기차기엔 행 그자.

111007 @ 맞수다 맞수다 쪽기차기엔 헛지예?

111007 #1 예 헤낫주게 거.

111008 @ 쪽기 차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11008 #1 그때 무신 단추가 이서수과 뭐에 봐, 그자 돌 돌려주왕 거 헤그네 만 들어그네 범병 영 찢어그네 훌훌. 또 경허난 야툰 이 시기 신이 이서그네 뵐 이시 까 영헤민 경 그거 영헤그네 허민 기자 헨 기자 돌글랑 헨거 뭐헤그네 가쁜거 기자 아프지 안헤게.

111009 @ 허고 예?뭐 제기 찰 때는 한발차기 두발차기 헤가지고 그런 거 이섯지 예?

111009 #1 아이 그런 거는 어서.

111009 @ 어서수과?

111009 #1 그때는 생각을 잘 안 행 때 양.

111009 @ 몇 개 차기, 몇 개 차기만?

111009 #1 예 예 거 막중에 변헌 거는.

111010 @ 거 제기 찰 때 어 뭐 특별한 기억이 어수과? 막 발이 돌맹이 집어놔
시난 아파실거 아니파 예?

111010 #1 아니 그 겨난 양말도 안신곡 허민 게 발게 멘발 그 영허른 게 이이
런데 헤그네 허곡 영 혼 몇번 헤나른 거 아파그네.

111010 @ 못 헤난 기억 예?

자치기

111011 @ 그다음에 자치기는 하지 예?

111011 #1 자치기 예.

111011 @ 자치기는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자치기.

111011 #1 거 여러개 이선 잊어부런 뭐 허고 기자 고망 자치기엔 헤그네.

111011 #2 우린 고망자파리 경 안헤나난 윈.

111011 #1 이 그 흑 이거 땅이민 흑 기자 흑쉴 영 파그네 그레 저 돌 썩골락
허게 영 놔그네 기자 영 우트레 걸쳐그네 영헤그네 허곡. 또 이제 영 케우려그네
허는거 허곡, 또 영 헤그네 그 저 행 뒤행 나가는 거는 허고.

111011 @ 그 두 가지 예.

111011 #1 예.

111012 @ 그 자치기 헐 때 다 그 막뎡이 막 그건 어뎡 준비헤수과? 자 막뎡이.

111012 #1 자 막뎡이 그거 여긴 낭들 하난에 양 그대로 요만 혼 기자 혼 삼십
센치 스십센치 끈어 그네.

111013 @ 그른 승부는 어뎡 가려수과? 그 이기고 진거는.

111013 #2 멀리 놀아가는 걸로.

111013 #1 아 이기고 진건 멀리 놀아가민 양 그 그걸로 재는거라 마썸 저 자치
기 그.

111013 #2 자로 자로.

111013 #1 저 자엔 헤그네 술진 거 잇고 요 채주. 겨민 거 쌀 요만한 ㄴ는 거
쫄른거 영허민 건 놀아가그네 즈만~ 썸 강 떨어지며는그걸로 자 영 채 그걸로 영
행 제에 가그네.

111014 @ 그때 막 특별히 자치기 잘헤난 아이는 어서수과?

111014 #1 것도, 그 저 우리보다 밀엿 아이영 허민 우리가 이기고, 우리보다 우
엿사름이영 허민 우잇 사름이 이기고

말타기

111015 @ 그다음엔 뭘 타기 이서낫잖아예 말타기 예?

111015 #1 물타기 해 나서

111015 @ 게 물타기 보면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물타기 뭐 죽은 물타기, 생물타기 그런거 기억 남수과?

111015 #1 죽은물, 생물이엔 안 허고 기자 물타기 허며는 그대로 영 헤그네 좀 살면상 그디 영 저헨 엇더저그네 허며는 그 우트레 강 기자 영 탁 허며는 그것도 흐쉴 역은 사람 이시민 이슨사람 기자 영 허며는 기자 아장 탁 허며는 그.

111015 @ 그 말타기 헐 때는 주로 동네 아이들이 모영 허는데 남자 아이들만 해수과? 여자 아이들은 고치 안해수과?

111015 #1 여자아이들은 안허고 예.

111015 @ 말타기 헐 때 막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헛던 기억 하나만 고라줍서

111015 #1 아이고 기억이 너무 터 뭐해부난에 기억이 잘 안남서.

구슬치기

111020 @ 안남수과? 그다음에 구슬치기 잇잖아 예 구슬치기 옛날엔 뭐 다마치기엔 허고 다마치기 전에 다마치기는 일본에 다마라는 말이 그렇다 치고 그전에 는 어 그 일제때든 아니면 그 후든 구슬은 어떻게 준비해수과? 다마는.

111020 #1 그 저 공기엔 독 다마는 우린 그 공기 놀이를 양 다.

111020 @ 다마치기 양 공기놀이는 나중에 다시 여쭙보고 예.

111020 #1 예 다마치기 허는 거는 그거는 그 무신 저 나무열매 양 그런 거.

111020 @ 나무 열매 뭐 마씨?

111020 #2 무신 낭사 신디 그때 무신.

111020 #1 그 놀거는 몽구슬로 기자 그런 것도 무신 그런 게 구슬이 어섯주게 어서 이 촌에 뭐 .

111020 #2 어섯주게. 지금처럼 나 무신.

111020 @ 아까 뭐렌 해수과? 몰구슬 마씨?

111020 #1 몽구슬 낭이엔 저 떡구슬 난엔가 첨 양.

111022 @ 그 열매로 예 그 아까 그 저 다마치기 헐 때 구멍치기가 어떤 거과?

111022 #2 구멍치기?

111022 @ 예 구멍치기, 혹시 이렇게 구멍 툴라가지고 거기 같은데 들이치는 거 안해나수과?

111022 #1 아 그 구멍치기가 그것이 예 겨우기 조금 말무시 나긴 허는디 그

111022 @ 고망치기렌 해나 실 거라 예?

111022 #1 예 영 뭐엔 해네 첨 그 저망 주기성 이성허민, 그걸 마쳐그네 울로 영~ 헤그네 ,이디 땅에서 양, 거나네 그 지금처럼 뭐 세면도 엇고 땅 영~ 먼디 허 니깐 편편헌데 어서노난, 그걸 별로 안해마썸양, 그런 거는 양.

111023 @ 그럼 혹시 원치긴 해수과?

111023 #1 원치기는 모르고.

111023 @ 원 똥글랑 허게 그려 나가지고 그 안에 무시겨 놓고
 111023 #1 건 원치기엔 현 거 거 잘.
 111024 @ 안혜수과? 벽치긴 마씨 벽 벽에다가 탁 쳐그네.
 111024 #1 그 벽치기 허젠해도 벽이 그때 양 담으로 영헤네 백이 어서수다 어서.
 111025 @ 그럼 눈치기 내지는 눈알치기라는 거 있잖아예 건 혜수과?
 111025 #1 그건 영 헤그네 양 저 아래 영 놔그네 영 헤그넨 영 사그네 기자 영 거 맞추는거.
 111025 @ 건 혜나수과?
 111025 #1 예 건 그거는.
 111026 @ 혜나수과? 그 다음에는 삼각치기라는 거 이서신디 예 삼각치기.
 111026 #1 삼각치기엔 현건 잘 기억이 안나고
 111027 @예 거민 구슬치기에 구슬치기헐 때 기억나는 거 이시민 혼가지만 고라 줍서.
 111027 #1 아이고 엇주게. 지금 거 원 기억이 안남수다.
 111027 @ 하나도 마씨?
 111027 #2 혜난 사름사 기억이 나주만은 우리 고티 명칭이는 아무것도, 계난 뭐 아무 것도.
 111027 #1 겨난 그거 뭐 어디 무신 벗들이라도 막 하그네 기자 영 뭐햄시든 허 주만은 저 이 길이 양 길이 흐쓸 멘짝이라도 허영 허시민 허주만은 경도 안허고 영 헤네 기자 뭐.
 111027 @ 마당은 멘짝혜나지 안혜수과?
 111027 #1 마당 마당은 저 혜도 양 마당에 검질을 문 꺾라부러서 마썸게.
 111027 @ 아 맞아 예.
 111027 #1 예 검질 꺾라버리난 문 지금 그런 저런 거 예 허질 못혜주

딱지치기

111028 @ 빠짱치기는 혜 낫잖아예?
 111028 #1 빠짱치기도 그 후에 베끼는.
 111028 @ 후에라도 빠짱치기 빠짱은 어떻 준비혜수과?
 111028 #1 빠짱은 그 기자 무신 그 뵈도 몰란 ,뭐나 첩 그 기자 책 기자 그 아 방 보더책 그 어디 그 우위 놔시면은, 배게여 무시겨 어디 가버리며는헤어그네 거 헤여그네 보려그네 빠짱 만들앗다그네 딱리젠 혜 가며는 돌아난, 우리 웨갓집에 한 남리주게. 경허면 또루젠 허면 기자 똑 쪼차와그네 오ندي 나 한남리 갈또록 경 기자 원 저만치 떨어져그네 자기왕 심도 안허곡, 경 그추룩 웨갓집일 가나수다 경 맨 발에 또 질도 출밧디 이런딜로 영 텡기는디 거 셋질초룩 헤그네 양 헤그네 길로 텡 기젠 허문 막 멀민 그추룩헌딜로.

111029 @ 동망쳐난 예? 빠창치기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빠짱치기 종류.

111029 #1 빠짱치기도 여라가지 잇주만, 현디, 그 저 네개 단정허게 만들엉 현 거 허고, 또 그 무신 솔펜모양으로 만든 거 원 그추룩 그거 헤그네.

111029 @ 앞뒤로 만든 거 어서수과? 빠짱을 앞뒤로 만들어 가지고.

111029 #1 그 앞뒤로 저 게 네개방장 헤그네 헤영 현거는 그것이 앞뒤고 그따야 예 그추룩 영 찢렁 허민 경허민 그걸 영 허며는 데싸져야 먹는 거 양.

111029 @ 먹는 거 예?

111029 #1 예.

111029 @ 거면 딱지치기 종류에는 데싸져야 먹는 거 허고 또 뭐가 이서수과?

111029 #1 종류는 몰르크라 양.

111030 @ 거면 딱지 칠 때는 어떤 식으로 그 딱지를 쳐그네 데싸수과?

111030 #1 게난 땅에 영 놔그네 그대로 왓상 영 탁 행 불려그네 허며는.

111030 #2 마당으로 불려.

111030 #1 옆어지며는먹는겁주게.

111030 @ 먹는 거 또 다른 건 어수과?

111030 #1 또 발 영 그레 또 이 또 영 이 저 빠짱이시민 그 저끄띠레 놔그네 영 뭐헤그네 이레 헤여그네 발로 영 헤그네 넘어서 나신디원 헨 그추룩또 허곡.

111031 @ 딱지치기 헨 때 아까 그 아방안티 막 저 쫓겨가명 헛던 이야기 한번 만 더 해주쿠과?

111031 #1 그때 그 이 그때는 학교도 안간 때도 영허고 허니깐, 이 혼 저가 일 굽 슬 즈 건즈 웬 거 님아 양. 게난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가네 살단 온 해라마 씬게. 켜 며헨하니깐 겨난 그 켜 영~ 이시며는그 우이 영허면 울르지 못헨 허며는 시릉니 거 초가집 옆에 영 지르고헨 켜 놔 영허며는 그걸 부스지 못헨 허며는 그 책은 그 위에 놔야 양. 경 그걸 어떻 허며는 베게 그 베게 세우곡 영 헤그네 그 우이 영 행 무신 막텨이라도 영 이시민 행 책을 어떻 어떻 내루와그네, 경헤그네 그 걸 또 만들어그네 양 그 아이들 신디 가그네 빠짱치기 허젠 허면 그걸 행 만들엉 책을 보령으네 만들양 가버리니깐 겨난 이젠 혼번은 어디 갓다오난 그추룩 헤시나네, 딱리지 안헨 막텨이 요만한 거 아지고 똑 딱리젠 안허고 기자 원 좃아오명, 딱리젠 기자 허면 흥쓸 제기 오고 또 경안헨 나 천천히 가면 저만히 떨어정 천천히 오명, 저 그 한남리 고라 부두기엔 헤수게 예, 그때 그 우리 그 그디꼬지 붓네가루엔 현디 그레.

111031 #2 옛날엔 아이들도 막 딱리젠 거 헤나서게.

111031 #1 그추룩 헤네 양 그레 기자 허난 무신 신도 양 신도 어서 마썸. 조리조리엔 헨도 그 저 찍으로 헤그넨.

111031 #2 찍으로 만들양.

111031 #1 만들어그네 그것도 신영 뭐허곡 거.

숨바꼭질

111032 @ 신어나 가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엔 숨바꼭질 곱을락 헤냏잖아예 곱을락?

111032 #1 예 곱을락.

111032 @ 곱을락은 어떻 헤나수과? 같이 막 여자영 남자영 고치들?

111032 #1 예 고치들.

111032 @ 헤냏지예?

111032 #2 곱으민 츠으레 텡기고.

111033 @ 맞수다. 곱으민 츠으레 텡기고 그때 그 원이 여기서도 원이렌 헤수과? 원이는 어떻 정헤수과?

111033 #1 저 무신 가위바위보나 무시 거 헤그네 진 사람 양.

111033 @ 옛날엔 가위바위보 불를 때 어떻 헤신고 예 불 켜야 이 화면이 나와 마씨.

111033 #1 어 불 켜불라.

111033 @ 원인 어떻 정헤나수과?

111033 #2 거를 어떻사 여자라 안 시켜. 이녀 헤난 사름이 기억이 나주 줌.

111033 @ 그 원이 정헐 때 옛날엔 가위바위보라고 허지 았고 혹시 다른 거 어서수과?

111033 #1 장겼뽀.

111033 @ 장겼뽀엔 헛잖아예? 장겼뽀헤서 진사람이 원이 헛잖아예.

111032 #1 예.

111034 @ 그 원이가 되면 그때 그 곱으는 아이들은 어디강 곱아수과?

111034 #1 아 게난 그 가까운디 영 헤그네 양 눈곰양 영 밑에 열 개민 열개 세네, 또 그 쉐 사에 뭐 무헤그네 어디 강 곱아버리는 거.

111034 @ 그때 그 놀 누렁 이시든 놀 그 저 위에 덮은걸 뭐렌헉니까?

111034 #1 노람지엔.

111034 @ 누람지 덮으면 그 누람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 곱을락이라도 헐 때 하게 놀 안에서, 놀 하나를 줌 떼가지고 놀 사이에 가레길 만들영 숨고 경 안헤봐수과?

111034 #1 경은 안헤나고 양. 놀 허젠 헤도 세 고티 거 영 헤그네 노곡, 무시거 헤그네 경 늑도 경 많이 놀질 못헤시고, 저 짜그나 그런 거 허면 저 누람지 줄 영 들르다 쥬 우이 양, 영~ 위험헤그네. 그것이 주쟁이엔 헤그네, 그걸로 영 헤그네 그 춤 속들에 물 안들게 시리 헤그네, 직 꺾 헤다그네 얼거그네 경 뒤헉냏주게.

111034 @ 거민 경 헤버리면 그 곱을 때가 그때 그 한계가 잇잖아예?

111034 #1 겨난 그 경헤그네 허며는 춤 그 그런디다 경 안허면 집 모퉁이나 그 런디로.

111034 @ 그런디로 숨어서예.
 111034 #1 예.
 111034 #2 그런 트명으로 곱을 거.
 111035 @ 곱을락 하명 혹시 기억나는 거 어수과?
 111035 #1 기억 나는 것도 별로 엇고게.
 111035 @ 예를 들 어 그 원이가 이제 그 눈감아가지고 숫자 세잖아 참 숫자 셀
 띠가 어떻게수과? 그때.
 111035 #1 무시거 호나 둘 영 허그네 기자.
 111035 @ 호나 둘 해수과?
 111035 #1 또 경도 허곡
 111035 @ 해방 후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헛거든 마씨.
 111035 #1 예.
 111035 @ 겨난 그 해방 후에 주로 놀아실거 아니파 예?
 111035 #1 해방 후에가 양 우리가 겨난 그 얼마안난 그 저 이 4.3사건이 나버
 리니깐 무궁화에 뭐여 것도 양 그 전에는.
 111035 @ 안헛지예.
 111035 #1 예 안해수다.
 111035 @ 그 4.3 이전에 그 놀았던 것들은 곱을락 헐 때도 호나, 둘 숫자로 셀
 마씨?
 111035 #1 예 겨난 그 저 대게 경 기자 그런거로 헛주.

실뜨기

111036 @ 그다음엔 실뜨기에 대해가지고 여쭙보쿠다예? 실뜨기 헤가지고 영 헤
 가지고 영영 실 뜨는 거 잇잖아예?
 111036 #2 응응.
 111036 @ 그거 해낫지예?
 111036 #2 해나긴 헛주만은 그거 무신.
 111036 @ 거 헐 때 실은 어떻 준비 해수과? 무슨 실로.
 111036 #2 오디강사 헤신디, 그때는 이것도 해서 이 손에 영 무시거 내명.
 111036 #1 아니 그도 저 그거 미녕실 예 그 경헤그네 짐.
 111036 #2 거 그레 네븍서 불 꺼살겨난.
 111037 @ 그 실뜨기 헐 때는 어느 어느 손가락에 해수과?
 111037 #1 막 것도 막 잘 해난, 막 여러 개 막 이추룩 영 현 모양이라난 뭐 잇
 아부런 별로 고라도 못 허큰게.
 111037 #2 것도 몰르크라 영 허명 무슨 애기구덕이여 무시거영 허명 실로 허명.
 111037 @ 맞수다예 경 해낫지예 맞아 애기구덕 만들기.
 111037 #2 경 헤신디 몰르크라 이젠.

111037 #1 문 행 여기 데쓰기여 영.
 111037 @ 거 주로 썰뜨기 헐 때는 이 손가락 하고.
 111037 #1 예 이 두 개.
 111037 @ 요거 손가락 헛지예?
 111037 #2 응.
 111038 @ 또 혹시 요거 두개 손가락은 썰뜨기 헐 때는 뭐라고 헛는지 기억 안 남수과? 요 두 개는? 뭐 들이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말 안해나수과?
 111038 #1 그런 거 기억이 안 남서.
 111039 @ 그 썰뜨기 헐 때 두 손가락이 그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은 어떤 기능을 해수과?
 111039 #1 아 그거 무시겨 영 그런 걸 영 허며는 썰을 영 데싸지게 영 뭐허난 양. 이추룩 이축 헐때에.
 111040 @ 헐 때 이젠 고집어 가지고 예 그다음 썰뜨기 헐 땐 주로 그 친구들끼리 해수과 형제들끼리 해수과?
 111040 #1 건 저 형제들 끼리도 허고 저 친구들.
 111040 #2 형제들끼리도 허고 친구들 이시민 저 서로 아장들 뭐 자파리 허는.
 111040 @ 그 썰뜨기 헐 때 썰뜨기 헐 때 기억 있걸랑 하나만 고라줍서.
 111040 #2 겨 어서 경 어서.

공기놀이

111041 @ 그 다음엔 그 저기 공기놀이 이섯잖아 예? 옛날엔 그 공기를 뭐렌 고라수과?
 111041 #2 공기마라 무시겨엔 마라 공기엔 허주.
 111041 @ 기파? 그 공기는 어떻 준비 해수과? 어디서 구해수과?
 111041 #2 거 저기가 돌체 봉가와.
 111041 #1 돌체 봉가.
 111041 #2 돌맹이 땡기명 기자 봉가와.
 111041 @ 아 이 밧디나 이런 마당에서 마씨?
 111041 #2 응. 하하하.
 111041 @ 웨냐면 내창 같은데 가면 매끈 매끈한 돌맹이들 잇잖아예. 그럼 어디서 주로 매끈한 거 구해수과?
 111041 #1 아 겨난 그 공기 영 헤그네 양. 속돌이렌 헤그네 거 좇는 그거 영 헤그네 줌 튀어난거 이시민 기자 돌로 영~허민 그거 영 헤그네 잘 헤영 똥글랑 허게 만들어그네 양.
 111041 @ 아 경헤그네 해수과?
 111041 #1 예
 111042 @ 거 공기는 어떤 순서로 해수과? 공기놀이 헐 때.

111042 #2 거 이시난 무신.

111042 #1 거 저 뭐 이 영 다섯 개 기자 뭐에냥 영 호나씩 기자 영 뭐헤그네
허고 경헤그네 나중에 손으로 영 올려놔 영헤그네 심영.

111042 @ 그런 공기놀이도 잇주만은 막 하영 낱 헐 때도 이섯잖아 예?

111042 #1 하영 놔그네 허는 거 두 개씩 허는 거?

111042 @ 아니, 그니까 막 열개 스무 개 막 놔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수과?

111042 #1 게 그거는 이 영 뭐 허민 세 개. 하나 영 드레 데껴그네 세 개를 집
으젠 허며는 이걸 거치지 안허게 하젠 하며는거 보든디 걸로 영 헤그네 그 두 개나
세 개 두개 줍기도 허고 세 개도 허고 하며는하나 웃뜨레 뗏경 그 주위에 걸로 세
개 심어 오고 그추록 허멍 그.

111043 @ 경 헛구나 예. 공기놀이 헛던 추억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고라 줍서.

111043 #1 무시거 거 기억에 남고 무시거 건 어서.

111043 #2 공기놀이 잘 헤나긴 헤신게.

111043 #1 거고 원 헐게 원 그때는.

111043 @ 헐게 어서노난 예.

고누

111044 @그 당시 고누라는 거 알아 지쿠과 고누, 고누. 고누는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예. 이제 탁 던진 다음에 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 가
는 거 마씨. 사금파리 조각 가정 허는 거 기억 안남수과?

111044 #1 기억 안나고.

땅뺏기

111049 @ 그 다음엔 혹시 어 땅 뺏기 놀이 헤나수과?

111049 #1 방치기엔 현건 헤나서.

111049 #2 방치기엔도 헤나서.

111049 @ 방치기 말, 방치기 말고, 예를 든다면 그 이렇게 땅뺏기. 이서가지고
이렇게 땅뺏기 하며 여기서 탁 치잖아 예? 거 요기까지 가잖아예? 가면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거 나~땅 하고 그런 거 어서나수과?

111049 #1 아이 그런 것도 헤낫주만은 그 잘 기억이 안남서 헤나그네 헤낫긴
헤낫는다.

111049 @ 헤낫지예? 그 땅뺏기나 이런 거 헐 때 유리조각 사금파리같은게 이서
야 하는데 도자기 조각이라든가 거 여기서는 어떻 구헤나신고예?

111049 #1 그릇 사발 고튼 거 벌러진 거 양. 그런 거 벌러져부난 그런 거 마사
그네.

111049 @ 뭘사가지고 예?

111049 #1 뭘상허며는 그.

111052 @ 땅 뺏기는 기억안나니깐 어떻 해신지 모르고 예

111052 #1 응.

웃놀이

111053 @ 웃놀이는 확실히 기억나지 예 웃놀이는 예?

111053 #1 웃놀이는 어린 때는 안해나고 양.

111053 @ 예~. 큰 다음에는 뭐 잔칫집이나 이런데서 안해봐 마씨?

111053 #1 건 큰 다음에.

111053 @ 가족끼리 안해나수과? 명절 때라든가.

111053 #1 아 가족끼리 모여 아장 경 웃놀이? 서울이지 이 촌에서는 경 허믄.

111053 #2 경 놀이 허는 디가 틀리주게 웨진디난.

111054 @ 그 좋수다. 게믄 일단 한 어른똥 총각썸 됐을 때는 막 해나실거 아니 파예? 잔칫집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예? 웃가락은 어디강 준비해수과?

111054 #1 아 이 동박낭 헤그네 양 요마니 만들어 종제기에 헤그네 이추록 멍 석 헤그네 양.

111054 @ 헤가지고 예. 주로 동박, 동박낭으로 예.

111054 #1 동박낭, 예 쥬 좋아 마씨 웃이.

111054 @ 동박낭이 예.

111054 #1 예 동박낭이.

111055 @ 그 다음엔 종지하고 웃판 멍석이나, 그다음엔 종지는 어떻게 준비해 수과?

111055 #1 거 장종지엔 헤네 양? 옛날에 그 이 다 집집마다 이서나수다.

111055 @ 간장 종지 마씨?

111055 #1 예 장종지.

111055 #2 허연거.

111055 #1 그런거 헤그네 기자

111055 @ 웃판은 마씨? 판 판은.

111055 #1 판은 그디 양 그 저 멍석 허며는 숯 숯검댕이 있잖우파. 숯 숯헤그네 물에 저 적저그네 영 허면 양 그.

111055 @ 멍석 우에다 아예 그려그네.

111055 #1 영 허멍 거멍허게 다 그릇 그서저 양.

111056 @ 그 다음에 그 웃놀이에는 어 도개걸웃모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다른 웃 다른 놀인 어서수과? 뭐 돈 따먹을 락 한다든가.

111056 #1 아니 주로 돈 따먹을락이라 양. 거 제.

111056 @ 거 돈따먹을락 헐 때도 도개걸웃모 행 다 절차 밟아서 딱 웃이 나올

때를 하는 거과 아니면 뭐 어 한쪽에서 토 나오고 다른 쪽에서 개 나오면 개가 이겨가지고 토꺼 가져가불고 막 그런 거.

111056 #1 아니 그깽니고 양. 그 영헤그네 그 선이 뗏 개니, 영 이추룩 열 십자 행 이른 식으로 영.

111056 @ 굿 잤아 예.

111056 #1 경 현 다섯 개씩 허면, 스무 개 까지 허면 될건디. 거기 영 돌아와그네 그 냐그네 허는 것이, 이제 그 이 그추룩 헤여그네 나야.

111056 @ 웃이 다 나올 때 까지 예.

111056 #1 예예 나야 다 나와야.

111057 @ 다 나오면 주로 어 그 승자가 되면 어떤 것들을 내기에 걸어수과?

111057 #1 아 돈 미리 실좌나그네.

111057 @ 돈? 돈으로.

111057 #1 예

111058 @ 웃놀이 할 때 막 경행 따본 적 이수과? 웃놀이 하명 특별히 기억나는 거 어수과?

111058 #1 아 이 웃놀이엔 헤그네 돈만 자꾸 일름만 허연.

111058 @ 일름만 헤수과? 웃놀이 하면서 막 일러그네 섭섭해나 본적은 어수과? 뭐 부짓돈 날린다든가.

111058 #2 섭섭허지.

111058 #1 섭섭 헤도 뭐.

111058 #2 하영 일르면 섭섭헐거주게 무신.

111058 @ 그거 기억 하나만 고라줍서.

111058 #1 혼번, 혼번 따난 건 알아져 마썸. 저 잔치집이 가네 돌이가 펜갈란 헛는데 그때 기자.

111058 @ 누구 잔치집 때 마씨?

111058 #1 그 그때가 이디 용안상회 잔치라신가. 그디 그 게네 돈 줌 돌리 요디 공진이엔 현 사람허고 헤네 돌리 줌 헨 혼번 따봐수다. 혼번.

111058 @ 그 판걸로 뭐헤수과?

111058 #1 뭐긴 뭐스라 따민 강 술이나 먹고 거 기자 행 뭐 헤불주.

111058 #2 술 먹주.

111058 #1 또 저 저끄띠 구경허는 사람 이시면 오렝 헤그네 기자 고치들 가그네 술들 먹어버리고.

팽이치기

111059 @ 그다음 팽이치기를 하셔낫잖아예.

111059 #1 팽이치기도 헤나십주게.

111059 @ 팽인 어떻 준비헤나수과?

111059 #1 여기 그 저 풍낭 헤그네 양. 풍낭 헤그네 싸그네 깍강 만들어.
 111059 @ 아 만들어 풍낭으로 예?
 111059 #1 예.
 111060 @ 그 풍낭으로 만들면 썩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썩이 종류는.
 111060 #1 종류는 우린 그 저 풍낭으로 헤그네 허면 저 혼가지로 주로 양. 그때는 뭐 하나수다게. 종류가 뭐 나중에는 보니까 막 여라가지 그 멘짝허게 만들앙도 영 허고 허는 것도 잇주마는 우린 기자 그거 예.
 111061 @ 아까 썩이는 풍낭으로 만들엇덴 헛지예?
 111061 #1 예.
 111062 @ 그다음 그 썩이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이서수과?
 111062 #2 잘 돌젠 허민 그디에 뭐 낭에 끈 돌라매그넹에.
 111062 #1 저 썩이치기엔 헤그네 저 썩이 영 헤그네 양. 죽지 안허게 시리 자꾸 그 나무 요만이 그 즈룩헌데 끈을.
 111062 @ 건 썩이 채고 예?
 111062 #1 그 채로 헤그네 그걸 죽지 안허게 시리 그자 그 흐술 영 죽어불직 덜 돌아가며는아상 치며는막 또 돌곡 돌곡 그추룩 허멍 기자.
 111063 @ 썩이 채는 그면 어떻 준비 헤수과?
 111063 #1 썩이 채야 무신 이디 낭 꼬다네 이디 저 요요요거추룩 고는 거 헤그네 꼬타리에 이 끈 무끄며는.
 111063 @ 이 끈은 무신 끈 마씨?
 111063 #1 험벅 그때는 험벅이어나수다.
 111063 @ 험벅도 귀헤실 건디 그 험벅은 어떻 구헤수과?
 111063 #1 게 어떻사 구헤나신디.
 111063 #2 거 어떻사 구헤나신디.
 111064 @ 험벅으로 예. 거 썩이 싸움은 거 어떻게 하는 거과?
 111064 #1 거 맞으며는 양 그 두개가 영 청 허당 맞으며는 호나가 영 헤그네 그 저 죽어버려 그.
 111064 @ 씨러저부러 예.
 111064 #1 예 그 저 도는 것이 힘이 약헌 거는 센거안티 허며는 거 그것에 이 영 쳐그네 저게 금방 쳐그네 힘이 막 돌아가는 거 허고 미르세 덜 거 돌다그네 찌차 영 죽어가는 거 허며는 그것이 이 영 헤그네 맞으면은 죽어 버리는 거라.
 111065 @ 죽어부는 거 예. 어 그 썩이치기 험 때 기억나는 거 이시면 한 말씀만 고라줍서.
 111065 #1 것도 엇고 기억나는 거 어서.

굴렁쇠

111066 @ 그러면 이제 그 굴렁썰라고 해가지고 그 도레기 돌리는 거 해놨지예?
그거는 그 굴렁썰 도레기는 어떻게 준비해수과?

111066 #1 그 도레기 양? 그 옛날에 자전거 건 저 막 후에 영 윈디 자전거 빠
꾸 기자 경 이서 허며는 그 낭에 헤그네 썬 철사 오그렁 영 헤그네 이추룩 헤그네
게 영 허영 뭐엔 해 낫는다. 건 거 우리 그추룩 계속 해나진 안허고 기자 늠들허는
거 봐도 그추룩 헤그네 뭐 허고 그냥.

111067 @ 그 굴렁 저 썬에는 자전거 다리 저 뭐 댕거 헌덴 허고 그럼 굴렁대
영 굴렁 굴리는 썬는 어떻게 준비 해수과?

111067 #1 그 저.

111067 @ 어떤 모양으로 만들언 마씨?

111067 #1 아 모양은 양, 그 에 나무가 이어진 나무라며는 요롱게 철사 영 허영
이레 영 꺾그네 요런식으로 영 헤그네 요걸 또 이레 영 헤그네 그 저 오그려그네
양, 벗어나지 안허게 양, 한쪽으로 타게시리

111068 @ 음 알아수다 예. 그다음 굴렁썰를 굴렸던 기억은 나지 예?

111068 #1 예 기억은 나고 예.

111067 @ 기억날 때 어 어디서 굴러나고 그 굴렸던 기억 하나만 나면 고라줍
서.

111067 #1 그것이 지 도로에선가 운동장에서 나 모르겠는데, 저 그때는 양, 그.

111067 @ 멀리 빨리 굴리기 대회같은 건 어서나수과?

111067 #1 아 그런 건 어서나고.

111067 @ 운동회때도 어서난 마씨?

111067 #1 예 그 저 운동 운동허명 말명, 학교 그 저 저 그 일년인가 이학년 올
라 오나네 학교가렌 허며는, 기자 침 내 가그네 기자 무신 뭐짜, 그 저 하람 하람낭
이엔 허영 양 그거 백쌍 그걸로 영헤그네 그 옛날엔 비누가 어시나네 거품나게 시
리 헤그네 비누 대신 쓰멍 그런거 자파리 허곡 미신 기자 뭐 허곡 또 뽕이 나가며
는 뽕이 나온디강 엽 뽕 허당 보니까 뭐 4.3 사건 나머리나네 무신.

111067 #2 학콘 가져서 게.

(짱)통차기

111069 @ 게민 짱통차기 라는 것도 이섯지예? 짱통 차기. 짱통에 뭐 집어넣 막
달그랑 달글랑 소리 나는 거.

111069 #1 거 그거 잘 기억 안 나고 예.

111069 @ 짱통차기는 예?

뽕기치기

111072 @ 금 아까 저기 그거 저 뽕이, 뽕이렌 해수과 뽕이렌 해수과 여기.

111072 #1 뽕이 뽕이.

111072 #2 뽕이.

111072 @ 뽕이 치기 엔 헤 난거 예? 뽕이 치기는 어떻 허는 거과?

111072 #2 어떻게 세 나는 거 헤다그네 영 굴리는 거 헤노민 밧두 만들고 무시거 허고 경허지 안헤수과?

111073 @ 예 그 뽕이치기, 그 승 이기고 지고 승부는 어떻 가려마씨?

111073 #1 저 무신 영 밧을 만들어 그네 양, 영 아상 뿔 개 헤그네에 싹 뿌리며는, 그 밧이 뒤데난 경 허며는 이제 거 뽕이를 뿔 개 영 헤그네 모여그네, 침, 그 밧드레 영 찢렁 이영 찢르는데, 걸 옆에 강 타블며는 타블며는그 밧덴 경도 허는디 땅 타며는 저버리고 안탕허며는.

111073 @ 지민 어떻 어떻 헤마씨?

111073 #1 아 그걸 심은 거 양, 하영 심은 사람이 영 이기는 거. 경허며는 그걸 그 종에 심은 사람은 영 세쌍 허며는 쥐버리는 거.

111073 @ 아 그니까 아 이제 그 밧이 요렇게 있으면 뽕이를 이렇게 찍잖아 예

111073 #1 예.

111073 @ 찍으면 이 잘찍으면 요 뽕이 찍은사람은 자기뽕이 가지는거 마씨 아 님 자기 뽕이 숫자만큼 이 밧헌 사람이 주어야 되는 거 마씨?

111073 #1 아니 아니 겨난 저 판사람도 양? 그걸 영 허며는 뽕이가 영 헤그네 이제 요만을 열 개며는 열 개 센 거주마는, 헌디 심영 좀 하영 헤여그네 찍어 그네 헤여그네 거면 그만큼 그 가져올 거 아니파게.

111073 @ 예 예.

111073 #1 겨난.

111073 @ 영 찍어가지고 열 개를 찍었다 거면 하나도 여기 건 건들지 안헤그네 찍으른 성공하른 요 밧인 사람 이사람 열 개를 생 쥐야 되는 거 마씨?

111073 #1 쥐야.

111074 @ 쥐야 되는 거 마씨예. 그른 뽕이 치기 헐 때 그 가장 많이 찍은, 많이 뿔던 거 기억나는 거 어수과? 뿔 개 쫘 찍어나수과?

111074 #2 뿔 개사 신지 그거를 들어보레 와서민 하하하 잘 행 나뿔주마는, 그 걸 알아 지크라? 하하하.

111074 @ 뽕이 철에는 그거 허긴 헛지예?

111074 #2 땡기다그네에 경 자파리허당 자파리헐거 어시민 거 뽕이 뿔양 뿔기는 거주 무신 어디가그네에.

111074 @ 계난 계난 계난마씨.

고무줄놀이

111075 @ 그다음은 고무줄놀이라예? 고무줄놀이, 어 고무줄놀이 헐 때 고무줄은 어떻 준비 헤수과?

111075 #2 그때 고무줄 어떻 준비헤? 가게 어서신가? 가게에 강 사오주 그거.

111075 @ 가게에서 사온거 답으과?

111075 #2 응 어디 강 준비해?

111076 @ 고무줄 했었던 동작 기억나는 거 이수과? 뭔가 노래 불르고 헤냏잖아 예?

111076 #2 그 고무줄에 고무줄 허멍 무신.

111076 @ 혹시 그런 거 어 순이 아버지 담배꽂초에 불이 붙어서 으아차차 으아차차 이런 노래 안 들어 이수과?

111076 #2 모르크라 건 안헐.

111076 @ 어떤 노래 하나라도 기억 해봅써.

111076 #2 아이고 고무줄 헐 때 무시거렌 고라냏저만은 몰르켜 불르지 못허커라.

111076 @ 혹시 거 기억헐 사람 어실건가마씨?

111076 #2 이서도 난 모르크라.

111076 @ 게 맞수다 있긴 이서냏지예?

111076 #2 응.

111077 @ 그면 그 고무줄놀이 하면서 혹시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이수과? 노래는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소나이 아이들 고무줄 짤랑 가불고 그런 건 어선 마씨? 고무줄 짤라난 기억은 이수과?

111077 #1 아이고 나 거 햄시른 그디 강 방해 방해 헤부런 방해.

111077 @ 방해 헤부럿지 예? 그때 혹시 여자아이들 고무줄 하면서 놀아난 거 기억 안남수과?

111077 #1 아 이 놀아난 건 허주만은 영 헌데 기자 강 좀 그 방해헤버리며는 막 이 여자들이 뭐허며는 무시거 허며는 막 기자 아자그넝 영 헤그네 막 울어부러.

111077 @ 울면 게민 내부러수과?

111077 #1 내불주 어떻 가.

111077 @ 미안헐도 안헤그네

111077 #1 미안헐 거.

줄넘기

111078 @ 그다음 줄넘기가 이서에 베뜰락. 예 베뜰락도 헤냏지 예

111078 #1 베뜰락.

111078 @ 베뜰락 헐 때 그 베뜰락은 어떻 헤나수과?

111078 #2 베뜰락 혼자만도 허곡 여라이도 허곡 둘렁.

111078 @ 여라이도 허고 예. 그때도 혹시 여라이 헐 때는 뭔가 불러난 노래 이수과?

111078 #2 베뜰락 헐 때 무시거 헤나시니 잘 기억이 안나는디 뜰락은 헤나신디.

111078 #1 고무줄 헐 때는 산 토끼 토끼 들 불르멍.

111078 #2 아니.

111078 @ 아 고무줄 혈 땀 산 토끼 토끼 해나수과?

111078 #1 산토끼토끼야 불르명들.

111078 #2 고무줄 그거 사 합디가.

111078 #1 불르명들 해나실거라. 그 산토끼할때는 케난 거 4.3사건 후에 우리가 학교 땀기명덜 그때 막 그 고무줄놀이를. 그전에는 이 여기는 촌에 학교다니던 4.3 사건 난 그때 혼 아홉 슬 열 슬 열 혼 슬꼬지는 완전 그 혼 열슬 열 혼 슬 깎지는 지금 다 경허도,

111078 #2 무시거 배와서? 뱀지못했주.

111078 #1 영 모디 가그네 그 뭐 고무줄이여 무신 뭐 허질 못헐. 겐 뭐 저 그날은 뭐 이 막 아주 그 무신 먹을 걸 없던 밥일 못 먹을 정도 영 뭐니까.

111078 #2 이거저거 생각이 어실 때 주.

111078 @ 그면 줄넘기 했을 때 방해해난 거 기억 말고는 특별한 거 없다는 거잖아 예.

그네뛰기

111080 @ 그다음 그네 매달양 그네뛰긴 해나수과?

111080 #1 응 그네뛰기들은 헤.

111080 @ 아 그네는 어디 어디 매달아나수과?

111080 #1 그 올레 뭐허며는 그 저 무신 그 이 낭 두 앓디 영 헤그네 아래는 그자 줌 널작 영 헤영 딱 묶어그네.

111080 #3 올레에 몰구술낭 싱경 묶어났주.

111080 @ 그네 뿔 때는 그네뛰기 할 때는 누가 이기고 지고 어서수과? 멀리가기 같은 거.

111080 #1 그런 건 안허곡 기자, 영 뭐허민 두에서 영 미러 벗 허라허민 고치허민 영 밀러주면 허민 멀리가며는 것도 영 행 멀리 영 높으게 가가며는 모수아그네 거 끊어지카바 뭐영도 허곡 경허민 막 게 밀지 말렌 막 이추룩 허명.

111081 @ 그네 뛰명 특별하게 다쳤던 그런 건 엇고 예?

111081 #1 그 린건 다친 거는 엇고.

한다리인다리

111082 @ 거면에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한다리인다리 하는 거 해났지예? 한다리인다리 하는 거.

고무줄놀이

111075 @ 옛날에, 놀이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까 예? 고무줄놀이 막 해났잖아예? 그때, 어, 고무줄은 어디서 난 해수과?

111075 #1 베, 끈으로. 무시거 그 노끈으로 헨가 했주. 이디 다음에야 고무줄이

주 우리 혈 때는 고무줄이 어서.

111075 @ 어셨지예? 맞수다.

111075 #1 우리가 할 때에는 끈으로 저 무시거 살기, 사끼 꼬운 걸로. 그런 걸로. 그거 무신경구허민, 즐넘기엔.

111075 @ 아 예.

111075 #1 베떨락.

111075 @ 계난 베떨락 말고, 거 베떨락은 나중에 질문 할게예.

111075 #1 아니 아니. 그거나 거나 영 끝으게 해서.

111075 @ 계난 끝으게 헛잖아예? 고무줄놀이예. 계문은 그때, 그, 그, 새끼 꼬운 걸로 고무줄놀이 할 때, 어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뭐 순이 아버지 담배꽂초에 붙어 붙어서, 이런 거 했었거든마씨? 이렇게 들락키명? 그땐 뭐 해나수과? 노래가.

111075 #1 아아, 그 우리 혈 때는 웨정때주.

111075 @ 계난 웨정때.

111075 #1 외정때 일본말로 유빈상, 가시라이데. 허명 영영 뛰명 그런 거 해연.

111075 @ 그 노래 끝까지 기억 남수과?

111075 #1 거 백퀸 몰라.

111075 @ 아 기파?

111075 #1 유빈상 가시라이데 하명 영영 형 뽀주, 사가다치엔 한거는 탁, 영 해단 발로 목영 영 누언 올라강, 사가다치는 영 굽어단 그 영영 다리로 걸렁 넘어가. 건 사가다치.

111075 @ 사가다치예.

111075 #2 거고 그때 여기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알아지른 허주만은 정확히 공식적인 걸로는 몰라.

111075 #1 그 유빈상 가시라이데랑 거 지금 그 거 경헌걸로만 배와부난 몰라. 유빈상 가시라이데하고 사가다치허면은 탁 청 영 헨 베연 넘어가는거. 다리 꼬연 넘어가는거. 경헌 데 해나서. 겨난 이디 말로는 몰라.

111077 @ 그때 그 고무줄 놀이 하면서 막, 막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예. 막 재밌었던 기억 어수과?

111077 #1 그거는 무시거 기자 그런 것만 해나고 오제미 허고 공기만 그런 것만 해난.

111077 @ 해낫구나예, 계문 좋수다.

줄넘기

111078 @ 그 다음에는 줄넘기로 넘어갈게예? 아까예. 베떨락예. 베떨락 할 때, 베떨락 할 때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서나수과?

111078 #1 계난 고사 굿듯 저 무시거 영영 행도 뛰고 영 헤그닝 이래갔다 저리 갔다 넘어갔다 넘어왔다 허고 사가다치엔 한 거 굿사 하는 거.

111078 @ 그것도 거기도 하고예.
 111078 #1 그거허고.
 111078 @ 그 다음에는 뭐 양쪽에 사람이 베 잡앙 영영 흔들면 가운데 사람이,
 111078 #1 어 것도 뛰는 거 하고.
 111078 @ 그거는 뭐랜 마라수과? 그거는.
 111078 #1 뭐엔사 마라신지 것도 하나든 헛는디 몰라.
 111078 @ 하나긴 헛지예?
 111078 #1 영영 뛰민 그냥 영영 딱 뛰고, 혼자도 뛰고 여라이 뗏 사람도 들어강
 영 들게 뛰게 해여. 들어강 해여.
 111078 @ 게 혈 때, 그때도 뭔가 막 말 노래같은 거 하면서 계속 헛지 안혜수
 과?
 111078 #1 게메 혜실건디.
 111079 @ 기억이 안남수과? 혹시 그런 것들 기억할 수 이신 사람 어신가 마씨?
 111079 #1 아이고 어서. 다 죽고, 당추 없어.
 111079 #2 그때 지금 수망리가,
 111079 #1 그때 그것도 아무나 안 혜서.
 111079 @ 응, 게난 어떤 사람이 혜수과?
 111079 #1 아니 그, 대게 저 무시거 학교 텅기고 영 한 사람이 헛는디. 그 시절
 에 여자들은 학교를 잘 안혀고, 필락은 그거는 여자덜만 헛게.

그네뛰기

111080 @ 맞수다, 여자들만예. 그든 그 다음엔 그네뛰기가 있잖아예, 그네뛰기
 예. 그네. 영 벳줄 걸어정 널짝 헤가지고 헛던 거.
 111080 #1 응.
 111080 @ 그네뛰기 헛었던 기억 얘기혜줍서.
 111080 #1 그거 마랑 무시기엔 혜신고 그네뛰기 할 때. 몰르크라. 혜난게빈 알
 아지는디 건 몰라.
 111080 @ 그때도 그건 그네렌은 혜수과?
 111080 #1 응, 영 뛰는 건 영 저 타네 영영 허는 거. 혜낫주만은 얼 못한게.
 111080 @ 응, 건 누가 어디에 메달아 놔신지는 기억 안 남수과?
 111080 #1 건 나무에 메달안 경허지 았아신가? 영 무시거세 혜나는 건 알아져.
 111080 #2 거 학교에 그것이 학교에다 있게 거이 하나씩 이섯주.
 111080 #1 학교에 저, 아무디나 어서.
 111080 @ 학교에 이서 낫구나예.
 111080 #1 어, 학교에. 아무디나 어서.

한다리인다리

111082 @ 그다음에는 예, 어 한다리인다리 헛던 거 기억나지예?
111082 #1 응.
111082 @ 한다리인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111082 #1 다리 영 번영 고 아장,
111082 @ 영 한번 영 헤보십서 삼춘이영 그찌.
111082 #2 영 영 다리를 게 한다리 인다리 곤들 만들 영험시리 놔가지고이.
111082 #1 영 다리를 몇 번 영영 영,
111083 @ 그걸 한번 헤봅서. 한다리 인다리 곤들 문들,
111083 #1 나 흐는 거 허카? 하르방 험서.
111083 #2 난 몰라 이자부런.
111083 #1 흐다리 인다리, 개충 대충, 영님 수예, 부지떼기 떡 헤신가? 부지떼기 땡헤신가? 몰라.
111083 @ 부지떼기 떡, 부지떼기 땡.
111083 #1 부지떼기 땡! 경 현것도 나뵤,
111083 #2 부지땡인 뵤지 알아?
111083 @ 예게, 불스물 때 쓰는 거마썸.
111083 #1 정도 궂고.
111083 @ 다시 예.
111083 #1 개충 대충, 그거 여랏질이라. 여라가지.
111083 #2 여라가지,
111083 @ 하? 다시 한 번 다른 걸로 헤봅서, 한다리 인다리.
111083 #1 그거는 허는디 개충 대충, 궂싸 영 험수 그라신가, 응?
111083 @ 예, 예.
111083 #1 응, 개충 대충 어땡헌 거 모르크라. 경헌 여라 가지라 것도.
111083 @ 거난 여러 가지 중에서 개충 대충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기억헤줍서.
111083 #1 개충 대충, 흐다리 인다리, 개충 대충, 부지땡이 땡. 헤져신가.
111083 @ 예, 그 다음 삼춘 기억하는 거 뵤 이수과? 한다리 인다리.
111083 #2 그거 나이, 거 한다리 인다리 보통 여자들 하지 남자들 벨루 안 헤노니까,
111083 #1 다리 버덩아장 그런 거 하고. 막 헤난 게 소용어서. 이제 막 이저비언.
111083 #2 남자들은 벨로 안헨,
111084 @ 잊어부런 예. 그 다음 우리 한다리 인다리 그거 하면서 어 이기고 진 건 뵤로 결정합니까?
111084 #1 몰라.
111084 #2 게니까 요거 하면 예 하든 이 허든 땡 한건 이거 빼어부러야주게?

111084 @ 아, 예.
 111084 #2 계민 내중까지 이신게 이긴거라.
 111084 @아, 기구나예.
 111084 #1 어떻 해진 거 모르크라.
 111084 @ 계 이기면, 이기든 그거에 대한 뭘 주거나 받거나 해수과? 너 이겨서 나네 뭐,
 111084 #1 대게 연말에는 무시거 허다그네 지면은 딱 매나 맞추고, 몰라.
 111084 @ 아, 계난 매 맞을 땐 어디다 때려수과?
 111084 #1 이거 헐 때는 이 다리를 때리게 뒤고, 험거 어떻산디 막 알룩달룩 똥 모르크라. 거 두린 때 해난 계 계난 힘들어.
 111084 #2 계난 마지막까지 남은 계 제일 일등이주뒤.
 111084 @ 맞수다예,
 111084 #1 알지 못할크라.
 111084 @ 그 한다리 인다리는 몇 나 날때까지 해수과?
 111084 #1 폭, 해난 것만 얼굴터지고,
 111085 @ 막 나중에 처녀 총각 때도 헐 때도 안 험마썸?
 111085 #1 아, 그런 땐 안 허고.
 111085 #2 처녀 총각 우리 처녀 총각은 먹기가 바빠시난. 먹을 거 이 구하기가 힘들엇주.
 111085 #1 그 시절에 삶이 얼마나 어려완.
 111085 #2 우리가 4.3사건 때 열 여섯인디, 어려왕. 저 굶지 아녀믄.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자 그러면 예 거 질문해 볼게 예? 어 통과의례 중에서 예 땐 먼저 태교는 어떻 해수과? 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 하면서 살아수과?
 112001 #1 아무 생각도 안허고 기자 살당 보민 배불며는 애기 배저신가 헤영 기자 그날 저날 날 때 어떻허코 어떠한 애기 가져저신구 것도 안허고, 살당 보민 날때 되민 배아프민 나오민 기자 나고 경헛주. 어디 검사 땡기곡 어떻 해점신고 정정 세지 안험 살양 아이고 삶이 바빠노난.
 112001 #2 그때는 태교 생각 허도 안헛주.
 112001 @ 우리 애기 나면 막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지 생각 안해수과?
 112001 #1 아이고, 그 생각이 어디실말이라. 그 생각 헐 생각 기자 나당 살당 보민 배어지민 배어저신가 헤영 나민 난 대로 기자 꺾꺾 밀려부멍 젓 줄때도 양양 울어나가민 젓 흐술 쥐동 저래 밀영 네불고 헛주. 질머져아정 받아두 땡기고 애기

구덕 앉히고 경 했주. 우리 애기 키울 땐, 애기자 마자 아장 강 담 엠드레 네비동, 기자 일허곡. 애기 것이 무시거라 애기죽도 아이썬썬. 기냥 경해도 거 다 살안.

112002 @ 출산 계민 애기날 준비는 어떻게수과?

112002 #1 준비는 무시거 나땅 나며는 기냥 난데로 했주.

112002 @ 경해도 애기 옷이라든가 그 봇데저고리 같은 거.

112002 #1 애기 옷은 응 봇데저고린 게 호며는 호나 날 때 웨민 그 준비 헛단 해서? 그땐 시어머니가 체암 해주민 호나 그거 키와나민 그거 낫당 따시 난거 허곡 경했주. 무시거 험벽 명우리루 독지에 쓸 거 호썬 기자 이녁 냥 멘들양 입지고 지성귀도 기자헌 주력 호썬 영 감양 키우고 경했주. 아이고 애기 죽 써주고 우유주곡 하간거. 올민 우는 대로 그냥 네빈 거 다숫 개.

112002 @ 그믐 애기 어디서 나수과?

112002 #1 집에서 게.

112002 @ 집에서 예?

112002 #1 응.

112002 @ 누계가 반안 마씨? 애기 받은 건 누계가 받아수과?

112002 #1 누계 받아게. 애기 난후제사 동네 사름ㄴ라 ㄴ르민 오랑 영 세갈라주곡 했주.

112003 @ 그 세갈르는게 텃줄 끊어 준다는 말이파?

112003 #1 응.

112003 @아 그러면 그 텃줄은 동네사람 누계가 왕 끊어 줘수과?

112003 #1 우리 동네 저 신축사람 오라네 끊어주고 그 태는 영 헛다그네 삼일 되민 머리 몸곰고 태는 스라불고.

112003 @ 태는 스라부러수과?

112003 #1 응.

112004 @ 그며는 이제 날 들 되가면 애기난 다음에 뭔가 끊어 먹어야지 헤가지고 그 준비한 음식은 뭘 준비해나수과?

112004 #1 아이고, 그 애기 나며는 기자 끌러먹는 거는 거. 허허 모물ㄴ루, 모물ㄴ루 카 먹는 거. 캡, 게 썬~ 만들양 그거 먹는 거 뿐이구. 춤 애기 어떻 애기 낫젠 허민 무시거 늘레난 거 먹어산덴 허멍 바닷꺨기 호깁 사당 국이나 혼직 끌러주민 메역.

112004 @ 시어머니가 끊여 줍디가?

112004 #1 응 경헨 먹언.

112004 @ 친정에 강 안 나수과? 애기를?

112004 #1 아니, 친정에 아니.

112004 @ 아예 사는 집에서 나수과?

112004 #1 응 사는 나고, 누계 어신디서도 나고, 기자 이녁만 이녁대로 나고게.

112004 @ 몸조리는 마씨?

112004 #1 몸조리 하곡, 하간거 무시거 몰라 그냥 살아.

112004 @ 일어남 밥 밥도 혼자 행 먹어수과?

112004 #1 응.

112004 @ 혼자 스스로?

112004 #1 혼자 헤먹고 먼~먼 한 물도 기자 질고, 기자 경행 살았주. 몸조리도 어디실 말이라 몸 조리 하는 거는 그 머리 몸 사흘 돼민 머리 몸 곰주, 그거하민 그때부턴 기자 밥도 이녁대로, 물도 이녁대로, 애기명 버문 옷이명 다 이녁대로.

112004 @ 아 거든 잘도 삼춘한테 섭섭 헤시켜 예?

112004 #1 응 이 삼춘은 맘이 큰큰 걱정을 안헤주난. 아이고, 저런 아방이 만나 난 엔 결국 헐 걸로 알도 안혀고 섭섭도 안혀고 원 그런.

112004 #2 난 애기 날 어떻 난치레 알도 못헤여.

112004 #1 아방이 어디 옛날엔 차어시난 일가네 애기 나네 흔 메틀 되도 오도 안현거라.

112004 @ 허허허허. 어떻 걸 견더네수과게.

112004 #1 경허명 산 사름이나네 이제는.

112005 @ 애기 목욕은 계난 삼일 있당 목욕 시켄 마씨?

112005 #1 애기 게 삼일 시면 애기 그 곰극 이녁 쑥 헤그네게 숲아그네게 몸 곰극. 또, 헐나 저 나가 네 개차 난 때는, 속 헤렝 애기 나도네 속 헤다네 숲아네 머리 몸 곰고 경헤,. 나냥으로 헤단. 게도 아방ㄴ라 곳도 안혀고, 아방ㄴ라 영 헤여 신걸 헐 곳도 아니헐 우리 흔세상 살안.

112005 @ 아이고, 진짜.

112005 #1 다 경허여.

112005 @ 막 꼬집아 봅서 옆에서. 하하하하.

112005 #1 아방이 마음이 큰큰헤노난 당초 짐상헐게 안혀는 때문에 곳ㄴ정 안헤.

112006 @ 어 그면 그 애기 그 붓데창옷이렌 하잖아예 붓데 그런 건 어떻 준비 헤수과?

112006 #1 그 것 애기 난 때. 애기 나며는 그 무시거 베나 멩지나 헤그넝에 만 들양 결헤난.

112006 @ 것도 직접 만듭디가?

112006 #1 응.

112006 @ 게 큰아이 입어난거 죽은 아이 물려주멍 예?

112006 #1 응 말젯도록 거 입어난거 입주고.

112006 @ 게 이제 그거 어수과? 애기꺼

112006 #1 뽀나사 데껴비주게 애기사 다 나비난.

112006 @ 아 경헛구나 예.

112006 #1 응.

112007 @ 그다음 예는 그 할망상이렌 해가지고 그 애기들 위해가지고 하는 그 할망상은 안 해봐수과?

112007 #1 안 해.

112008 @ 그다음엔 그 베넷머리렌 해가지고 알아지쿠과? 그 애기 금방 낫을 때 뭐 영 해주는거.

112008 #1 무시거 애기 그 침 저 애기난 때 봇텃옷백긴 해준 거 아무것도 어서.

112008 @ 아무것도 어선 예. 게도 아이들이 잘 커주고 예.

112008 #1 응.

112008 #2 건디 우리 집이 아이들은 세상모르게 컨. 아프질 안해네 커노난 우리 부모는 낫주. 아이들 아픈 건 고자 구경 못해시난.

112008 @ 기지 예.

112008 #1 경해나난 난 이젠 막 보리세 생겨 나가 막 아광 밤인 완전 환자라 경해도 낫엔 영 탕기난 못살진 안혀고.

112008 @ 게도 불교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며는 베넷메는 베넷머리 밀어서 존텐 해가지고 왜 대부분 초파일 전 날인가 머리 싹 밀어붙잖아 예?

112008 #1 머리는 저 초파일 되면 애기 머리들은 ㄴ사서.

112008 @ 다 고사 아 베넷머리 다 잘라수과, 그 때?

112008 #1 응 베안네 머리 ㄴ사부는 거 .ㄴ사비야 다시 곧 머리 난텐.

112008 @ 계난 계난.

112008 #2 그 말이엔 허는 건, 그건 ㄴ지게.

112008 #1 ㄴ사.

112008 @ 그건 초파일 때.

112008 #1 초파일 때 ㄴ사.

112008 @ ㄴ습디가?

112008 #1 세번 ㄴ사주민 막 존넨 세번이면 삼년 ㄴ는 거주. 막 경해도 세 번 ㄴ장 아녀도 혼뻘은 ㄴ사.

112009 @ 주로 옛날엔 막 이런 예방 접종 같은 거 어서그네 그 천연두나 홍역은 어땡 해수과?

112009 #1 홍역 헛주게.

112009 @ 다?

112009 #1 응 아이들 다 헤영.

112009 @ 게도 별일 없이 다 잘 자라쥬 예?

112009 #1 응 아니 췧 애기에는 막 승바네 허난, 막 저 나그넨디 심방헤단 막 빌명 행 공들여네 살아난. 다음엔 그냥 헤도 알지 못헿 넘어 가불고. 체아 췧 애기엔 막 걸루 승바네 막 죽을 걸 춤 막~ 심방헤단 빌어네 거 정신 출령 살아난. 잘못 해부난. 나무긴 경헌디 손지들은 기거 허는냥 어서 이제 그런 거 안혀는 거라.

112009 @ 이젠 예방접종 허난.

112009 #2 예방접종 이젠 다 해부난 뭐.
 112010 @ 그다음엔 그 얘기 나게 되면 뭐 솟 메거나 경혜나수과?
 112010 #1 아니 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헤여 그냥 네부는 거라.
 112010 #2 아 손 메는 사람도 이서.
 112010 #1 경 현 사람 잇주. 난 아무거에도 기냥 네비어.
 112010 @ 얘기들 게면 손메면, 왜 삼칠일날 삼칠일 동안 안본덴 헛는데도 그냥 얘기 또 다른 사람 보레 와도 그냥 보렌헤수과?
 112010 #1 응 그냥 네비어 아멩도허고 그런 뭐 어시 그냥 네부난 아무것도 안헤연 살앗주.

혼례

112011 @ 그다음엔 저가 처음에 그 여쭙본 것 중에 하나 인것도 하지만예 이제는 두 분이 결혼한 혼례에 관해서 저가 물어볼게예?
 112011 #1 응.
 112011 @ 그때 당시에 저 결혼식 잔치 헐 때 어 수망리서 수망리 왔덴 헛지예?
 112011 #2 응.
 112011 @ 거면 어떻 헤수과? 그냥 뭔가 뭐 가마라도 탃거나?
 112011 #1 가마 탄.
 112011 @ 가마 탄 왔지예?
 112011 #1 조디 완.
 112011 #2 가마타고 신랑은 뿔 타고.
 112011 @ 뿔타고 예.
 112011 #1 응.
 112011 @ 그른 집이 그 결혼 저 시집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뿔신디 가마 탃와수과?
 112011 #1 아 저디 알암신가 저~디 그 저디 스무소.
 112011 @ 예.
 112011 #1 알아신가?
 112011 @ 예.
 112011 #2 스무소엔? 경로당 경로당.
 112011 #1 경로당, 들어간디.
 112011 #2 경로당 바로 들어간디 이 집이주.
 112011 #1 우리집 친정이고 시집은 어딘고 허민 이 바른 서넉편이 저.
 112011 #2 그 상옥이네 집 쪽곰 우넉편이 그디서.
 112011 #1 웃드레.
 112011 @ 거민 몇 발자국도 안 걸을 건디도 가마는 타는.
 112011 #1 가마타고, 뿔타고, 저 다 우시 오는 사름도 뿔타고, 또 그 가마 탄디

신 저 몰탄디나 그 옛날 헤인, 느진 사람, 그런 사람 이저 몰 영.

112011 @ 잡고 예?

112011 #1 잡고 쟁해난 거. 또 머리도 이만은 헨 건지 테레비에 막 나오는 게. 머리 이만~헌 등지렁 헌디 그런 건지 엇지고, 옷도 거 장옷이엔 헌거 그런 거 입고.

112011 #2 우리 군대선 앞 앞 바로 앞 집이 집이서 신랑신부 절해도.

112011 @ 가마는 타고.

112011 #2 아 가만 안해네 거긴 군이이난 군대난, 우린 기마 만들어네 우리 군덴 구마 만들양 실랑 태와네 들어가난.

112011 @ 아 정도 해나수과?

112011 #2 아니 계난 그 신랑이 이북친데.

112011 #1 육지 육지.

112011 #2 거난에 그 안거레에선 그 신부네 집이 산 거주게. 신부네 집인데 이 육지는 디곳자 집이서 이? 디곳자 집이니깐 앞에 집은 그믐 옛날 여기에뎌 이문간 이주. 저 거기선 신랑 절허고 안에서는 신부 절허고 이 마당에서 결혼식 허고 쟁헨.

112012 @ 예 그 서로 이제 중매 해가지고 결혼하섯텐 헛잖아예

112012 #1 응.

112012 @ 그 중매할 때 누게가 중신 서고 어떻헿 사주보고 사주엔 뉘 어떻헿 나오고 헌거 쪽 한 번 고라쥬봅서.

112012 #1 중매는 동넛 어른이 허는디, 저 스지 보는 거는, 그 시집이서 강 시 부모님이 강, 우리 친정에 가그네 거 난 날 난 시를 빌어온 것 그라, 소지 빌어오미엔 흐주. 쟁 헿 빌어당 어디강 알아봐그네 잔치, 저 스지팔자가 조텐 하네 잔치 흘만 흐우다 헤그네, 아틀가민 어디 배아봅서 허멍, 친정에 아저가민 신부집이서 아저 신부집이 가민 신부 집이선 배아보쟁도 안허곡, 아랑 좋텐 허민 합서 헤불민 기냥 시집이서 택일 허고 뉘 아저오는 거.

112012 @ 기지 예 게 두 분은 그냥 막 서로 궁합이 맞으난 소주가 맞텐 마씨?

112012 #1 맞텐.

112012 @ 다행이다.

112012 #1 맞텐 해낫주.

112012 @ 계난 아이고, 우리 여자 삼춘이 완전 잘 춤으멍 잘 헤신게 예. 그다음, 전화 받읍서 받읍서.

112012 #2 예 거 서울 전환디 전화.

112012 @ 아이고 거면 거 무시거 사기치는 전화구나 예?

112012 #2 02면 사기전화.

112013 @ 그다음 그 저 막판지렌 해가지고 그 저 택일 받을 때, 그 편지 주고 받잖아예? 그건 어떻 헿 누가 어떻 헤쥬수과?

112013 #1 아 쟁헿 택일 헤영.

112013 @ 예 택일 헤영.
 112013 #1 아저 오며는.
 112013 @ 예 되수다예 글로 노쿠다 예. 편하게 안지십서 예 아저오면.
 112013 #1 아저오랑 우리 저 집 친정에 아저오민 친정에서 부모님이 받는 거주
 계.
 112013 @ 예.
 112013 #1 날짜영 날짜 택일 거 받는 거.
 112013 #2 거난 난.
 112013 @ 몇월에 헤수과?
 112013 #1 셋들 음력 셋들 초일렐날.
 112013 #2 겐디 어 어린 나는 택일 사례 가신디 뭐신디 몰라.
 112013 #1 여자도 몰르메. 부모 들이 알앙헤여.
 112013 @ 어른들이.
 112013 #2 아니 어느 때냐 하면 나가 군대 신편데 마지막 휴가와네 그추록 헤
 네 구허겄다고 허더라고, 내가 어머니신디 구협셴 허락만 헤돈 가분거주게. 가노난
 그세 제대행 와보난 벌써 택일 나부런.
 112013 #1 이 군인 가불 때 택일은 헛단, 오란 제대행 오란 결혼은 현거.
 112013 #2 제대.
 112013 @ 그때가 스물 멧 낫뎌 헤수과?
 112013 #1 옷쓸, 스물요섯.
 112013 #2 스물여섯.
 112013 @ 그때는 스물여섯이면 막~ 늦은 나인데 걱정 안웁디가?
 112013 #1 무신 걱정?
 112013 #2 허허허.
 112013 @ 혹시 시집 못가카부덴.
 112013 #1 아~, 나이 들언 시집 못 가카부덴?
 112013 @ 예.
 112013 #1 아니 시국 때문에 못간 막 하.
 112013 @ 아 그렇구나.
 112013 #1 시국 따문에 못간 우리보다 우이도 하네. 시국만난 시집 못 간 거.
 112013 #2 아 거난 저 여자들은 막 남아돌고 남자들은 엇고 하니까 문제주. 그
 우리 우에는 그니까 각시가 두 개, 시 개 현 사람들토 있는데.
 112013 @ 맞아 예.
 112013 #1 그때엔 못 가카부덴 허질 안혀고.
 112013 #2 각실 멧 개라도 허젠허민 헛주.
 112013 #1 시국 따문에 시집 못가고 군인 가불 뎌 허난, 그때 우리찌렌 나이 막
 향 간 다 우리보다 우이 뉘영 막 갓주.

112013 #2 요세난 허주.

112013 #1 겨난 그 난 나이 하질 안혀고 우리보다 아랫 사름도 가기는 가도 보통으로 생각혜진 당쾌, 나이 하덴 생각은 안세연. 스물 요섯에 가네 애기 스물일곱에 낫주만은, 스물 요답에 간 사름도 이서난. 시국 때문에 시집 못가. 무사 못 가느냐? 저 잔치할 행편도 어성 못가고.

112013 @ 아 맞수다 예.

112013 #1 응 잔치할 형편이 어서.

112013 #2 스물 여덜 누게라?

112013 #1 응?

112013 #2 누게 스물 여덜에 가서?

112013 #1 순길이 어멍.

112013 #2 순길이 부부 우리보다 먼저 갔지.

112013 #1 순일이 어멍 스물 요답에 갖추게.

112013 #2 우리보다.

112013 #1 요답이라도 우리보다 세나 우이 아니파게.

112013 #2 아 세나 우인데 지금 순길이 세 번쨌 아들이.

112013 #1 아 갱수 답수다 갱수.

112013 #2 경수민 모르지?

112013 #1 경수.

112013 #2 순길이 어멍은 당쾌아니라.

112013 #1 순길이 어멍은 아니 담고.

112013 #2 아이 아이라.

112014 @ 그 잔치 끈냥 이제 그 저기 친정에 갈 때 이바지 음식 같은 건 안혜 수과? 친정에 가그네 하루 밤이라도 자그네 와나수과?

112014 #1 장 오주게.

112014 @ 겨난 시집올 때 이바지음식.

112014 #1 아 그른 거 우리보단 우에는 이섯는디 우리 헐 뎌 안혜연. 너무너무 어려울 때라난. 응, 어려울 때 그보다 우에는 이서서. 헤여가고.

112014 @ 맞수다. 맞수다. 그 우에 이서수다 예.

112014 #1 응 우인 이섯주. 우리 그뎌 안혜연.

112014 @ 그른 보통 위에 어른들은 이제 삼춘네 보다 낫살 혼 땃 살 땃 나 위들은 이바지 음식을 혜실거 아니과 예?

112014 #1 응 혜연.

112014 @ 무신거 혜신고 예?

112014 #1 옛날엔 거스름 떡이라고 떡 헤여 가고.

112014 @ 예.

112014 #1 그디서 또 받아먹으민 그 그릇을 그냥 아이 보네어. 낫당 다시 혜오

고 경혜.

112014 @ 거스름 떡이렌 하면 어떤 떡들 해수과?

112014 #1 거스름 떡이엔 헌거 무신 떡게, 그 저 시릿떡 친떡에, 그 무시거 영
헌디 부칭 헐 거. 옛날 말로 저 무시거 빙떡.

112014 @ 빙떡?

112014 #1 빙떡이라도 해놓고 영 흐쓸 흐나허고.

112014 #2 빙떡, 여기 말론 쟁기떡.

112014 @ 예 쟁기떡.

112014 #1 영 섞영 흐쓸씩 노나 먹을 거 해난게 거스름떡이라.

112015 @ 그다음엔 혼수 할 때 그때 이불 몇 채 헛텐헛디가?

112015 #1 세 채.

112015 @ 게 어땡한 이불 세 채 씩이나 해집디가?

112015 #1 어땡 어땡 허당 보난 경혜전게.

112015 @ 딱 이불 세 채만 헛 마씨?

112015 #1 응.

112015 @ 퀘나 이런 거 안해수과?

112015 #1 그런 거 안허고 우나 가분 후제 허는 사람들도 퀘덜토 허고 무신 츄
츄.

112015 #2 이디 우리 집이 나 짠 퀘 이서.

112015 @ 그 결혼하기 전에 짠 퀘 마씨?

112015 #1 아니.

112015 #2 나 짠 거는 차후에지. 나 목수 질 헐 때 짠 거.

112015 #1 결혼 후에야 하르방이 짜주난 짠 거.

112015 @ 몇 년쯤 돼수과? 퀘 짠지가.

112015 #2 저것도 혼 사오십년 땀지?

112015 #1 스오십년이 무시거과게? 저 그 저거 이디 오나네 짜신가? 아니우다
게.

112015 #2 이디 온지도 오십년이 넘었지게.

112015 #1 계난 얼마사 돼신디. 퀘 짜고 그 나 시집 오라븐 후에 퀘 짜고, 그다
음에 단수 해갓주. 당추 그런 거 어서.

112015 @ 아 그다음엔 단수를 친정에서 해줍디가?

112015 #1 아니 경 가는 사름이 헛단 허는 거주 난 안허고.

112015 @ 아 안해수과?

112015 #1 응 난 안허고.

112015 @ 그 퀘 짜주난 막 좋읍디가?

112015 #1 건 좋앗주게. 하르방 해준거.

112015 @ 아 그게 첫 선물이파? 그게?

112015 #2 선물이라게? 우리 살명 우리 쓰젠 헨거지.
112015 #1 우리 냥으로 헨거.
112015 #2 준건 아니주게.
112015 @ 게도 우리 쓰젠 헤도게, 그래도 각시 입장에선 게 이거 얼마나 받은
느낌 들거 아니파게.
112015 #1 응 하르방 선물 하르방 그거 짤.
112015 @ 반지도 하나도 안헤 줍디가?
112015 #1 그런거 당최 어서.
112015 @ 후제라도.
112015 #1 아니.
112015 @ 이제라도 확 헤줍서.
112015 #1 아니 흠이랑 말앙.
112015 #2 반지 이디 조암 이디 이디 반지 이지 줘비서.
112015 #1 애기들 먼 헨 반지 목걸이 다 해주난, 나 이젠 어디 놔진것도 몰란
죽어불며는 못 좇고 생각날 때 줘볼켄, 딱 하르방 반지영 나거영 나 목걸이.....
112015 #2 나가 것도 줘비서?
112015 #1 예. 목걸이영 큰메누리한티 다줘.
112015 #2 거 나한티 허락도 아이받앙?
112015 # 에 큰메누리.
112015 @ 언제 언제 반지 주고 받읍디가? 게난.
112015 #1 아 사아트레 애기들이.
112015 @ 아 애기들이 헤준 거.
112015 #1 애기들이 생일에.
112015 @ 아.
112015 #1 애기들이 헤준 거. 하르방 안티 거 받읍이랑 말앙 원. 기자 살고.
112015 #2 거 저 나 반지는 99 년돈가 그 저 IMF 때 걸 갓당 바친거주게.
112015 @ 예.
112015 #2 건디 그 다야몬드가 이서 예. 그거를 뺏오렌 허더라고, 나 뺏줄 모르
갓다. 거난, 금만 헤그네 녹여그냉에 이디 하젠 허난.
112015 #1 게난 그 애기덜.
112015 #2 그때 그세 그걸 안 받아네 거 안헤민 그디서 줘볼건디 아정왔주.
112015 #1 아, 어느 때 신고 허민 한갑에.
112015 @ 아 환갑에.
112015 #1 아기들이 한갑에 헤준 거. 우리 해주난 나 요 흥번은.
112015 #2 한갑에 흥것도 20년 넘엇네이.
112015 @ 아 진짜 예.
112015 #1 한갑에 흥 거. 근데 이젠 메누리 줘부서. 메누리 겨난 당추 말덴 헤

도.

112015 @ 큰메누리 마씨?

112015 #1 큰 메누리 쥐불주게.

112015 @ 아이고, 잘해수다.

112015 #2 작은메누리린 여기 안살아난.

112015 @ 계난.

112015 #1 아이 사나 마나 원치 큰메누리주게.

112016 @ 맞추다게 예. 그다음에는 예 결혼 할 때 그 예장, 예장에 대해 고라줍서.

112016 #1 여장도 받고.

112016 @ 어떤 예장, 예장에는 어떤 게 ,뭐 담아지고, 누게가 누구한테 주고 해수과?

112016 #1 예장 사, 씨 가민 저 친 친정에서 상들, 상 폐와나그네 상불 피우곡행, 상불 피우곡 행, 그걸 봤는디 그것 옛날에.

112016 #2 거 여장이엔 헌건 집안 내력을 쓰는 거난에.

112016 #1 옛날에는 그 여장 받았, 잘 하기 전인 신랑 안들여놔. 문 단장 맞기 데 세왕 안 드러놔. 그 여장을 익어 뵙 그 집이 문 맞게 써시면, 집안 내력을 맞게 써시면 드러노렌 혜영, 저 서방을 들여놓는 거. 경해서.

112016 #2 건디 그거시 잘못 엉터리로 쓸 수도 있주게.

112016 #1 잘못 쓰며는 신랑 못들어 오민 안들여 놓는 거. 겨난에 그 들우에서 새로 곳지는 사름은 곳정 들여 놋넨 허고.

112016 #2 아 경도 해났지.

112016 #1 옛날에 이제는 그거 어시 험주?

112017 @ 계난 예? 가문잔치 땐 어떻해수과? 그때 가문잔치.

112017 #1 가문잔치 때는, 옛날에 도새기 하나 잡아그넵에 가문잔치를 허면 이제추룩 쓸밥이 아니고, 가문잔치 날은 보리썰에 좁쌀에 보리썰에 좁쌀에 곤썰 즈깁은 섞영 가문 잔치 허곡, 잔칫날은 보리썰에 곤썰에 섞어그네 허곡, 경헨.

112017 #2 거 어순집이 허는거난 뭐. 여기 썰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주.

112018 @ 예 그다음 우시로는 어 누구를 데려와수과?

112018 #1 아 우시는 저 웨갓집이서 혼 분, 신랑집이서 혼 분.

112018 @ 어떤 사람들 마씨?

112018 #1 계난 어떤사름이 가는공 허민, 그 그 가문에서 촌레가 잇고, 우시 가사 촌레로 보네는 거. 또 대반은 누게가 앓는공 허민, 메누리 새각시 헤어오는 시집이서는 동세 되는 사름이 앓고, 동세 어신집인 삼촌 되는 사름이 앓고, 또 친청에 강 새스방 우시는 누게, 누게 저 대반은 누게가 안는공 허민, 그 동세 되는 사름. 그 신부네 아즈방 되는 사름이 앓곡, 또 우시 보낼 땐 시집편이서는 그디 갈만한 그디 안에서 보네곡, 웨갓집이서 보네는 사름은 아멩한 사름이 가도 기자 조름에

강 마는 거. 건 안 돼고.

112019 @ 거 대반은 누가 앓아 수과?

112019 #1 계난 대반이 앓는 사름이 새각시 대반은 동세 뵈 사름이 동세 뵈 사름이 앓곡, 동세 츠레가 어신 사름은 삼춘 뵈 사름이라도 여자 대반은 경허고, 남자 뵈던 또 처가집이 대반은 누겐궁허민 그 새아즈방 남편이나 누게 뵈사름 앓는 거.

112019 #2 대반은 아무나 앓지지 안헤.

112019 #1 건디, 대반이 좋은 사름이라. 좋은사름이 어떤 사름인고, 각시 죽어부나 남편 죽어븐 사름은 안 아자.

112019 #2 아이 아이 앓혀주지 안허지.

112019 #1 또 밥도 옛날에 신랑 밥이나 신부밥이나 밥 거를 때 거려 놓는 건, 밥거리는 사름 맥이는 거 거리는 건 아무나 허는디, 그건 흐쫂 골려. 옛날에 그런 거 잇고 경헨.

112020 @ 그다음에 부조는 그뻐 어떻 헤수과? 부주.

112020 #1 부지는게 한즈금 무시거 안헤그넵에 그 시철엔 이젠 돈이 널어지고 하간거 헛주마는, 뵈나마나 쫂 계난 쫂 흐말에 보리 쫂이나 곤쫂이나 흐말 허난, 석 뵈 부지 말라 현건 말 곳는디 말 곳는디 섞은 것도 석 뵈 뿐이고, 관 관뵈로 네 개가 흐말인디 세개 흐는 석뵈 부지는 말라.

112020 @ 무사 석 뵈 부지는 하지 말렌 헤신고예.

112020 #2 석 뵈 부지엔 현건 지금 우리가 오늘에 거시기 줌.

112020 #1 석 뵈를 석 뵈 부지는 안허난에.

112020 #2 남 허는 거 차별, 차등 뵈 허는 거.

112020 #1 말로 허며는 석 뵈 부지엔 현거는 안허는 말 허지 말라 석 뵈 부지 허지 말라. 말 잘못헨 흐 섞어 가도 석 뵈 부지 허지 말라 허주게.

112020 @ 거난 그거를 그 쌀로 석 뵈만 하지 말라는 건디, 나중에 석 뵈 부지 하지 말라고 들어갓잖아 예? 거 왜 석 뵈는 부지하지 말렌 헤신고예? 거문 두 뵈는 헤도 뵈수과?

112020 #1 두 뵈는 모르는디, 아멩헤도 흙은 흐고 흐말이라게.

112020 @ 흐말 헤서 부족헤부난 경한거 담다 예?

112020 #1 응 겨난, 말 곳는디도 무시거 섞어가민 석 뵈 부지하지마라 하지. 겨난 경헛다고 말헤 줘. 흐말 안들인 부지 허지 말라, 하지. 이제는 보통 그자 돈으로 흐나네. 오만 원이나 삼만 원이나 그걸로 영 넘어 감주.

112020 @ 맞수다 예. 건디 어저께 보난 부지도 다 사름마다 허젠 헤버리면 막 부지 액수가 많아지잖아예?

112020 #1 경허는 거 이제.

112020 #2 겨난 거 남자들은 경 안허는디 여자들.

112020 @ 계난.

112020 #1 상디 한딘 하주.

112020 #2 겨난, 옛날 옛날부터 해난 방식이 이서노니 여자들은 흘수가 없어. 거 받은데가 잇으니까 갇아야지.

112021 @ 맞수다 예 근데 혹시 암참개라는 말 들어봐수과? 암참개?

112021 #1 아~, 그런 거 잇주게. 암참개는 어떻 허는경고 허민.

112021 #2 잘 아네. 난 몰랐는데.

112021 #1 저 신랑 아이간 여자만 가는 거 ㄴ라 암참개.

112021 @ 계난예? 어떤데 암참개를 해야 돼수과?

112021 #1 어떻 허다가 어떻허는고 허는공허민, 시집 체암허는딘 그른 게 엇는디, 남편이 장개 간 뒤 안 살앙, 또 다른 여자 올 거 아니? 다른 여자 허며는, 그디 먼저 해난 여자가 못 오게 막을 수가 이시메. 솔직히 여자만 오는 거라. 경도 해서.

112021 @ 혹시 이런 건 아니파? 남자 집에 무신 큰일이 생경, 뭐 초상이라도 나버리면 결혼날짜는 받아 놓고.

112021 #1 아니.

112021 @ 경할 때 여자가.

112021 #1 그거.

112021 @ 그 집에 강 저 일헤주고 허는 건 아니마씨?

112021 #1 아니 경은 허지 아니허고.

112021 #2 계민 암 장개엔 허지말고 암 시집이엔 해야젠네.

112021 #1 암창개 암창개여.

112021 @ 예 암참개 암참개.

112021 #1 암참개 허는 건디 시집가민 말안, 다른 여저를 알앙 가게 돼나네, 잔치하메 잘 못허켜난 경 여자만 가.

112021 @ 여자만 강 예 기구나 예.

112022 @ 다음엔 그 사혼 잇잖아예? 사혼 주변에서 사혼 하는 건 본적 이수과?

112022 #1 사혼하는 건 보도안해도 소문을 들었는디, 죽은 이제들은 경 흐젠 안 허는디 죽은 사름 죽음 길에.

112022 #2 요센 사혼하는 사름 별로 엇는데 옛날엔 다헛주.

112022 #1 이제는 안허는디 그전인 헛는디, 저 장개 아니강 죽고, 시집 아니강 죽고 해분 사름 이시민 비슷한 끼레 그런 거 해서.

112022 @ 헛지예.

112022 #1 응 빌어가고 잔치허는 식 허고, 구신 빌어감이라고 받앙, 그 집이 혼디 그디 잔치하는 식으로 헤그넵에 혼디 간걸로 행.

112022 @ 그 사혼할 때 도 다 부주하고 받고 이런 것도 헤수과? 사름들 밥헛 맥이코?

112022 #1 아니 기자.

112022 #2 양가만 술찌기 해야주.

112022 #1 일가에만 흐썰 헛주. 그런 거 안헤연. 일가에서만 흐썰.

112022 #2 사혼이엔 허믄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혜그녕 해주. 구신으로 데로완 허는건데.

상례

112024 @ 아까까지는 저희 혼례 결혼식에 관련된거고 이제는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여쭙 보겠습니다 예. 어 옛날엔 그 이 사람이 죽어신지 살아신지를 어떻게 확인 해주과?

112024 #1 몰라.

112024 @ 이젠 의사가 와가지고 죽었다고 딱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 예.

112024 #1 응.

112024 @ 옛날에는.

112024 #1 경헌디 어떻게 죽엇젠 허민 죽어신가만 생각 헤나난 몰라.

112024 #2 그냥 옛날 경허난 사름도 잇주. 고치 누웠당 불가보난 죽어부러서렌 흔 사름도 잇주게.

112024 #1 아 그건 빠베기엔 확 죽어븐 사름.

112024 #2 아 잇다네 밤에 점 모르게 죽은 체 모르게 죽어븐 사람덜토 잇곡.

112024 @ 그믄 그거를 이 사람이 정확히 죽엇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 헤마씨?

112024 #2 숨도 허곡 사름 체온으로 대략 짐작허고.

112024 @ 짐작하고 예. 혹시 직접 죽은 사람 아 이사람 죽엇구나 라고 하겟금 본적 이수과? 가까이서 아직은 한 번도 안봐반 예?

112024 #2 4.3사건 우리 진 헛지만은 직접 죽은 사름 나 안 봐서.

112024 @ 4.3때는 그때 가족들 누가 돌아 가섯덴 헤수과?

112024 #2 아버지.

112024 @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 시신은 가져왔마씨?

112024 #2 아, 시신은 우리가 뭐 어떻게냐며는 그때 우리 어머니 그때 허는 거 보민 대답헤여. 게니까 그추룩 헤네 그 죽여브니까, 그때 같이 잡힌 사름이 그 우리 백부님이 남아 있었는데, 백부님 신디 일본사정 일본서 젤 친헌 사름인디, 저 동생 아무덧 죽여베수다. 경헤신디, 그 여자가 가나니까 듯날 우리 백부님이 오라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헤네 여기 기 침 오젠 우린 저기 이섯고, 저 그디 먹을 거 병그레 아버진 온거라. 우리 먹을 걸 병그레 돌아헛기다네 잡헛거든. 잡헛는데 그추룩 헛, 우리 형님따문 저 헤네 먼저 그 죽여부렸는데 우리 형님은 죽도 아녀네 살안. 네중에 군인 깃지 갖다 왔는데.

112024 #1 거난 곱안세안 나오지 안허난 죽은 걸로 어디 간 어디 도망갓젠 헤난.

112024 #2 아 게난 우리 형님이 그디 경찰에간 경찰서 나와네, 이딘 그뻘 막 위험 그추룩 산간 위험허니깐, 신촌 이모네집 강 살아버리니깐, 우리 이모네집 강 있는 철엔 알았는데, 네중엔 막 위험허니깐 거기또 만약에 거서도 또 피할수가 어시

니깐, 거기잇단 말을 못헤비동, 그니깐 산에 올랐다는 거라. 경행 우리 가족을 완전 주목 받아분겨주게. 게난 우리 아버지 봐지니깐 우리아버지 동네사람들이 막 헤네 게.

112024 @ 아버지 그 죽음을 무사 그 시신 가져완 마씨? 게 장례식.

112024 #2 겨난 우리가 묻엇주.

112024 @ 그때 아버지 직접 돌아가신 거 확인 헤수과?

112024 #2 아니 거니깐 그건 말을 나가 이제 곳젠 허는데, 그제 이젠 헤네. 듯 날 바로 듯날 야가 나는 여기 안허고, 우리 저 그저 배다른 형님 사는 그 형이 여 델 왔는데, 바로 여기 왔는데, 큰아버지가 와그네 너네 아버지 아무디에 죽엇덴 허 드라. 헤그네 이젠 어머니가 우리보고 너네 이디시라 나 아버지 강 좇아보겏다. 그 때 우리 어머니 대담하던 거완 낮에도 아니고 밤에 시신을 좇으레 가시니까. 지금 생각헤도 대담헤비어. 게네 건디 그디서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사람 죽엇주 게. 두 사람 죽엇는디 시신을 강 좇아그네, 시신을 좇앙 막 아 켌디 시신을 좇아나 녁 그디 이제 시신 저 어디 누게 저 말 헐 사람이 잇나, 막 헤네 사람을 좇는 거시 기엔 헉난 사람 그 소리가 나렌.

112024 #1 경 오래 하지 맙서

112024 @ 아니 예기 하셔도 되마씨

112024 #2 아 게네 그사람 신딜 가보라는 거라 간 보난, 원래 수망리 사람들인 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디서 죽은 거 잇다는 소식을 벌써 들은 거라. 게 그 사람들 삽들 삽가지고 더 왔더라 이거라. 거 그 사람들 빌영 들이 묻은 그 밤이 묻은 그 밤에 그 밤에.

112025 @ 아이고, 그다음엔 그 사람이 죽으면 복 부르잖아 예? 복 부를 뎌 뗏 시에 어떻게 부릅니까?

112025 #1 혼 불르는 거?

112025 @ 예 혼 불르는 거.

112025 #1 아 혼 불르는 건 무시거 헤노민 옷 멘들아. 기냥 한글리 기냥 제라허 게 죽은 거는 저 옷 입저 놓고, 먼 헤여그네 혼 불르는 거.

112025 @ 예 혼 불를 때 어뎡 헤 마씨? 몇시에.

112025 #2 혼 불를 때.

112025 #1 거사 시가 마런 서?

112025 #2 그 겨 허고 이 지붕우이 올라강 에 우넉편디 혼 번 돌아상 혼 번 부르고 동 돌아상, 서 돌아상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부르주게.

112025 #1 알아지쿠과 거 알아져?

112025 #2 아 우리 그 그 집이 우리 하르바님 죽은 때, 우리 하르바님 저 스십 팔년도에 소상 허고 대상은 남원 신흥리에서 바로소 헤, 그 하르바님 현 때 그 혼 부르는걸 내가 그레 봤는데 세번 불럿을 거야 세 번.

112025 #1 아이 세 번 불르민 현 거.

112025 #2 거난 옷트레 돌아서고 서르레 동드레사 돌아사신디 이리저레 돌아서 면서 세 번 부르주게 지붕에 강 거 내가 그거 봐났어.

112025 @ 거 불를 때 뭘렌 불러신지.

112025 #2 보, 보, 보 할아버지민 할아버지 보, 누구 저 젊은이엔 허른 이름 불런. 누구누구 보.

112025 @ 보, 이렇게 예.

112025 #2 보! 복이 아니고.

112025 @ 복이 아니고 보, 예.

112025 #2 응.

112025 @ 예를 들어 저를 든다면 최옛날미 보~ 이렇게.

112025 #2 응.

112025 @ 그 복, 복 부를 땐, 뭐 그 죽은 사람의 옷을 가져 가잖아예?

112025 #1 어. 혼적삼.

112025 @ 혼적삼? 아 그 혼적삼 죽을 때 입힐 거.

112025 #2 응.

112025 #1 아니 죽을 때 입진 거. 문 입정 옷입어 난, 혼적삼이라고, 다 옛날엔 다웃거 여민 울로 영행 강 파등 지붕 올라 불르민 그 혼 적삼 혼 불러난 적삼을 받았 오랑 저 거시기 차롱착에 낱, 이 상에 낱, 경 놔둬서 저 상에 영 놔둬서 상식했 주. 상에 올령. 그 적삼 혼적삼으로 놔뒀딩 그디 그 혼을 싸다 난 신거라.

112025 #2 혼을 사다 난, 거 난중엔 문을 땐 하관허른 그 관우에 놔.

112025 @ 다 놔그네 하고, 예 베개 앓당 누워서 누워도 좋수다.

112025 #1 나?

112025 @ 예.

112025 #1 아니.

112025 @ 팬찮으쿠과?

112025 #1 나 헉술 영 직산허젠.

112026 @ 그다음에는 그 장지 가족공동묘지 있었텐 헛잖아 예?

112026 #2 응.

112026 @ 그 가족공동묘지 가족 공동묘지 있기 전에 장지 마련 할 땐 어떻 마련 해수과?

112026 #2 그 장지는 워정 때는 아무디나 가질 못허게 해서. 저 위기 위기리 목장 이 거기를 딱 허른, 그전에는 거기. 왜냐, 거기 첫 번이나, 옛날 호열자가 이섯주게.

112026 @ 아 예.

112026 #2 호열자 하른 거기 딱 헤그넵에 하른 그디는 못가게 허른 거기 묻엇 당 네중에 범이 모르게 살짝 파가는 사름도 있고, 거난 이녁 터 있는 사름은 이녁 터에 가지만은.

112026 #1 어느 때 해난거? 옛날에?

112026 #2 예, 옛날에.

112026 @ 예, 옛날에.

112026 #2 호열자 때문에 우리 저 우리 증조부님은 아시날 듯날 돌아갓지게. 호열자 아시날 죽언 돌아가니깐 거 그디 묻엇다네 저 뒤레 거린오름으로 깃지 야 못간 우리 하르방이 거린오름 간 또 모섯단, 이디 모셔오지 안해서. 거 그마니 그디 원오름 나뉘시민 우리 모셔오민 한글혈건디.

112026 @ 거난 예 그 장지 정혈 때는 누가 정혜마씨?

112026 #2 정혈 장지엔 허면 저 그 때 난 상자허고 지관이 있지 지관.

112026 @ 지관 예.

112026 #2 지관 데령 가그녕에.

112026 @ 응 지관 정혜지면예?

112026 #2 응.

112027 @ 그다음엔 그 관하고 횡대는 어떻 마련 혜수과? 관하고 횡대

112027 #2 관 관 말헨 우리 하르바님이민, 우리 하르바님도 목시랏주게. 우리하르바님이민 관을 하르방 자기 누울 관을 딱 짠 보관혜 놔뉘서. 그난 그관 못 췌주게. 웨 못췌냐, 산 때 해네 이녁 키 채고 모든 거 헛는다, 죽으나네 그때는 막 허고 몸 부러났지. 뉘허니깐. 그 관 쓰지 못헨. 관 짜그네 경혜그네 딱 묶언 문딱 해놔그녕에 그 목시 시민 그 목시가 전부 재다그네 관을 찢주.

112027 @ 그 저기 횡대는 마씨, 횡대. 하관 할 때 하관 할 때 이렇게 걸쳐놓는 낭 잇잖아 예?

112027 #1 개관?

112027 @ 예.

112027 #2 개관?

112027 @ 개관 마씨 개관.

112027 #2 개관이렌 횡대 횡대 하난 개관.

112027 @ 개관은 어 어떤 걸로 어디 강 구해나수과?

112027 #2 건 나 저 이녁 힘 잇는 대로, 그날도 우리 웨할머니, 우리 저 하르바님 모셔올 때 막 돌개관 돌개관 혜나네, 거 저 그디 이묘허는 사람들이 야 옛날에 잘살아 나수다 허멍헨 우리안티 허는 거라.

112027 @ 아 계관은 돌개관으로 마씨?

112027 #2 아 계관 어디사 이 하르방이 것 다 다 준비된 논거라.

112027 @ 아 계 거 돌 우에다가 관을 낫구나 예.

112027 #2 아이 돌 관 우에 덮은 거.

112027 @ 관 우에 덮은 거?

112027 #2 거 우에, 거 개관 관 우에 더끄는 거지.

112027 @ 아니 우에 덮으는 거 말고 밑에 밑에 하는 거.

112027 #2 밑에는 없어 밑에는 뭐 관 밑에 놓는 거 없는데.
 112027 @ 그 어.
 112027 #1 개판은 우이 더꺼.
 112027 @ 아, 관. 아 맞다. 개판은 관 위에다 위에다 맞다 개판 관 위에다.
 112027 #2 관 우에다 관 밑에 더끄는 거 없어.
 112027 @ 맞수다. 관 우에다. 우에다. 왜냐면 저가 그 저 이장할 때 한번 가봤 예. 그래서 그 유골 유골 꺼낼 때 봤더니 관은 다 녹아붙고 사십년 만에 가신디 예. 보니 근디 개판은 그대로 이섯거든 마씨.
 112027 #2 개판 거난 옛날에 ,돈 하영 주명도 좋은 개판을 그 저 구허젠만 하는 이유가 거거든 썩지 안허난.
 112027 @ 썩지 안허부난. 그래서 그랫구나게.
 112027 #2 에 옛날에 돈 한 사람은 개판 값이 아무리 가도 조타 좋으믄 개판을 사젠 허주게. 켜디 요세 소낭개판도 다 하난.
 112028 @ 계난예. 그다음엔 어 수의, 죽은 어른들 안티 입히는 수의 하고 그다음엔 그 상제들 입는 상복은 어떻 마런 해수과?
 112028 #1 상복은 거 요세에 그 장예사들 아저오렌 허민 몬 아저오고.
 112028 #2 아 요센 뭐 말만허민 다 뉘난.
 112028 @ 옛날에 옛날에.
 112028 #1 옛날엔 그 몬 만들앙 스몫 죽어놔사 옷들 몬 멘들아 입엇주. 베 상 몬 멘들앙 입엇주.
 112028 #2 계난 옛날엔 그 허민 미룻 다 뉘주.
 112028 @ 만들 때 누게가 만들아수과? 옛날에.
 112028 #1 용 몬 아자그넵에 옛날은 원 바능질 헛주만은 이제사 험서.
 112028 @ 아 바로 사람 돌아가시면 와가지고.
 112028 #1 와 강 다 해서.
 112028 #2 응 거 협조허는 거.
 112028 @ 아 해췌구나 예.
 112028 #1 음도 허고, 권당들도 허고 몬 협조해췌.
 112028 @ 수의는 수의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고 마씨?
 112028 #1 응 몬 죽은 호사엔 확 지나네, 영장 열흘도 가고 이젠 삼일에 뉘나마 나 험 설리불구.
 112028 @ 경했구나예. 지금은 옷 그몬 어디서 구험수과? 상복.
 112028 #1 장예사 고르민 다 해주.
 112028 #2 요즘 장예사안티 딱 위엄허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그넵에 모 다 헤 췌부난 거 다 크릅이 잇주게.
 112028 #1 돈도 안헤그네 몬 해췌.
 112028 #2 어 크릅이 다 이시나네 얼마에 요청만 허민.

112029 @ 여기 요청만 허민, 예 그 다음에는 그 저 상제들 지프는 상장잇지예?
상장.

112029 #2 예

112029 @ 거기서 이제 어머니 죽을 땐 뉘.

112029 #1 머귀냥.

112029 @ 아 그건 어머니는 무슨 냥 마씨

112029 #1 머귀냥 머귀냥 몽텝이.

112029 @ 아버지는 마씨?

112029 #1 대, 왕대.

112029 #2 왕대.

112029 #1 아바지 몸은 느직느직.

112029 #2 그 아까 무시거엔 헨?

112029 @ 상장, 상장.

112029 #2 상짱?

112029 @ 예.

112029 #2 거 우리하고 딸리네.

112029 @ 상주. 아, 여기는 뉘렌 고라수과?

112029 #2 방장대.

112029 @ 아 방장대 마씨?

112029 #1 응.

112029 @ 방장대.

112029 #1 방장대.

112029 @ 방장대, 예 머귀냥은 어떤 냥이과? 머귀냥.

112029 #1 머귀냥이엔 헨거 이서.

112029 #2 거난에 이 머귀냥은 이 무시거 들으민 떡떡하덴 이.

112029 #1 모작 소방소방 허난 어명은 죽으민 머귀냥 지프고, 아방 죽으민 마음
이 느직느직 허난 왕대몽텝이.

112029 @ 아 경 근것과?

112029 #1 어 경ㄴ라. 또 옷도 산대옷 이 헨 때 급허민, 그 옷허기 전이 옛날에
이 이젠 그런거 옛주만은 급허민 이 두루막 그냥 입을 때 혼착은 꿰고 혼착 아니
꿰영 이 콤메왕 돌아뎡기고, 이 영 해서 또 우이.

112029 #2 저 이 하관하기 그 저 이.

112029 #1 성복하기 전이 것도.

112029 #2 성복허기 전에는.

112029 #1 두건도 안헤연.

112029 #2 두건도 영 그대로 들여그넵에 영허곡, 여기저 옷도 혼착은 입고 혼착
은 안입주게.

112029 @ 그 영~ 하는 짚동은 뭘로 만들어수과? 그 머리에 이 저 그 수건 쓰면 그 저 뭐영 짚으로 행 만든 거 이섯잖아예? 짚동 건 뭘로 해수과? 건 누가 만들고(예고, 잘못 설명. 짚동은 그거 아니다.)

112029 #1 그것도 저 권당들 옷 헐 때 오랑 다 꿰영 멘드는디, 이제 그것도 문 만들앗당 사당 해여.

112029 @ 사단에 하고 예.

112029 #1 옛날엔 문 만들어. 짚신도 문 사망 헛는디, 이제 짚신 거런 거 안허고, 옛날엔 문 짚신도 해서 세각신.

112029 @ 아 경해수과?

112029 #1 응 세각만 내영 허는 거.

112029 #2 세각신엔 각 세 개뿐, 이디 요디 하나 요디, 하나 요디 하나 경행 양쪽에 요숫 개.

112029 #1 구관 구관제복이라고 상젠 그런 것도 입는다. 이제 그런 것도 안 입영 넘어가고, 얼마나 간다니라. 경안해 식게 멩질에 출린 거 보켄해도 이제 당추 옛날추록 안 출리메.

112029 @ 거난 그 저 상복 만들 때 두건이나 복치마도 다 ㄹ치들 만들어그네 해수과?

112029 #1 응 옛날엔 그냥 문 멘들양 허젠 허민 게 급허영. 상자 한디들은 멘들지 못헿 난리주. 손으로 송당송당 허는 사름, 미싱 신 사름은 미싱도 앓다 낡 헤가는 사름 난리도 허멍 기가 탁 두건도 다 접양 응 그추록 헿 해여.

112030 @ 게 두건은 누구한테 까지 줘수과?

102030 #1 아 두건은 상제허곡 손지들 허곡 보딘방상이나 췌는디, 이제 멘 밋기냥 친목기국 갑장이국 밋밋췌.

112030 @ 아 보딘 방상들 안티까지 건 췌구나 예?

112030 #1 응.

112030 @ 복치마는 마씨?

112030 #1 응?

112030 @ 복치마.

112030 #1 복치마는 상제 저 메누리, 딸 주고 또 손지에 흐는딘 안가서.

112030 @ 안가고 예.

112030 #1 응 이제들은 문 몸빼여 하간 거 벨 거 다 해도.

112030 #2 그디 그전에서 문 절약헿주.

112031 @ 그 영장허젠 하면 저 풋죽은 어느 편에서 써수과?

112031 #1 아 풋죽은 사둔 사둔 쪽에서.

112031 @ 사둔이 사둔이.

112031 #1 응 사둔이 사둔이.

112031 @ 아 경헿구나예.

112031 #2 기냥 영장나쁜 우선 썬가지.
 112031 @ 우선 썬가지예.
 112031 #1 응 성복행.
 112032 @ 성복제 성복제는 뭐파? 그러면.
 112032 #1 성복제는 그 저 영 일포전이 제를 허주 성복제라민 그때.
 112032 #2 성복제는 복 입는 날.
 112032 #1 응 복입어 상젯날 문 그.
 112032 #2 복입는 날이 성복이주게. 그 복 성복제를 해야 복을 입주. 그전에는 복을 못 입어.
 112032 #1 견데 그때 하니 혼 방울석이라도 그때 아니 올린 거는 그 상에 못 올린덴 그 성복제에 다 허는 거.
 112033 @ 아 경헛구나 예. 일포제에 대해 고라줍서.
 112033 #2 일포는 이 넬 영장이면 오늘이 일포거든. 거난 오늘은 그 제 허는 거.
 112033 @ 아 그.
 112033 #2 오늘 저 오늘 저 우리 그 거시기 현디도 오늘이 일포주게. 오늘, 오늘 아침에 일포제 허민 그로 일포제 끝나야 그 서 무슨 거시기를 받주게.
 112033 @ 그다음엔 그 조문 갈 때 일포제에 가잖아예. 그 영장도 마참가지, 잔치 때나 영장 때나, 잔치 때는 무신 쓸 부지하고 이렇게 헛덴 헛잖아예. 근데 일포 때는 옛날엔 뭐 해수과? 일포제 부조는 부주.
 112034 #1 부주는 옛날에 원 그거랏주. 일포 때나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헛는 디, 대소상 때에는 제물떡 떡해가 제물떡 해갓는디.
 112034 @ 아 계난 영장 일포날은.
 112034 #1 제물떡.
 112034 @ 제물떡?.
 112034 #1 응 옛날엔 제물떡 부지를 저 무신 쏘이나 무신 그런 거 안허고, 제물떡.
 112034 @ 그민 제물떡을 이집 저집에서 다 떡을 행 가져가마씨?
 112034 #1 응 옛날엔.
 112034 @ 아 경해수과?
 112034 #1 응 제물떡.
 112034 #2 근디디 그르케 제물떡 행가민 그걸 이 그 다 그디 느봐먹어사 웰건디.
 112034 #1 견디 그 제물떡은 권당덜 허고 사둔덜은 제물떡을 안허주 풋죽은 써가.
 112034 @ 풋죽은 써가고예.
 112034 #1 응, 그딘 부지허주.

112034 @ 케민 제물떡들 헤노면 일뿏날 걸로 다 늡의영 고치 다 나뉘먹었었구나 예?

112034 #1 응 갈라 먹고.

112035 @ 그다음엔 토신제는 어떻 지네수과?

112035 #2 토신제는 거 아무나 못지네여.

112035 #1 노는집 안혀는집 헤여.

112035 #2 토신제는 이집 여기 산을 쓰젠 허믄, 미룻 가가지고 완전히 삼일 전에부터 헤가지고 딱 한 사름 그 사름이 마탕 게 늡의집은.

112035 #1 부정한 사름은 아니뵤지.

112035 #2 늡의 토신제 잘못헿 죽은 사름도 이서.

112035 @ 아.

112035 #1 늡의 매경 부정 안헿 사름으로 허고.

112035 #2 계난에 그만큼 주의헤야뵤.

112035 #1 제물두 그디서 당헿 영장난 집의 거 안혀는 거. 부정허카부뵤 그 제관이 다 당헿 허민 그 갑을 뵤 당헤영 오는 거.

112035 #2 게 그 토신제 허믄 지금도 이 저저 이 얼마니? 혼번 지네는디 스십만원인가 오십만 원인가 헿뵤.

112035 #1 새로 뵤 당헿 오는 거.

112035 #2 그 저 경헤그넵에 그 사름이 다 당헤그네 헤여.

112035 #1 경허곡 정성허고, 응 삼일동안 어디 안헿겨.

112035 #2 경허그네 그 돈 얼마에 허기로 허민 돈만 네쳐볼주게 지금도.

112035 #1 영장난 집이선 안혀 것도.

112036 @ 얼마 전 까지만 헤도 상여꾼들 헤가지고 그 상여를 들고 갓잖아예? 옛날에 상여꾼은 어떻 정헤 나수과? 상여 뵤 가는 사름들.

112036 #1 상 멩 갈 때? 영장 멩 가는 사름덜?

112036 #2 거 동네 청년들 뵤 그때 간 사름들 다 고치헤주 무신. 거영무인 거 별도로 사름 뵤 거 아니.

112036 @ 맞수다 예 그다음엔 그 상여를 그 집에서 장지까지 이제 멩 가잖아예?

112035 #2 응.

112035 @ 멩 갈 때 그 막 먼디가 뵤 때도 잇고 예?

112035 #1 가당 교대도 헤여.

112035 @ 교대로 아 교대로 헤수과?

112035 #1 응.

112035 #2 아 교대 교대 여러번 헿주게.

112036 @ 기구나 예. 운상할 때 그 어 멩 나갈 때 옛날엔 막 선 누가 선소리 하면 또 후소리 하고.

112036 #1 어 거 멩 나가명 허는 거.
 112036 @ 혹시 그거 기억 남수과?
 112036 #2 에 그거는.
 112036 #1 이저빚주 와락와락 헤가난 이저비언.
 112036 #2 우리 허면 우리 두린 때엔 헤가지고 경 헌거 봄만 헛지. 지금도 영 보면 테르비전엔 그걸 허는 사름들 잇주게.
 112036 @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헤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경 헛거든 마 씨.
 112036 #2 그저 그 사름네 다 헛지. 그땐 그 고등학교 2학년 땐 돌아간 그때 사름들은 다 허주 견디 지금은 지금은 뭐.
 112036 @ 혹시 그때 헛던 거 그 기억나는 대로 고라줍서. 그 상여 멘 집에서 출발할 땐 어떻헤심광, 예 그다음 가는 도중에 그 곡하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장 지에도 장헐 어떻헤신지도 고라줍서.
 112036 #2 우리 거난, 그걸 안헤나부난 통 모르크라.
 112036 @ 고치 상여 멩 안 가봐수과? 상여 멘 ㄹ치 안메나수과 젊은 때?
 112036 #2 상여 우린 나는 상여 헤네 그때 저 우리 나 들은 말인데 우리 사촌 이 열입곱에 죽엇어.
 112036 @ 아, 예.
 112036 #2 지금 시체가 일본에 잇는데 일본에 잇는데 열일곱에도 그 후에도 자 식이 어시니깐, 그걸 그 저 올케 구신을 제라허게 만난 사흔을 헛거든. 사흔헤난에 지금 저 부영 골프장 잇는디, 그디 거난 합묘에 헤네, 거난 우리 스촌 시체는 엇고 거난 그 아즈망만 시체 잇는거지. 경헤네 헤네 그때 네 그쫌 올케 이동네 사름 쫌 끄 계급이 느즌 사름이라. 그 사름을 그대로 막 억지로 상여 돌아올 때 모션와네 거난에 그 젊으니들이 너무헌거지.
 112036 #1 누게 시켜나수과?
 112036 #2 어? 일백이 시켜브나네 수망리 아예 땅 떠나불지 안헛냐고, 자길 나 무런 그거라고.
 112036 #1 누게?
 112036 #2 일백이.
 112036 #1 아.
 112036 #2 거난 그사름이 아무도 어선, 올케 자식도 4.3때 그때 자식도 다 죽어 비엇주게. 다 죽어븐 사름을 나무레가지고 그축 청년들이 웨 그러케 헛는지 몰라. 그난에 부에 나가지고 수망리 떠 분거라.
 112036 @ 아이고 세상에 게.
 112036 #2 거난 그집 성제 제산을 요디.
 112036 #1 아이고 하영 ㄹ름도. 제산을 먹은 거를 이제 ㄹ지맙서.
 112036 #2 요놈 싹 먹어 치와부럿주.

112036 @ 세상에 그러기도 하는 구나 예.

112036 #1 옛날엔 못살아 가민 경해난.

112036 #2 겨난 집안 옛날도 웨 주안 집안도 그렇게 나므렛는지 몰라.

112038 @ 그다음엔 봉분 예 그 무덤, 산 만들 때 웨 관을 하관 하잖아 예? 그 다음 부터는 어떻 할 건지 고라춰봅서, 봉분 만드는 과정.

112038 #2 봉분 만드는 과정 무시거, 이거 지금 거저 지금은 저 우이 장예사들이 허니깐 그전엔 여덟 잡 일곱 잡 뿐만 하는데, 여덟 땀 여덟 잡 부른 아무나 안 허고, 건 돈 한 사름들 올케 우세넌 오케 경 헤그네 허곡, 보통 일곱 잡 봉분인데, 지금 대잡봉분 허거든 지금은 대잡봉분 허는디, 지금 우리 그 가족공동묘지도 우리 저 큰어머닐 먼저 모셨는디, 큰어머니는 일곱 잡 봉분으로 허고, 네중에 큰아버진 네중에 이묘혜단 모시니깐 ㄴ짜 모셨는데, 큰어 큰아버지 봉분은 작고 큰어머니 봉분 크니깐 큰어머니 봉분은 까간.

112038 @ 까간. 거 멘 처음에 관을 놓고 그다음엔 뭘 합니까?

112038 #2 그다음엔 저 개관.

112038 #1 개관.

112038 @ 개관 놓고.

112038 #2 개관 더프당 마지막 개관 마지막 개관 덮을 때는 막 개관 덮으지 않고 세우거든. 세와서 자손들이 전부다 드리는 거라. 겨난 거기서 잔 드리켄 한 사름은 누구나 일가들은 다 드리주 그디 다.

112038 @ 술 그럼 거기다 부어 마씨?

112038 #2 응 잔드리믄 받앙, 그디 강 비우국 강 비우국 경헤그네 마지막 이상업덴 허믄 그제야 덮어.

112038 @ 그 다음 흙을 놓기 시작행 예.

112038 #2 응 흑은 허믄 첫 번에 헤그네, 상제들이 혼 두 삼 영 허민 그 다음이 멩기작 멩기작.

112038 @ 그다음 마씨 흙 다 헤지면 흙이 다 행 봉이 이렇게.

112038 #2 봉분 쌓아?

112038 @ 만들어 지면 그다음에 떼는 언제 그때 바로 거기서?

112038 #2 아 거기서 바로헬주.

112038 @ 바로 입현 예.

112038 #2 응.

112038 @ 거 만일에 계절적으로 떼 입히는 계절이 가을이다 막 건조해가지고 떼가 죽어볼 수도 있잖아 예?

112038 #2 죽어 불지 힘들어. 웨 죽어부냐면 스급에 돌이 어시 전부 흙이니까.

112038 @ 기구나에.

112038 #2 거고 여기는 흑이 거믄흑은 또 이 촌흑들 담도 안헤여.

112038 @ 아 기파?

112038 #2 흑이 완전히 데ㄴ튼 거 잘살주.

112039 @ 그 흑시 호충이라고 들어봐수과? 호충?

112039 #2 호충?

112039 @ 예.

112039 #2 호충이엔 뭐엔 어떻게 하는 말인고?

112039 #1 몰라 그런 거.

112039 @ 호충 예? 호충이란건 안들어 봐수과?

112039 #2 응 호충이란 안들어 봤는데? 거 지역마다 말이.

112039 @ 다 달라서예 .

112039 #2 응 특히나 사투리들은.

112039 @ 그 그 장례식 할 때 그 흑 묻으고 저 무덤 옆에 갈 때 누게는 무덤에 오지 말렌 할 때, 그 지관이 이렇게 누게는 오지 말렌하명 소리하잖아예.

112039 #2 아 거 이서.

112039 @ 그거는 흑시 수망리에선 그건 어떤 식으로 정혜수과?

112039 #2 아 그거는 지관이 택일 할 때 무슨 띠 무슨 띠는 그디 보지 말라. 거 잇주 띠를.

112039 #1 하관 할 때나 입관 할 때나.

112039 #2 못 보는 띠가 이서 무슨 헤치.

112039 #1 무신 생 무 신생.

112039 #2 건디.

112039 @ 거면 그 무슨 생 무슨 생 하는 건 죽은 사람하고 안 맞는 띠 얘기하는 거지예? 돌아가신분 예?

112039 #1 안맞는 거.

112039 #2 아 거난에 거 택일하명 그 사름이 허난 뭐 그 사람들은 그 그런 뜻 이주.

112039 #1 택일 할 때 거 하관할 때 입관할 때 오지 말라 허는 거.

112039 #2 무슨 띠 무슨 띠 오지 말라.

112039 #1 가기는 가도 영 돌아사는 거라 듯터레 돌아 사.

112039 #2 응 거기가도 거 헐 때는 피혜불주.

112039 #1 돌아살 거.

112039 #2 그거를 말하는 거나, 여기도 그런 식 무슨 띠, 거난 띠를 말하는 거 여 무신 띠 무신 띠는 오지말라.

112040 @ 그다음에 장지에서 그 상여꾼들한테 음식을 먹여야지 돼잖아 예? 대 접혜야 되잖아 예 그 대접할 때는 어떻게 대접 혜수과? 무신 음식을 어떤 식으로 대접혜수과?

112040 #2 정 정심 말아 그 갈라살 때 것ㄴ라 뭐 피력.

112040 @ 예 피력.

112040 #2 피력 잇주.

112040 @ 피력 피력은 누가 준비해 마씨?

112040 #2 상가에서 저 뭐 저 뭐허지?

112040 @ 상가에서 마씨?

112040 #2 거 상가에서.

112040 #1 아니 상제들이 허는디 그 아침 옛날에는 아침은 조반 상제, 정심 상제 츠츠 알르레, 기력산지엔 여라인디 츠츠 안즌 초레로 가가는 거 이력산지.

112040 #2 츠레메기 허당 보민 알르레 동생들에 가가지고 겨난 자식들이 저 동생들 동기간 많으은 거저 조반허민 큰상제가 조반하민 셋 상젠 점심허민, 그 말젓상제는 피력허게 뉘주게.

112041 @ 그른 나중예 장례식이 다 끝나잖아 예? 상여 멘 사람들 이제 공분 만 들 때 같이 흑 텃어준 사람들, 이제 일 끝나 일한 사람들 잇잖아예? 이사람들 안티 뉘로 답례를 해수과?

112041 #2 아 건 동네에서 돌아가멍 하는 겨난 뉘.

112041 @ 상여 꾀들안티 뉘 특별하게.

112041 #2 특별한 거 어서.

112041 #1 특별한 게 어서.

112041 @ 어서수과?

112041 #2 건 옛날 대대로 네려오는 겨난. 건 그건 일당주거나 뉘 이른거 어서.

112041 #1 그 영 알기로는 그런 엇는데 옛날에 그 점 답헤도 아무나 못헤여, 못 허는 다폐하는 사름 츠 크 대영장이라 그 대 답헤는 거 메영 가난 저 광목으로 천으로 메고, 못사는 사름은 줄 끈을 배끈으로 메고 영 허난 그 다폐는 또 부락에 바찐다 송 나나서.

112041 #2 거 건 부락에 바찌고 건 부락에 바찌불고.

112041 #1 이젠 빠져져야 허고 다.

112041 @ 아 수고한 사람들안티 특별히 뉘가 대접하면 되는데 안허고 예.

112041 #1 응 대접허는 거 어서 피력 기자 그거.

112041 #2 건, 가 그자.

112041 #1 건 밋밋허는 거 피력허고 문 술 혼잔 대접허고, 속앗젠 헤여도 어서 옛날엔.

112041 #2 그건 뉘 그 느 집이나 나 집이나 이래 답례로 드는겨난 뉘 또.

112042 @ 그다음예 상 차리잖아 예 사십구제라든가 할 때 아니면 상망때 까지 라든가 예 상은 상차릴 뉘 음식을 뉘뉘 올려수과? 제사때 말고.

112042 #1 제사 때 말고 게 삭망 때도 간단하게 메 혼 그릇 헤여 놓고, 헤여그네 상망 험이라고.

112042 @ 삭망 때 말고, 그냥 평소에 이제 돌아가시면.

112042 #1 옛날예.

112042 @ 집에서 상 차리잖아 예
112042 #1 상식 허주게.
112042 @ 계난 언제까지 헤수과?
112042 #1 삼년.
112042 @ 삼년 예.
112042 #1 응 삼년 하루 세번 삼시.
112042 @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때 막 어지러울 때라도 상은 올려 나수과?
112042 #1 삼년헛주게.
112042 #2 상 올린 정신이 저 삼년은 헛지만은 정 그런 거 헐 수가 없지.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12042 @ 맞아 예.
112042 #1 삼년 헛주.
112042 @ 삼년 하면 그 상엔 뭐뭐 올려나수과?
112042 #1 그냥 때 상시.
112042 @ 때 상시 아침 그냥 우리 먹는 거?
112042 #2 응.
112042 #1 응 먹어지는 대로 때 상시는 삼년.
112042 #2 아 지금도 저.
112043 #1 보름되민 초하루 보름 삭망도 아침 헤여그네 올렛당, 그뻐ن 쓸밥이 삭망이 어떻튀궁 허민, 쓸밥만 안헐 때난 아침 쓸밥헤그넵에 삭망에 퀘기 구어 놓고 국 끓이고 헝 헤그넵에.
112043 #2 아 겐디 지금두 육지는 그 산에 강 모시믄, 그제 강 막사 하나 지서 그넵에 삼년 동안.
112043 @ 계난 경헌데 하명 예?
112043 #2 경허는 사름도 잇넵 지금도.
112043 @ 맞수다 게.
112043 #2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뻐.
112043 #1 그뻐ن 사름이 굴명들 문 죽을 뻐디.
112044 @ 소상 대상은 어떻 헤수과? 소상 대상.
112044 #1 소상 대상도 떡 헤놓고 경 출령 헛주 뉘.
112044 @ 소상 대상도 예.
112044 #1 응 삼년 세 번.
112044 @ 이제는 소상 대상 어떻 합니까?
112044 #2 지금 소상 대상 안헛니.
112044 #1 지금은 소상 대상 어디 뉘 대상하는데 이서?
112044 #2 안헤는 므냥이라 지금도 젊은이들.
112044 @ 허지 안헵예.

112044 #2 거난 백일 탈상이여, 뭐여 현 이유가 거거든. 백일 웨민 그디 강 옆 어정 다 자. 백일 탈상 허는 사름들 한디 뭐.

112044 @ 게메 예.

112044 #2 그 전에는 그 소상 때는 복치는 복 벗고, 대상 때 웨야 상제는 복 벗고 경헛지. 이제는 백일 탈상이.

112044 #1 담제ㄱ장 헛주.

112044 #2 이젠, 전인 담제ㄱ지 허주게.

112044 @ 그지 그니깐 예.

112044 #2 담제ㄱ지 허는디, 요세는 백일 탈상이야 뭐, 또 사십구제 헤그넝 사십구제 탈상 하는 사람도 잇는 모양이데.

112045 @ 그 혹시 토롱이라고 들어봐수과?

112045 #2 어.

112045 @ 임시 무덤 만드는 거 예.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엔 그 임시 무덤 만들어서 나중에 또 제대로.

112045 #2 우리 우리 하르버님도 토롱 헤나서

112045 @ 아 무사 토롱 헤수과?

112045 #2 우리 하르버님은 예 지금 아니 지금 우리 하르버님은 음력으로 8월 13일 날이 제사거든. 게난 8월 14일날 멩질 아시날 돌아가섯어. 거니깐 멩질은 구정 허니깐 제사는 헤야지. 거난에 그때는 시체를 옮겨두고 그전에 제사를 헛거라. 경헤네 그 헤 겨울에 겨울날에 정식으로 영정을 헛지.

112045 @ 아 아버지는 어떻헤수과?

112045 #2 아버지는 그때는 죽어부난, 우리어머니만 강 무뎛당, 네중에 우리 흐쵸 정신 흘러 져야 이묘헛지.

112045 @ 그 팔십 그 사십팔년에 마씨?

112045 #2 스십팔 년에 묻은 거 그대로.

112045 @ 그대로.

112045 #2 그대로. 그때 그 청년단 사빠진 헛 사름들, 그 사름들 그대로 땅 팔 거 없이 그자 그대로 눈양 그대로 흑만 흐쵸 썩아 논거.

112046 @ 헛당 이묘 한것과 아님 그 자리에다가?

112046 #2 아 이묘헛거.

112046 @ 이묘한거예?

112046 #2 이녁땅에 온 거.

112046 @ 온거 예? 그게 한 얼마썩 잇다가 마씨?

112046 #2 예 한 삼년.

112046 @ 삼년 그렛구나 예.

112046 #2 겨고 그 때 삼년 헤도 그때도 완전히 그 폭도들이 다 찻지질 안허닌 까 멀리 가질 못하게 헛, 우리 아버지 바로 여기 모셔났는디.

112046 @ 기과?

112046 #2 여기 모셨다네 여기 모셨다네, 또 이묘, 저 가족공동묘지 갖는다, 우리 형님 바로 여기 모셔놨.

112046 @ 근데 그 이묘혈 때 보난 그 시신은 어떻 헤십디가?

112046 #2 시신은 시신 켜찬은거 달만개.

112046 @ 그냥 고진채 이서수과?

112046 #2 아니 고진첸 엇고.

112046 @ 그냥 백골 뒤투런 마씨?

112046 #2 응. 근데 우리 고조부님 고조부님 산소엔 가네 이묘하면서 장예사들이 자기 그런 시체 절대 안 보고라고 허더라.

112046 #1 종안?

112046 #2 어.

112046 #1 안현디 헤저신게.

112046 #2 아 우리 고조부님은 우리 모셔온디 쥘 옷대 주게. 켜게 나 오 대 오 대 웬 거 아니라, 고조민. 건디 빠다귀가 바쪽 고대로 이시니깐.

112046 @ 몇 년쯤 난 헤신디 마씨?

112046 #2 몇 년인지 모르지.

112046 @ 고대니깐 흔 백년은 뒤투켜 예?

112046 #2 경 뒤투었지.

112046 @ 백년 뒤투도 예? 그다음엔.

112046 #1 하르방 본디가 백 년 뒤투주 이제야.

112046 #2 게메 하르방 나 본디가.

112047 @ 그다음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저기 상복을 완벽하게 다 벗은 때는 몇 년 언제 다 벗어수과?

112047 #2 아니 우리 혈 때는 삼년 상제는 삼년상 꺾나야지.

112047 @ 꺾나야 뒤투구나 예?

112047 #2 거난 삼년상이엔 허민 헛수는 이년 이주게.

112047 @ 예 헛수는 이년.

112047 #2 일년 후에사 소상이고 일년 후에 대상이난 헛수는 이년이고 삼년 상이엔 헛게 헛수는 이년.

112047 @ 아 경헛 대상 때 제사 헤난 다음엔 상복도 벗엇구나 예?

112047 #2 어 저 복치는 소상 때 벗고.

112047 @ 복은 예 소상 때 벗고 예.

112047 #2 어.

112047 #1 장의도 소상에 벗고.

112048 @ 아 기구나예? 그다음엔 이제 장례식이랑 뒤투 이런 제사랑 전반적으로 헤가지고 특히 장례식하고 대상 때까지 그 특별하게 금하는 건 어서수과?

112048 #2 금하는 거 잊주게.

112048 @ 금하는 거 뭐 그때 대상까지는 뭐 결혼을 자녀들 안 시킨다든가?

112048 #2 그렇게 경도 해나신가?

112048 #1 옛날에 경해서.

112048 #2 거 몰라.

112048 #1 옛날에 경해난.

112048 #2 경헛덴.

112048 #1 상제뉘민 결혼 안 시켜, 옛날에. 경헛젠 말 들엇주. 우리 흘 때는 그런 말이 어섯는디 몰랐는디 췌인데 뉘영.

112048 #2 아게 이 상제가 췌인이에는 허주.

112048 #1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으면 결혼 안시킨덴 해나서. 경헛 때가 이섯주.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안 봤고.

112048 @ 잊고예? 이제 흐김 지쳐도 더 해볼게 예? 이제는 장례식 헤그네 대상까지 마쳐서예.

112048 #1 응.

제례

112049 @ 이제는 제사 하는 거에 대해서 저가 여쭙보쿠다 예? 제사 준비는 어떻게수과? 이젠 큰아들 안티 췌붙어도 큰아들 주기 전에 제사 준비.

112049 #1 준비난 헛주만은 제사 몇 네일 제사허민 몇 오늘 쓸컷당.

112049 @ 예 쓸 컷당

112049 #1 낼 아침은 그거를 아휴 어려왔주 남원이도 어선 서귀포를 전강 떡혜 여 오랑 떡 조무랑 초초 떡이영 무시거영 출려당 그날 저녁에영 제

112049 @ 다 걸어갓당 걸어왔당 예?

112049 #1 응.

112049 @ 아 우리 삼춘 진짜 나쁘다.

112049 #1 아방 몰라.

112049 @ 계난.

112049 #1 아이고, 아방 몰라. 다 출려와시민 제 지뵈서 허영 허민 허는 거 뿐. 우리집앗아방은 무시거 진짜.

112049 #2 아니 겨고 나는 차를 윈 안가져 나니깐 차이시민 그런 거 모션 탕기고 허주만은 그런 거 생각 안허니까.

112049 #1 아니 그때 우리 헛 댐 차가 어섯주.

112049 @ 차가 어서서. 예, 맞아 예.

112049 #1 차어서.

112049 #2 아니 그 후에 우리 벳들이 그 차 운전은 전부 헛디. 아 그때 생각에 이제 나 차 사그넵에 차탕 어디가리 경 들더라고. 근데 갈데어성, 나 이제는 나도

좀 분회장도 해보고 헌디, 어디영 가젠헤 그뎨 후회나더라고.

112049 @ 차 업는 거 예.

112049 #2 면허증이 엇는데 어떡헤.

112049 #1 이젠 다 늙은난 경 헤그넵에.

112049 #2 건디 이젠.

112049 #1 무시거게.

112049 #2 영 것 우리 우리는 걸영뎡기는 사름이 엇거든.

112049 @ 맞수다.

112049 #2 계난 우린 걸영 뎡기난 운동은 되는 거 답아.

112049 @ 맞수다. 진짜 거난 건강하게 사섯주게.

112050 #1 탕 탕 메물탕시허곡, 고사리도 습곡 메물탕시허곡 목허곡, 꿩기 굽곡, 게 저 쟁 허곡 밥 헤영 그자 올렛당, 과일 ㄱ튼거 술헤고 감주 우런거 헛다그네 제 지날라는 거주. 원 꼭 ㄱ튼 거.

112051 @ 그다음엔 그 제지넵 때 꼭 올린는 게 콩나물 이잖아 예?

112051 #1 응

112051 @ 그 콩나물은 어뎡 준비헤수과?

112051 #1 콩노물은 콩에 놓앗당 키와, 경헨 헛주마.

112051 #2 제주도에서 떨어진, 고사리 고사리 제주도에선 절대 안 떨어져.

112051 @ 절대 안 떨어 젓지예? 고사리 예?

112051 #2 일단 육지서는 아인디 여기는 고사린 꼭.

112052 @ 그다음엔 적 적 종류, 뭐 돼지고기니 쇠고기니 바닷고기는 어뎡 준비 헤수과?

112052 #1 바닷꿩기 바닷꿩기는 솔라니, 저 젓같은 뭐 그 꿩아지고기, 소고기 갈치적도 헤나고 경헤엿 허는 거.

112052 #2 건디 우리 두린 때 보문, 우리 어머니네는 저 녁 차룽헨 차룽헨 차반 디가 있는데 미리 고기를 다룻고기는 사다그넵에 말령 딱 보관헨 나누거든.

112052 #1 옛날에 다 그거.

112052 @ 맞수다.

112052 #1 그런 것에 두께 마즌것에 옛날에 그거.

112052 #2 계난 지금 이에 지금 뭐 절이면 꿩며는, 그전은 일 년 전에 거 사다 그네 저기 뭐 말령 툄령 그대로 딱 보관헤 나도난.

112053 @ 아까 저건 저기 쇠고기 적하고 돼지고기 적하고 갈치적도 헤서마씨?

112053 #1 응 갈치적도 헤나서.

112053 @ 그다음에 적으로는 그 갈치적 말고 또 다른 거 뭐 이서수과?

112053 #1 아니 잘사는 사름은 하간거 바닷꿩기로도 적허고 무시거 헤엿주마는 나 헤난 건 그것만.

112053 @ 거 적도 다 여자 삼춘이 헤수과?

112053 #1 아니 그 시절엔 그 적 해연 굽곡 썰영 영 궤는 거는 나만 혈 때 이 하르방이 허엿고, 시아즈방들 이시난 시아즈방이 건 남자가 헤줘서 그때.

112053 @ 경했지예?

112053 #1 응 적허는 건 나 안헤연 나 그때.

112054 @ 아까 떡은 이제 그전에 저기 떡 물어볼 때 떡이 다섯 가지하고 여섯 가지가 이섯잖아 예? 제사 할 때는 몇 가지 해수과?

112054 #1 저 무시거게 저 그.

112054 #2 제사 혈 때는 멩질에 푹 ㄱ트주 무신.

112054 #1 푹 ㄱ타.

112054 #2 상에 올리는 건 푹 ㄱ타.

112054 #1 상에 올리는 거 솔벤, 절벤,

112054 @ 예 솔벤 절벤.

112054 #1 인절미.

112054 @ 예 인절미.

112054 #1 약, 약궤.

112054 @ 예 약궤.

112054 #1 약, 그건 약궤 중궤는 저 삼년상 트루.

112054 #2 거 약궤 중궤는 따루 올려 따루올리는 거라.

112054 #1 제사에는 제사에는 그런 그건 안혀고 다숫가지만

112054 #2 약궤 중궤는 별도라.

112054 #1 응 솔벤 응 다숫가지만 침 시룻떡, 솔벤, 절벤, 인절미 저.

112054 #2 근디.

112054 #1 우썩, 다섯가지.

112054 #2 육 육지는 독궤기 올린덴 헤라.

112054 #1 다숫가지, 네뵽서게.

112055 @ 그다음엔 과일은 뭐뭐 준비해수과?

112055 #1 과일은 사과 밀감은 원 이신거난 밀감, 배 그런 거.

112056 @ 채소는 마씨? 아까 콩나물 잇고 고사리 잇고.

112056 #1 콩노물, 고사리 그 무시거 무시거라 저.

112056 @ 호박?

112056 #1 잡채.

112056 @ 잡채.

112056 #1 호박도 혀나고.

112056 @ 호박도 헤나고예?

112056 #1 응.

112056 #2 잡채 하딘.

112056 @ 시금치 같은 건 안헤수과?

112056 #1 그런 것도 허고.
112056 @ 시금치도 허고 예.
112056 #1 잡채허민 그런 것에 시금치 다 들어가자.
112056 #2 잡채 잡채 허젠에 다.
112056 @ 혹시 무체는 안 해수과?
112056 #1 안 해연.
112056 @ 무체는 안 해수과?
112056 #1 응 잡채허며는 시금추 다 들어가는 거 잡체에.
112056 @ 잡채에 시금치 다 들어가면 시금친 별도로 안 해수과?
112056 #1 안현 딱룬 안현.
112056 @ 아 제사 때도 잡채 했구나 예.
112056 #1 응 잡채 허 잡채게 거 무시거.
112056 #2 거난게 명확하게 허면 딱 세 가지 허주게 하나.
112056 #1 경허민 거리는 거도 체소 체소 세 접시. 세 개만 생각행 거리는 거라. 하간 거 잡채도 혼 그릇, 콩나물이 혼디 서경. 고사리 뭉미 물리행 체소가 세 접시만 만드는거. 혼디 서꺼도. 경행 세 개만 세 개 너머 아니 만드는 거. 한 그릇에만 거러비어. 체소 세 접시.
112056 #2 거, 저, 제주도는 옛날부로 옛날부터 절략힘으로 경해낫젠.
112056 #1 아니 아니 체소.
112056 #2 아 옛날 부터 어서부난 경헨거난 경 절략헨거지.
112056 #1 저 체소 세 아니 아니 체소 세 접시.
112057 @ 진설은 거 누가 올려수과?
112057 #1 어?
112057 @ 진설?
112057 #1 진설 무시거?
112057 @ 상에 올리는 거.
112057 #1 아 상에 올리는 사람은 이디 남자들이 허주. 우리 집 큰아들.
112057 #2 요즘.
112058 @ 그다음에 메하고 갱은 누가 떠수과?
112058 #1 누게가 떠 메뉴리 허주.
112058 @ 메뉴리 헛지예.
112058 #1 응.
112059 @ 그다음엔 현관 잇잖아 예? 현관 그 저 집사렌 합니까? 그 제사할 때.
112059 #1 집사는 그 저 영 무시거 잡식허는 거 고라 집사렌.
112059 @ 거 현관은 누가 해수과?
112059 #2 생 현관은 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초하, 제사 치룬 사람.
112059 @ 예.

112059 #1 그디.

112059 #2 그 다음에는 아하는 그디 허믈 집지으믈 그 가지에서 종손 시믈, 그 그다음 허고, 그 데믈 그 그아이 여냥 차례로 허주 우로. 게그넝에 그 아이가 허믈.

112059 @ 어느 헌판에는 아까 초판 잇고?

112059 #2 초헌 아헌.

112059 @ 아, 초헌.

112059 #2 어 초헌 아헌 종헌.

112059 @ 초헌 잇고 아허 아헌 잇고 예.

112059 #2 종헌.

112059 @ 종헌 잇고 예. 응 거믈 초 아까 초헌은 누가 헌덴 혜수과?

112059 #2 주인 주인.

112059 @ 아, 주인.

112059 #2 제 지낸 사름.

112059 @ 처헌?

112059 #2 초헌.

112059 #1 큰아덜.

112059 @ 초헌은.

112059 #2 우깃제 차리는 사름.

112059 @ 예 중이하고 예 그다음 아헌은 누가 혜수과? 아헌.

112059 #2 아헌은 그다음 저 그디서 제일.

112059 #1 차례.

112059 #2 그 다음 그디서 차례로 저 가까운 사름.

112059 #1 두 번째.

112059 @ 아.

112059 #2 건디 다섯 만약에 저 삼 형제믈 초원은 큰아덜, 아헌은 셋아덜, 종헌은 죽은 아덜, 영 되는 거주게. 경 돼는 거. 게난 그디 아덜덜이 요라성제 어신딘 다 촌수로 헤그네 가까운 촌 허주만은.

112059 @ 아 이실 땀 그런 식으로 예.

112059 #2 우선 큰아덜 초헌, 둘째 아덜은 아헌,

112059 #1 경헌디 그런 것도 이서. 저 이디 경 삼 삼덴디 세 사름이 절허게 돼 어도 웨방서 손지가 웨손 웨손이나 사위나 오면 그디 삼헌에 하디 세와주는거라.

112059 #2 건, 요세 대우지.

112059 @ 응, 대우로.

112059 #1 응 대우로 걸 세와 주는 거. 이서도 이녁 집이 사름 빼여동 영~ 세와 주는 거.

112060 @ 게 파제는 언제혜수과? 파제 몇 시에?

112060 #1 아이고, 이젠 허구쟁헌양 햄주.

112060 #2 요세는.

112060 @ 옛날 옛날에.

112060 #2 옛날엔 저 혼시 돼야. 월레 제는 이룬거주게.

112060 @ 파제를 예?

112060 #2 제사를.

112060 @ 아 제사를 예.

112060 #2 이 셋날 도롱냥 헌 때문에 듯날 혼시 돼야 허는데, 원칙은 열두시 넘 으른 혼시니깐 거든 헤그닝에 거 제 끝나른 파제주.

112060 @ 파제 헛구나 예, 아이고, 거 요즘은 몇시에 험수과?

112060 #2 요즘은 혼 없어. 불글 때 헤부는 사람도 있는데.

112060 #1 하하하. 요센 허구중냥들 험서.

112061 @ 그 문전제는 어 어떻게 지냄수과? 문전제 지금도 문전젠 험덴 헛잖아 예?

112061 #2 문전제 저녁에 직전.

112061 @ 저녁 직전?

112061 #2 아니아니 제 헤기 직전.

112061 @ 아, 제 헤기 전에 예.

112061 #2 응 문제는 먼저 허주.

112061 @ 문전제 헤나면 문전제 찰려놔그네 거 거든 다음에 제를 지네수과 아 니면 나둔 다음에 그냥 제를.

112061 #2 아니 거더 거더.

112061 @ 가 거든 다음에 아.

112061 #2 거 제자리엔 험 절허는 자리가 잇주게. 거것을 옮겨야 하니까.

112061 @ 아 경헛구나 예.

112062 @거 제반은 거 저기 제사 지네기 전에 문전제거 다 제반 헤 놓고, 제반 지냈다는 제사 지냈다는 말이잖아 예.

112062 #2 아 문전제 헤난 건 제 지네분건 다 치와버려야 돼.

112062 @ 치와불고 예.

112063 @ 어 그다음엔 그 지제 잇잖아 예. 그 제사를 마치는 거. 지제는 몇 대 까지 끝네수과?

112063 #2 지제는 거 집안에 딸라그네 혼 없어.

112063 @ 삼촌네는 마씨.

112063 #2 우리는 지금 우리 아덜이 증조까지 하고 잇주게.

112063 @ 예.

112063 #2 그 전에 허든, 고조 고조 까지 하는데 고조도 고손 나른 설러그네. 지금 우리 손지가 고손이란 말이여. 지금 우리 아덜 제사하는 게, 우리 손지는 고손 이주게. 거난 우리 지금 우리 손지가 고손인디 지금 제를 하고 잇주. 이렌 어찌 고

손인디 거 끝나.

112063 @ 고손으로 끝날 거 예.

112063 #1 고손인디.

112063 @ 고손뒤며는 마치는 거. 계도 경 마칭 지제올리고 험니까? 아직 지제는 안 올련 마씨?

112063 #1 안 올련.

112063 #2 아 지제는 허른 지제 거 저 처 축 고혜볼른 그러후는 제 안혀는 거 난.

112063 @ 건디 만일에 고 한 다음에, 제 안올리면 막 뭇가 찻찻한 마음 안들어 마씨?

112063 #1 아직 안혀보난.

112064 @ 안혀보난 예. 그러면 그 저 제사 끝나잖아 예? 그럼 그 다음날 묘제를 가잖아 예 묘제는 어떤 식으로 혜수과?

112064 #2 묘제 묘제는 여기는 묘제가 있는디 또 이 제주시 쪽엔 묘제가 시제라.

112064 @ 수망리 수망리에서는 묘제는 어떻 혜수과?

112064 #2 묘제는 봄에 허주게.

112064 @ 아니아니 제사 하면 제삿날.

112064 #2 건 묘제가 아니지.

112064 @ 아.

112064 #2 묘제는 묘에가서 묘에가서 하는게 묘제지.

112064 @ 예 그니까 제삿날 제사 끝나면 다음날 밝으면 그 제사음식 가져그네 묘에강 제사 지네지 여긴 안혜 마씨?

112064 #1 안혀.

112064 #2 우린 그거.

112064 @ 아 저가 질문한 묘제는 어떻혜수과 물어보는 거 예?

112064 #1 안혜.

112064 #2 그런 거 안혀 묘제는.

112064 @ 묘제는 따로는 그럼 언제혜수과?

112064 #2 봄에 봄에.

112064 @ 봄에? 봄에 언제마씨?

112064 #2 봄에 청명에도 허는 사름 잇고 건 집안에.

112064 #1 삼월 달 나사.

112064 #2 거난.

112064 @ 삼월 마시? 음력 삼월?

112064 #2 거난 청명이주게. 건디 그 집안에서 그날은 묘제 할 때는 자기네 식구만 가는 게 아니거든 그 일가는.

112064 @ 다 고치?
 112064 #1 방상 거 다가.
 112064 #2 그 사름 후손은 다가주게.
 112064 @ 아.
 112064 #2 후손은 다가는 따문에 날짜를 딱 일가에서 정혜영.
 112064 @ 예.
 112064 #2 메칠 날 딱 정하든 그날 헤그넝아.
 112064 @ 아 경헨 묘제가고 헛구나예.
 112064 #2 거난 그 우리는 시제로 헤그네 가을에 허는데, 거난 이 가을엔 가을 음식.
 112064 @ 아 가을에도 헛구나예.
 112064 #2 가을허든 시월 달.
 112064 @ 아.
 112064 #2 음력 시월 달.
 112064 @ 보통 묘제가 봄 가을 하는데 저 여기선 삼춘넝 가을에 헛구나예.
 112064 #2 어.
 112065 @ 그 다음엔 제사하고 관련 돼가지고 뭔가 금기 하는 건 어서수과? 금하는 거.
 112065 #1 어서.
 112065 @ 음 예를 든다면 뭐 어디 강 뭐 헌 사름 오지 말고, 이런 건 어선마 씨?
 112065 #2 거난에 금허는 건 자기가 무시거 나쁜 거 보난 헌 사름은 아예 자기가 피해볼지.
 112065 @ 피해버리고 예?
 112065 #2 피해볼지. 거난에 가족도 모르게 살살 피해볼드라고.
 112065 #1 그거 헛 땀 저 응 부정헌 사름은 못가는 거주게.
 112065 #2 거난 예. 저 본인이 피해버려야지.
 112065 #1 가지 못허는 거.
 112065 @ 알았습니다.

13. 민간요법

113001 @ 이젠 민간 요법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민 아이들 막 저 기계충이렌 헤가지고 막 머리에.
 113001 #1 고라가난 햐주 우린 이저비언 그것도 당추 몰르켜.
 113001 @ 거난 이발소 같은 거 이섯잖아 예? 그땐 어떻 그걸 치료 헤수과?

113001 #1 이발충은 몰르고 그 저 버즘 현 것에만.
 113001 @ 아 버즘은 따로 나중에 저가 여쭙보쿠다 예.
 113001 #1 응 이발 충엔 몰라.
 113001 @ 막 남자아이들 보면 이발 까까난, 머리만 뽀뽀 밀어난데 보면 허영계 이섯잖아 예? 거 어떻게난지 모르쿠과?
 113001 #1 게난 거 어떻게난거 알지 못 허크라. 저 무시거 머리에 비듬이엔 현 거, 그런 것이 그거는 무신 가매귀 독세기혜영 김으민 존나 어떻 말은 들어도 헤본 덴 엇고.
 113001 @ 아 기구나예.
 113001 #1 그런 것엔 우리 신경쩐 안 사난 몰라. 그런 거 모르난 아이들 키와 도.
 113002 @ 거면 예? 머리에 보면 벌거케 아까 그 이발 기계충말고예 벌거케 똥 그렇게 돼가면서 머리에 막 뭐난 독, 그거 그건 이제 독창이라고 헛엇는데 예? 건 어떻 헤신지 알아지쿠과?
 113002 #1 몰라 그건 모른디 머리 옛날 말로 허물 알지이? 허물.
 113002 @ 예 예.
 113002 #1 머리에 허물엔.
 113002 @ 허물은 나중에 다시 저가 물어보쿠다 예.
 113002 #1 어 뜨날건가 그거에?
 113002 @ 예.
 113002 #1 난 거에 ㄱ트카부덴.
 113002 @ 그거 말고 막 이렇게 붉은 반점 벌거케 반점이 쏸쏸쏸 쎄겨 머리 막 빠지고 현거.
 113002 #1 모르크라. 알지 못허크라.
 113002 @ 알아수다 예.
 113002 #1 그건 무신 약 이름 갖는 거라 어떻 허는 거라?
 113002 @ 게난, 그거 치료할 때 어떻 치료헤신지마썸?
 113002 #1 그런 거 몰라. 머리 어떻 현거 당추.
 113002 @ 알아수다 예. 그다음 아까 마지막 것들은 예 비듬 예.
 113002 #1 응.
 113003 @ 옛날엔 그 비듬 보고 뭐렌 ㄱ라수과?
 113003 #1 비듬고라 비듬이엔 허명. 머리에 비듬엔 거 소문들은 소리주. 우린 무시거 모른디. 소문 들으메, 머리에 비듬, 옛날엔 원 거 제기 곰지사 안헤부난 그런 거 나 서신디 허민, 우린 아이들도 안혀 보고 안혀난 모른디, 늬의 소문에 비듬엔 고메기 가매귀 독세기 곰으민 존나 하난, 가매 가매귀 독세기는 낭우이만 집지 성 허주게. 겨난 건 아무나 못헌다 그런 말만 들어난.
 113003 @ 아 경헤수과?

113003 #1 응 우린 해보도 안혀고, 보도 안혀고.

113004 @ 그다음엔 버즘예? 이젠 버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 예? 그냥 말 할 때, 거면 예 지금 부턴 예 아까 버즘 치료하는 거 그 무신 좁쌀 뭐 헌 거랑 자세히 한번 고라줍서.

113004 #1 계난에 그 그 버듬은 그 몸에 낭 도릿허게 헌거 허민 ,그 조체지름이나 보미지름이나.

113004 @ 예, 맞수다 예.

113004 #1 응 그런 거 해영 볼른덴.

113004 @ 그 초체지름이나 보미지름이나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줘서.

113004 #1 응 그거는 이 무시거세 영 그릇에 넣는 것에 허민, 그 짐이 멀리 가 비영 안 모여전 아니사 험신디, 똑 옛날에 사발 굽이 영 흐슬 높으지~? 겨난 사발 별러진 그 굽에 거 고라 반굽이엔 허멍. 거 반굽에 저 험벅해영 싸그넝에 무시거 끈 묶으민.

113004 @ 뭘 싸그네마씨?

113004 #1 험벅으로 싸.

113004 @ 뭘싸?

113004 #1 그.

113004 @ 그릇을?

113004 #1 그릇 굽을 별러진 그릇은 싸면 영 노츠민 거세 집이 경 드리남신 구라 그 큰 무신 사발에나 보시에나는 안헤여. 꼭 요 사발 굽에 영 행 싸면은 장항 싸듯, 장양부리 싸듯 싸그네 그 우트레 그 봄 보미나 저 조체나 영 낡 걸 불붙여 나두민, 짹~ 허게 그거 다 강 불씨만 소라가민 폭 불어동, 그 짹 걸 영 불리 클러 보면, 아래 지름이 까망 발강한 거 흐슬 영 골른 거 영 접양 불라난 거.

113004 @ 겨난 보미는 뭐고 조체는 뭐과?

113004 #1 조체는 조커플 조카와라난 거플이레가 거시기고, 계민 그거는 과장하난 지름이 잘 안날건디, 보미엔 헌거 지름이 하 보미는.

113004 @ 보미는 예?

113004 #1 보미는 산두기 산디나 나룩이나 갓갈안 거 소뭇 체는 빼여불고, 보미, 중간에 거 나온 거. 것 ㄹ라 보미 보미지름.

113004 @ 그거를 놔서 불 슬면 거기서 지름이 사발 밑으로 가라 앓앙, 그 밑에는 지름이 이시믄 걸로 발랏다는 말이잖아 예?

113004 #1 응 걸로 블라.

113004 @ 알아수다 예.

113004 #1 그건 알아져 건 영 아이들 버즘 나난 것도 해보고, 또 그 곳스 아이 머리에 탈진 거 모른디 머리에 허물산디 무신 그건 문 몰라 고사 고라 무시거엔 헤라 뭐라 머리에 난거.

113001 @ 기계충 저기 이발충 지게충마씨?

113001 #1 아 그런 거 깝장사 해신디. 그 옛날 신낭지름이엔 현거. 그거 머리엔 그거 불르민 막 마라나서.

113004 @ 무신낭 지름마씨?

113004 #1 신낭지름.

113004 @ 신낭지름?

113004 #1 응.

113004 @ 신낭지름 예?

113004 #1 신낭지름 빠는 것도 그거라 해당 옛날엔 빵 프는디도 잇넨.

113004 @ 아 기구나 예.

113004 #1 그런 거 이서서. 머리엔 겨난 마싸 마라 맞당.

113004 #2 신낭이란 헨.

113004 #1 응, 고립갈라네

113004 #2 이디엔 짝 차낫는디 이젠 뭐.

113004 @ 신낭이과? 식낭이과? 식?

113004 #1 신낭 신낭.

113004 #2 신낭 신낭 허주.

113004 #1 신낭 신낭 허는디 그 여물은 어떻허냐 허믄 빨강헤여.

113004 @ 예.

113004 #1 빨강 현거 해당 지름 빵, 옛날엔 품도 허고, 머리엔 원 그거나 저거나 거 불르민 준넨.

113004 @ 아 경헤낫구나 예 신낭지름예.

113004 #1 응 저 머리에 혼건 그냥 나 보통으로 들어보는 건 영 부스럼진디 허물 허물로 들어보는디 마싸 이발충이여 무시거여 마라냐, 그런 거 저런 거 몰르난 머리에 건 그거 불르민 준나 영헤난. 틀림어시 머리에 아픈디 거 아이들 거 불르민 준넨 고란.

113004 @ 아 경헛구나예.

113004 #1 난 안헤본 거 소문 들은 소리.

113005 @ 맞수다. 게 그 백선이라고 헤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동전만 하게 허여케 허여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막 신낭지름이나 이런 보미지름 가튼 거 해신가마씨?

113005 #1 그 그것 마라 독지시엔 허는가 머리에?

113005 @ 예 예예.

113005 #1 독지시엔 현가?

113005 @ 예 똥글랑허게, 예예.

113005 #1 계난 그런 거 낫젠 현 소문은 들어도, 어떻사 헨 좋아신디, 옛날에 그런 사름 하나서.

113005 @ 아 예.

113005 #1 계난 거 머리에 ब्ल르는 건 신낭지름만 알아져.

113005 @ 아 예.

113005 #1 이 부스름지난 어떻헌 거 어떻헌 거 헌다 소문은 들어도.

113005 @ 아 그 똥그락케 똥 거 독짓시렌 햇구나예?

113005 #1 독짓시엔 헌거 이서 헤영헌 거 헤영헌 거.

113005 @ 맞수다게.

113005 #1 응 독짓.

113005 @ 백선 예.

113006 @ 그다음에는 예, 옛날에도 얼굴에 막 여드름 나는 사름들 이섯지예?
여드름은 어떻 행 치료헤신고 예?

113006 #1 난 몰라 그런거사 치료 나이대면은 없어진다 허주. 당추 그런 거 약 안헤서.

113006 @ 맞수다.

113006 #1 어 저 나이돼민 어서진덴. 기자 허민 나이들민 첨 어서지주게.

113007 @ 얼굴에 그 여자 어른들 임신하거나 아님 막 햇빛타면 여기 꺼떻게 똥는.

113007 #1 지미.

113007 @ 예 지미는 어떻 처리 저.

113007 #1 지미는 무시거 약헤서게. 나두민 좋아빃주. 애기도 낭 무시거 헤가민 조아지불고 지미엔 곱주 애기 배면은 지미슨덴.

113007 @ 지미슨덴 예.

113007 #2 지금은 병원은 똥 이시난 흐끔허든 똥주만은, 그전에는 전디는 게 공이지.

113007 @ 맞수다.

113007 #1 여드름이나 지미에나 약 어서서.

113007 @ 약 어섯지예?

113007 #2 아 게 저 전디당 사라져시민 사라신가 햇주 무신.

113007 @ 주근깨도 예?

113007 #1 응.

113008 @ 주근깨 막 주근깨 막 나는 아이들도 이섯잖아 예? 옛날에 예 프리짬.

113008 #1 아 프리짬 경 나도 지 때 되민 좋곡 나도 판~지롱 허는디, 나이 탁 들언 지금 이거 영 헤난 주근깨가 막 나불고, 무시거 어두른거 부슨 나불고 윈 어섯주. 피부가 윈 빠작 헤낫주게. 겿당 바람 나난. 아이고, 이젠 늙은 생각으루 늙어 가난 이거구나 한거 허주 막 지금 기가똥히게 을큰헤도 약헐레게는 안행 살아.

113008 @ 기지예?

113008 #1 응 약헐레기 안헤연 아무것도 어션 멘작헐 비지 추름 깨도 엇고 멘 짝헐 피부가 고와낫는디 나이드난 이추룩게 삭 저가난 이추룩도 헤불고, 계난 아이

시커멓고 허고 기가 맥히게 올큰해도 약흘레기도 안 허고 그냥 살아.

113009 @ 거 사마귀는 어떻 해수과? 사마귀 여기 저 점 이렇게 불뚝 불뚝 솟은 점.

113009 #1 사막도 무신 옛날에 뻘다 어떻헌다 곳는다 어떻사 해신디 몰라. 사막 시사.

113009 @ 그냥 이시민 이신체로 살았지예?

113009 #1 응 이심 이신대로 살았주. 우리도 이제 아이들 것 빠블라 무시거 허렌 해도 그거저거 허명 무시거에 혼 세상 다 뉘난 그자.

113010 @ 그다음에는 예 눈에 그 눈 속에 그 뭐 나는 거 잇잖아 예? 거 뭐렌 고라수과?

113010 #1 팔?

113010 @ 이 눈꺼플 안에 그 빨거케 염증 생기는 거.

113010 #1 눈 영 가운데 팔 거 무시거 영 팔롱 현거 그런 거 나.

113010 @ 예 예.

113010 #1 그런 건 안헤연.

113010 @ 그런 건 뭐렌 ㄹ라수과?

113010 #1 눈에 팔낫젠 곳지.

113010 @ 아 팔낫젠 고랏구나 예.

113010 #1 응 팔낫젠 허면 그 뭐이궁 허민 그거 고라 팔이엔 고라.

113010 @ 건 어떻 치료해수과?

113010 #1 팔낫젠 허면 옛날도 이상은 헛주 그 무시거 풋, 풋.

113010 @ 예.

113010 #1 풋 저 영 헤그넵에 영 물에 흐졸 컷당, 그 풋을 반으로 보근제 깨영, 그거를 영 둥그렁, 그 풋으로 둥그렁, 물르레 영 소로록 허게 노민, 꼭 그 담게, 풋 반 깨난디게 꼭 그모양으로 나와. 경헤나민 존넵.

113010 @ 아.

113010 #1 경허고 옷 옷 앞섭이라고 이런 거 잇주. 켄디 요영 헌디 실도 뺑허게 박양 그런 거시기도 이섯고, 실로 영 감아비영.

113010 @ 발바닥에다가 뭐 글씨주고 경은 안헤나수과?

113010 #1 그런 말도 서.

113010 @ 발바닥에 천평 지평 써그네.

113010 #1 아니 쓴덴 말만 그건 들엇는다 확실하게 모르는다, 봉우지 이런 거 실로 영 묶으나 한 거 알고. 풋은 헤다그네 영 혼 번 둥그렁 물르레 영 물르레.

113010 #2 천평 지평 쓴덴 말 나도 듣긴 들어나서.

113010 #1 응, 쓴덴 말 쓴덴 말 발창에도 쓴덴허고, 토로록 허게 영 물르레 들이치민 꼭 눈에 팔추룩 훗방을 바능귀 쉼난 거 그 모양. 경헤나민 존네. 조아신디 말아신디 그런 거 들어.

113010 @ 기구나 예.

113010 #1 난 몰라.

113011 @ 그 다음엔 뭐 막 무시겨 눈에 뭐 막 먼지가 낀다든가 뭐 껴서 눈에 막 뭐 들어가잖아 예?

113011 #1 응 가시들메. 가시들메.

113011 @ 가시들면 건 어떻게 떼나수과?

113011 #1 가시들면은 기자 영 벨랑 보민 시면은 게 영 무시걸로 빼엿주. 영 기냥 영 실민 나와.

113011 @ 경 나와수과?

113011 #1 응.

113011 @ 게 눈이 별경허게 충혈 돼볼민 건 어떻게수과?

113011 #1 아 눈멘 허민 옛날엔 약이 어디서? 애기 어떻게신디 그 젓빌영 쫓김 노민 삭아저분다 옛날엔 경현.

113012 @ 경헛구나 예. 그다음엔 막 입이 이가 아과서 이빨이 막 아팡혈 땀 어떻게수과?

113012 #1 니 아픈 거는 아플만이 아과야주 약이서?

113012 @ 충치 먹고 하면마씨?

113012 #1 빠렌만 헛주. 옛날엔 빠고 무시겨어 무신 약 놔놔주. 저 서광이엔 허는가 무시겨 그런거 노민 다 사가젓덴 경도 고라나서.

113012 @ 서광은 무시겨과?

113012 #1 약 일름이 서광 서광 헨게. 아 서광이 아이고 백분.

113012 @ 백반, 백분.

113012 #1 백분 백분 백분 백분 놔. 거 아픈디 거 놔나민 녹여사 난디, 어떻게 밋때 니가 거 거시기로 막 삭아빋젠 백분 놔나부난 삭안, 영 혼 소리 헨. 난 안혀봤주마는.

113012 @ 예, 백분허믄 삭주게.

113012 #1 응, 경 고라 나서.

113013 @ 그다음엔 그 우리막 피곤하면 헛바닥에 막 그 뭐 막 나잖아 예? 헛바늘 나잖아 예? 여긴 그걸 뭐렌 ㄴ라수과?

113013 #1 그 잠, 이딘 세아과 혼 말 잘헛주.

113013 @ 셋가시 일엇덴.

113013 #1 응 셋가시 일언.

113013 @ 그렇게 할 땐 셋가시 이러실 땐 건 어떻게 치료 해수과?

113013 #1 거 소용 어신 말 소문 들은 소리주. 옛날에는 밥을 많이 허고, 보리밥허난 젓는 남죽 이서. 이젠 그런 거 엿주만은. 그 남죽을 글거불면 글으민 것도 어서진덴 아이고.

113013 @ 아, 남죽 글그믄 셋가시 어서진덴.

113013 #1 응 어서진텐 경헛주.
 113013 #2 옛날 사름들 말장시.
 113013 #1 옛날 사름들 거.
 113014 @ 그 다음엔 요번에 무신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천연두 걸려난 애길 잠
 간 하던데 예? 옛날 천연두 걸렸을 땐 어떻 해수과?
 113014 #1 천연두 호열자?
 113014 #2 아니 천연두는 그 저 이거 이거지 천연두가 이 예방으로 헤네 이디.
 113014 #1 우두.
 113014 #2 우두.
 113014 @ 예 예 예.
 113014 #1 우두.
 113014 @ 우두 걸렸을 때.
 113014 #1 몰라.
 113014 @ 예방접종, 이젠 그 수망리에 누구산디 천연두 걸린 사름 이서났덴 고
 라신디게.
 113014 #1 몰라.
 113014 #2 몰라 우린 안 걸려보난 모르주.
 113014 #1 천연두 몰르고, 우두는 우리 놔낫주.
 113014 @ 우두 예방접종 예?
 113014 #1 응 두린 때 헤선게 역안 보난 이선게.
 113014 @ 예, 기지예.
 113014 #2 건 우두는 거 원 천연두 예방이난.
 113014 @ 예.
 113014 #1 우두 놔낫주만은 경헌 거 몰라.
 113014 #2 우리 그런 거 지금도 이실거라.
 113015 @ 맞수다 게 그다음엔 그 홍역 걸렸을 땐 어떻 해수과?
 113015 #2 홍역 걸린 땐 게, 흔 일주일 이녕 어디 나가도 안혀곡, 무시거 허민
 아픈 아이만 멩심허민 넘어갓주.
 113015 @ 그때 큰아이 홍역 걸렝 막 고생 헛텐 헛게만 그땐 어떻헛 넘어가수
 과?
 113015 #1 그때도 문 막 넘어네. 그 무시거 거 저 할망 에피는 사름 해당 비난
 조아.
 113016 @ 어 그다음엔 학질이렌 헤그네 알아지쿠과? 학질 학질 모기 물러가지
 고 막 열 심하게 나는 거.
 113016 #1 그거는 하루 아프고 하루 아니 아픈거라신가?
 113016 @ 경 할 수도 이실거우다 예.
 113016 #1 그런 말만 들언.

113016 #2 팻허루 허여난 건 날걸리엔 헤낫주.

113016 @ 날거리 맞수다 날거리예?

113016 #2 응.

113016 @ 날거리는 어떻게 치료해신고 예?

113016 #1 치료가 어디서서. 기자 살당 보민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113016 #2 우리 형님은 그 날걸리로 헤네 죽엇주게.

113016 @ 아 몇 살 때마씨?

113016 #2 몇사리냐든 그 사람 나보다 여섯나 우인데 여섯나 우인데 예 나가 열여덟 때 육이오 터지니까, 스물넷에 육이오가 터지니까, 그 병 허면서 그때 뭐 그 때 뭐 이유가 이서서 그때 무조건 바레 훈련받앙 군인가난, 거 누게 치료를 못 받았지. 그대로 허난 츄츄 악화되언 막 어려우니깐 의병제대 시기니깐, 어떻게 여기와그네 지금이든 살아실거라 이디 온 병원이라도 병원에 가봐저시카 뭐 그대로 허다 집이서 울다울다 버칭 죽어빚주.

113016 #1 약이 어디서? 죽는게 약이주.

113016 #2 거난 병원 혼번 못가보고.

113016 @ 못가보고 예.

113016 #2 거니깐 네중엔 게 기자 막 집이서 웨울름만 허당 죽엇지.

113016 @ 아 아프덴 허멍마씨?

113016 #2 아프덴이 아니고, 막 완전히 정신 어서네, 정신 어서네 끄디 끄디 웨 올르는 거라.

113016 #1 못전디난 웬겨주게. 너무 힘들어 가난.

113017 @ 음, 경헛구나예. 그다음에는 그 저 아이들 흐곰 커가면 그 요기 막 빵빵하게 부어가멍 불에 부어가멍 막 그런 거 이섯잖아 예? 아이들 그런 거 안헤수과 무사? 여기 막 아파가지고.

113017 #1 그런거 어서.

113017 @ 불거리라고 하는데 예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 허거든마씨.

113017 #1 몰라 그런 거식이 어서.

113017 #2 안허나부난 몰르주.

113017 @ 안헤봤구나 예? 불거리, 그럼 혹시 나력이렌 말 들어봐수과? 나력?

113017 #1 아 거 막 옛날에 어떤 사람 이 목에 이런디 약아지에 막 부스멍 허 물난 그거 고라 그기에 소문은 들어나서.

113018 @ 아 아이들 불거리도 안헛 잘 지났구나 예. 그다음엔 불거리도 있지만 또 목거리라는 것도 잇거든마씨. 이제는 목 목에 막 아파가는 거 허는 거 목거리.

113018 #1 몰라.

113018 @ 계난 아이들이 안 아팠 다 잘 큰 거라 예?

113018 #1 응.

113019 @ 옛날 그 막 저 더우면 요즘처럼 더우면.

113019 #1 뚝뚝기.
 113019 @ 예 뚝뚝기.
 113019 #1 뚝뚝기 나주 힘들어 노난 아이고 뚝뚝기고
 113019 @ 뚝뚝기는 어떻게 치료해수과?
 113019 #1 치료는 무시겨. 철이 넘어 서늘어와가민 어서지주.
 113019 @ 여름에 막 애기들은 막 여기들.
 113019 #1 어 막 나. 치데, 치루 치루가 어디서 내불민 조추.
 113019 @ 그냥 내불어수과?
 113019 #2 멍 멍질른 사는 거.
 113019 #1 네빋주. 뚝뚝기는 옛날에 기가뻑히주 불습양 밥도 허곡.
 113019 #2 우리집이 아이들은 우리 세상모르게 키와진거라.
 113019 @ 계난 예.
 113019 #2 그저 해나질 안헤난.
 113020 @ 아까 그 ㄱ란 저기 말씀했잖아 예? 그 뭐렌 그 머리에 막 허물 나는 거, 게 그거는 그런 거 낫을 땀 어떻게 해수과?
 113020 #1 게메 그거 불르민 존넨 헛주.
 113020 @ 그 허물에도 신낭이든 아 신낭 신낭.
 113020 #1 그 머리에 신낭 지름, 지름 그거 머리에 꺾 그건 문 윗수가 엇다 영헨. 소문들은 풍운소리 우린 그런 거 안헤어.
 113021 @ 허물 아이들 머리에 허물 만나봐수과?
 113021 #1 만나뵈안나뵈.
 113021 @ 예.
 113021 #1 응 뚝뚝기는 낫주게. 뚝뚝기는. 막 뱃겨 땡겨불민덜. 뚝뚝기도 놔두민 내불민 지대로 조앗주 서늘아와 가민.
 113022 @ 그문 아이들 막 씨러져 가지고 막 이런디 막 그 저.
 113022 #1 다쳐.
 113022 @ 다친걸 뭐렌 고라수과? 막 이렇게 막 글거먹은 막.
 113022 #1 헤먹은 거고라게 무시겨 저 미러빋져.
 113022 @ 저 그건 어떻게 치료해수과?
 113022 #1 치료허곡 하간 거. 우리 아이들 치료 아무것도 안헨 내변. 다 그냥 내비언. 아프덴 허민 나뉘지민 좇나 허고. 모기라도, 아이고 모기 물영 고라와나민 영 춤블라부라 허민, 신디 아이들 배운게 그게라. 춤발르민 조아비어 없어져. 어머니 이디 고라운게 꿈 블라비어. 꿈 블라빌민 조아 강헨 살안.
 113022 @ 막 저기 이런 몸에 같은데 몸에 난 허물 같은 거는마씨?
 113022 #1 어서 안헤난.
 113022 @ 안헨 그냥 가고 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치료헛덴말 안 들어나수과?

113022 #1 몰라 어떻게 해서.

113022 @ 예를 든다면 막 고약 같은 거 발라가지고 떼고 그런 건 안헤나수과?

113022 #1 아 옛날에.

113022 @ 큰 고약.

113022 #1 고약도 불른다 무신, 아이고 그런 말은 이서서. 고약 불르덴. 고약 불른다 무신 아이고 약이 어디서 그냥 살고 일허당 손을 베여도 소 소 속행 영 뽀사 그녕에 그래 툇 그냥 피가 나도 영 누르땡 시면 그 가두민 그냥 일 허고, 그대로 그거행 좃고 경 헛주.

113022 @ 그면 삼춘도 일허멍 어디 다칭 그거 막 그게 막 허물지고 헤봐수과?

113022 #1 아니.

113023 @ 진짜 뭐헤수다게. 혹시 예 그 어 허물은 경헛다 치고, 경허면은 발에 막 저기 무좀 말고 막 그 습진 같은 거 잇잖아 예? 막 물 막 흘리멍 걸리는 발.

113023 #1 아니 경은 안허고, 발거림은 영 고라와 경 영 고라와도 기자 네불민 철 정, 여름 겨울 들어불른 안허주.

113023 @ 안 하잖아 예.

113023 #1 응.

113023 #2 지금 지금 이거 우리 기생충 이서.

113023 #1 기자 살아.

113023 @ 맞수다 게 나도 경험니다. 게 양말만 벗영 여름 땀 흐깎 허당 양말 신기 시작하면 싹 어서지는 거 양.

113023 #1 응 그거 경허는 거.

113023 @ 게 그냥 내불어수과? 아무것도 치료 안허고?

113023 #1 아이고 그냥 내불주 무신 그런 거 기자 이젠 걸지 못허고 하간디 아 파도 내부는 사람 무신.

113024 @ 그다음에는 예 저 혹시 생손얌이 라고 해서.

113024 #1 응.

113024 @ 그 그건 헤나수과?

113024 #1 아니, 놈 생손 알린 건 기가뻑히게 아팡헌다고.

113024 @ 게 그걸 뒤편 고라나수과?

113024 #1 생손이나 생발이나 거 아팡 막 허여가민 거 생손 알렸져, 생발 알렸져 고라.

113024 @ 게 건 어떻헨 치료헤신고 예?

113024 #1 몰라 우린 안허난. 우리 그거 몰라. 생손알리고 하강거 옛날엔 경들 7랏주 만은 아플만이 아파야 좃는 거 아니? 아플만이 아파그녕에 알령 꺼저사주 조치아녀신가?

113024 @ 게도 그런 거 잇긴 이서낫잖아 예?

113024 #1 응 생손 알렸져 생발 알렸져 고라.

113025 @ 그다음에는 음식 뭐 잘못 먹거나 헛을 때 막 그 저 막 나는 거 뭐런 합니까?

113025 #1 음식 먹는 것에도 잘못 나는 가 무시거 나는가?

113025 @ 웨? 고등어 같은 거라든가 몸에 안 맞은 거 먹으면 막 뭐 나잖아 예?

113025 #2 두드레기.

113025 #1 두드레기.

113025 @ 예 두드레기, 두드레기 나실 땐 어떻게수과?

113025 #1 아이고, 지 아플 만이 아프민 좇추 무신.

113025 @ 그래도.

113025 #1 약이 어디서 우리 집은 아이들이 우로 오누이가 그 도야지고기 그 소고기 그런 거 못 먹어. 그거 먹으면 막 두드레기 낭 혀. 계난 다 좋아도 그거 못 먹는 아이만 두 개라 우로 두 개.

113025 @ 아 지금도마씨?

113025 #1 응 안 먹어. 군인 가오고 하간거 다 해도 안 먹어. 못 먹어. 먹으면 본인은.

113025 #2 집고기는 못 먹어.

113025 @ 아.

113025 #2 바닷고기는.

113025 #1 바닷게기는 먹어도. 그건 못 먹어도 약은 뭐 그냥 네불민 막 두드레기 과당. 계난 안 먹으면 약이주. 먹지만 못 허주. 경허는 아이 우로 오누이 경이서.

113025 @ 거 닭고기도.

113025 #1 아 독고기는 잘 먹고.

113025 @ 아 게 하기사, 돼지는 닭고기로 먹으면 돼난 예?

113025 #1 응 글른 거. 약이 어디서 네불민 좋앗주.

113025 @ 경 헛구나예.

113025 #1 나 애기 다숫 개 키와도 그런 거 몰라.

113025 @ 두드레기는 경허고.

113025 #1 두드레기.

113025 @ 아 여기 땀띠가 두개가 낫네.

113027 @ 그다음엔 예? 애기들 키우당 보민 막 경기 하잖아예? 경기 할 땐 어떻게 키와수과?

113027 #1 옛날에 소문들으메 침맞넨.

113027 @ 그 여기 아이들은 다섯 오누이가 아무도 경기도 안혜수과?

113027 #1 아니 혀나. 지금 돼지고기 안먹넨 허는 아들 혼 번 헤나서. 무사 그것가 경긴고 긴디 아닌디 몰른디, 아팡 고만히 네비언 네비도, 나는 아이들이 경헌 거 모르난 혼으시 신경쓰지 안헛주. 아프당 좇추 허는디, 이디 난게 겨난 그난 그때

가 애기들 키울 때 그때 옛날이난 그 애기가 지금 그 해난 아이가 지금 오십 네라. 그 아이가 아방 이디 약 홀디, 이디서 약허는 걸 이디서 영 보는 거라. 애기 두린 애기. 이디서 영헨 보단 아이가 탁 그냥 영 즈무쳐 분겨. 그것 고라 정기엔. 그 시절에. 난 알지도 못했ندی 겨난 놈들이 침주라 침주라 허난 침 아즈레 갖당, 애기가 버쩍 죽은 그라. 그 세에 그 세에 죽으난, 침맞은.

113027 #2 난 경해난 것도 알지 못헨.

113027 #1 정신이 어션. 어멍 아방 몰라. 아방 심상헨 이시민 나가 짚어전 저 아래 침주는 하르방신디 가난, 침줄 생각이 어시 아이가 탁 죽어시난 그 침주는 할망이 물 항에 간 물 거려당 박세기에 물 거련, 바람 애기 우트레 치대기난 애기 꺼박 사는 거라. 풀락 허게 살아나난 경헨 침 맞안 주난 그 그 흐쓸 깨난, 그 날 저물양 침강 맞안 여라 번 서너 번은. 저물양 맞젠허난 서너 번 맞아 진겨주. 쉬영 맞고 쉬영 맞고. 다신 꺼닥 어시 병원에도 흔 번 아이강 큰 거. 그것만 흔 번 해난. 애기 다숫 개라도 정기가 뭔지 몰랐ندی. 거 아들 하나 경헌 거 지금도 도야지고기 안 먹어.

113028 @ 그다음에는 예 어 또 아이 크다가 그 하다보면 화상 입엇잖아예? 그 소주로 그 손가락 해낫잖아예?

113028 #1 어.

113028 @ 그 약간 헐랑헐랑 하나네 이제 괜찮아져신디. 그 이견 작은 화상이고, 혹시나 크게 화상이나 이렇게 뿔을 때, 어차튼 물에 데든 불에 데든 건 어멍 치료 해수과?

113028 #1 우리 데어났주. 거 애기 씨러정 데어 나든 내비진거 닳아 벵훈이.

113028 @ 어디다 헤신디마씨?

113028 #1 딱 씨러지난 저 옛날 화덕 그 무시겨.

113028 @ 솟덕?

113028 #1 응?

113028 @ 솟덕 솟덕예?

113028 #1 응 솟덕드레 딱 씨러지난, 그 이런디 아궁이가 무시겨 영 막아전 불치 고득 허민 영~ 과반 엠에 영 동겨 낫당 그거 식으민 담아 불고 흐는, 불을 영~ 담아 논 디레 애기가 팍 씨러진 거 아이라. 팍 씨러지난 어덜 데는고 허민 이레 막 데여, 이디 데연. 게난 이제도 쪽깍 무시겨가 이서도 꼭 것지도 아혀고 ㄹ만 네비진 거 닳아.애기가 텅~ 헤도 경헨 존 거 약 안헤봐서.

113028 @ 차가운 물로 씻어 주지도 안혀고 예?

113028 #1 씻지도 안혀고 네분겨. 무시겨 불라진 것도 담다. 그 열린 헤도 그냥 네비지난 것도 조아진 거 닳아. 애기 세 슬에. 게난 지금 말 못허게 그런 그르가 쪽깍 이서도.

113028 @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화상 입었을 때 어멍 치료 헛헨 말 안들어 나수과?

113028 #1 알지 못헤여. 그 아이 흔 번 데어나고 우린 그런 거 보도 안헤고.
 113028 @ 아니 옛날엔 뭐 웬장 발른 다든가 막 경혜그녕 오히려 더 아파.
 113028 #1 그런 거 몰라 웬 장은 개물은 거.
 113028 @ 개 물려 실 때에 예?
 113028 #1 응 개 물려실 때, 그집이 웬장을 그레 처멘덴 헤서. 개 집이 개 임제 네 웬장.
 113028 @ 혹시 이 동네에서 화상 입은 사람 어수과? 뭔가 흉터 잇고 현 사름.
 113028 #1 몰라 어서.
 113028 @ 수망리엔 어신 거 답수다.
 112029 @ 그다음 이제는 그 동상 이섯잖아예? 동상 옛날에 막 학교 다녕 막 동상 걸리고 헛덴 헛잖아예? 동상 걸렸을 땐 게 어떻 헤수과?
 112029 #1 몰라 그런 것도 몰르고.
 112029 #2 동상 나도 동상을 걸러났는디 몰르겠어. 어떻게 헤사신고.
 112029 #1 전데불민 조앗주 무신.
 112029 #2 아니 나 동상 걸릴 땐 군대에서 동상 걸리니깐 군대선 뭐 치료 뭐 허단 보난 것도 어서.
 112029 #1 하니 차면 좇추
 112029 #2 군대에서 그전에 춤 지금은 허지만은.
 112029 #1 이젠 약이 하부난.
 112029 #2 아니 그 전에는 입을거나 저 신을거나 무시거 저 변변치 안헛주게. 거 거 육이오 때 우리 육이오 때는 안강 그 후로 갓다 왓지만은 옷을 스몓 우리 저 휴가 오젠 허민 늬의 옷 비러 비런 입어 아지고 경 헛는디 뭐.
 112029 #1 그 시절엔 하도 어려우난.
 112029 @ 아 동상 걸리면 가지냥 달령 한다든가 뭐 콩에 발 지들린다든가 이런 건 어서수과? 그렇구나.
 112030 @ 예 감기 걸렸을 땐 뭐 그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땐마씨?
 112030 #1 그 저 강기 걸린 땐 그 좇이엔 현거, 나무에 영 낭 먹어드는 영 버 베랭이 벌거지, 좇이엔 현거, 저 빈독냥 좇이나, 좇이나 뽕냥 좇이나 그거 헤당 그 거 영 빼영 애기덜이 그거 맥이면은 존텐 헤낫주.
 112030 @ 그계 벌레 예?
 112030 #1 응, 좇 좇.
 112030 #2 좇타레 잘 다녔주.
 112030 #1 좇 헤당 맥이민 존넨.
 112031 @ 막 기침 심하게 헐 땐 어떻 헤수과? 기침.
 112031 #1 기침 헐 때 그 시절엔 그런 거 몰랐는디, 이제덜은 그 동박지름에 그 애기 물에 낵 동박지름 애기나 어른이나 동박지름 뽕 먹으면 경 존넨들 경 고라나 서.

112031 @ 애기들 막 감기 끝난 다음에 기침 막 오래하고 경 안헤나수과?

112031 #1 그런 것도 안혀난 세상 몰란.

112031 @ 시어른들도 나이 들언 막 기침 같은 거 안헤난마씨?

112031 #1 어서.

112032 @ 그다음엔 딸꾹질 애기 때도 잘하잖아예? 딸꾹질 할 땐 어떻 치료혜수과?

112032 #1 딸국질은 애기 저 애기 때 추우민 저 딸국질나 추우민 응 추우민 나 는디 딸게기레지민 웃구, 흐쓸 역은 사름은 거 딸국질 나가민, 너 뭐시거 나두난 너 먹어볼레 나 아즈가부나 경헨 딱 허게 시리 놀레게 고라불민 학 어서저. 그런 거 잇주.

112033 @ 그다음 코피 같은 거 낫을 때 어떻혜수과?

112033 #1 코피사 나민 나는양 무신 흐쓸 막양 이시민 조추 약이 서서?

112033 @ 아이들 키우멍 코피 난적은 어수과?

112033 #1 아, 어서.

112033 @ 막 삼춘네 일허당 지쳐그네 오면은 코피 나가거나 경 안헤봐수과?

112033 #1 아 코피는 강기 나우젠 허면 흐쓸 서꺼정 나와도 그런 거 별로 엇고, 잇당 흐쓸 서꺼정 나와도 꿰 터져도 기냥.

112033 @ 게 그냥 내부러수과 그냥?

112033 #1 내불면 조추.

112034 @ 그다음에는 가렌데 가끔 삼춘도 가래 끓잖아예? 저 젊었을 때 담배 피워나수과?

112034 #1 어 먼 피어.

112034 #2 담배 혼 30세 까지는 피워 저실거라.

112034 @ 어, 빨리 끈엇져예?

112034 #2 애기들이 못허게 헤.

112034 @ 가래 같은 거 끓으면 지금도 가래 가끔 끓잖아예? 건 어떻 뭇로 치료 혜수과?

112034 #2 가래 나 영 중간에 기침하는 약도 좀 먹당 지금 끓어 버렸는디, 내가 그때 병원에 가난 기관지가 막 약허덴 허멍 헤네 허던게, 이젠 좀 췌잖아 짓는데 여기서 가래고튼 건 누게 헐 신경을 안써.

112034 @ 그냥 나오면 나은 대로 예?

112034 #1 응.

112035 @ 그다음에는 예 가래퓏이라고 헤가지고 그 이 허벅지하고 이 사타구니 사이에 땅땅 저 멩을 같은 거 헤가지고 막 걷기 불편할 정도로 나는 예 그런 병이 잇거든마씨. 혹시 거기 아팠 못 걸어 보거나 경 안헤봐수과? 그런 사람 본적 어수과?

112035 #2 몰라.

112036 @ 거민 설사 날 땀 어떻 해수과? 설사 날 땀.

112036 #1 설사 날 땀 뭘 건 약이라 거 병이라 나두민 조추.

112036 @ 게 나두문 좋은 게 아니라, 설사 낫을 때 뭘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설사 나면 안돼지 안으카마썸? 게도 뭔가 하지 안헤시카마씨예?

112036 #1 게난, 설사만석 한거세 난 신경 안써져. 두어 번 확 불테기민 설러부 주 다 나와지민.

112036 #2 그 내가 설사 그전인 즈지 나났는디, 왜냐? 내중엔 보니깐 그 위가 약헌거라 이. 위가 약해가지고 헛는디 지금은 젊을 때 허고 내가 완전히 그것이 좀 건강해진 거 같은데, 내가 그전에는 여름 젊어신 때 여 올레 소 모랑 들어오다그넝 그게 여기 들어말 여기 바빠가지고 그대로 화장실 뛰어났나고.

112036 #1 이젠 안혀.

112036 @ 게민 설사하면 따로 다른 걸로 뭐 다른 거 처방행 뭘

112036 #2 거 그런거 엇주. 지금이난 병원시난. 우리 병원에 갈 생각 꿈도 안 꺾난.

112036 #1 하르방 병원 흔 번 안 강 사난.

112037 @ 아 기과? 그면 이질, 설사보다 독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 전쟁 때도 막 현 죽어신디, 이질 같은 건 걸렸을 땀 어떻 해났는지 혹시 모르쿠과?

112037 #2 이질은 안 걸려나부난 몰라 걸려나질 안헤부난.

112037 @ 게난 맞수다. 걸린 사람들 어서나수과?

112037 #1 이젠 병원에들 땀기고 것허난 그거 저거 알암주 그 시절엔 이 고망 만석 살아부난.

112037 #2 아니 그전에 이질 걸려난 사람들 이서나서.

112037 @ 게난 그 때 어떻 치료헤신고예?

112037 #2 몰라.

112038 @ 그다음엔 그 광란이라고 헤가지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멍 아픈는 예? 막 토하고 이런 거는 어떻해수과?

112038 #1 거 광란이엔 헤도 이제사 보난에 무시거 음식먹어네 아다로 똬는 그 거 아니라? 배 아팠 막 헌거. 어떻게 약인구 허민 배를 아파 싹싹 ㄱ렐 ㄱ는디. 나도 두릴때에 검질메레 밧디 갖다네. 그걸 아프난, 그 무신거로 헤네, 무시거 속귀를 건 꼬아. 영 요를 영 꼬는건디 영 웨여 낀다고. 웨우 낀거엔 풀 흔착에 영 딱 영 무 켌, 그거 비영 자라는 거라. 거 밧디서. 그거 영형 자당 깨난 없어져.

112038 @ 웨? 무사 그걸 경허렌 헤신고예?

112038 #1 몰라 무사산디. 옛날 우리 할마님이, 나가 밧디 검질메레 가는디 막 ㄱ싸광란이엔 허멍 그것 고라. 배 아팠 막 헛난 헛린동푸니 허난 이제는 그거를 헤 석허지 안혀고, 음식 잘못 먹영 아팠다고 허주만은, 그 시절에 그거엔 허멍 일름을 그거엔 허멍 무신 저 예엄에 가네 무신 정당이여 무신 거 걸어당, 올 영 웨우 꼬앙. 그걸 비영 누렌 허는 거 아니? 밧디 게 영 누워이시난 흔 좀 썩~행 자지는 거라.

경 배아픈 사름이. 혼 줌 잔 깨난 없어진 그거 고라 광란이엔 경고라나서.

112038 @ 정낭줄로 그 꼬아 가지고 예?

112038 #1 계난.

112038 #2 계나저나 그.

112038 #1 밧디 간거난.

112038 #2 현재 그 잇는 걸로 헨다는는 말이주.

112038 #1 잇는 걸로 헨거. 계난 그것에 뭐 꼬는 거는 대게 집이서는 영 꼬는 거 헨 꼬주만은, 밧디 간 엠에 거난, 이 무신 줄거리 헨 영 꼬아네, 영 눈거주 밧디서 아픈거난. 겐게 즘자렌 허난 경 아팡 허다네 즘은 혼 즘 붙여전게 깨나난 어서 지난 난 경은 해난. 늬은 어떻게 험신디.

112039 @ 체헛을 땀 거면 어떻 험니까? 체 헤그네 막 그 광란 아마도 저가 뵈을 땀 식중독이나 이런 거 같은데예? 심하게 근데 단순히 체헛을 땀 어떻 헤수과?

112039 #1 몰라 건 어떻 산디.

112039 @ 아이들 뭐 멩 체하지 안헤봐마씨? 배아프른 삼춘 체 잘 헤실건디.

112039 #1 아니.

112039 @ 체헛을 때.

112039 #1 그런 거 모르고. 모르고 ㄹ싸 광란이엔 허난 문득 뜬네전. 나 당한거난.

112039 @ 아이들 문치모르멍 체하거나 경 안헤봐수과?

112039 #1 아.

112039 #2 체허는 건 급허게 먹으면 체허기가 쉽는다 급허게 음식이.

112039 #1 아이들 먹을 때 나 어 체헌 건 알주. 나가 무사 아는궁. 옛날에 이 차도 저 남원리 가사 타고, 서귀포 ㄱ장 가민, 남원리 가서 타고 헨 시절에, 애기가 아시날 저 조팍티 영 메멍 옛날에 조팍디 난 저 푸께엔 헨 게 잇주. 경헌 거 탕 애기들을 뵈여서. 영 먹으렌, 옛날에 우리도 먹어나고, 겨난 탄 뵈연는다, 아니 혼 뒷날은 막 어, 헨 서르레 썩~기 가가는다, 애기가 아판 막 콕 죽어가. 콕 죽어가 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민 좋곤 이젠 허난, 새파랑 헤가나네 아니 이제 서귀포 병언에 갈수도 엇고 어디 저 세둔이엔 헨디 가살길 헤도 걸영 저~디강 차탕 가젠 허민 어두경 가질 못헤켜 계난, 겨난 어떻게손이 약손인이 그말 약손이엔 헨 말이 그말이주. 애기 새파랗게 정신 어서 가난, 그 배를 영영 막 씨러서. 아 요영 요영 요영 영 배를 씨루제난 애기가 콕콕 허는 거. 이 무시거 토허는 거 아니. 토헨 거 보난 그 풋께, 풋께 그게 연쳐난거주게.

112039 #2 언친거주게.

112039 #1 풋께 혼 민작허게 토헨 나오난. 그거 나오난 애기 눈 덩 살아난 게 거 나대로 고치난거.

112039 #2 건 언친 거.

113040 @ 그다음에는 예 어 이 베이 살 이렇게 베잖아예? 칼로 베기도 허고 풀

로 베기도 허잖아예? 그렇게 베었을 땐 어떻 해수과?

113040 #1 ㄱ싸 고르난 게. 썩 흐썩 트다당 부비어 누녕 영 나두민 그게민 다
웨는거.

113041 @ 모기에 물렸을 땐마씨?

113041 #1 모기에 물린데 춤 불르민 웨여.

113042 @ 그민 뱀에 물린 땐마씨?

113042 #1 그런 건 약도 없고 난 몰라.

113042 @ 그 툐인가 뱀에 물려낫덴 허지안해수과?

113042 #1 게난에 피나고 아프지 안 허난 내빋주 무신. 경헌디 흐썩 요수 처메
진 거 달마 요수.

113042 @ 요수가 뭐과?

113042 #1 밧디 흐는 비루.

113042 @ 요소?

113042 #1 어. 요소 비루.

113042 @ 요소비료를 그 뱀 물린데?

113042 #1 응 그때 흐썩 침엔텐 말이 이서 침에난 거 닻아.

113043 @ 벌에 쏘일 땐 어떻해수과?

113043 #1 벌 쏘 땐 저 무시거 저 기자 내불민 좋고. 이제 벌들은 경헤여도 내
불민 좋은디 대게 오즘쌍도 불르덴 허고, 경 고라나서 오즘쌍 불르덴.

113044 @ 그다음에는 예 어 우리가 그 옷 올랏덴 헛는데 칠 올른 건 어떻해수
과?

113044 #1 거 우린 안헤봤는디 옛날 소문들으멘 그 나무 강 스라분덴.

113044 @ 아~.

113044 #1 그런 낭 그 올른 건 어느 낭인 철이 모르주게 몰라도 칠낭을 강 봉
강 스라.

113044 @ 그냥 스라서 뭐 연기를 쨌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113044 #1 아니 영 스라 영 불 부치명.

113044 #2 연기 쨌는 게 맞지.

113044 #1 그 그 그나무도 멘 멧 나 몸도 멘 멧 좋으라고 경헨 고라 경헌텐.

113045 @ 그다음에는 멍들 때 잇잖아예? 멍들 때.

113045 #1 다칭 멍든거지게 그거.

113045 @ 건 어떻 해수과?

113045 #1 것사 내불민 조추 무신 그런 거 ㄱ장 안헤반.

113045 @ 안 헤봐수과? 그

113046 @ 다음엔 그 가끔 말을 더듬는 아이 잇잖아예? 그 말 더듬을 땐 건 어
뎡 고쳐신고예?

113046 #1 몰라 네빋주. 무신 고치국 경 헤시카?

113046 @ 혹시 아이들 중에서 말 더듬었던 아이 어수과?
 113046 #1 어서.
 113047 @ 그 다음 허리 빼었을 땐 어떻습니까? 뭐 무거운일 허당 빼끗행 빼었을 때.
 113047 #1 아이고 무신, 저 무시거 헤그네 무신 아웨낭 썸이나 무신걸로 헤영 영 붙임헌덴헛주. 영 멘도롱 허게 침 영 기자, 데영 영 처미영 흐쓸 붙임도 허고.
 113047 @ 배 배 앞이나 아웨낭 앞으로예?
 113047 #1 아웨낭 앞으로.
 113047 @ 걸 뜨겁게 헤가지고예.
 113047 #1 응.
 113047 @ 거른 썸수과 숲아수과? 잎을.
 113047 #1 썸. 멘도롱 허게 쳐그네, 이디 영 붙영 구침허미라고 쟁헛.
 113047 @ 여기도 막 아웨낭 이수과?
 113047 #1 아웨낭 해주게.
 113048 @ 기지예. 그 다음에는 허리는 빼었을 때 경헛던 허고. 발목도 빼긋허민 잘 빼잖아예? 발목 빼었을 땐 어떻헤수과?
 113048 #1 몰라 그자 옛날엔 그런 구침헌 거 그런 거 베귄.
 113048 @ 게 그 발목 빼면은 어떻헛 그냥.
 113048 #1 몰라.
 113048 @ 한 번도 아이들도 뺨적 어수과?
 113048 #1 우린 엔간헌 건 내비어 거난 아이들.
 113048 @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발목 빼난 어떻헛던 헌 말도 안 들어받 마씨?
 113048 #1 몰르고, 기자 경정헌거는 베견. 기사사 요세사 흐쓸허면 병원에 가부난 게 못 곳고, 옛날엔 영 기자 전디느니 공으로 살안. 멩이나 질민, 게난 하영들 죽엇주 게. 병신도 하고 이젠 병신 웰일 이서?
 113049 @ 귀에 물들어 갔을 땐 어떻헤수과?
 113049 #1 몰라 그런 거 윈 우리 본테 어시난. 아이들이나 혼 번 마해도 귀에 물들어강 고생은 안 헤보고. 늡은 어떻사헛신디 몰라.
 113049 #2 그전엔 에 내에 가그넵에 몸 김고 뒤허난, 요세 여기가 게난,
 113049 @ 아니 옛날에.
 113049 #2 요센 헤엄도 못 치잖아 게난.
 113049 @ 아 옛날에 내에 강 몸 김아난 귀에 물들든 어떻헤수과?
 113049 #1 그런 건 어서. 그런 말 나 들은 게 어서. 귀에 물들엇젠. 귀에 물 영 들민 생각에 그 무시거 저 영 험벽으로나 종이로나 꼬양 이레 영 둘러 들런 그거가 약이 랏주 영 들렁 영영 헤비어.
 113049 #2 게 그세 그그 물에 무처볼렘 험도 그 우리 저 몸 무레 하든 영 보

른 거 내창에 몸통드레 영헤그네 흘때 영 귀 영 헤그넵에 흐는 사름들도 잇콧, 게 난 떡돌 영.

113049 #1 아 귀에 물든 거 거 노아네 귀 들르는 게 쥬 나사.

113049 #2 거 떡빠기렌 현거 거 떡빠기렌렌 허는 거주. 영 뭐 게 물만 빠불문 웨니까.

113049 #1 종으로구 천이로구 저 노꼬양 저 눌러불민.

113050 @ 그 다음엔 막 그 발에 무좀 같은 거 헛을 때 무좀은 어떻 치료 헤신 고예?

113050 #1 몰라게. 무좀은 어떻사 헤신고. 우리도 게 이제 잇당 경 그라워 톨 그라워 톨 그라도 겨을 들어가민 아무러치도 안허난

113050 @ 막 무좀 심하게 걸린 사름들 어서마씨 주변에?

113050 #1 어서 나 몰라.

113050 @ 아이들 중에서도 무좀 걸린 아이가 엇고예?

113050 #1 요센 약이 하난 하영 헨 몬 그람실 테주 뭐. 겨고 옛날에 이제는 옛 날 추록 살지 안헤노난 손이 더 알양 짓주게.

110051 @ 뭐 습진도 거 마찬가지로 켜예?

110051 #1 응.

110052 @ 그다음에 혹시 그 저 이 발가락 사이에 요기 요기 사이에다가 그 뭐 이렇게.

110052 #1 눈터.

110052 @ 예 눈튼 거.

110052 #1 거 옛날이주. 이제사 그런 거 이서? 이젠 신들 좋게 신어부난 옛날에 저 쥬신 그런 거 신을 때 눈터서.

110052 @ 눈트민 건 어떻헤수과?

110052 #1 그 옛날에 그거 허민 눈트면은 게 뭐이 뭐이사 헨 약 헤신디 몰라 눈 터나서 나도 약이서?

110052 @ 다른 마을 조사할 때 보면 눈틀 땀 머리에 너 잡아가지고.

110052 #1 아이고 그 말이 마진게. 응 경헤난 거 닳아. 니 잡아네 니헤여 그 저 눈튼 트멍드레 놔난 거 닳아.

110052 @ 영행 영 뭇로 천으로 뭐 막양예?

110052 #1 응 나도 눈 터나서. 옛날에 쥬신 신어그네 무시거 헛 때. 응, 머리에 그 너 잡양. 경허고 옛날에 너 머리에 너들은 막 하간 사름이 다 헛주.

110052 @ 계난예.

110052 #1 경헤난 베 이제 사름들은 너 알아, 베흑알아? 몰라 이제 사름 모르 주. 어느때 너 머리에 나와신고?

110052 #2 군대 군대 갈 때, 너 백스무마리 잡아사 줌제와 나신디.

110052 @ 아 정도 헤나수과?

110052 #2 아이고 아이고 행편 어서나서. 빈데.
 110052 @ 예.
 110052 #2 빈데~ .
 110052 #1 빈데, 건 아무데나 어서나수게.
 110052 @ 빈데도 막 사람한테 붙었예?
 110052 #2 사람한테 부트는 게 아니고, 거의 벽에 벽에 여무니 속에 막 들어가 주게. 거른 어디 사람하영 허는디, 거허른 잘못허다그네 그거 헤그닝에.
 110052 #1 건디, 니, 베틀 이제 사람들 몰라 빈 빈덴디 변덴디.
 110052 #2 나도 여기 그전에 휴가를 왔는디, 그거 올라지 그거 붙어온철이 몰랐 거든. 내중에 보니까 우리집이 그게 와네 나 발견 헤낫주게. 그난 그 어디서 붙어 온 철이를 모르겠어. 허허허. 나 저 제대한 직후에나 발견 헛거든.
 110053 @ 어딘가 막 아파가지고 뭔가 아무다, 지금 저가 질문한 거 말고예? 어 혹시나 삼춘네나 아니면 삼춘네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얘기들이나, 특별하게 아파서 아픈 거를 이렇게 잘 이겨낸 적은 어수과?
 110053 #2 근디 자식들이 그추룩행 고생행 커이 마시민 혈건디 경 안헤나부난 뉘.
 110053 @ 아니 가족 중에 왜 무사 팔 뉘헤가지고 한.
 110053 #2 건 우리보단 나보단 우 츄명 먼저 낫는디이? 거 우리 가이 거 우린 당초 몰라. 거 우리 그 저 배다른 형 말허는 건디 우리 커도 어떻게 알아. 내중 소문만 들은 거지.
 110053 @ 아 소문만 들은 거짜?
 110053 #2 응.
 110053 @ 아 팔 빠정 고치지 안행 내분거에 대해서.
 110053 #2 응 들음 듣기만 헛거지.
 110053 @ 음 그렇구나예.
 110053 #2 보통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110053 @ 혹시 나무에서 뭐 올라갓당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적은 어서마씨? 뭐 아이들 중에도?
 110053 #1 어서.
 110053 @ 음 알았습니다예.

14.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아이고, 예 지금부터는 예. 경험담이나 속담, 혹은 금기어, 즉 헤서는 안 되는 말을 막예, 거기 가면은 그런 말 하면 안 웬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가지씩 여쭙보겠습니다예? 어, 혹시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을 뻔 헛던

일이 이서수과? 어서수과? 그 아, 아까 저 둘째, 농약 칠 때 마루에 잇단 쓰러져그
냉 강 급하게 간 침맞은 거 웨로는?

114001 #1 응, 엇져.

114001 @ 아이들 정말 잘 커수다 예. 그 다음엔, 옛날에 막 도깨비 봤덴 말하잖
아예? 혹시 도깨비 불 이라던가 이런 거 봐난 적은 어수과?

114002 #2 도깨비 불 봐난 건 없는데. 나가 한번 경험한 건 잇는데. 어떤거냐,
그 4.3사건 후에, 그 49년대에 의귀리 재건허고, 50년대에는 성의 재건 헛거든? 전
화가 어서서. 계난 의귀리는 출장소고, 수망리는 파견손데, 암호, 우리가 암호를 받
으레 가. 어둑은, 암호도 붉은 때는 안 오거든? 그 암호니까, 어둑어야만 오는 거라.
경허니까 우리가 협조, 우리 그때 해내, 협조원들인데, 경찰 협조원이주게? 둘리, 둘
리 인젠 암호 받으레 의귀리 출장소엔 가는디, 암호받앙 올라 오는데. 지금 의귀리,
그 쪼끔 올라오면 하천 그, 그 바로 그 동쪽에 사슬왓이엔 하는 맛이 이서. 그디서
사람이 많이 죽엇거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하천을 넘어오니까 거기서 살려달라
고 막 난리 아니여? 거 죽을 때 막 살려달렌 해난거지. 근디 그 날이 곧 비왓직이
막 시작 시꺼멍 곧 비드릴 날씨가 그렇게 뻗거든. 하 둘리가 갖다 오다가 서로 이
젠 엉켰거든?

114002 #1 헤, 누게영?

114002 #2 평수영. 둘리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우리 가진 건 죽창이엔 대 고쟁
이 바순거거든? 그걸 둘리 앞에 쫓, 앞에 쫓앗단 말이여. 게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
더라고. 그렇게 해서 와난 예가 잇는디.

114002 #1 생각에 귀에 막 그 위험한 디라 부난.

114002 @ 근데 둘 다 다 같이 들엇던 거 아니짜예?

114002 #2 예, 둘 다. 둘리가 들언디.

114002 #1 그디 막 사람, 그, 4.3때 하영,

114002 #2 사슬왓이엔 헤가지고, 사람 그디 많이 죽여부럿주게.

114002 #1 하영, 계난 그때들 막 그디 무서완 헤낫주게,

114002 #2 계난 그디 저 나중에서 물엇지, 그, 그대로 그이 뼈다귀영 막 내부러
뉘나서.

114002 @ 기지에, 어 그 다음에는 혹시나예, 그 저기.

114002 #1 헛소리 들은 거 그때는.

114002 #2 어, 헛소리지.

114003 @ 참외나 수박서리 같은 거 하는데, 여기는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안 같
아낫잖아예?

114003 #1 응.

114003 @ 옛날에도예?

114003 #1 응, 안해난.

114003 @ 그든 혹시나예, 젊었을 때 재미로, 같이 들 헨 뉘 흠쳐당 뉘 헤떡어

본 적은 어수가? 아, 어수가?

114003 #1 안헤여. 하르방이나 나나 너무 굻작허게 커서.

114003 @ 아니 계난 다른 사람들 헤떡엇텐 소리 안 들어나수과?

114003 #1 현디 경현디 아녀난, 아 아니, 순허게 안 허난, 디영 막 자마리 췌고, 요망진 사람이 그런 거 허주. 우리는 안 허주게, 그런 거. 못헤여. 경현 축엔 못 들어가. 저 집이 영 헤보민 그 4.3때 영 보초사는디 영 현디 지크는 것도 있어났는다. 막 집이겄도 아정 오라그넝, 후문으로 아정오랑 막 먹고 아이들 정헤도, 우리는 경 안헤여. 먹도 아녀고 부모도 췌이도 아녀고 췌현 사란. 집의 것도 막 아정오랑덜 그 거 입초 사는데 강 뵙 먹어불고, 막 헨.

114003 @ 무시거마썰?

114003 #1 아무거라도. 감자도 아저오랑 청 먹어불고. 쫄이 얼마나 어려와시카 부덴? 어려운 쫄도 아정오랑 막 밥 헝 먹어불영.

114003 #2 부, 부옹물로 게 먹어벧주.

114003 #1 부옹물로 그 집이꺼, 늙의 거를 아정오는 게 아니고. 경현 우린 부모 한번 췌이질 안헨 살고라 이말이라. 그런 것엔 등도 안헤주게. 아니 내고 먹어저게? 먹지도 안헤그네.

114004 @ 경허른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잇잖아예? 4.3전이나 뭐 4.3 후에도 상관 없지만은 뭔가 막 재미잇엇던거, 뭔가 막 기억해서 옛날 말 근듯이 근고싶은 거 어 수과? 어렸을 때 기억.

114004 #1,2 어서.

114004 @ 지금 아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억들.

114004 #1 어서. 잘 부모 말이나 듣고, 고정케 살아부난, 원 어땡 점 뵜는 걸 몰라.

114004 #2 이 저 4.3때도

114004 #1 속이명도 못 살안게

114004 #2 그대름 이 저 사 산에 곱으레 땡겨난 사람들은 기억이 잇는데, 우린 그 때는 신흥리 내령 살아부리니까.

114004 #1 곱으렌 안 땡겨 부니까.

114004 #2 곱으리 안 땡겨부니까 몰라.

114004 #1 이레부난 몰라.

114005 @ 어, 그면은 어 그 옛날 부모님들이 삼춘네안티 무슨 속담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해 준 적 어수과?

114005 #2 속담 헤봐도, 아버지 일찍 죽어불고 저 뭐니 어머니 혼자 지금 우리 여섯, 육 남매. 여, 육 남매라? 딸은 하나토 엇주. 그 키우젠 허난에 정신이 어섯주.

114005 #1 아들만 요숫 개.

114005 @ 속담 같은 거 막 아, 막 근지 안헤수과? 뭐 헤가민 뵜뵜한다, 하명. 그런 말 안 헤봐수과?

114005 #1 아니, 때 엇고. 말을 들으면 나쁜 말인 그거주. 들으며는 그 들은 디 버리고, 그 뭐 다시 옮겨가면 소두리 웬다는 거주. 들으면 그 말담지 아년 말은 들은 체 말고. 그런 것만 잘 허라고 키왔주.

114005 @ 그걸 뭐렌 ㄹ라수과?

114005 #1 아니텔 말은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잊혀비여그네 말 옮겨지 말고, 나쁜 말.

114005 @ 예, 게 그걸 제주도말로 뭐렌 ㄹ릅디가? 들으면.

114005 #1 들은디 버리라.

114005 @ 들으면 들은디 버리라.

114005 #1 응, 말 담지 않은 소리엔 귀 안티레 놓지 말라.

114005 @ 들으면 들은 데 데껴볼라? 버리라?

114005 #1 응, 버리라. 들으면 들은 대로 버려볼라.

114005 @ 게 그거를 우리 제주도 말로 뭐렌 ㄹ라수과?

114005 #1 응, 제주도 말로. 그 맛잖은 말은 귀 안티레 놓지말라. 듣기 실픈 말은 귀안티레 놓지 말라. 소두리는 하지 말라는 거라. 소두리라는 거는 맛창보민 콧 등헌다. 영 가당도, 가당도 늙의 아무마니 말 헤여도, 가당도 이녀 생각이 맞아비지 않으면 가당 질 돼돌아오랑 가지 말라. 그런 거배완. 부모들안티.

114005 @ 계난 그런 걸 말할 때, 소두리 옮겨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아까 들은 때.

114005 #1 들은 대로.

114005 @ 들은 데 들은 데 데껴볼라, 버려볼라. 들은 데, 들은 대로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말이잖아예? 지금 말인데, 옛날에는 들은 디 들은 대로라고 하지 않고, 뭐렌 ㄹ라수과? 제주도 말로.

114005 #1 우리 보기엔 경 배완, 들으면, 나쁜 말은 들으면 들은 디 버리라. 옮겨지 말라.

114005 @ 들으면 들은 대로 버리라.

114005 #1 어, 옮겨지 말라. 응, 저, 영.

114005 #2 아니 계난 건 표준어니까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뭐렌 ㄹ는냐 이거지.

114005 @ 예, 어머니가 뭐렌 ㄹ라수과?

114005 #1 우리 들으면.

114005 #2 여기 사투리로 들으라는 말 아니?

114005 @ 들으면 들은 대로 버리라.

114005 #1 소두리 하지 말라. 영허난, 거 그 배운 게 그계난 게. 원래.

114006 @ 어, 그 다음엔 예 옛날에 힘들게 살긴 헤낫잖아예? 지금 삶하고 그 힘들었지만 옛날 삶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져수과?

114006 #1 아이고, 지금 삶이사 대통령 삶이주. 다 옛날 닳은 게 하나도 어서.

114006 @ 지금 삶이 더 좋아마썸?

114006 #1 좋으므로 말이라? 아이고, 옛날.

114006 @ 사람들하고의 관계는마썸?

114006 #1 관계도.

114006 @ 동네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관계는.

114006 #1 우리네는 뭐 동네 사람들광도 배랑 경, 저 사람이 나쁘다 하게 생각은 원 안 혜연 살안. 다 좋아베이주. 어디 저 모른디 가면은 또 영 생각 현. 함부로 말을 말아야지.

114006 #2 겐디, 영 우리가 보든 영 늬들 갖는 거 보든, 그 전에는 잇는 사람허고 없는 사람들허고 차별을 헛어.

114006 @ 아 수망리에서예?

114006 #2 아아, 원 딘 디도 보든. 영 보든 좀 차별해가지고 영 보든 우리 영이 모든디 가도, 난처한 늬은 그 끼리만 모인단 말여. 거기서 조금 저 뭐 그 조금 저 그디서도 조금 뭐 늬만이 못하는 뭐하는 이늬은 툘라버린단 말이야. 그런 게 잇어.

114006 #1 지금, 지금? 지금.

114006 #2 지금도 잇어. 모든 디 가든 딱 찢, 찢리찌리가 잇어.

114006 @ 예, 맞수다예.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더맹이
201002	대가리	더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꿀
201005	제비초리	총데기
201006	머리털	머리꺼럭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꼭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답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뽑쓸머리
201016	가마[旋毛]	갈라진 거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가메
201019	이마	이메, 이맹이
201020	넓다[廣]	넓직허다
201021	이마빼기	이맹이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놋
201024	낫[面]	놋바닥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놋사라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맹경
201030	보다[見]	구경허다
201031	뺨	양지
201032	뺨따귀	불딱사니, 귀따지

201033	때리다[打]	후리다
201034	불	불딱사니
201035	불따구니	불따구니
201036	불거리	귀똥몸살
201037	광대뼈	양지뼈
201038	보조개	보조기
201039	주름살	주름צל
201040	눈[目]	눈방울
201041	흰자위[目]	흰동저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저
201043	눈꺼풀	눈각
201044	거적눈	덕게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검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양미간
201049	수침(垂針)	수침
201050	거머리	거머리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초리
201054	사팔눈	사팔눈
201055	눈웃음	젓눈질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접다, 줍다
201058	콧마루	콧전등
201059	세다[強]	높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페렝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201064	콧수염	쉬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쓸데기어신 말

201070	바르다[正]	반득허다
201071	뉘달하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의
201073	헐다[毀]	구감나다
201074	입놀림	주둥이 놀림
201075	말하다	긱다
201076	입방아	훈데다, 허우치다
201077	허풍	허우데기
201078	뇌다	제드시리다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吞]	숨치다, 숨지다
201081	가래침	게츄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늑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데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세까시
201088	이[齒]	늑
201089	앞니	앞늑
201090	송곳니	걸늑
201091	덧니	덧늑
201092	버드렁니	벌은늑
201093	어금니	어금늑
201094	사랑니	막어금늑, 막늑
201095	옥니	오근늑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낫다
201098	음물다	끄물다, 양물다
201099	턱	아굴탁
201100	턱살	군술
201101	빨다[稍峽]	홀트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긱밥
201109	귀이개	긱밥네는 거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긱자락
201112	구레나룻	쉬엄
201113	목	야가지
201114	굽다[顛]	슬지다
201115	모가지	야가지
201116	먹살	목ㄱ대, 목구대
201117	잡다[執]	잡다, 심다
201118	뒤통수	뒛더멍이
201119	꼭뒛	뒛더멍이
201120	뒛덜미	뒛술

상체

201121	어깨	득지
201122	어깨뼈	득지짱
201123	어긱죽지	풍체
201124	겨드랑이	저긱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꿈지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꿈지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짱, 뼈
201134	뼈다귀	뼈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젹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굽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주웨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약손가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털어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명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擻]	빠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또롱
201167	옆구리	옆팔리
201168	갈비뼈	옆팔리팡
201169	등	등어리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때기
201173	가렵다[癢]	ㄱ랍다
201174	굽다[抓]	굽다
201175	결리다	결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어리물
201177	찬물	실린물
201178	등마루	등어리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옆팔리
201181 잔허리 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잠지폐기
201184 살집 슬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엉치짱
201187 궁둥이 안짱지, 안잠지
201188 궁둥이뼈 안짱지짱, 안잠지짱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냥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버치다
201194 살 샷깁이, 샷깁이
201195 가래뿔 늦인돌, 느린돌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안다리
201199 넓적다리 밧다리
201200 무릎 절벤
201201 무릎뼈 절벤짱
201202 뼈다[髑] 고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강머리
201204 정강뼈 정강짱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딴지 주술
201207 오금 사깁이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목에기

201214	겹질리다	삐지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봉우지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ㄱ랍다
201220	간지럼	저굴름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가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가운뎃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넷째발가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발꺼림
201223	까치눈	켄거
201224	티눈	눈
201225	고린내	똥내, ㄱ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폐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고양허다
201232	창자	베설창지
201232-1	큰창자	큰베설, 큰창지
201232-2	작은창자	죽은베설, 죽은창지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아지가다, 기차가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베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몸갈르다
202006	태(胎)	애기뿔
202007	땃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므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역은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눔
202015	계집아이	계집아의
202016	아깝다	을큰허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업저지	도사리
201019	품다	안다
202020	오줌	소벤,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레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랍다
202028	꾸지람	답들
202029	배냇저고리	봣뎃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둘름지성귀
202033	보자기	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으다

202036	끄르다	클으다
202037	처네	처네
202038	띠	걸랭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바지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즈메즈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선달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텐데텐데
202045	부라부라	부라부라
202046	걸음마	흔자국 두자국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곤두박질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동가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돌아지다
202053	목말	고개테우기
202054	흥내	뿐
202055	흥내질하다	뿐따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계심
202058	자라다[成長]	길엄다
202059	부아	용심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심우쟁이
202062	밋다[憎]	굿다
202063	옛말	연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구슬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찌치기
202067	통차기	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문이	보물찾기, 물건찾기
202074	줄넘기	베짖락
202075	줄다리기	베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땃기다
202080	고누	고누
202081	땅뺨기	땅뺨기
202082	사금파리	사금파리
202083	말놀음질	말타기
202083-1	생말타기	생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죽은말타기
202084	대말[竹馬]	대말
202085	달음박질	달기
202086	겨루다[競]	내기허다
202087	제기차기	쫓끼차기
202088	혜엄치다	휘다
202089	웃놀이	넉독베기
202090	웃가락	물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웨이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줄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승강이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펜갈르기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펜백허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방패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연달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달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꽂숫달
202108-3	긱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인 대	긱달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허릿달

202109	방구멍	방구멍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갈개발
202112	별이줄	별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별이줄	머릿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별이줄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별이줄	꽂숫줄
202112-4	활별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별이줄	활별이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별이줄	가운뎃줄

202113	얼레	얼레
--------	----	----

202114	두모얼레	두모얼레
202115	네모얼레	네모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개미
202118	퇴김	퇴김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밀신개	밀신개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둥글어가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품
202129	기지개	질트기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기허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느레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여시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잠귀
202141	잠꾸러기	잠꾸러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트름
202145	딸꾹질	딸꾹질
202146	채채기	하쟁이
202147	개치네췌	개치네췌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끼다
202150	방귀장이	방귀장이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꼬랑네
202153	사레들다	살르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기침
202156	홍역	지구실, 한집
202157	학질	날걸리
202158	천연두	큰한집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도랭이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벳버줌
202167	진버짐	도리버줌
202168	주근깨	프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놋싸움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거멍허다
202174	굳은살	멍구쟁이, 쨍이
202175	부스럼	부스럼지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허물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발삐다, 독올랏다
202180	다대	허물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고장물
202183	낫다[癒]	좋앗다
202184	아물다	좋앗다
202185	표적	허물그릇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얹다[痛]	얹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봉서
202191	청맹과니	청맹과니
202192	먼산바라기	먼산바라기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202194	사팔뜨기	사팔뜨기
202195	다래끼	게쌌
202195-1		들럿
202195-2		푯
202196	언칭이	칭부
202197	외언칭이	칭부
202198	쌍언칭이	쌍칭부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엄불리는사름
202203	혀짤배기	세즐른사름
202204	입비뚫이	입토레기
202205	구안괘사	아살퐁
202206	가납사니	가납사니
202207	곰배팔이	폴벙신, 벙신
202208	곱사등이	곱세
202209	절뚝발이	절뚝발이
202210	얹은뱅이	아진베기
202211	문둥이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마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집잇어른
203008	아내	각시, 이사름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구지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스나눔
203012-1	큰아들	큰아덜, 큰눔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죽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큰죽은아덜
203012-9	막내아들	죽은죽은눔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이녁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이녁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순, 즈손
203021	어비딸	애비딸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으다
203024	어이딸	에딸
203025	어이아들	에새끼
203026	말이	큰거

203027	막내	죽은거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이,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203035	쌍둥이	글레기
203036	다르다[異]	뜯나다
203037	같다[如]	긱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들다
203038-2		양제돌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잔치
203042	날[日]	흐루저무랑
203043	사주보다	소지보다, 소지고남
203044	중신	세화자, 세화쟁이
203045	권당	권당, 근당
203045-1		권당
203045-2		보딘권당
203046	얇은잔치	몰르로 슬짜기 허는 잔치
203046-1	암창개	신랑 안가는 새각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바님,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씨어머님,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아바님
203052	장모	가시어멍, 어머님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버지, 외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주버님
203057	아주머니	삼촌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으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영에뜸
203063	병추기	벙주시
203064	거동하다	거동하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근당
203072	외척	웨근당
203073	종내기	씨아살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삼촌, 즉은아바지
203079	작은어머니	즉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삼촌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어머니
203092	친어머니	친아버지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옴딸	테려온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남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천
204002	끓다	스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농여지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세미녕
204010	옛새무명	옷쇄미녕
204011	생목	깃차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솜	소게
204017	풀솜	맹지소게
204018	솜틀	소게틀
204019	솜틀집	멘네태우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드레, 멘네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즘박
204024	번데기	고주우리, 고주리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쌌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곳뽕
204029	오디	오동

204030	다듬잇돌	다듬이
204031	다듬잇방망이	마계
204032	피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버끔
204035	물거품	물버꿀레기
204036	빨랫돌	빨랫돌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계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믈르다
204042	마지랑대	거린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건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물벗어지다
204046	헹겘	헹벅
204047	찢다[裂]	보리다
204048	나부랭이	헹벅쫄가리

복식

204049	바지	정벙이,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달, 바짓알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단
204054	풀치마	두름치메, 깍치메
204055	웃고름	곰
204056	웃깃	깃
204057	웃섞	앞섞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블므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정벙이
204063	갈중의	갈중이
204064	적삼	물체

204065	도포	도복, 청도포
204066	두루마기	후루메
204067	장옷	두루막
204068	고쟁이	고장중이
204069	토시	손도메
204070	누더기	누더기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뺏쟁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204075	주머니	주맹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찌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에톡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등어리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앞코지

204079	길목버선	질목테기
204080	버선발	맨버선창
204081	대님	대님
204082	감발	감발
204083	홀옷	훗옷
204084	겹옷	안낚진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얇다	갈하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거적
204090	이불잇	이불짓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꿀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폴	보프레기
204097	홀청	이불거적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수건
204100	눅다[臥]	눅다,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노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호칭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모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당건
204113	병거지	병거지
204114	밑짚모자	패랭이
204115	미사리	미사리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세각신, 털맹이
204118	딴총박이	각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204123	부르트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몽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꾸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늘쌍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손꼴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까림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박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짚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집다	집다
204145	곱치다	감치다
204146	휘잡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조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리다
204153	씨아	씨아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씨아기둥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췌기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깔개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씨아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씨아손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락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괴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괴머리기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설다리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가로대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물레바퀴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조륙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술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락고동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쇄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굴뚝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술

204155 자세 베클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비와놓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괴엄다
205007	빼다[湯水]	붓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질레기
205013	고두밥	물마진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205016	눌은밥	누렁이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과래밥	과래밥
205020	밥보	창지 큰 사름
205021	밥술	숯그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시
205024	늦다[晩]	뜨다
205025	이르다[早]	재다(재나 뜨나 이녁 태운이 만씩 산다.)
205026	공밥	공거
205027	논다	캣다
205028	승냥	누렁이
205029	화독내	카는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늑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걸뎃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섞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김치

205050	배추김치	배치김치
205051	무김치	늪배김치
205052	열무김치	츄늪물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베기김치
205055	갓김치	갓늪물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패마농김치
205057	각두기	늪배김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뜸그다
205060	간장	물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텅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맛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소금뿌리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지름
205071	무나물	무채수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볶은거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고구미
205075	썰다[切]	격다
205076	곳[場所]	그디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내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습키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웨수세미

205087	말물	서
205088	끝물	나무기
205089	개똥참외	간절기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갯잎	유썸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푼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 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작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썸
205100	시들다	스들다
205101	더덕	던덕, 덩덕
205102	젓	적갈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감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식초

별식

205108	흰떡	작구, 작꾸떡
205109	백설기	친떡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옴떡
205112	소[떡소]	속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절벤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멘
205119	칼국수	칼저베기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묏다[淡]	얕루다
205123	범벽	범벽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봉지	봉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지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주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춘이
205138	옳다	주울이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싸다
205146	갑시다	꼭기다, 답지다
205147	지짐이	지진거
205148	누름적	튀김
205149	산적	적, 적깔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지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망굴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지비치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늦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그스럼
205160	검댕	숫꼼뎡이, 숫꼼뎡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205164	부뚜막	숫전
205165	봇돌	숫떡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달솔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퀘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
205171	솔귀	솔귀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꼼뎡이, 숫꼼뎡이
205176	부삽	갈레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205182	성냥	화각
205183	성냥개비	화각쌀
205184	성냥갑	화각거적, 화각집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싷돌	부싷돌
205187	부싷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주멩기
205189	부시통	불쩍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등피각지
205193	남포등	호야

205194	접싯불	접시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거멍허다
205198	숯가마	숯구덩이
205199	뜯숯	계수미
205200	숯검정	소끔덩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카는내
205203	불태우다	스라불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붕덥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덥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데었다
205213	부손	불숯ㄹ락
205214	부젓가락	불하시
205215	다리쇠	세발수
205216	석쇠	적췌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츰
205217-2		츰항
205218	담배	붕초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간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빨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주멍기
205227	재떨이	제떨이
205228	벼루	베루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뚜껍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발돋은접시
205237	대접	국사발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제기
205240	간종지	간종제기
205241	숟가락	숯꾸락
205242	젓가락	저뵈
205243	수저통	젯통
205244	설거지	설르다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차반지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울줄메기솥
205249	바가지	물박
205250	박	콧
205251	뒤옹박	곰박
205252	조롱박	조롱박
205253	쪽박	콧박세기
205254	양푼	남박세기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망데기, 간데기,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뚝배기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창
205260	시룻번	시리고막 막을 거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술박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룻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숨대
205269	제주조릿대	제주조릿대
205270	굳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축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빠내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굴다
205281	숫돌	신들, 신평
205282	날카롭다	늦슬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번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
205289	떡살	분, 뿐
205290	밀판	돔베
205291	밀개	마개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코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고소리쟁

205293	빚다	딴다
205294	풍로	풍로
205295	삼발이	세발손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신작로, 대로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쳐져지다, 헐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담집
206010	오막살이	초막살이
206011	외채	훈가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간, 손천거리
206016	결채	정지거리
206017	짓다[作]	지스다, 지섬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안튀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이
206023	잃다[失]	여비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돛통시
206026	부출돌	드들팡
206026-1	부출	드들팡
206027	기척	그적
206028	맞서다[拮]	맞서다
206029	냄새	내
206030	맡다[臭]	마치다

206031	울담	우갓담
206032	울안	우갓안
206033	터알	우연, 안튀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도리판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피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가제
206043-1		풍채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광돌
206045	난간	테난간
206046	마루	삼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창곰
206048	마룻널	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바닥 절루는 거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귀, 방구석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안자리
206057	아랫목	밧자리
206058	천장	천아방
206059	닿다[觸]	밧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죽은구들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霈]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즈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비우다
206067	바람벽	빈지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오시리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간지
206073	도배	방블르기
206074	귀얄	술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찾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노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놔두다
206081	안뒤결	안튀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도당
206084	지붕물매	평상(~지르다), 각하(~지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대
206087	처마	집가제
206088	처맞기슬	지슬
206089	낙숫물	지슬물
206090	땃돌	지슬돌
206091	흙	흙
206092	진흙	춘흙, 춘흙
206093	찰흙	춘흙, 춘흙
206094	흙덩이	흙덩어리
206095	새벽	게백
206096	흙질	게백
206097	이기다[沓]	블르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목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פות지둥
206101	뿔기둥	입쟁이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지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모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보
206108	반자틀	천한반쌀
206109	귀틀	귀클, 마리귀클
206110	외(椗)	서슬
206111	인방	백선
206112	문설주	백선
206113	문곶도리	문지방대
206114	문얼굴	문얼굴
206115	문틀	문왁구
206116	문머리	문대방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달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좁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창꿈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미단이
206127	여단이	지계문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절기
206133	암톨쩌귀	암도절기
206134	수톨쩌귀	숫도절기
206135	문고리	문걸쇄

206136	배목	배목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개철이
206142	부수다[碎]	부삼다
206143	서랍	설합

연장

206144	툽	거두,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툽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ㄹ루
206149	자귀	자기
206150	옥자귀	흙베기
206151	노루발장도리	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빠루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덩드렁마개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흙베기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줄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흙손
206167	쇠흙손	쇠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고데판
206170	돌물레	호랭이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사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돌랭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긱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쟁기몽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깃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좁생이막대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버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벧톨레기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뚝

207009	옥보다	속았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벧밥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판이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판이
 207017 거웃 고랑
 207018 극쟁이 극쟁이
 207019 씨레 씨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손잡이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찍게발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몽둥이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씨레발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나루채

207020 번지 번지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곡팽이
 207023 파다[堀] 좇다
 207024 쇠스랑 쉼스렁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썸팽이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루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땀망텅이
 207034 꿈게 꼬슬퀴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돌번지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완류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가게
 207043 호미 골갱이

207044	홍아기	아웨기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폼삿	폼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폼앗이	수눔값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조륙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수메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낫쟁기
207052-4	낫늘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늘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등심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늘

207053	베다[刈]	비엄다
207054	새 꽤기	새 꿰기
207055	새끼	배, 노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꼴
207059	끈	썰
207060	참바(바[索])	줄대
207061	짐바	깨
207062	질빵	배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돌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궁글막대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등우리막대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경거리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경거리끈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경거리막대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배땃끈

207067 명에

207067-1	목대	명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명에접게
207067-2	붓줄	명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줄대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태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비겨미

207068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발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세장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탱이
207068-5	지게꼬리 (밀삐)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친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작대기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발채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익엄다
207075	개상	보리클
207076	벼훑이	산딴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딴클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방울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 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톨레

207085	여물	출
207086	쭈정이	지미진거
207087	풀	늘풀
207088	풀밭	출왓
207089	풀꾼	낫꾼, 출비는 놉
207090	풀단	출단
207091	신다[載]	식끄다
207092	마차	바레기
207093	복두	배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방석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걸음체
207099	끓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합체
207101	챗바퀴	책망
207102	챗다리	챗다리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푼다
207107	드리다	불림질허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선제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싸리
207112	되	뒹
207113	관되	관뒹
207114	사삿되	뒹악세기
207115	말[斗]	말, 대승
207115-1	통말	드그리
207115-2	모말	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목근데
207120	떡둥구미	멩텅이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꿇다[引]	둥기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넵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노넛기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불긋허다
207133	밟다	블부다
207134	까끄라기	꼬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슬오리
207139	맥주보리	두줄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폐보진것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보비다, 보벼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칙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볍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곤쌀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정고래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멧돌짜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쪽	윗돌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쪽	창돌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멧돌고망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지둥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체경, 차경

207165	멧방석	정고랫방석
207166	매함지	고랫도고리
207167	풀멧돌	정고래
207168	풀매	풀매
207169	썰기	세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뚫골방에
207171-1		셋골방에
207171-2		
207171-3		
207172	방아확	방에 흑, 들 흑
207173	방앗간	기겻방
207174	븨비다	물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고래
207178	방앗돌	멧돌
207179	연자멧간	물고랑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긱공이	방엿기
207182	뺩다	골다
207183	뉘	머을
207184	고르다[擇]	일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팔월메
207190	콩깍지	콩깍제기

207191	콩짚	콩낭뎡이
207192	꼬투리	깍제기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두붓물
207195	뜨겁다	떼블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찌꺼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들깨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지름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수룽허다
207210	메밀	모물
207211	메밀밭	모물밭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모물체
207214	메밀국수	모물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물저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칼조베기
207217	메밀떡	모물떡, 모물정기
207218	메밀묵	모물묵, 청묵(모물쌀로 만든 묵)
207219	무르다[軟]	익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빠떼기
207222	찌다[蒸]	솨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대산이
207225-1	마늘대	봉우지
207225-2	마늘밀	콧대산이

207225-3	마늘중	소들겅이
207226	마늘장아찌	마늘지
207227	파	꽤마늘
207227-1	과밀동	꽤마늘빨리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쌈
207230	시래기	쓰래기
207231	장다리무	씨세울늪삐
207232	열무	춤물
207233	배추	배치
207234	고갱이(배추)	배치속
207235	나물	습키
207236	채소	늪물
207237	겉대	쌈
207238	다듬다	윤거 툷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죽
207240-1	옥수수	강낭
207241	수수	사당대죽
207242	쌀수수	쌀수수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남뎡이

어업

207246	잠녀(潛女)	*
207247	물길	*
207248	물웃	*
207249	물안경[水鏡]	*
207249-1		*
207249-2		*
207250	테왁	*
207251	망사리	*
207252	비창	*
207253	작살	*
207254	어부	*
207255	뜰채	*

207256	그물	*
207257	돛단배	*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줄	*
207274	돛	*
207275	돛가지	*
207276	돛줄	*
207277	돛들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

기타

207285	이웃	우알녀
207286	더불다[與]	의중다
207287	마을	막을
207288	고을[村]	모간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올르다
207292	아랫마을	알드르
207293	마을가다	막슬가다
207294	밤마을	밤막슬
207295	가게	전방, 점빵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푼푼허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느리는 것
207304	우수리	주리
207305	받다[受]	맡다
207306	나머지	남은 것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간, 불미간
207313	풀무	풍구
207314	손풀무	손풀무
207315	모루	모루
207316	모루채	메
207317	갓양태(양태)	전
207318	망건	망
207319	망건골	본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모잡다
207322	사냥	사능
207323	사냥개	사능개
207324	사냥꾼	사능바치
207325	쏘다[射]	마치다
207326	꿍잡이	꿍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아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두개
208001-3	(3)	세개
208001-4	(4)	네개
2080015-	(5)	다섯
208001-6	(6)	요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요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수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여든, 요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닷 말
208005-6	(6/엿)	웃 돼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뒤 개	흔두 돼	흔뒤 말
208006-2	(2-3/두세)	서너 개	서너 돼	뒤서너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 개	두서너녀 돼	두서너네 말
208006-4	(3-4/서너)	서너네 개	서너녀 돼	서너네 말
208006-5	(4-5/네댓)	댓 개	너다섯 돼	네다섯 말
208006-6	(5-6/대여섯)	대요섯 개	대요섯 돼	대웃 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 개	예실곱 돼	예실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요남은 개	일구요답 돼	일구요답 말
208006-9	(8-9/여덟아홉)	흔 아홉 개	요다아홉 돼	요다아홉 말

208007 여남은 요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재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 자
208014-2	명주	마흔 자
208014-3	광목	통
208014-4	베	스물두 자

208015 마지기(평) 혼말지기
 208015-1 150~160평
 208016 못 단
 208017 묶다[束] 묶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단
 208020 조짐 쟁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208021-2	조(이삭 있음)	옷단
208021-3	콩	옷단
208021-4	밭벼	열요답단~스무단
208021-5	꿀	서른단
208021-6	띠	스무단
208021-7	각단	서른단
208021-8	어욱	서른단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병덩이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궤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마리
208028-2		필
208029	축	축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쌍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결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굽
208036	뭇	바발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설암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봣뎃옷
209005	배넛머리	벳소곱머리
209006	돌	첫돌, 쳇돌
209007	새색시	새서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뽤께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감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게감다
209014	함	홍세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우시대반
209017	신부상	고진상
209018	휘다[椶]	멜라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여저사둔
209021-2	바깥사돈	남저사둔
209022	곁사돈	곁사둔
209023	상갓집	상난집
209024	수의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상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맹전(계란을 풀어서 글씨를 씀)
209031-2		맹전
209032	짚동	복신, 복심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
209034	조문하다	고견하다
209035	뒹자리	산터
209036	지관	지관
209037	패철	자우침, 좌우침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생여
209040	보장(寶帳)	보장
209041	계(契)	첩
209042	상두꾼	상뒤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장밭
209045	광중	괘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호충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산역
209053	마치다[終]	막끄다
209054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묘위전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테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적, 적갈
209064	제편	친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우짚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보내다
209070	몫	찍세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명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설장구
209080	팽과리	쟁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뜸
209085	추석	팔월명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굿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
210008	명두	맹뒤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지전슬다
210011	사르다[燒]	스르다
210012	살(煞)	새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깨
210017	어둑서니	헛게
210018	무섭다	으스스허다, 과짜사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올레코시, 문전코시
210021	고수레	코시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들르, 드룻땅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방엿불
211004	불다[點火]	불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넷가	넷에염
211007	물가	내에염, 물에염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넘다
211010	낭떠러지	설덕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머들
211016	갈림길	커리
211017	묻다[問]	들어보다
211018	비탈길	구진길
211019	벼랑길	굴렁지
211020	내리막길	거병지
211021	오르막길	오룻길
211022	길가	질옆
211023	큰길	신작로
211024	분화구	분화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버덕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흙텡이
211032	고랑창	골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쓰러지다, 씨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뎃사지다
211036	천상수	굴른물
211037	숲	낭밭, 곳밭
211038	성(城)	성담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곳, 곳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들브름
211043	깊다[深]	짚다, 지프다
211044	얕다[淺]	얕다,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래판, 모살판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그시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굽뉘	굽뉘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잔물결
211059	무수기	무수기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	*
211059-2	두무날	*	*
211059-3	서무날	*	*
211059-4	너무날	*	*
211059-5	다섯무날	*	*
211059-6	여섯무날	*	*
211059-7	일곱무날	*	*
211059-8	여덏무날	*	*
211059-9	아홏무날	*	*
211059-10	열무날	*	*
211059-11	열한무날	*	*
211059-12	열두무날	*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첸기	*	*
211059-15	첸기	*	*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곶
211062	물밀다	물밀다
211063	밀물	싸는물
211064	물써다	물싸다, 물쌌다
211065	썰물	드는물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래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정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동세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벧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낙,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낙고슴
211083	초저녁	이룬저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퍼렁허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린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갓

211095	초승달	초승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그믐달
211098	햇무리	햇무리
211099	무지개	항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무지개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새철, 새철드는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하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엿새, 엿췌
211110-7	이레	일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요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닷세
211113	대엿새	대엿세, 대웃췌
211114	지나다[過]	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상달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그르해
211124	재작년	그그르해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듯뜻허다, 딱뜻허다
211128	땡볕	독헌벧, 독헌 벧살벧
211129	가을볕	가을벧
211130	양지받이	해차귀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장막
211134	나무그늘	남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바람위
211137-2	바람아래	바람아래
211138	맞바람	맞바람
211139	바람받이	브름발른디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도갱이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들브름
211144	서풍	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즈눌다
211148	빗줄기	빗주제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마
211149-2	가을장마	가을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주젯비
211153	가랑비	ᄃ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산두룩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ᄃ물다
211158	가뭇	ᄃ뭇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퍼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펼럭펼럭 오는 눈
211168	오다[來]	오람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밤눈
211171	내리다[降]	오람다, 느림다
211172	희다	허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아귀즈삼다
211175	고드름	동긱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고스꺼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끄띠, 저꿋디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밝다
211189	어둡다[暗]	왁왁허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느단쪽
211192	밀	알
211193	흐르다[流]	느리다
211194	안[內]	안네
211195	밖	베끄띠, 베끗디
211196	구석	귀역,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가
211199	가장자리	바위, 마이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고짜허다, 꼬짜허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울창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부랭이
212005	쇠소	식쉐
212006	불까다	불블루다
212007	불알	부살이
212008	황소	맛갈쉐
212009	얼룩소	식쉐
212010	부리망	쉐망울
212011	쇠고삐	쉐늑대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벙작쉐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릅(1)	흙승	흙승
212015-2	이듭/두습(2)	다간	다간
212105-3	사릅(3)	사릅	사릅
212015-4	나릅(4)	나릅	나릅
212015-5	다습(5)	다습	나습
212015-6	여습(6)	요습	요습
212015-7	이릅(7)	일굽	일굽
212015-8	여듭(8)	요듭설(슬)	요듭설(슬)
212015-9	아습/구릅(9)	아흙설(슬)	아흙설(슬)
212015-10	열릅/담불(10)	열설(슬)	열설(슬)

212016	작두	작도
212017	쇠죽	쇄죽
212018	구유	도고리, 쇠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메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따말
212028	얼룩말	월라말
212029	유마	유마
212030	백마	흰말
212031	고라말	고라말
212032	곰배말	곰배
212033	조랑말	몽생이(작은 말 포함)
212034	달리다[走]	들다, 들압다
212035	마소	마소
212036	글쟁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늘대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짓다[吠]	짓구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숫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령이
212048	비루떡다	도령이올랐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고녕이
212051	수고양이	숫고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쟁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닭	암득
212056	수닭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턱
212058	산떡	산떡
212059	닭의어리	득그리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붉운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비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세기
212066	수돼지	숫도새기
212067	암돼지	암도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둥이	생둥이
212073	새끼 돼지	도세기 새끼(금방 난 돼지), 자릿도세기(두어 달 자란 돼지)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뚝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쟁이
212078	굽다[炙]	구엎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들치	지지랭이
212081-1	들암소	지지랭이
212081-2	들암말	지지랭이
212081-3	들암돼지	지지랭이
212081-4	들암캐	지지랭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고조리
212090	취파리	논다리
212091	쇠파리	봉앵이
212092	똥파리	취포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구벌레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너
212099-1	서캐	씨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
212102	회충	회충
212103	거머리	거멀
212104	바구미	남쉐
212105	콩바구미	콩바구미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이
212108	그리마	돈버렁이
212109	쥐며느리	쥐며느리
212110	노래기	노래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권시
212113	진딧물내리다	권시일다
212114	하루살이	논다리
212115	눈에놀이	쉐프리
212116	달팽이	들벥이
212117	민달팽이	웃버신들 벥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물게염지 [여왕개미:장상게염지]
212121	불개미	게염지
212122	메뚜기	물말축
212123	방아깨비	상등말축
212124	여치	공쟁이
212125	사마귀[螳螂]	방앵이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 모물공쟁이
212127	풍뎅이	둑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떠러밭갈쉐
212129	무당벌레	무당벌레
212130	쇠똥구리	쉐똥버렁이
212131	딱정벌레	딱정벌레
212132	집게벌레	잡제기, 잡췌기
212133	하늘소	하늘쉐
212134	노린재	노린제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하늘밭갈쉐
212139	잠자리	물자리, 물제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물제
212141	장수잠자리	물제
212141-1		
212142	매미	제

212143	매미허물	제붓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제
212145	쓰르라미	פות제
212145-1	매미종류 추가	코삭제, 스랑제
212146	소금쟁이	물장우리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왕벌
212153	말벌	사상벌
212154	붓다[腫]	부섯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드기 새끼	진독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송충버렁이
212157	개구리	가게비
212158	올챙이	강베룩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미, 뱀이
212161-1	뱀띠	베엄헤치
212161-2	뱀허물	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칼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집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챙이

212172	값다	싸멧짓 허다
212173	쥐구멍	헝이고냥
212174	박쥐	득랍쥐
212175	다람쥐	득랍쥐
212176	오소리	오로
212176-1	오소리 굴	오로코명
212177	지달(이)	오로
212178	지달피	오로가죽, 오로거죽
212179	멧돼지	산토세기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납혜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혜치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꼬랑지
212187	깃[羽]	터럭
212188	새총	느레기총
212189	새가슴	자자진 가슴, 저지름허다
212190	참새	밥주리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메천이
212194	참매	메천이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남도레기
212199	빼꾸기	빼꿈새
212200	종달새	종다리
212201	올빼미	올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좌치
212204	장끼	웅치
212205	꿩알	꿩득세기

212206	꺼병이	평비에기
212207	두루미	올랭이
212208	기러기	그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고등
212211	개울타리고등	츄고메기
212212	명주고등	명주고등
212213	눈알고등	문다드레기
212214	밤고등	밤고등
212215	팽이고등	팽이고등
212216	각시고등	보말
212217	두드럭고등	두드럭고등
212218	대수리	대수리
212219	타래고등	타래고등
212220	대롱뿔고등	대롱뿔고등
212221	제주개오지	제주개오지
212222	애기삿갓조개	벨망
212223	거북손	대소살
212224	따개비	따개비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212226	진주담치	진주담치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큰 소	민둥구쟁기
212228	전복	조개
212228-1		
212228-2		
212229	전복갑	조개껍질
212230	오분자기	조개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바위게
212233	부채게	부채게
212234	엽낭게	엽낭게
212235	참게	참쟁이
212236	꽃게	쟁이

212237	소라게	게들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계	그물무늬금계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장구	사위
212241	말미잘	물문저리
212242	성게	귀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군소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수세미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해파리
212249	낙지	뭉게
212250	문어	뭉게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생선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구지다, 굶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고리다,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페쓰다
212261	생선(生鮮)	퀴기
212262	미끼	니깎
212263	갯지렁이	물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낙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러미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리멸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풀갈치
212279	베도라치	베도라치
212280	말뚝망둑어	말뚝망둥어
212281	별망둑	별망둑
212282	매통이	매통이
212283	고생놀래기	고생놀래기
212284	용치놀래기	용치노래기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실놀래기
212287	옥돔	생성
212288	흑돔	흑돔
212289	돌돔	감은돔
212290	감성돔	감성돔
212291	벙에돔	벙에돔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북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렉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쭈기미
212307	독가시치	따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방어
212310	상어	상에, 빗계
212311	가래상어	고래상어
212312	개상어	개상어
212313	팽이상어	빗계새끼
212314	귀상어	귀상어
212315	돌묵상어	돌묵상어
212316	수염상어	수염상어
212317	두툽상어	두툽상어
212318	별상어	별상어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수웨기
212321	쥐돔	쥐돔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흑산호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대우리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풀	미우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크다
213009	빨기	뺑이
213010	사초	사초
213011	천일사초	천일사초
213012	김의털	김의털
213013	쇠무릎	모작풀, 우술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좁제완지
213016	조개풀	조개풀
213017	방동사니	쉐터럭풀

213018	마디풀	미디풀
213019	솔새	지장풀
213020	개솔새	개솔새
213021	뚝새풀	뚝새풀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원추리
213024	메꽃	메마꿀
213025	갯메꽃	메마꿀
213026	비름	비נם
213027	쇠비름	쇠비נם
213028	개비름	개비נם
213029	참비름	비נם
213030	땅빈대	고름풀
213031	애기땅빈대	고름풀
213032	평의밥	평의밥
213033	여우구슬	들감낭
213034	질경이	배채기
213035	쑥	쑥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쑥떡	쑥떡
213038	토끼풀	개자리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방울새풀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생이꽃
213045	영경귀	소행이
213046	췌기풀	췌기풀
213047	수크령	수쿠령
213048	망초	천상풀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함박쿨
213051	깨풀	헤바레기
213052	박조가리나물	박조가리나물
213053	파리	하늘푸께, 하늘부께
213054	땅파리	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내
213056	도깨비바늘	도깨비바늘
213057	도꼬마리	개범블레
213058	모시풀	모세풀
213059	왕모시풀	진썸
213060	천남성	초남상
213061	맥문동	난초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꽃레기
213064	차풀	자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물오줌낭
213067	하눌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눌타리	하눌레기
213069	부처손	폰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개수웨
213071	닭의장풀	고니풀
213072	배풍등	배풍등
213073	휩	꼭
213074	휩덩굴	꼭줄
213075	휩뿌리	꼭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췌정당
213077	노박덩굴	뿐지낭
213078	새박덩굴	새박덩굴
213079	호자덩굴	호자덩굴
213080	한삼덩굴	췌메게
213081	함바기	함바기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줄
213084	인동	운동고장
213085	멀꿀	멍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랑
213088	사위질빵	사위질빵
213089	등대풀	등두쿨
213090	수영(승아)	개술, 생강풀
213091	애기수영	개술, 생강풀

213092	싸리	싸리
213093	땀싸리	싸리
213094	명아주	명아주
213095	갓	갓늻물
213096	달래	폴마눔
213097	씀바귀	수웨
213098	고들빼기	수웨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개똥쭉
213101	꿀풀	쉐스랑꽃
213102	마삭줄	쉐스렁
213103	갯기름나물	갯기름나물
213104	구릿대	구릿대
213105	으아리	저슬살이, 저슬사리
213106	익모초	인문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뉴질랜드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갯강활
213112	부들	몽쿨
213113	개구리밥	개구리밥
213114	줄	줄
213115	마름	물마름
213116	싱경이	(바다식물?) 밀랑, 등득쿨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동메기, 꽃동메기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눔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붓꽃
213126	참나리	참나리

213127	맨드라미	만두레기, 만디꽃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전기꽃, 정기꽃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쭉부쟁이
213133	수국	도체비꽃
213134	산수국	도체비꽃
213135	광대나물	광대나물
213136	제비꽃	물싸움고장
213137	복수초	복수초
213138	수선화	마농꽃
213139	선인장	백년초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대목
213144	가지	가쟁이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잎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뽕감	지들낭
213154	마디다	안 붓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허다
213161	털구슬나무	몽쿠술낭

213162	버드나무	늘버들
213163	녹나무	녹나무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엄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벚나무	사꾸라낭
213170	왕벚나무	사꾸라낭
213171	사옥	사오기낭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촉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비목나무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세닥낭
213180	굴나무	미짱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나스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감탕나무
213191	거망웃나무	북칠낭
213192	팥팥나무	팥팥낭
213193	노린재나무	노린재나무
213194	때죽나무	죽낭
213195	마가목	마가목
213196	말채나무	말채나무
213197	느릅나무	느릅나무
213198	두릅나무	들급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층층나무
213204	닥나무	닥나무
213205	돈나무	돈나무
213206	무환자나무	무환자나무
213207	쥐똥나무	쥐똥나무
213208	섬쥐똥나무	섬쥐똥나무
213209	이팝나무	이팝나무
213210	가시나무	참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북가시낭
213212	종가시나무	종가시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나무
213214	돌가시나무	돌가시나무
213215	제주가시나무	제주가시나무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덜꿍나무
213218	사스레피나무	까끄레기낭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눈벨레기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때
213223	중대가리나무	중대가리나무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
213225	참식나무	신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실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굴피낭
213230	후박나무	누룩낭
213231	풍개나무	풍개나무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나무
213234	떡갈나무	갈낭
213235	상수리나무	츠낭

213236	참나무	츠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국수나무
213240	사철나무	사철낭
213241	겨우살이	겨울살이
213242	모람	모람, 모람줄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베기낭
213246	붉나무	붉나무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팍수

열매

213249	과일	여름
213250	깍질	거죽
213251	까다	베끼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염지탈
213255	멍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복분자탈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감은탈
213261	장딸기	줄탈, 함박탈
213262	개암	가시낭여름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등당멀리
213266	산머루	멀리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루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개드레
213272	보리수나무	블레낭
213273	보리수	블레
213274	보리장나무	밀블레, 밀빨레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메실
213278	매화나무	메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쫄락지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풀감, 풀깡
213288	청미래덩굴	멩게낭
213289	멩감	멩게
213290	찔레나무	독고리낭
213291	영실	독고리여름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베낭
213295	배	베
213296	돌배	돌베
213297	팔배나무	팔배나무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저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셋꺼플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줄, 고녕이똥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넓미역
213310	미역쇠	메역썰, 돌메역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파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너페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몰망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가시리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서슬(까막살)
213325	진두발	진두발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갈래곰보
213328	풀가사리	가시리